연구보고서 R682 | 2012. 12.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1/2차연도)

정 은 미 연 구 위 원
마 상 진 연 구 위 원
민 자 혜 초청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정 은 미	연 구 위 원	연구총괄, 제1~7장 집필
마 상 진	연 구 위 원	제3장 4절, 제4장 3절 집필
민 자 혜	초 청 연 구 원	제3장 6절 집필, 자료 수집 및 분석

머 리 말

오늘날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의 주요 인력일 뿐만 아니라 지역 전통식품의 손맛을 간직한 기능보유자이고, 안전한 농식품 생산에 신뢰가 기대되는 경영인으로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생명 보살핌' 역할에서 비롯된 농산물 가공이나 농업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알리는 체험 및 교육농장의 운영은 여성농업인에게 경쟁력 있는 분야이고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농업 노동시간 증가와 경영 참여의 정도가 증대하는 경향은 농업의 노동인력뿐만 아니라 경영인력으로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실태 조사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생활과 일에 관계된 제반 조건을 살펴보고 경영인으로 활동 가능성과 잠재 능력을 도출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의 경영인력 육성화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2년에 걸쳐 진행될 이 연구는 1차년도에 농업부문과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사회 활동의 실태를 규명하여 여성농업인의 현재 위치를 검토하고 농업부문과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여성농업인단체의 임직원과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여성농업인, 해외 사례 연구에 도움을 주신 프랑스·이탈리아·일본의 연구자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실태를 올바로 이해하고 여성농업인이 경영인으로 성장에 필요한 정책 개발에 유익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요 약

연구 배경

오늘날,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농업의 주생산자, 경영자, 마케터, 농외소득 경제활동 참여자, 농산물 판매 및 경영관리자 등 농업에서 여성의 활동분야가 증가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 여성농업인이 종사하는 노동시간 증가와 경영 참여의 정도가 증대하는 경향은 농업에서 노동인력뿐만 아니라 경영인력으로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 나타낸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 실태 조사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생활과 일에 관계된 제반 조건을 살펴보고, 경영인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과 그들의 요구 내용을 도출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의 경영인력 육성화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방법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마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조사대상(모집단)은 농촌(읍면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이 여성농업인의 경영인력화에 있기 때문이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 내용에 대해 개별면접 조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추출은 권역별 농촌 유형(도시근교, 평야, 산간)과 재배품목, 경영규모,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할당표집하여 조사하였고 조사기간은 2012년 7월 20일~8월 8일이다. 마을 조사는 연구진이 직접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전국 조사와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마을은 개별 농가의 재배품목과 영농규모가 상이함에 따라 마을별 공통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농한기 기간을 객관적인 지표로 보고 3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는 경제·사회 구조와 관련이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개인주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경향이 심화되었고, 농업에는 가족 구성원이 각자 농업의 세부 분야에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협업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농업이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으로 영역이 확대되면서 여성농업인은 1차 산업의 보조자에서 2·3차 산업에 경영자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에서 농업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사일을 100이라 할 때 여성농업인이 농사일을 담당하는 비중은 20～30대를 제외하고 50% 이상인 비중이 높다. 영농규모가 크고 시설재배 비중이 높을수록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참여 비중이 높다. 또한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60%는 향후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40대의 농외취업 의향이 높고, 직거래와 농산물 가공에 20～30대의 17%, 농촌체험·관광사업에 40대의 9.6%가 의향이 있다.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촌체험·교육농장, 가공사업에 의향이 높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체험·교육농장 사업은 대규모 농가의 의향이 오히려 낮은 반면, 중소규모라도 농산물 가공은 10% 내외의 의향이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성농업인을 경영인력과 노동인력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여성농업인 CEO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농업인이 보유한 잠재능력이 오랜 기간 교육과 정보교류를 통해 숙성된 상태에서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발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경영인력화는 정해진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잠재능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가 관건이다.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업노동 종사 비중이 크므로 경영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적을 수 있고, 소규모이지만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살려 내실 있게 경영체를 운영하는 여성 CEO도 있다. 결국 여성농업인의 경영인력화란 영농규모의 차이보다 자신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경영의지를 갖고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ABSTRACT

A Study on Plans to Raise the Economic and Social Roles of the Women Farmers(Year 1 of 2)

Background of Research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political task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women farmers and develop their management capability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he local communities, by closely examining the current conditions of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he local communities in which they participate.

These days, the women farmers' particip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has increased, as main producers, managers, and non-farming income earners, agricultural products salespeople, and farming CEOs. The fact that the hours of labor by women farmers and the degree of their participation in agricultural management have increased signifies that the women farmers' role as management personnel as well as labor force has increased.

Method of Research

A questionnaire survey and a "village survey"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actual state of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of women farmers. The target audience of the questionnaire survey were women farmers who reside in rural areas (Eup/Myeon) and who are aged 19 years or more and less than 65 years. This is becau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lies on fostering women farmers as business managers. A total of 702 women farmers were sampled and the sampling has a reliability of 95% with a maximum sampling error of ± 3.70%. The survey, which was entrusted to Research & Research, Inc., was conducted through face-to-face interviewing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ampling was allocated to different regions (Gyeonggi/Gangwon, Chungcheong, Jeolla, Gyeongsang) for a target audience of 175 women farmers per region, and it was conducted in consid-

eration of rural village types (suburban, plains, mountainous), cultivated items, farming scale, and life cycle. The survey period was from July 20, 2012 to August 8, 2012. In the case of the village survey, the survey was conducted directly by the researchers using the same questionnaire as the one used in the nationwide survey. Since it is difficult to find a common ground for each village as cultivated items and farming scale vary among farm households, three villages were selecte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gricultural off-season is an objective indicator.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When the entire farming process from production to sales is assumed as 100%, the women farmers, except those in their 20s and 30s, take care of 50% or more of it. It shows that the larger the farming scale and the higher the facility farming rate, the more the women farmers participate in farming.

Change in the women farmers' roles is related to the socio-economic structure. Through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the society in general has deepened the tendency of pursuing the individualism and equality. In agriculture in particular, this family relationship has been converted to a collaborative relationship in which each member's role in farming is decided depending on his or her specialty and talent and the family perform their roles in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s agriculture expands its scope from the primary industry into the secondary and the tertiary industries, the women farmers have emerged as the principal party of the secondary and the tertiary industries instead of remaining as the assisting party of the primary industry. As the feminine qualities such as care and consideration for others are the basic elements that ensure competitiveness of the secondary and the tertiary industries which are the processing and the service industries, the women farmers have more opportunities to exert their qualities are CEO. To provide such opportunities to the women farmers is the focus of future training for the women farmers.

Researchers: Eun-Mee Jeong, Sang-Jin Ma, Ja-Hye Min
Research period: 2012. 1. - 2012. 10.
E-mail address: jeongem@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4
3. 선행 연구 검토 ····· 6
4. 연구 범위 및 방법 ····· 20

제2장 여성농업인의 시대적 변화와 정책 개요

1. 여성농업인 관련 지표의 변화 ····· 29
2. 시대별 여성농업인의 변화 ····· 37
3. 여성농업인 정책의 개요 ····· 54

제3장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실태

1.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과 조사 개요 ····· 61
2.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 68
3.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여건과 의식 ····· 80
4. 여성농업인 경제활동의 관련 요인 분석 ····· 91
5. 여성농업인 CEO의 경제·사회적 활동 ····· 101
6.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기여도 ····· 108

제4장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실태

1. 여성농업인 사회활동의 개요 ····· 123
2. 사회활동 영역별 여성농업인의 참여 현황 ····· 128
3.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관련 요인 분석 ····· 137

제5장 해외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활동

1.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실태 ····· 143
2. 이탈리아 여성농업인의 실태 ····· 148
3. 일본 여성농업인의 실태 ····· 153
4. 해외 여성농업인 실태의 시사점 ····· 156

제6장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과제

1.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여성농업인의 역할 ····· 159
2.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확대에 따른 과제 ····· 170
3. 경영인력으로서 여성농업인 육성의 과제 ····· 175

제7장 요약 및 결론

부록 1. 여성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 193
부록 2. 여성농업인 CEO 사례 ····· 216
부록 3. 여성농업인의 경제 · 사회적 활동 참여실태 조사지 ····· 231

참고 문헌 ····· 239

표 차 례

제1장

표 1- 1. 연차별 추진 내용 ····· 5
표 1- 2. 여성농업인의 역할 유형 및 인정기준 ····· 9
표 1- 3.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지위 분류 ····· 9
표 1- 4. 여성농업인의 경영 참여 영역과 지표 ····· 12
표 1- 5. 여성농업인의 역할 유형 인식별 요구사항과 어려운 점 ··· 12
표 1- 6. 여성농업인의 역할 유형 및 인정기준 ····· 13
표 1- 7. 마을 조사의 지역별 개요 ····· 24
표 1- 8. 국내외 위탁연구 추진 상황 ····· 26

제2장

표 2- 1. 농가경영주 연령별 농가 및 평균 연령 ····· 33
표 2- 2. 농림업 취업자의 성별 구성과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 34
표 2- 3. 농가의 영농 형태 변화 ····· 36
표 2- 4. 영농형태별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비중 ····· 36
표 2- 5. 시대별 여성농업인에 대한 용어 및 범주 ····· 37
표 2- 6. 시대별 농업주체에 관한 정책변화 ····· 38
표 2- 7. 1960년 농촌여성 조직 개요 ····· 40
표 2- 8. 농촌여성 조직의 활동내용 ····· 40
표 2- 9. 1980년대 새마을 부녀회 조직 현황 ····· 46
표 2-10. 1980년대 새마을부녀회 주요사업 ····· 46
표 2-11. 연도별 마을부녀회 주요활동 ····· 46
표 2-12. 1990년대 농업인 후계자 ····· 48
표 2-13. 1990년대 여성농업인 조직 개요 ····· 50
표 2-14. 여성농업인 조직 활동현황 ····· 50

표 2-15. 농업관련사업별 경영 농가수 ····· 54
표 2-16. 농업전문인력화를 위한 본인능력 개발(복수응답) ····· 56
표 2-17.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과제와 세부 내용 ····· 57

제3장

표 3- 1. 15세 이상 농가인구의 특성 ····· 62
표 3- 2. 여성의 취업 관련 의식 ····· 63
표 3- 3. 본 조사 여성농업인의 일반 특성 ····· 64
표 3- 4. 조사대상자의 가구 형태 ····· 65
표 3- 5. 농업소득 규모 ····· 67
표 3- 6. 농외소득 규모 ····· 67
표 3- 7.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및 농가소득 기여도 ····· 69
표 3- 8.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에 대한 마을 비교 ····· 69
표 3- 9. 농업활동 분야별 여성농업인의 관여 정도 ····· 70
표 3-10.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 참여 정도 ····· 72
표 3-11. 농업활동 참여가 낮은 이유 ····· 73
표 3-12. 여성농업인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참여율 ····· 74
표 3-13. 향후 하고 싶은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 77
표 3-14. 농외 소득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 ····· 78
표 3-15. 연간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수입 규모 ····· 78
표 3-16.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에 장애요인 ····· 80
표 3-17. 이동수단 소유 및 운전 여부 ····· 81
표 3-18. 시간 여유가 있다면 하고 싶은 일 ····· 83
표 3-19. 여성농업인 활동의 우선 순위 ····· 85
표 3-20. 최근 3년간 경제활동 관련 교육 참여 횟수 ····· 86
표 3-21. 마을별 최근 3년간 교육 참여 횟수 ····· 86
표 3-22. 향후 받고 싶은 교육 내용 ····· 87
표 3-23. 여성농업인 자신의 지위 인식 ····· 89

표 3-24. 농가소득 기여분과 적절한 보상 여부(마을 비교) ····· 89
표 3-25. 여성농업인의 자존감 수준 ····· 89
표 3-26. 분석에 사용된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 92
표 3-27.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참여 관련변인의 상관분석 ····· 94
표 3-28.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참여 관련변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95
표 3-29. 여성농업인의 2·3차 경제활동참여 변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 96
표 3-30.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참여 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상관분석 ·· 97
표 3-31.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참여 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 98
표 3-32.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참여 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100
표 3-33. 여성농업인 CEO의 유형과 특징 ····· 103
표 3-34. 여성농업인 CEO의 유형별 특징 ····· 106
표 3-35. 여성농업인이 인식하는 농업활동의 월별 기회비용 ····· 110
표 3-36. 여성농업인이 인식하는 사회활동의 월별 기회비용 ····· 110
표 3-37. A업체의 경제·사회적 비용편익 비교 ····· 118
표 3-38. C마을공동체 참여 여성농업인 소득 현황 ····· 120
표 3-39. C마을공동체의 꾸러미 개당 비용 소요 현황 ····· 121

제4장

표 4- 1. 여성농업인의 사회단체 참여 이유 ····· 125
표 4- 2.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의 장애요인 ····· 127
표 4- 3.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애로요인 ····· 127
표 4- 4. 최근 3년간 사회활동 관련 교육 참여 횟수 ····· 128
표 4- 5. 마을별 여성농업인의 여성농업인 단체 가입률 ····· 136
표 4- 6. 사회활동 참여 관련 변인에 대한 상관분석 ····· 139
표 4- 7. 사회활동 참여 관련 변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140

표 4- 8. 사회활동 참여 성과 관련 변인에 대한 상관분석 ····· 141
표 4- 9. 사회활동 참여 성과 관련 변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142

제5장

표 5- 1. 프랑스의 경작지 면적별·경제적 규모별 농가수 ····· 144
표 5- 2. EU 공통농업정책 중 구조정책의 내용 ····· 158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차별 연구 목적과 내용 ····· 5
그림 1-2. 연차별 연구 내용 ····· 6
그림 1-3. 여성농업인 연구의 분류 ····· 7
그림 1-4. 여성농업인의 범위 ····· 21

제2장

그림 2-1. 농업해체 소요기간과 농림어업 비중 ····· 30
그림 2-2. 농업생산성 지표와 농가경제 현황 ····· 31
그림 2-3. 연간 농산물판매금액별 농가 분포(2010년) ····· 31
그림 2-4. 농가인구의 연령별 인구수와 비중 ····· 32
그림 2-5. 농업에서 성별 노동투하량 변화 ····· 35
그림 2-6. 여성농업인육성 제3차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 60

제3장

그림 3-1.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규모 ····· 66
그림 3-2.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및 농가소득 기여도 ····· 68
그림 3-3. 품목별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 74
그림 3-4. 농업규모별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 74
그림 3-5. 향후 하고 싶은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 76
그림 3-6. 향후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 ····· 76
그림 3-7.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의 효과 ····· 79
그림 3-8.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에 장애요인 ····· 79
그림 3-9. 여성농업인 경제·사회 활동에 남편의 찬반 여부 ····· 82

그림 3-10. 여성농업인의 여가활동 ····· 83
그림 3-11. 여성농업인 활동의 우선 순위와 성별 분업 의식 ····· 84
그림 3-12. 여성농업인의 교육 수요 및 관심도 ····· 86
그림 3-13. 여성농업인 본인이 생각하는 농업인의 지위 ····· 88
그림 3-14.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 90
그림 3-15. 여성농업인의 직업 승계 의향 ····· 91
그림 3-16.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분석 모형 ····· 93
그림 3-17. 연령대별 여성농업인 활동에 대한 기회비용 분포 ····· 109
그림 3-18. 영농형태별 여성농업인 활동에 대한 기회비용 분포 ··· 111
그림 3-19. 영농규모별 여성농업인 활동에 대한 기회비용 분포 ··· 111
그림 3-20. 농한기간별 여성농업인 활동에 대한 기회비용 분포 ··· 112
그림 3-21. 지역경제 파급 효과의 분석 틀 ····· 113
그림 3-22. 사회적 투자회수의 개념적 원리 ····· 115
그림 3-23. A업체의 기업 활동 ····· 117

제4장

그림 4- 1. 각종 사회단체 참여 비교 ····· 124
그림 4- 2.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가입률 ····· 124
그림 4- 3.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만족도 및 참여 의향 ····· 125
그림 4- 4. 여성농업인의 사회단체 참여의 장애요인(중복응답) ···· 126
그림 4- 5. 여성농업인의 사회교육 참여 실태 ····· 128
그림 4- 6. 여성농업인의 마을단위 조직에 참여 정도 ····· 129
그림 4- 7. 여성농업인의 경제조직 참여 정도 ····· 133
그림 4- 8. 여성농업인의 이익단체 및 종교·사회단체 참여 정도 ·· 135
그림 4- 9. 여성농업인의 여성농업인단체 참여 정도 ····· 136
그림 4-10.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실태 분석 모형 ····· 138

제6장

그림 6-1.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 160
그림 6-2. 여성농업인의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의식 ① ····· 163
그림 6-3. 여성농업인의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의식 ② ····· 163
그림 6-4. 농촌 사회에서 경제·사회활동의 공간 구성 ····· 165
그림 6-5. 경제구조와 여성의 역할 변화 ····· 166
그림 6-6. 농가의 가족 및 일 관계의 변화 ····· 167
그림 6-7. 농업 변화와 여성농업인 역할의 확대 ····· 169
그림 6-8. 농업정책의 대상 ····· 173

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

농업 생산이 쌀 생산 위주에서 시설원예, 축산, 농수산물 가공 등으로 생산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여성농업인은 농업의 주생산자, 경영자, 마케터, 농외소득 경제활동 참여자, 농산물 판매 및 경영관리자 등 활동분야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WTO,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은 농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과제를 제기하며 농업·농촌의 환경 변화를 초래하는 동시에 여성농업인의 적극적 경제·사회적 활동을 유인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 스스로 경영주체임을 자각하고 농업·농촌 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활동하도록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입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날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향토산업의 기능보유자로서 1차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 및 판매와 여성의 속성인 생명 보살핌 능력으로 안전한 농식품 생산에 신뢰가 기대되는 생산자이다. 1사1촌운동 등 소비자와의 각종 교류나 농산물 직거래와 같은 판매사업에서 여성농업인이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는 곳은 교류의 지속성과 경제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선하고 더 안전한 농산물, 다양한 맛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강해질수록 소량다품목 농산물 또는 농가 가공식품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

공, 직판매장, 농촌관광 등에서 주체로 등장하는 여성농업인의 활동이다.

정부는 농업의 영역이 서비스 생산기능인 농촌관광, 직거래, 농가 소규모 가공산업 등으로 확대되면서,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해 2001년 「여성농업인육성법」을 제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정책은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교육기회 확대 및 우선 지원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우미 지원 확대 및 문화여건 개선, 도별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성과가 있다. 그러나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06~2010년)의 평가에서도 여성농업인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여성농업인 정책은 ①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 ②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농촌생활·문화·복지 등 보편적 복지와 농업경영에서 여성농업인의 자립성과 전문성, 경제성을 갖는 전문인력으로 육성을 돕는 생산적 복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편적 복지는 생활 환경, 보육 및 교육, 문화 등 낙후된 농촌지역 생활 개선으로 도시생활과 형평성을 갖추는 사안이므로 정책 지원이 결정되면 그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서 경영자로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단기간에 성과를 얻기 어렵고 각종 교육을 통해 실제 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의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지원 정책의 목적은 ①농업생산의 활성화를 통한 농가경제의 육성과 ②농촌지역 활성화를 통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에 여성농업인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소득을 얻고 생산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칼 폴라니(Karl Polanyi)가 말한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 경제 시스템은 사회의 여러 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자본주의 사회 성립으로 사회적 관계가 경제시스템 속에 매몰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1]이다.

한편,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은 경제적 동기와 개인적인 효과에

만 매몰되지 않고,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며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을 농촌사회에서 전문인력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활동에서 경영인력으로 활동한다는 의미이므로 사회활동에 대해서도 다면적으로 실태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이 갖는 역동성을 규명하고, 농업 및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일은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자신감과 가능성을 심어줄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능력 제고를 위한 기회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활용하여 여성농업인 정책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사회 경제·사회적 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제도, 관행 등을 비롯하여 여성농업인을 각종 활동에 참가하도록 하는 내외부의 요인을 찾아내는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하향식 농업정책보다 농업현장에서 주체적인 의향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의 주체적인 참여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활동을 저해하는 불평등 요소가 있다면 이를 제거하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1] "시장경제는 경제시스템 또는 생산시스템을 자동장치에 위탁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창조했다. 그로 인해 사회의 다른 여러 제도와 확실히 구별되는 경제영역이 탄생했다. 어떤 인간 집단도 생산장치가 기능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장치가 별개의 독립된 영역에 통합되고 사회의 나머지 부분은 이 영역에 의존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자립적인 영역도 그 기능을 제어할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규제되는데 그 결과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 전체의 생명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당연히 새롭게 등장한 인간집단은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이 되었다. '경제적 동기'가 그 세계의 최고로 군림하고 개인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시장에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경제적 동기'를 바탕으로 행동하도록 강요받는다." 칼 폴라니, 1975, 「大轉換」, 日本經濟新聞社. p.41.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활동에 대한 다면적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비롯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차년도(2012~2013년)에 걸쳐 진행될 본 연구에서, 1차년도는 현재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활동의 실태와 과제를 파악하여 여성농업인이 경제·사회적 활동에 경영인력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발굴한다. 여성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시간 증가와 경영참여의 폭이 증대하는 경향은 농업에서 노동인력으로서뿐만 아니라 경영인으로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 실태 조사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생활과 일에 관계된 제반 조건을 살펴보고, 경영인으로 육성할 대상과 그들의 요구 내용을 도출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의 경영인력 육성화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서 현재까지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 여성농업인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다. 둘째, 현재 농가단위 및 지역사회의 각종 경제·사회 활동에서 주체, 경영자, 리더로서 여성농업인이 참가하게 된 요인과 성과를 분석한다. 셋째,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현장에서 주인의식을 가진 주체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의향과 동향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넷째, 선진국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변화와 실태를 검토하여 여성농업인의 시대적 역할과 정책의 연관성을 도출하고 벤치마킹한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의 현재 위치를 검토하고 앞의 분석에서 나타난 과제를 정리하여 향후 농업과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차년도는 이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조직(행정, 여성농업인단체 등)의 사업과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조직의 역할을 포함하여 여성농업인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1-1. 연차별 연구 목적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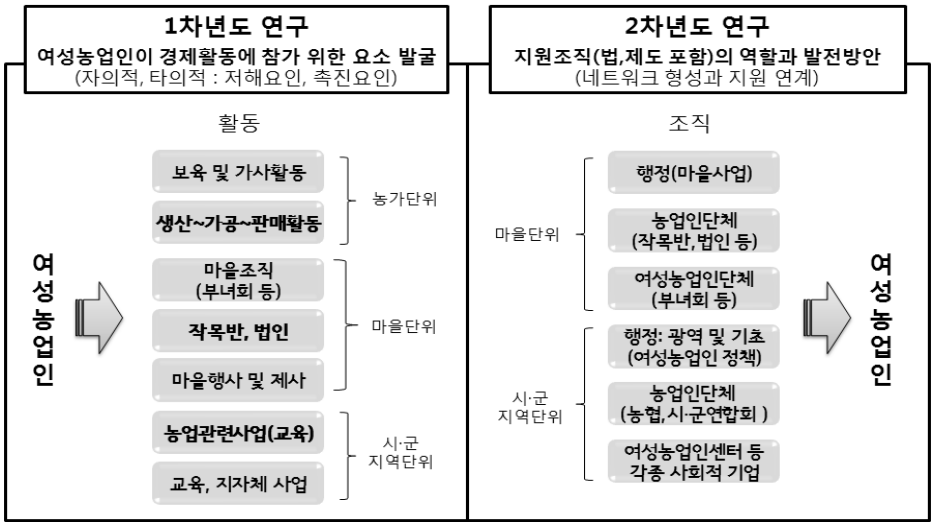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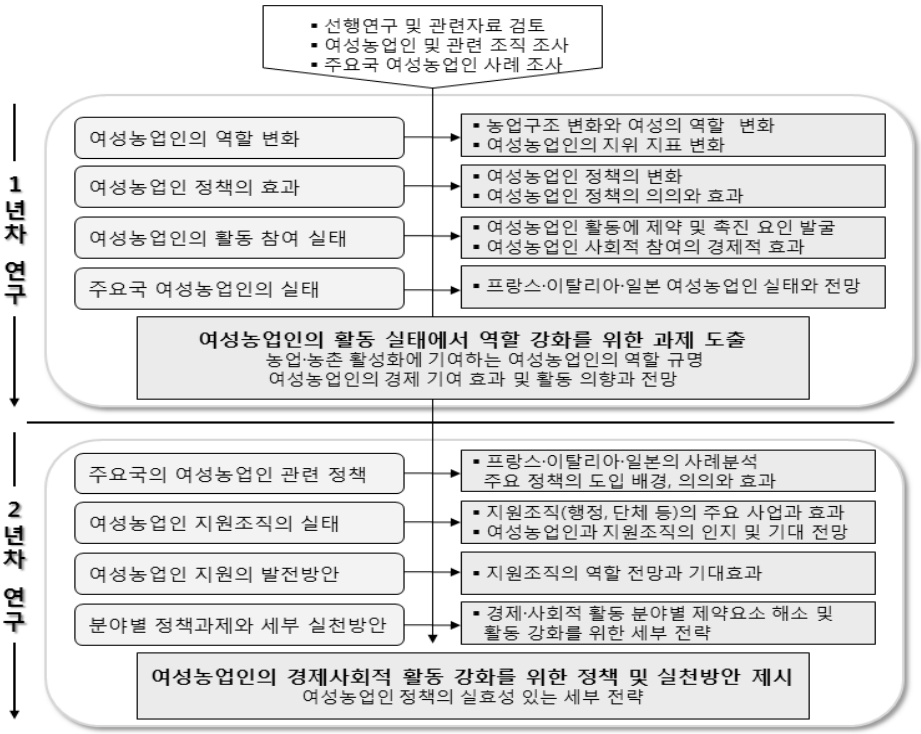


표 1-1. 연차별 추진 내용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	○ 농업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 ○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과 효과 분석 ○ 농가단위 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 실태 및 의향 ○ 마을 및 시·군 지역단위 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 실태 및 의향 ○ 주요국의 여성농업인 경제·사회적 역할 변화와 활동 현황 ○ 여성농업인 개인 관점에서 경제·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과제 도출
2차년도	○ 주요국의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법·제도 포함) ○ 여성농업인 지원조직(행정, 단체 등)의 사업 실태 등 현황 파악 - 지원조직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지 정도, 사업 영향력과 효과 분석 ○ 여성농업인 지원조직 관점에서 경제·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과제 도출 ○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분야별 정책 과제와 세부 실천방안

그림 1-2. 연차별 연구 내용



3. 선행 연구 검토

기존 여성농업인 관련 연구는 크게 다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농촌 사회에서 가족, 복지, 성평등 등 생활인으로서 접근, 둘째, 농업에 관계된 직업인으로서 법적 지위, 노동실태, 경영 및 조직, 직업교육 등 노동인력 및 경영인력 차원의 접근, 셋째, 중앙 및 광역·기초지자체의 정책 대상자로서의 접근 등이다.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는 직업인으로서 여성이

며, 크게 다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농업 및 농촌사회의 구조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여성의 사회신분 또는 위치에 관계되는 '역할론'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및 사회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과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둘째, 농업 및 농촌사회의 변화와 관련한 여성농업인의 경제 생활, 농업 노동시간 및 노동 가치, 생산기여도 등 경제성 분석, 농외 소득 활동 등의 실태에 관한 연구이다.

셋째, 농업에 여성 참여가 증가하며 나타난 여성 CEO, 여성농업인단체 등 농업경영과 조직, 여성농업인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에 관한 연구이다.

넷째, 여성농업인육성법 제정 이후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정보활용 등 전문인력화 방안과 교육 지원에 관한 연구이다.

그림 1-3. 여성농업인 연구의 분류

	<연구 분야>	<주요 연구 내용>
생활인으로서 여성	가족	: 가족 변화, 노동과 병행한 육아, 교육 현황
	복지	: 사회서비스 실태, 복지 정책, 복지 지표 등
	성평등	: 성 정체성, 의사결정권, 소유권
직업인으로서 여성	법적 지위	: 사회적 정체성-역할론, 가족경영협정
	노동실태	: 경제활동, 노동시간 및 가치, 생산 기여도 등
	경영 및 조직	: 여성CEO, 여성농업인단체, 활동 지원기관
	직업교육	: 전문인력화 교육
중앙·지자체의 정책	중앙정부	: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광역 및 기초 단체	: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자료: 필자 작성.

3.1. 여성농업인의 개념 및 역할에 관한 논의와 법적 지위

김경미(2005)는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의 문제와 대안에 관한 고찰'에서 여성농업인 용어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적으로 농업인의 개념을 다양화하고, '가족경영 협약'을 도입하여 협약 체결 농가에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며, 여성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일 경우 농지소유, 소득증명 없이 인정해주는 절차를 보완하도록 지적하였다.

김경미 외(2006)는 '여성의 농업참여 역할 확대에 따른 지원대책 연구'에서 선행연구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성농업인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과 농촌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개념 정의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제도적 지원과 지위부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생산자로서 여성에 대한 직업적 지위 인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보는 관점에 따라 법적·제도적 요소의 양과 질이 결정되고 법적·정책적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연결된다. 그러나 이상적인 수준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유형이 비교적 명백히 구분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업 참여도, 의사결정 참여도, 소유권,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사회활동 등 여러 기준이 복합하여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므로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외국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논의 진전으로 법적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역할이나 지위를 분류하는 기준은 여성이 수행하는 최우선 역할, 농작업 참여 정도와 책임감, 분업 정도, 의사결정 참여도 등을 비교 분석하여 몇 가지로 계층화한다.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의 역할 유형을 법적 성립을 위한 인정하는 기준과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역할 유형별 인식형태에 따른 요구사항 등 유형별 정책 지원 내용을 조사하였다(표 1-2).

표 1-2. 여성농업인의 역할 유형 및 인정기준

역할	성립요건	인정기준 및 방법
독립경영주	여성 단독 소유 및 경영 증명, 소유 및 경영권 여성주도 계약, 여성승계자(여성후계농업인, 부부 간 영농승계협약)	여성 명의 농지소유 증명서 영농 완전 이양 혹은 주도적 경영계약서 여성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공동(협업)경영주	소유 및 경영권 분배 협정	가족경영협정계약서 작성 신고
준 경영인	가족경영협정계약 없이 종사 공동기여 신고	종사기간, 작업분야 신고 시 근로가치 인정
임금근로자 (가족종사원)	자가 농가 근로계약 체결 농업기반 취약농가 종사자	자가 농가 근로계약서 고용노동증명서
농업보조자	농가거주(동거)	농가동거 증명 및 농업종사 확인서

자료: 김경미 외(2006) p.12.

표 1-3.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지위 분류

저자	여성농업인의 범위 및 역할	분류기준
정기환 (1997)	전문적 농업경영인, 보조적 영농종사자, 자영업 및 전문직, 전업주부, 농외취업 주부	농업 참여,기술 및 경영관리 수준, 기계 접근성, 의식 등
김종숙 (1992)	1)농업노동, 2)육아·의식주·생활관리 등	가치 생산과 노동력 재생산
김주숙 (1999)	농가전업주부, 자영업자, 농업생산 참여자, 농외취업 여성	직업적 분화에 대한 분석 필요성 지적
김영옥·김이선 (1999)	여성농업경영주, 농업경영주의 파트너, 농업노동자	농사일에 의사결정권, 농업종사 여부
김경미·고운미 (2005)	1)독립경영주, 2)준경영인, 3)협업·공동경영주, 4)농업보조자, 5)임금근로자	노동참여와 의사결정권, 사회적 지위
강혜정·마상진 (2007)	독립경영주, 공동경영주, 보조자, 임금취업자	경제활동의 지위

자료: 박대식·최경은(2008)에서 재인용함.

박대식·최경은(2008)은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분류하고 주요국의 여성농업인 지위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공동경영주의 개념과 기준을 제시하였다(표 1-3).

김경미 외(2006)의 연구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그에 따른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가 정리되고, 박대식·최경은(2008)의 연구에서 일부 보완이 되었다.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논문의 대다수가 이 연구를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성농업인에 대한 법적 지위는 농업보조자로서 역할인 '농업종사 확인서' 발급에 그치고 있다.

3.2.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경영 분석

정기환(1997)은 농가 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및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요인 등을 조사·분석하고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농기계 개발 및 보급, 전문 교육과정 설치·운영, 전문가 자격 인증제 도입, 지역사회 참여에 필요한 문화, 교양 취업교육 확충의 필요성 등 여성농업인의 전문 경영인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영옥·이병기(2000)는 '농업인구 구조변화와 여성경영주의 영농특성'에서 '1995년 농업총조사'를 이용하여 농촌여성의 역할 및 비중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보조인력으로 간주되어 농가 경영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성의 기여도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농촌여성이 농업전문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여성의 생산성과 공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농업환경의 변화에 맞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조사 내용은 농업종사형태, 영농인원, 경지규모, 영농형태, 벼농사의 위탁영농 여부와 농기계 보유 현황, 농산물판매 금액과 판매 방법, 영농 지속성 여부 등에 그치고 있다.

김수욱 외(2003)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현황 분석과 EU의 여성농업 인력 정책을 문헌 조사하여 여성농업인의 육성 방안을 모색하였다. 영농활동

의 조사 내용은 여성농업인 145명을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참여도와 어려움, 가정주부로서의 어려움, 이농에 대한 의사와 이유,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 16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의 전문경영인으로 육성 가능성과 작목, 연령대, 저해요인과 필요 교육내용 등이다. 여성인력 육성방안으로 1) 우수한 여성인력의 성별과 육성, 2) 교육내용의 다양화와 기회 확대, 3) 알맞은 작목 선택, 4) 가사노동 경감 방안 마련, 5) 농업경영능력 향상, 6) 교육수준 향상, 7) 신규 여성농업인력 유입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박민선(2003)은 '여성농업인 경영참여 측정을 위한 지표 설정 연구'에서 여성의 경영참여 지표로서 영농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정도를 제시하고 설정된 지표를 기준으로 실태 파악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경영참여를 경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모든 행위로서 성과참여, 재산참여, 의사결정 참여의 3가지 영역 외에 경영의 대표권을 추가하였다. 이 지표에 따라 농가의 전략적 의사결정 내용은 연간 영농계획, 농산물 식부계획, 연간 판매계획, 관리적 의사결정 내용은 노동력운용계획, 자금조달과 운용계획, 농지의 임차 및 구입, 수입과 지출의 관리, 농자재 구입시기 및 구입량 결정, 농산물의 판매처 결정, 일상적 의사결정 내용은 주요 농작업별 시간계획, 일일 농산물판매량 결정, 병충해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 노동력 조달, 선별과 포장에 대한 결정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1-4).

김경미·고운미(2005)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영농의사결정 참여 실태'에서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영농활동 역할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5개 작목별 30명씩 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사 항목은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자기인식, 여성농업인으로서 겪는 어려움, 사회활동 저해요인과 제도적 지원 방안, 영농의사결정과정 참여 수준 등의 실태를 파악하였다(표 1-5).

표 1-4. 여성농업인의 경영 참여 영역과 지표

참여 영역	참여 내용	여성농업인 경영참여 지표	여성농업인 권한
성과참여	업적참여 수익참여 이익참여	정기적 수익배분 비정기적 수익배분 정기적 소득배분	잔여청구권자
재산참여	자기자본참여 타인자본참여	농지 및 자산의 단독 및 공동 소유	경영체의 소유자
의사결정 참여	정보참여 협의참여 결정참여	정보의 공유 의사결정참여	경영의사결정자
경영대표권	대외적 경영대표	농산물 출하자 명의 상품출하관리 통장의 명의	경영의 대표자

자료: 박민선(2003) p.33.

표 1-5. 여성농업인의 역할 유형 인식별 요구사항과 어려운 점

역할	요구사항	어려운 점
독립 경영주	가족상담시설, 영농도우미, 포장 및 가공기술, 유기농산물 생산에 관심, 여성역할·리더십 교육 희망, 의사결정 참여 비중 큼	농기계 사용, 영농교육 참여, 조합원 활동 및 영농조합이나 법인 설립
공동(협업) 경영주	건강보조시설, 영농도우미, 유통 및 마케팅에 관심, 의사결정참여 비중 큼	농기계 사용, 영농교육 참여
준경영인	노인복지시설, 영농도우미	대출 어려움
임금 근로자 (가족 종사원)	노인복지시설, 건강보조시설, 영농도우미, 지역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장소 접근성·이동성 개선, 컴퓨터 활용능력, 수확 및 저장, 시설자동화 등 농업기술 교육, 리더십 등 인성교육에 관심	나만 뒤처진다는 느낌, 영농교육 참여
농업 보조자	유통 및 마케팅 전략, 교육 동기유발 및 교육비 지원	지역협의체 참여, 대출 어려움, 나만 뒤처진다는 느낌
공통 사항	가족문화(양성평등교육, 평등가족문화) 개선, 영농도우미 활용, 보육·탁아지원, 가사부담 완화	

자료: 김경미·고운미(2005).

농식품부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전국 단위의 통계자료 구축을 목표로, 2003년부터 5년마다 여성농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 조사까지 2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김영옥·김이선(2003)의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와 강혜정(2008)의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 가구현황,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 현황, 의사결정 관여도, 농업에 대한 인식, 복지 실태,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실태조사는 설문조사 결과를 단순 서술하는 수준에서 분석이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표 1-6).

표 1-6. 여성농업인의 역할 유형 및 인정기준

구분	조사항목	
	2003년	2008년
가구현황	· 농사규모 · 주영농형태, · 경영주 여부 · 예금액	· 가구원별 현황 · 판매·지출·농사규모 · 본인명의 자산 보유 현황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 현황 및 의식	· 농업종사경력 및 향후 계획 · 농업노동 분담현황 · 노동시간 · 의사결정 참여도 · 컴퓨터 이용현황 · 여성농업인 의식	· 영농활동 현황 : 종사기간, 농업노동 비중, 경영의사결정 관여도 · 농외소득활동 및 의향: 농외활동 종사 여부, 종사상 지위, 월평균 수입 · 지역사회 활동
		· 컴퓨터 이용 현황 ·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과 애로사항
복지실태	· 건강 · 보호노동 및 보육 · 연금가입현황 · 문화복지 현황 · 조직 가입 및 활동 현황	· 건강상태 및 건강검진 · 출산/산후조리 · 보호를 요하는 가구원 · 보육시설 수요 · 연금가입 현황 · 문화시설 이용 및 불참석 이유 · 조직 가입 현황
정책수요	· 농촌 거주 의향 · 교육현황 · 관련정책 인지 및 시설이용 현황	· 농촌 거주 의향 · 교육현황 · 여성농업인 정책의 인지 및 이용 · 여성농업인 육성의 향후 과제

자료: 2003년,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 조사 문항에서 필자 정리

강혜정·마상진(2007)은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와 정책과제'에서 여성농업인의 활동 실태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고, 여성농업인 농업노동의 잠재임금과 기회비용 추정을 통한 역할별 가치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여성농업인을 단순한 복지대상자로 간주하는 획일적 여성복지 정책에서 생애주기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성장단계별로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조사대상의 범위를 농업주종사자(농업 이외의 일을 주업으로 하는 여성 불포함)로 한정하였고, 조사항목은 1)영농활동에 대해서는 ①노동유형별 성별 농업노동시간, ②영농활동별 노동투입 정도, ③경영의사결정 참여도이고, 2)농외소득 활동에 대해서는 ①농외소득 유형, ②농업관련 활동에서 노동 분담 정도이며, 3)지역사회 활동에 대해서는 ①활동영역과 ②활동의 종류에 그치고 있다.

김경미 외(2007)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방안 연구'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업참여 수준과 의사결정 참여도, 농가소득 기여도 등을 분석하고 농가의 기술수준과 경영성과의 농가소득과 관련성 파악과 사례분석을 통해 여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경영을 생산 및 품질관리, 소비자·시장·유통에 대한 이해(판로관리), 판매 및 홍보 기술, 인력관리(시간, 부부의 노동력 관리와 노동 분담), 비용관리(리스크, 투자 등)로 구분하여 총 133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조사 내용은 1) 농업경영을 위한 자기관리 및 능력 개발의 중요도와 실천 수준, 2) 농작업 분담 및 경영의 책임과 명확성, 3) 주소득작물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4) 여성의 농업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농업경영 성공의 이미지, 5) 농업인의 기여 전망과 이유 등이다.

여성농업인 실태 조사는 대부분 현황 파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김경미 외(2007), 박민선(2003)는 조사 항목을 지표화하고 여성농업인의 활동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정책을 제시하였다.

3.3. 여성농업인 조직 및 인력 지원 정책

김영옥(2001)은 '여성농업인의 생산적 복지 대책'에서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자활지원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영농활동에 대한 지원을 담아내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에서 생산적 복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삶의질향상기획단'의 생산적 복지란, "모든 국민의 생산적 사회참여의 기회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속성장과 복지증진의 균형을 이루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적, 재창조적 복지를 의미하고, 생산적 복지를 이루는 3가지 축으로 1)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분배, 2) 국가에 의한 재분배적 복지, 3) 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를 제시하였다. 즉, 생산적 복지는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만을 강조하는 복지가 아니라 고용 창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노동참여와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부분과 장기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하여 자활서비스, 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제3섹터형 자활사업의 확산을 강조하는 부분이 더해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복지 정책의 개념이다.

최윤지 외(2004)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의 사회적 편익 추정'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국민소득 파급효과를 순현재가치법을 통해 추정하고,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영세 외(2004)는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수립 및 집행, 그리고 집행 후 단계에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정책담당자 및 사업수행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그러나 후계농업인육성사업, 품목별상설교육, 정보화교육, 농촌관광마을운영교육 등 일부 인력육성정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김경미 외(2005)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에서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부문별(경영능력강화, 지위향상, 삶의 질 제고, 정책시스템 구축) 평가를 통해,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

한 방향을 검토하였다.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시행에서 발생된 영역별 문제와 해결책 제시를 통해 여성농업인 관련 입법 및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현장 조사와 심포지엄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함으로서 종합적 목표영역 및 영역별 세부항목을 재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임경희(2006)는 '농촌지역 개발과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방안'에서 여성농업인과 전문가(여성농업인력 담당공무원) 대상 실태 조사에 근거하여 1) 여성농업인 스스로 직업 정체성 확립, 2)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3) 법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에 대한 조사 내용은 영농 참여도와 경력, 고용형태, 노동시간, 농작업 만족도, 이농 의향, 농촌생활의 문제점, 영농교육 관련 연수기회와 참여도, 가족 내 지위 등이고, 전문가 조사 내용은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의 필요성 인지도, 교육 내용, 교육기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 등이다.

김진화 외(2008)는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지원방안 연구'에서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평생학습센터의 접근성 미비, 교육참여자 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위해 멘토링제도 및 학점은행제 도입, 전문강사 DB 구축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평생학습센터의 비전과 운영모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는 등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였다.

박신규·정은정(2010)은 '여성농민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 여성농민운동의 발전'에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을 대상으로, 1970년대 이후 시대별로 전개되어온 여성농민운동의 발전 양상 및 의의에 대해 참여관찰 및 심층면접 등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정이 운동조직을 통해 주체화하는 과정을 시대별로 분석하고 행위자의 해석과 능동적인 활동이 갖는 의미를 재해석하였다. 그러나 의식과 행위의 변화과정과 사업의 구체적인 사례 내용이 없어 구체성은 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김영옥(2001) 연구의 '생산적 복지' 개념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자활과 농업경영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성 및 지속성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3.4. 해외 여성농업인 정책과 사례

박민선(1996)은 '프랑스의 여성농민 정책'에서 가족경영에 전업으로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의 권리를 법률에 반영하고 농업재생산 유지를 위한 정책을 소개하였다. 프랑스 농업과 여성농민의 현실, 여성농민 정책의 주요 경과 여성농민정책으로서 가족경영 또는 청년농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법인경영의 보급과 여성의 참가 확대, 여성농민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이다.

박민선(2000)은 'EC 회원국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에서 EC 회원국의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정책 대상인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를 가족경영 내에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가족농업 보조자, 임금수령자와 법인경영체에서의 여성농업인으로 분류하며 농업 노동성과와 배분에 관한 법적 대우를 비교하였다. 가족농에서 전업으로 종사하는 여성을 공동경영인으로 인정하고 가족 내에서도 스스로 수입과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성을 독자적인 사회보장의 피보험자로 인정함으로써 농장경영의 안정과 개인의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해당국의 농업구조 및 농촌사회의 현황이나 여성농업인 정책의 성립 과정에 대한 개요가 부족하여 여성농업인 관련 제도만으로 실제 적용 여부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한계이다.

고조 미요시(五條滿義)는 일본 가족경영협정을 시기별 전개과정과 가족경영협정의 목적, 가족경영협정이 갖는 중점과제와 구체적인 내용, 가족경영협정 체결 효과를 분석하였다. 1960년대 초 농업후계자에 의한 농촌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히로시마현 '父子협업경영'에서 시작된 가족협정은 농업노동의 적정 평가, 후계자 경험에 따른 경영 참가, 원활한 경영계승, 상속에 관한

과제 정리와 경영 세분화 방지, 경영개선 대응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1995년 농업을 이끌 주체에 관한 이념에 '주식회사의 농지취득' 논의에 대항하여 생명을 다루는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족경영 등 농업인이 주도권을 갖는 경영'을 중시해야 하고 그 바탕에 가족경영 발전대책으로 경영 내부에서 '개인'의 확립과 경영 관리의 근대화를 강조하고 실천방안으로 가족경영협정과 법인화를 추진하였다. '가족농업경영이나 농촌사회에서 개인이 존중받기 위한 의식개혁, 경영개선'의 내용으로 1992년 6월 농림수산성, '농산어촌 여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여성을 개인으로서 지위확립을 지향하고 가족 내의 규율을 강조하는 가족경영협정을 추진하였다. 일본 가족경영협정이 갖는 중점과제는 1)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참가로 농업 '경영체' 구축, 2) 농업경영의 법인화 촉진, 3)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촉진, 4) 농업후계자 자립화 지원 등이다. 가족경영협정 농가에 한해 여성농업인을 인정농업자로 책정하고, 농업인연금에 경영자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가입할 수 있으며, 여성농업인이 가공, 신작물, 신기술 등 개별 농업경영에 도전할 경우 농업개량자금(보조금)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 관련 해외 연구는 일본을 제외하면 법적 지위에 관한 문헌 조사에 국한되며 특히 현황이나 사례 분석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3.5.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는 1) 여성농업인의 경영 참여 정도의 실태 조사를 통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 영농활동에서 겪는 불평등 문제 등 여성농업인 개인 활동 단위를 분석하거나 2)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이나 경영 참여 향상을 위해 지표를 활용한 개선방안, 3) 전문경영인으로 육성을 위한 영농기술을 비롯한 각종 교육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업구조 및 농촌사회 변화에 따라 농업 생산 이외에 농업의 서비스 생산기능(농촌관광, 직거래, 소규모 가공산업 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에서, 농촌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경영인력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농업구조 및 농촌사회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농가 단위, 지역 단위에서 다면적·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여성농업인의 실태를 입체화 하는 실증적 연구이다. 농가의 세대주(남성)－세대원(여성 및 후계자)의 가족관계가 농업경영에서 고용관계(책임자－농업보조자)가 아닌 협업관계(책임과 권한의 수평적 관계)임을 밝히고 여성농업인의 능력 발휘가 농업경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농업경영에서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개인 능력개발을 도모하여 농가 수익성 향상이나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는데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농촌사회에 관습이라고 여겨지던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남녀공동참가형 농업경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과거 40년 동안 농촌지역 여성 및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온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여성농업인의 능동적 역할(사회적 참여)에 대한 실증자료 제시와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활동 참여의 다양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선진국 여성농업인의 실태 파악과 현장 사례조사를 통해 농업구조 및 농촌 사회변화와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벤치마킹한다. 선진국의 농업구조 및 농촌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의 실태를 파악한다.

4. 연구 범위 및 방법

4.1. 용어와 연구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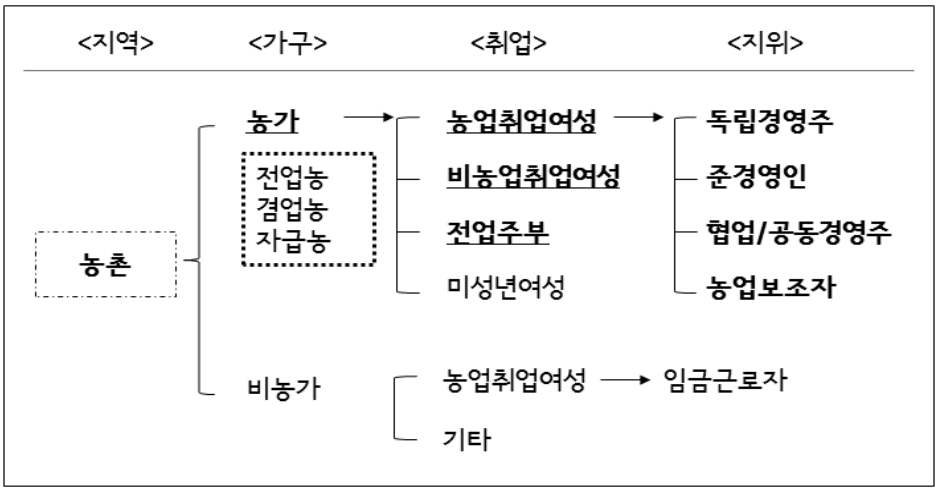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농가란, 농촌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전업이든 겸업이든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이다. 통계적으로 생계, 영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이며, 법률적으로 일정규모의 농지 소유 자격을 요건으로 한다.

농업인의 기준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따른다. 첫째,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둘째,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셋째,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넷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또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2조를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여성농업인은 농가의 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농가의 구성원이고 비농업취업, 전업주부도 일시적 농업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여성농업인의 범위에 포함한다. 즉, 농가의 구성원 중 미성년여성을 제외하고는 취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여성농업인으로 규정한다(그림 1-4).

본 연구가 범위로 하는 농가는 부부와 가족 노동력에 기초한 가족농이다. 최근 경쟁력 있는 농업인이 증가하며 농가의 개념도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가족 노동력을 근간으로 하는 농업경영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활동 영역은 농가단위, 마을단위, 지역단위(시·군)로 구분하며, 경제·사회적 활동은 가족농의 특성상 생활(삶터)과 생업(일터)의 영역에서 경제성을 띤 활동과 연관 활동이 대상이다.

그림 1-4. 여성농업인의 범위



주: 김이선(1997)과 김경미(2006)의 자료에 의거하여 필자 작성.

본 연구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말할 때, 역할이란 '일의 범위'로 규정하고, 여성농업인이 하고 있는 일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할 제고 방안으로 제시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을 경영인력과 노동인력으로 구분하여 실태 조사를 분석하고, 경영인력은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고, 노동인력은 일자리와 같은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가 추구하는 여성농업인의 '생산적 복지'는 여성농업인을 경영인력뿐만 아니라 노동인력으로 농업에 참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2] '생산적 복지'는 생애주기별 삶의 질 향상과 같이 그 대상을 분명히 설정한 후 농업규모에 맞는 맞춤형 육성 전략이 필요하며 그 내용을 포함한다. 여성농업인이 경제 및 사회활동에 주체적으로 참가하여 능력

[2] 농업인력을 경영인력과 노동인력으로 구분한 박석두(2012)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현재 농업인력 문제는 농업생산을 담당하는 경영체로서 농가수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문제와 함께 농가의 노동인력이 부족하여 고용노동으로 대체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한다는 사실이다.

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는 모든 여성농업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그 방법은 차이가 있다. 특히 농업소득이 낮은 이들은 지금까지 농업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되었고 일부만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였지만 농촌 및 농업을 유지하는 주요 인적 자원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영인력화는 개별 농가의 경영능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며,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여성농업인의 노동인력화는 농업에 계속 종사할 여건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협력관계'로 대체하고자 한다. 현재 가족 간, 마을 구성원 간 협동하여 사업체나 경제적 작업(일)하는 것은 가부장적 혈연관계나 폐쇄성에 근간한 공동체보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포함된 개방적인 '협력 관계'를 기초로 작동한다고 설정한다.

4.2. 연구 방법

4.2.1. 문헌 연구 및 관련 통계자료

여성농업인 관련 기존 선행연구와 정부 정책자료를 활용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농업인 관련 문서와 연구결과물을 검토하였다.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활동 관련 통계자료 분석은 통계청의 농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 사회조사,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등을 이용하였다.

4.2.2. 설문조사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조사대상(모집단)은 농촌(읍면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이다. 표본은 총 702명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 3.70%였다.

조사는 조사전문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위탁하였고 구조화된 설문 내용에 대해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추출은 권역(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내 농촌 유형(도시근교, 평야 지역, 산간지역)과 재배품목, 경영규모,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할당표집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이다.

4.2.3. 사례조사

가. 마을 단위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이 당면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을단위의 여성농업인은 연구진이 직접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실태 및 애로사항이며 전국 조사와 동일한 양식의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마을이라 하더라도 개별농가의 재배품목과 영농규모가 상이함에 따라 마을의 공통점을 객관적 분류할 지표를 찾기 어려웠다. 다만, 농한기 기간의 차이에 따라 재배작목이 유사하고 농업형태도 비슷한 점에 착목하여 농한기 기간을 객관적 지표로 삼고 다음과 같은 3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총 120여 호가 거주하며 65세 이하 여성농업인은 55명이다. 1990년대부터 시작한 시설재배를 마을 대부분의 농가가 하고 있으며, 농업형태가 거의 같아 생산 및 판매에 있어 경쟁적인 분위기이다. 농가당 영농규모는 중규모 이상이며, 대체로 농가소득이 높은 편이다.

주요 재배품목인 과채류를 중심으로 연중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고, 마을단위 공동 사업은 거의

없다. 농가별 농업규모가 크고 시설재배 농가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마을단위 수익사업에 대한 수요도 낮다.

표 1-7. 마을 조사의 지역별 개요

단위: 명, %

구분		부여		장흥		양구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전체 응답수		24	100.0	18	100.0	29	100.0
연령별	20대	0	0.0	0	0.0	0	0.0
	30대	0	0.0	0	0.0	1	3.4
	40대	5	20.8	2	11.1	3	10.3
	50대	17	70.8	12	66.7	15	51.7
	60~64세	2	8.3	4	22.2	10	34.5
농업 규모별	소규모	1	4.2	5	27.8	10	34.5
	중소규모	6	25.0	7	38.9	9	31.0
	중규모	5	20.8	6	33.3	7	24.1
	중대규모	11	45.8	0	0.0	1	3.4
	대규모	1	4.2	0	0.0	1	3.4
	무응답		0.0		0.0	1	3.4
주력 품목	쌀	1	4.2	10	55.6	14	48.3
	특용작물	2	8.3	1	5.6	1	3.4
	과수	4	16.7	0	0.0	1	3.4
	화훼	0	0.0	0	0.0	0	0.0
	채소	17	70.8	6	33.3	9	31.0
	축산	0	0.0	0	0.0	3	10.3
	기타	0	0.0	1	5.6	0	0.0
	무응답		0.0		0.0	1	3.4
농업 소득별	500만원 이하	1	4.2	3	16.7	12	41.4
	500~1천만원	2	8.3	1	5.6	1	3.4
	1~2천만원	2	8.3	1	5.6	5	17.2
	2~3천만원	1	4.2	1	5.6	0	0.0
	3~5천만원	8	33.3	3	16.7	2	6.9
	5천~1억원	6	25.0	6	33.3	4	13.8
	1억원 초과	3	12.5	1	5.6	0	0.0
	무응답	1	4.2	2	11.1	5	17.2

■ 전남 장흥군 용산면 월송리, 관지리, 인암리

고령화가 심한 지역이라 한 마을에서 65세 이하 여성농업인을 찾기가 어려워 인근 3개 마을을 조사하였다. 월송리는 총 60가구 중 65세 이하의 농가가 9호, 관지리는 총 50호 중 65세 미만의 농가 7호, 인암리는 32가구 중 65세 미만 9호로 고령화 비율이 높다.

농업 형태는 쌀과 건고추, 잡곡류, 주잡곡과 한우의 복합영농 형태가 많으며, 인암리는 딸기 시설재배가 15호이고 월송리는 대다수 농가가 친환경농법을 도입하고 있다. 전형적인 고령화 마을로 유교적 위계질서가 뿌리깊게 남아 있어 여성의 행동이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반면, 도시로 나간 친인척의 입소문을 통해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다.

■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한전리

양구읍에서 약 7km 떨어진 한전리는 128가구, 380명이 거주하며 그 중 농가는 75호이고, 65세 미만의 농가는 45호이다. 농가 중 65세 미만이 60%로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은 농촌지역이다.

농업 형태는 대부분 채소류 노지재배와 일부 축산을 병행하며, 수박, 애호박, 풋고추 등 과채류와 그 후작으로 가을 무·배추, 단호박을 재배한다. 이 지역은 농한기가 5~6개월 이상으로 비교적 긴 지역이므로, 중규모 이상 5농가를 제외하면 농업소득이 비교적 낮아, 농업 외 부업이나 여름 노지채소의 수확에 농업노동자로 생활하는 여성농업인이 많다.

나. 여성농업인 CEO 조사

여성농업인 CEO는 1990년대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이후 여성농업인 명의로 사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15명(경기 4명, 충남 2명, 충북 3명, 전북 2명, 경북 4명)을 연구자가 직접 면접 조사하였다. 여성농업인 CEO는 농업생산보다 장류, 한과, 와인, 효소, 치즈의 가공업이나 온라인을 이용한 직거래 판매, 체험을 비롯한 교육 농장에 주력하는 여성농업인이다.

여성농업인 CEO에 관한 정보는 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의 협조를 얻었고, 조사 내용은 농가나 지역사회 단위에서 여성농업인CEO가 경험한 경제·사회적 활동과 기여, 활동상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4.2.4. 국내외 협동연구 추진

국내 여성농업인 정책과 해외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전망에 대해 원고의뢰를 추진하였다(표 1-8). 2장에서 인용한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와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해서는 광주여성재단의 오미란 박사에게 원고 위탁하였고, 프랑스·이탈리아·일본의 3개국 농업과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실태는 각국 여성농업인 연구자에게 직접 원고 위탁하였다.

표 1-8. 국내외 위탁연구 추진 상황

위탁 제목	위탁 주요 내용	원고집필자
한국여성농업인 정책의 전개과정	· 여성농업인 정책의 전개 과정 ·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과	오미란 (광주여성재단)
프랑스 여성농업인 경제활동 실태와 전망	· 농업구조와 여성농업인의 실태 ·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 사례	Nicole Mathieu교수 M. R. Saidi 연구원
이탈리아 여성농업인 경제활동 실태와 전망	· 농업구조와 여성농업인의 실태 ·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사례	Paola Bertolini 교수 Roberto Fanfani교수
일본 여성농업인 경제활동 실태와 전망	· 농업구조와 여성농업인의 실태	배민식 (국회입법조사처)
	·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 사례	秋津元輝 교수 (京都大學)

4.2.5. 국제 심포지엄 개최

해외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선진국 여성농업인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2012년 9월 12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국제심포지엄은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다.

■ 주제: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현황과 전망』
■ 일시: 2012년 9월 12일(수) 14:00～18:00
■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
■ 발표자
○ 제1주제 : 한국 여성농업인의 현황과 전망
- 정은미(연구위원, KREI 농촌정책연구부)
○ 제2주제 :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현황과 전망
- Dr. Mohamed Raouf SAIDI(Sociologue, LADYSS-CNRS)
○ 제3주제 : 프랑스 여성농업인 사례 발표
- Véronique Léon(프랑스 여성농업인)
○ 제4주제 : 이탈리아 여성농업인의 현황과 전망
- Dr. Paola Bertolini(Professor, Modena University)
○ 제5주제 : 이탈리아 여성농업인 사례 발표
- Cecilia Barison(이탈리아 여성농업인)
■ 토론자
· 김경미(농촌진흥청 연구성과관리과 과장)
· 오미란((재)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
· 박인옥((사)전국여성농어업인센터협의회 회장)

여성농업인의 시대적 변화와 정책 개요

제2장

1. 여성농업인 관련 지표의 변화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역할 또는 욕구를 측정할 수 있는 성별분리 통계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1998년 이후이며, 산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위치가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가 많아 경제활동관련 통계와 농림어업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3].

또한 기존 통계 자료에서 여성농업인을 구분하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이나 농업정책의 실현 단위가 농가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학적 특성과 농업종사 비율 이외에 통계 자료에서 시대별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둘째, 농업의 특성이 생활과 생산의 공간 미분리,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에서 작업장과 사적 공간의 미분리, 가사일과 생산노동의 경계 모호 등의 요인도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운 요인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농업에서 성별 역할 구분의 모호성은 여성농업인들의 노동가치 평가나 기여도를 측정하는데 저평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1998년 이전 여성농업인 통계 자료는 선행 연구자 연구논문의 부분 통계를 함께 활용하여 시대별 여성농업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

[3] 경제활동조사에서 취업자란,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노동,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 일시휴직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농가경제 통계는 1년을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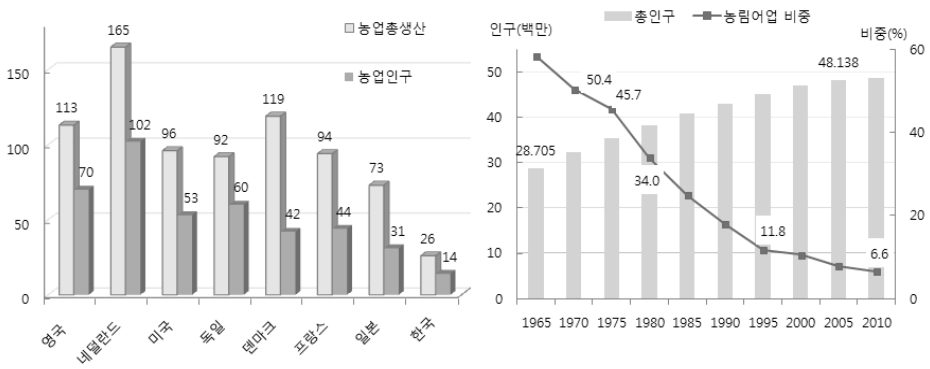
1.1. 한국 농업의 특성

여성농업인의 특수성은 우리나라 농업의 일반성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중요한 특성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의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은 당면한 농업·농촌의 현실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1.1.1. 단기간 농업해체와 농업노동력의 급격한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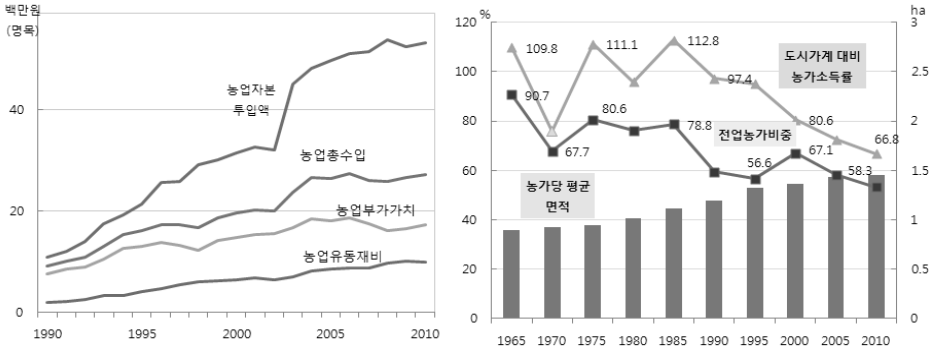
우리나라 총생산에서 농업총생산의 비중이 40%(1965년)에서 7%(1991년)로 축소하는 데 불과 26년이 소요되었고, 농업인구의 비중이 40%(1977년)에서 7%(1991년)로 축소하는 데 걸린 소요기간은 14년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농업해체 소요기간과 비교하더라도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짧은 기간에 농업이 쇠퇴하게 되었다. 정부 주도의 산업화 과정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농업인구도 1975년 전체 인구의 45.7%에서 2010년 6.6%로 감소하였다(그림 2-1).

그림 2-1. 농업해체 소요기간과 농림어업 비중



자료: 농식품부. 각연도. 농림어업 주요 통계.

그림 2-2. 농업생산성 지표와 농가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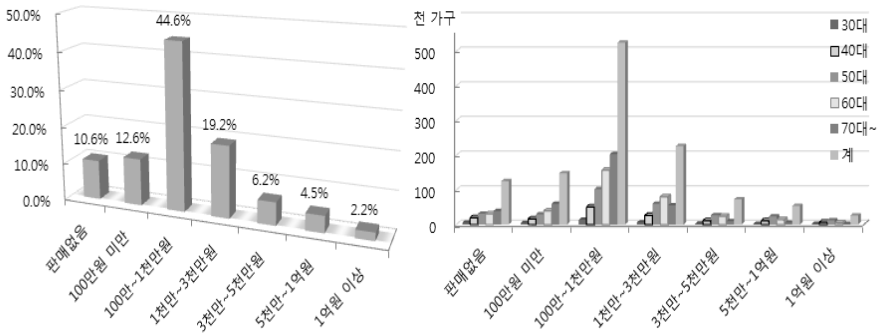


자료: 농식품부. 각연도. 농림어업 주요 통계.

1.1.2. 다수의 영세·고령 농가

1990년대 이후 농업 자본 투입액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농업총수입, 농업부가가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 1.46ha에 불과한 영농규모의 영세성을 특징으로 하며, 전업농가 비중 53%로 농업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농가가 많으며,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률이 2010년 67%에 이르고 있다(그림 2-3).

그림 2-3. 연간 농산물판매금액별 농가 분포(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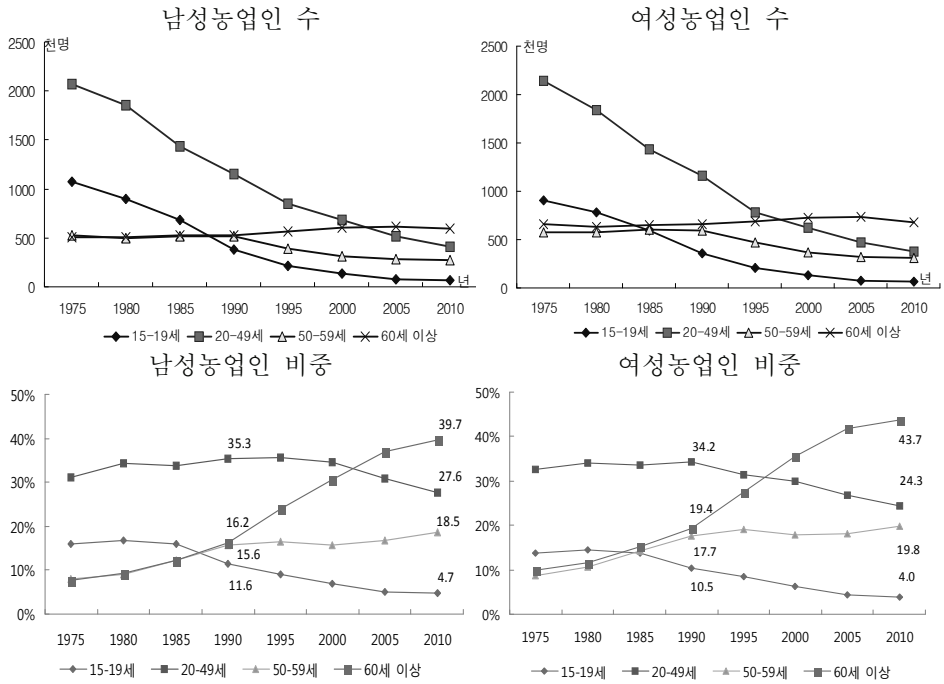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서울대 산학협력단(2012).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2010년 전국 1,175천 농가 중 농가 경영주의 61%가 60세 이상이고, 농산물 판매가 없는 농가 11%, 연간 농산물 판매가 1천만원 미만 57%, 1천~3천만원 19%으로,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농가가 87%에 이른다.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3천만원이라면, 경영비가 품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50%라고 가정할 때 농업순소득은 1,500만원인 농가가 87%이라는 의미이다.

1.2. 여성농업인의 고령화 현상 심화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1990년 661만명(총 인구 중 17.9%)에서 2010년 306만명(총 인구 중 6.6%)으로 지난 20년간 53.7% 감소하면서, 여성농업인도 1990년 338만명에서 2010년 156만명으로 53.8% 감소하였다.

그림 2-4. 농가인구의 연령별 인구수와 비중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연도. 농림어업 주요 통계.

농업의 중추적인 노동력인 20~49세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60대 이상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20~49세 인구 비중은 1990년 남성농업인 35.3%, 여성농업인 34.2%이었으나 2010년에 남성농업인은 27.6%, 여성농업인 24.3%로 감소하였다. 반면, 60대 이상은 1990년 남성농업인 16.2%, 여성농업인 19.4%에서 2010년 남성농업인 39.7%, 여성농업인 43.7%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2-4).

지난 5년간 농가 경영주의 연령은 남성 60세에서 61.4세, 여성 65.7세에서 66.3세로 높아졌고, 여성 경영주의 평균연령이 남성보다 4세 정도 높으며, 여성경영주는 75.8%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이다(표 2-1). 이는 청장년층이 산업노동력으로 흡수됨에 따라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여성이 대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1. 농가경영주 연령별 농가 및 평균 연령

단위 : 천호(%), 세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평균 연령
2005	1,273 (100.0)	42 (3.3)	186 (14.6)	303 (23.8)	430 (33.8)	311 (24.5)	61.0
남자	1,056 (83.0)	40 (3.8)	174 (16.5)	269 (25.5)	343 (32.5)	230 (21.8)	60.0
여자	217 (17.0)	2 (0.9)	12 (5.5)	34 (15.7)	88 (40.6)	81 (37.3)	65.7
2010	1,177 (100.0)	33 (2.8)	140 (11.9)	287 (24.4)	352 (29.9)	364 (30.9)	62.3
남자	959 (81.5)	29 (3.0)	127 (13.2)	252 (26.3)	286 (29.8)	265 (27.6)	61.4
여자	218 (18.5)	4 (1.8)	14 (6.4)	35 (16.0)	67 (30.6)	99 (45.2)	66.3
증감	△96	△9	△45	△16	△78	53	
증감률	△7.5	△21.8	△24.4	△5.2	△18.1	17.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2010) 농림어업총조사.

1.3. 여성농업인의 농업 노동 비중 증가

전체 취업자 중 농림업 취업자 비율은 2010년 6.3%로 급격히 감소하지만, 농업에서 여성의 노동참가율, 즉 농림업 취업자 중 여성 비율은 63%로 증가하고 일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2-2).

특히, 농업에서 여성의 노동비중은 1970년 31.6%에서 2010년 60.5%로 증가하였다(그림 2-5). 특히 고용노동과 품앗이 노동은 과거에는 남성의 일에서 최근에는 여성의 주된 노동형태로서 여성노동의 단순노동화, 주변화 현상이며 농업이 여성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표 2-2. 농림업 취업자의 성별 구성과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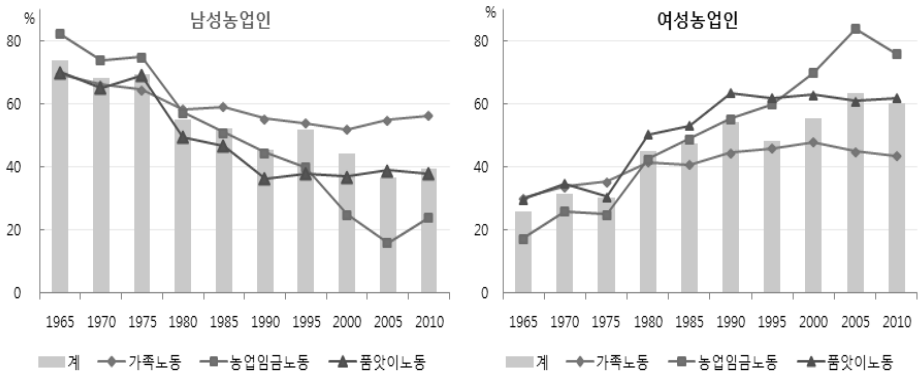
단위: %

	농림업 비중	농림업 취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남성	여성	여성	여성농업인
1965	58.4	61.3	38.7	37.2	41.6
1970	50.0	58.4	41.6	39.3	49.3
1975	46.0	58.5	41.5	40.4	53.4
1980	32.0	56.2	43.8	42.8	55.3
1985	25.0	55.7	45.0	41.9	52.9
1990	17.4	55.0	45.0	47.0	61.8
1995	11.8	51.4	48.6	48.4	66.2
2000	10.6	47.5	52.5	48.6	68.0
2005	7.9	53.1	46.9	50.0	67.8
2010	6.3	56.0	44.0	49.2	63.2

주: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여성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지난 1주일간 1시간 유급일종사자, 여성농업인은 농업기본통계조사에서 지난 1년간 농업활동 종사자임.

자료: 통계청. 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농업기본통계조사.

그림 2-5. 농업에서 성별 노동투하량 변화



주: 1995년, 2,000년은 고용노동 통계 없음.
자료: 통계청. 각연도. 농가경제통계연보.

1.4. 영농형태 변화와 여성농업인의 노동 참여 증가

농가의 주요 생산작목 분석 결과, 논벼의 비중은 1990년 69.7%에서 2010년은 44.7%로 25% 감소하였으나, 과수와 채소의 비중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표 2-3). 농가의 재배 품목이 변하게 된 것은 농업에서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농업 근대화 정책의 영향이다. 과거에는 농가마다 쌀을 중심으로 채소, 콩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였지만, 요즘은 농가마다 주요 품목 1~2종류만을 전문적으로 규모화 하여 생산한다. 농가는 수익성이 낮은 논벼를 줄이고 노동 및 농지 단위 수익성 비율이 높은 환금성 작물로 전환하였다.

한편, 논벼는 기계를 이용하는 기계화율이 95% 이상이지만 채소를 비롯한 특용작물, 일반밭작물은 기계화율이 매우 낮다. 기계화율이 낮은 품목의 생산 확대는 여성농업인의 노동투하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 결과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비중이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채소 43.1%, 화훼 66.7%, 일반 밭작물 61.4%로 높게 나타난다(표 2-4).

표 2-3. 농가의 영농 형태 변화

단위: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논벼	82.9	69.7	54.9	61.1	50.9	44.7
과수	3.7	6.1	9.6	11.1	11.4	14.5
채소	6.5	9.8	16.4	11.1	18.1	19.1
특용작물	1.8	2.2	3.0	2.9	2.2	2.4
화훼	0.0	0.4	0.7	0.6	0.8	1.6
일반밭작물	0.0	6.5	4.7	7.1	9.9	9.9
축산	4.5	5.0	10.4	5.6	6.5	6.9
기타	0.5	0.4	0.4	0.4	0.3	0.8

자료: 농식품부. 농림어업조사(1985～2005), 농림어업총조사(2010). 농가수 기준.

표 2-4. 영농형태별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비중

단위: %. 명

	20% 미만	20-50%	50-70%	70% 이상	표본수
논벼	8.7	48.7	19.6	22.8	823
과수	13.0	52.5	16.0	18.5	162
채소	8.1	48.8	21.8	21.3	211
화훼	0.0	33.3	20.0	46.7	15
일반밭작물	8.8	29.9	18.6	42.8	194
특용작물	6.5	61.3	19.4	12.9	31
축산	16.7	52.1	25.0	6.3	48
기타	20.0	53.3	6.7	20.0	15
모름/무응답	50.0	50.0	0.0	0.0	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 시대별 여성농업인의 변화[4]

2.1. 여성농업인 변화의 개요

2.1.1. 여성농업인의 호칭

여성농업인에 대한 호칭 변화는 농업과 농촌의 변화,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는 역할의 다양성과 연계되어 있다.

첫째, 식민지 시대부터 현재에도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 용어로서 여성을 '부녀'라 호칭하고 마을단위 여성 모임을 '부녀회'라 한다. '농촌부녀'는 농촌에 살고 있는 결혼한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둘째, 산업화 이후 직업을 갖지 않고 가사에 종사하는 여성인 '가정주부'를 농촌지역에서 '농가주부'로 사용하였고, 1970년대 이후 '농촌여성'이나 '여성농업인'의 호칭은 공간 개념과 산업 개념이 혼재양상을 띠고 있다.

표 2-5. 시대별 여성농업인에 대한 용어 및 범주

	사용년도	범주
농촌부녀	근대~1970년대	농촌에 살고 있는 결혼한 여성
농가주부	1960년대~현재	농가에서 가사를 담당하는 결혼한 여성
농촌여성	1970년대~현재	농촌에서 거주하는 모든 여성
여성농민	1980년 후반~현재	농업생산 주체로서의 계급적 개념
여성농업인	1990년대 말~현재	15세 이상 농가 여성 중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농업인

셋째, '여성농민'은 학문적·공식적 영역에서 확실한 의미를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농민의 계급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농민운동 단체에서 사용한다.

[4] 오미란에게 위탁 연구한 "여성농업인 정책의 전개과정" 결과를 필자가 가필 수정함.

넷째,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농촌여성(공간범주), 농가주부(산업범주), 여성농업인(노동범주)의 호칭은 '여성농업인육성법' 제정으로 농업 내 여성의 역할을 규정한 '여성농업인'이란 법적 용어로 정리되었다.

2.1.2. 시대별 농정과 여성농업인

정부의 여성농업인 정책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1998년이지만, 실제로 여성농업인 정책을 별도로 실행하지 않을 때조차도 여성이라는 성별 특성을 포함하는 농촌정책, 농업정책을 전개해왔다.

여성농업인 정책은 일반적인 농업정책 이외에 여성이라는 성별 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그동안 농업정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면서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 못했고, 여성정책에서는 여성농업인을 농업부문에 해당하는 직능적 요소로 구분하여 다루지 않았다. 그러므로

표 2-6. 시대별 농업주체에 관한 정책변화

시기	주요내용	관련법
1950년대	농지개혁에 의한 자작농 창설	농지개혁법 제정
1960년대	가족농을 보완하는 협업농 제도 도입 협업농장 시범사업(5개 지역)추진과 실패	농업기본법 제정
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작,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품목별작목반 조직 결성	협동조합법 등 개정
1980년대	기계화영농단 결성 특산단지육성사업 착수	농업기계화, 농업근대화촉진법 제정
1990년대	영농조합법인, 위탁영농회사 제도 도입 (1995년 위탁영농회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
2000년대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자료: 김정호(2004).

농업정책이나 여성정책에서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을 구분하고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대별 농업·농촌 정책이 여성농업인 정책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2. 1960년대～1970년대 초반 : 생활근대화의 주체

2.2.1. 경제와 농업 현황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업에서 노동인력을 유출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소작지 비율이 65%이고, 총농가 중 소작농 비율이 84%에 이르는 등 농업은 절대 빈곤을 극복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다. 당시 주요 농업정책은 1961년 쌀 정부매입제, 1962년 농업구조개선심의회의 설치, 1967년 농업기본법 제정 등이다.

2.2.2. 여성농업인 역할과 주요 조직

당시 여성농업인은 모든 가사일을 노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가사부담이 컸기 때문에 농업노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때문에 여성농업인은 농업분야에서는 농업노동의 주체라기보다 보조자로 인식되었다. 반면 농촌지역에서 여성은 농가의 생활개선(근검절약)을 통한 현금소비 지출의 최소화로 농가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였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은 저축 증대를 위한 좀덜이(한줌 쌀로 목돈마련)나 공동구매, 마을 내 부업과 농한기의 계절적 원거리 행상 등의 경제활동에 참여하였다.

여성농업인은 생활근대화의 주체이기도 했지만 정책입안자는 계몽의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 첫째, 근대적 생활양식을 도입하는데 여성농업인의 의식 개혁과 생활개선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였다. 부녀교실 및 야학과 같은 근대교육을 실시하였고, 의식주 개선 운동, 국가 인구정책에 참여자

로 의식 개혁에 노력하였다.[5] 둘째, 농가의 절대적 빈곤 해결자로서 저축의 주체, 농외소득 활동의 주체로 인식하며 저축을 강조하였다.

표 2-7. 1960년 농촌여성 조직 개요

	생활개선구락부	가족계획 어머니회	부녀교실	어머니금고회, 부녀회
목적	부녀의 생활기술 조장하여 농촌 생활의 과학화	가족계획 생활화, 협동정신 고취, 지역사회 개발참여	여성 능력개발 새마을운동의 여성 리더 배출	조직사업 신장과 농가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향상
관장기관	농촌진흥청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부	농협중앙회
조직연도	1958년	1961년	1967년	1973년
회원자격	20~60세	20~47세,가임여성	20-60세	18~50세
조직수	20,099개	29,984개	44,049개	12,500개
회원수	561,646명	749,819명	2,150,000명	420,000명
조직구성	시·군읍면연합회	시·군읍면연합회	도시·군·읍·면연합회	
주요활동	· 생활개선(의식주) · 주곡 소비 절약(절미, 대체식품,가공요리법) · 기금조성(절미, 저축, 구판, 부업, 공동작업) · 건전한 가정 육성(보건, 위생, 육아, 가족계획)	· 가족계획사업, 생활개선 (의식주새생활운동), 공동기금조성(절미, 구판, 퇴비증산, 저축, 공산지 활용, 공동작업), 어머니교실(교양, 사회, 자녀기술보건교육), 환경미화, 지역사회 개발 · 봉사활동	· 부녀자질향상(교양) · 새생활운동, 새마을운동, 소비생활의 합리화 · 건전가정육성(가족계획) · 소득증대사업(부업, 구판매, 공동작업) · 가정의례준칙 생활화 · 교육교재 발간	· 저축사업, 생활개선 (의식주 가정의례 간소화, 가족계획 실천, 공동취사장), 소득증대사업(구판매, 부업, 공동작업), 소비절약 · 부녀교실(교양, 가계부, 오락, 육아)

자료: 보건사회부(1979년 12월 31일)를 참고하여 오미란 정리.

표 2-8. 농촌여성 조직의 활동내용

	부녀교육	생활개선	가족계획	저축사업	소득증대
부녀교육	○	○	○	○	○
가족계획어머니회	○	○	○	○	-
생활개선구락부	-	○	-	○	-
저축금고새마을부녀회	○	○	○	○	○

자료 : 보건사회부(1979년 12월 31일)를 참고하여 오미란 정리.

[5] 1966년 문맹률은 29.2%(여성 65.4%).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조직이 설립되었다. 농촌진흥원과 보건사회부가 주관부서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족계획어머니회 조직, 부녀교실 등을 조직하였고, 농협은 어머니금고회, 부녀회를 조직하였다. 여성은 농촌근대화의 중요한 인력으로 계몽해야 할 대상이었으므로, 여성농업인 대상 주요 정책은 농촌의 낙후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거나 소득증대사업[6](부업, 구판매업, 공동작업), 절미운동, 건전가정(주로 육아) 등 주로 일상생활 공간 및 가정의 근대화[7]에 집중되었다.

2.3. 1970년～1980년대 : 농촌근대화 수행, 적극적 농업주체화

2.3.1. 1970년대

가. 경제와 농업 현황

수출주도형 공업화 우선 경제발전 시책이 발효되고 본격화된 1970년대는 농업 부문에서 산업화의 필요 인력을 조달하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위해 농산물 가격의 저가 기조를 유지하던 시기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여성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1975년 당시 농촌지역인 면 단위지역 인구는 남성 24.9%, 여성 20.8%(시 단위지역 남성 32.4%, 여성 33.7%)로 농촌지역일수록

---

[6] 1960년대 후반부터 부업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로 점점 변화하기 시작함. 농가부업의 경우 돗자리 짜기, 가마니 짜기 등 기존 전통기술을 활용하여 개별농가 부업보다는 새마을 공장에 연계된 하청 형태로 이루어짐(오미란, 1993).

[7] 당시 활동은 간이 작업복 만들기, 균형식 장려, 우물·변소·부엌 개량, 표준주택 설계, 아궁이개량, 밥상 덮게 만들기 등이고 1960～1970년대 중반까지 전시과제는 작업복, 개량메주, 온돌개량, 부뚜막개량, 조리대, 흙벽돌 이용 찬장, 기생충 구제, 변소·우물개량 등이었다(한국여성농민운동사, 엄영애, 2007. p57)

여성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시기이다.

당시 농업은 산업화에 따라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생활고로 인한 이농이 격화되며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고, 농촌지역 자급경제는 점차 소비경제로 편입되었으며 농가에서 여성농업인의 노동은 더 이상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주된 노동으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한편, 종합적인 농촌개발이 시급한 정치적 과제로 제기되면서 새마을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나. 여성농업인의 현실과 주요 농업 정책

여성농업인은 도시로 떠난 농업노동력 부족을 메꾸고, 농가부업을 활용하여 도농격차로 확대되는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한편, 농촌은 당시 생산이 확대되기 시작한 제조업(가전제품, 화학비료, 농기계 등)의 주요 동력인 소비시장으로 기능하면서 농가소득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당시 농정의 과제는 식량 증산과 농가소득 증대였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농업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농촌임금의 상승은 농가의 농업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됨에 따라 새마을운동에서 주요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논농사 및 복합영농을 위한 시설개선과 생산협동사업, 치산녹화사업, 지력증진사업, 새마을공장건립 등 농가소득 증대사업이 시행되었다.

여성농업인은 새마을사업의 전개과정에서 '부녀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활동이 여성농업인 정책의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농촌사회에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문화적 규범이 있지만 여성이 새마을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마을 내에서 공식적인 리더로 등장하게 되었고, 정부는 각종 사업의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참여를 동원하였다. 또한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구판매사업, 농가부업 활동의 장려 외에도 탁아소, 마을회관과 마을공동작업장 마련, 공동구판장을 개설하는 등 복지 사업도 있었다.

2.3.2. 1980년대

가. 경제와 농업 현황

중화학공업 우선 정책과 외국자본에 의지한 경제성장은 1979년 오일쇼크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위기를 노동통제 강화와 중복과잉 투자된 중화학공업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극복한 우리나라 경제는 1986년부터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의 영향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하자 선진국의 수입 개방 압력이 거세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농업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이중곡가제가 폐기되었고, 추곡수매가가 동결되었으며, 부족한 농산물은 즉각 해외에서 수입하였다. 당시 농업 정책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복합영농을 권장하였으나 1986년 이후 대규모 무역흑자 발생과 그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과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가 경제는 점점 악화되었다.[8]

1980년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한 농산물 수입은 1986년 이후 3저 호황에 따른 대규모 무역흑자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늘어나 이른바 개방농정시대로 접어들었다. 미국은 개별적으로는 통상법 301조의 무역보복조치를 무기로 대미무역 흑자국에 대한 쌍무협상을 통하여, 세계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UR)라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하여 한국에 농산물시장 개방 압력을 가하였다. 그 결과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여 1986년 18억달러에 불과하던 농산물 수입이 1990년에는 37억달러로 늘어났고,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율도 1985년 69.2%에서 1991년 84.7%로 상승하였다. 1985년 미국의 6번째 농산물 수입국이던 한국은 1988년 이후 2번째로 격상되었다. 개방농정의 확대로 한국의 농업은 존폐의 위기 상황으로 몰렸으며 그에 따라 농가 경제는 더욱 어려워져 갔다.

---

[8] 농가부채는 1980년 농가 가구당 339천원에서 1986년 2,192천원으로 6.5배 증가하였다.

한편, 농가경제 위기확대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미작중심의 농업에서 과수, 원예, 축산 등 상업농으로의 전환이 급속히 전개되었다. 이중곡가제가 폐기됨에 따라 벼농사의 수익성이 낮아지는데 비해 국민소득의 증가로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수익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식생활이 탄수화물 중심의 전통식에서 단백질, 지방의 서구식 식생활로 소비가 변하면서 축산, 과수, 채소류의 생산은 확대하는 한편, 곡물은 미국의 잉여곡물 처리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곡류의 자급률은 1970년 80%에서 1990년 43%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나. 여성농업인의 현실과 농업정책

산업화로 농촌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자 농업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농촌 지역은 농업노동력 감소로 인해 농업노동 임금이 상승하였지만 농업노동력의 고령화, 여성화로 인해 농가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특히 1980년대 소값 폭락, 고추값 폭락, 마늘값 폭락 등 연이은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정부의 농업정책에 공식적으로 저항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각종 농산물 피해보상투쟁, 의료보험개혁투쟁, 수세폐지투쟁 등에서 여성농업인은 실패한 농업정책의 비판 주체로 등장하였다.

1980년대 농정의 과제는 농가경제 위기확대에 대해 농업소득 극대화를 위해 가족노동력 등 농가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농가소득 강화로 귀결된다. 주요 농업정책은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의 농외소득원 개발 정책, 영농규모 확대 및 영농기계화, 농업경영체 육성(후계자육성,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후계세대 육성 정책의 구조조정 정책, 농업생산의 효율성 제고 정책, 생산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경영규모 확대 정책 등이다. 당시 농정은 농업의 내적·외적 돌발 변수에 정책이 떠밀려 가는 상황이었다. 위기에 봉착한 농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시도했으나 농산물 수입개방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생산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급변하는 농업에 대응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은 1970년대 복지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다.

2.3.3.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주요 조직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경제주체로 등장하게 된 것은 다음과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첫째, 산업화에 따른 이농·탈농으로 농업노동력 부족과 복합영농, 상업농의 권장으로 여성농업인의 노동 수요가 증가하였다. 둘째, 도시로 유학 보낸 자녀의 교육비와 농업노동력을 보완하는 농기계가 보급되고 가사노동의 자동기기 등 가정생활용품 구입 증가로 현금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 등 지역개발 사업에 여성농업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여성 지도자가 발굴되었고,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울력(노동력 무상제공) 참여, 공동기금 마련으로 마을회관 내 시설 보강, 마을금고를 활용한 현금 축적,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퇴비증산 등 농촌개발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성농업인 조직으로는 새마을부녀회가 조직되어 마을 단위 구판매사업이 이루어졌다. 새마을구판장은 1974~1978년 총 47,672개소가 개설되었다. 새마을부녀회의 사업은 1970년대 활동이 마을, 지역 단위 중심이었던 것에 비해 1980년대는 시·군이나 중앙 중심의 행사 등 외향적 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80년대 급격히 감소하였다.

1980년대 농가경제의 악화로 새마을사업은 더 이상 발전의 동력을 잃었고, 농촌지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농가인구 구성의 역동성이 저하되었으며, 민간주도화 시책에 따라 새마을사업은 자율운영에 맡겨지고, 1988년 새마을 비리사건 이후 급격히 쇠퇴하였기 때문이다.

표 2-9. 1980년대 새마을 부녀회 조직 현황

단위: 개소, 천명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조직수	103,444	103,471	103,999	73,075	73,573	73,925	77,327	73,680	73,418
회원수	3,235	3,235	3,037	3,235	2,346	2,126	2,123	2,120	2,109

자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업무자료, 1990.

표 2-10. 1980년대 새마을부녀회 주요사업

역점과제	사업내용
근검절약생활화	알뜰시장, 국산품애용운동, 저축운동
지역봉사활동	꽃길가꾸기, 마을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소득활동	공동부업, 새마을구판장 운영
전통미풍양속계승	다도교육, 향토음식개발, 전통예절교육

자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업무자료, 1990.

표 2-11. 연도별 마을부녀회 주요활동

	관광	구판장	경로잔치	공동작업	가로등설치	방송시설
1970	15	24	10	11	2	5
1980	23	17	12	8	11	3
1990	15	13	7	4	5	1

주: 1992년 전남지역의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마을부녀회 설문조사 결과.
자료: 오미란 외(1992).

한편, 1980년대는 이농·탈농이 가속화되면서 농촌 공동체의 붕괴가 가시화되었다. 특히 1980년대 개방 농정 하에서 현금 소득 확보를 위해 원예작물과 같은 환금성 작물로 전환했으나 오히려 가격 파동으로 인해 농가부채가 급증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개별농가가 생존을 위한 경쟁에 내몰리며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농업인도 농업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활동을 시작하였다.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자로서 자각은 여성농업인을 생산주체화하는 조직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1977년 가톨릭농촌여성회(1984년 가톨릭여성농민회로 변경), 1984년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여성위원회, 1989년 전국여성농

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농가경제의 위기가 여성농업인이 생산의 주체로서 자각하도록 독려하였고, 그 결과 여성 스스로 농촌사회에서 발언권을 높이며 농업·농촌 정책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2.4. 1990년대: 여성농업인으로 정체성 강화

2.4.1. 경제와 농업 현황

1980년대 경제호황과 그로 인해 전면적인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1987년 6월 이후의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실질임금 상승으로 농업 생산과 소비 측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노동자의 평균 임금 상승으로 우리 사회 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 상층인 중산층의 물질적 기반을 향상시켰고 이러한 중산층의 성장은 1990년대 소비의 다양성을 선도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한편, 정부는 1990년대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대응하여 농업 구조개선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영향으로 일부 영농규모가 확대되고 대농층으로 농업생산자원이 집중되는 가운데 농업인 내에서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작목 구성 및 영농규모 등에 따라 농업 내부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었다. 반면, 농업인력 감소와 더불어 고령・영세농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 및 생활여건 격차, 농가 호당 부채부담 증가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였다.[9] 영세농가의 대부분은 고령농이고 이들이 농업외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는 대부분 재촌취농 인력인 농업노동으로 전환되었는데, 농

[9]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통계에 의하면 60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1992년 21.7%에서 2003년 39.0%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경지규모는 0.5ha 미만 농가의 비중이 1992년 28.5%에서 2003년 34.9%로 확대되어 영세농가의 비중이 증대하였으며, 호당 농가부채는 1992년 569만원에서 2003년 2,662만원으로 농가경제의 침체는 가속화되었다.

업노동은 여성노동화를 거쳐 고령여성의 노동력 의존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2.4.2. 여성농업인의 현실과 농업정책

1990년대 농촌 현황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농촌공동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농업 구조개선 사업이 전개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작규모가 영세한 농가일수록 소득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정책 소외 현상이 심화되었다.

농업 구조개선 정책의 핵심은 규모화, 경쟁력 강화이므로, 농지 소유나 자기자본력이 미약한 여성농업인은 정책 대상이 될 수 없었고, 설사 정책 대상이 되더라도 전업농이나 후계자로 지정받는 일도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는 제한적이었다.

당시 농정의 과제는 농업 구조조정이었고, 주요 농업정책도 농업부분 재정투융자로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1992~98년)으로 총 42조원을 투자하고, '농업·농촌 발전대책'(1999~2003년)으로 총 45조원이 농업·농촌에 투자되었다.

표 2-12. 1990년대 농업인 후계자

연도	선정인원	성별	
		남	여
1990	1,850	1,809 (97.8)	41 (2.2)
1991	1,350	1,329 (98.4)	21 (1.6)
1992	9,000	8,787 (97.6)	213 (2.4)
1993	9,000	8,733 (97.0)	267 (3.0)
1994	8,340	7,898 (94.7)	442 (5.3)
1995	9,730	9,135 (93.9)	595 (6.1)
1996	8,227	7,520 (91.4)	707 (8.6)
1997	8,526	7,703 (90.3)	823 (8.7)
1998	7,862	6,851 (87.1)	1,011 (12.9)

자료: 여성특별위원회(1998), 「여성백서」 p134.

농어촌 발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이끌고 갈 프로정신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발굴하고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농업인이 단순한 생산자에서 유통가공에도 참여하는 기업가로, 농촌이 생산기지에서 복합적 산업기지로 전환하며, 낙후된 생산기반을 현대화하고 고품질의 기술 자본집약적인 농업을 실현하여 농촌의 인구유지를 위한 생활여건, 교육, 의료, 문화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한편, 실제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은 미미하지만 여성농업인 정책 인프라 구성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있었다. 1994년 여성정책 업무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간 여성정책 조정이 실시되고, 1995년 농림부 내에 농촌인력과가 신설되어 농촌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 농촌여성의 지위향상, 농촌 여성정착지원이 목적인 여성농업인 정책을 수립하며 1998년 3월 여성정책담당관 제도가 실시되었다. 1999년 2월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 제32장(생산주체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을 규정)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용어가 법적으로 처음 등장하였다.

2.4.3.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주요 조직

과거 농업노동력의 보조자였던 여성농업인이 1990년대 이후 남성과 동등하게 농업을 전담하게 되었다. 양적인 측면에서 농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을 능가하고, 농업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시간도 남성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다.

그에 대해 여성농업인 스스로 본격적으로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조직을 결성하게 되었다. 1989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996년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이다. 여성농업인의 조직은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5개 조직이 활동하였으나,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활동은 미흡한 수준이었다.

표 2-13. 1990년대 여성농업인 조직 개요

	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전국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목적	농촌생활의 과학화 합리화로 농가소득증대지역사회발전에 기여생활환경개선, 합리적인 가정관리, 전통생활문화 실천에 선도적 역할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 서로 협력하여 농촌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권익을 신장하여 농촌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회원상호 간의 친목도모 및 농업경영합리화, 과학화 및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도모를 통한 복지농촌건설	여성농민의 전국적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여성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여성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이룩하고 이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화, 조국통일실현
관장기관	농촌진흥청	농협	농림수산식품부	자생적 대중조직
조직년도	1994(1958년)	1996(1973년)	1996	1989
회원자격		45세 이하, 1999년 연령제한 폐지	전국 후계자 부인과 여성후계자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조직구성	16개시도, 171개 시·군 지회	16개시·도, 156개 시·군, 1002읍·면 조직	9개도 1개광역, 125개 시·군	8개도 72개 시·군
주요활동	다문화, 향토음식개발, 교육, 농가부업 활동 등, 도농직거래, 휴경지 공동경작, 환경보호	교육, 다문화지원사업, 도농직거래, 전통식품가공판매, 조합원가입, 다문화가족지원 등	교육, 도농교류, 농민권익 실현	여성농민 권익실현, 통일운동, 여성농민직거래, 토종씨앗지키기, 정책개선투쟁

주: 조직연도의 ( )는 모태가 되는 조직활동의 시작연도임.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오미란 정리.

표 2-14. 여성농업인 조직 활동현황

	농업·농정 개혁투쟁	여성농업인 권익실현활동	경영합리화, 소득활동	여성농업인 교육활동	통일 및 기타 사회운동
생활개선중앙연합회	-	-	○	○	-
전국농가주부모임	-	-	○	○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	○	○	○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	○	○	○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오미란 정리.

2.5. 2000년대～현재 : 지역 농업경영의 주체

2.5.1. 경제와 농업 현황

2000년 이후 경제는 WTO, FTA[10] 등으로 국가 및 지역 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고 세계가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세계적으로 금융부문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봉착하여 대규모 통화공급에도 불구하고 실물부문의 경기에 선순환을 주지 못한 채 인플레를 양산하고 있다.

농업 부문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노동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2010년 농가인구 약 300만명(총인구 중 6.4%), 65세 고령자 비율 35%이며, 심각한 농업노동력 부족은 농업경영비 증가에 직접 영향을 주어 농업노동 인건비가 높아지고 이는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농가가 구입하는 경상재와 농기구 등 투입재의 가격은 2005년에 비해 2010년은 53%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 이후 수출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전개하며 환율정책의 실패로 가격인플레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08년 이후 농산물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현재 농수산물 수출액이 58.8억달러인데 수입액은 257.9억원 수준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4.4배 많고,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로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0년 80.6%에서 2010년 66.8%로 하락하고 있다.

2.5.2. 여성농업인의 현실과 농업정책

여성농업인의 경영주체화 노력이 개별 농업생산만이 아니라 농업관련 사업, 사회활동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주체로 위치가 강화

---

[10] 우리나라는 2010년 말 현재 45개국과 FTA 발효 및 협상이 타결되었고, 협상 진행 중인 국가는 12개국, 협상여건 조성 중 국가는 17개국임.

되고 있다. 이는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여성농업인이 농업 및 지역 내 각종 사업의 경영과 노동에 직접 참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농촌관광, 도농교류, 농산물 가공,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하거나 마을 내 노인 돌봄도우미, 보육교사, 학교급식 지원 및 조리, 결혼이민자에 대한 방문교육과 후견인, 마을 이장이나 농촌마을개발 사업의 사무장, 추진위원장 등 활동 영역을 확대하며 여성농업인에게 마을개발의 관리자 역할이 주어졌다. 이는 2000년대 농어업경쟁력 및 농어촌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농정 과제에서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이 농업에서 농업·농촌·식품의 영역으로 확대·전환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 시기 주요 농업정책은, 첫째, 2003년 "농업・농촌 종합대책"은 농업의 비전을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사는 균형사회로 제시하고, 정책틀을 농업정책, 소득정책, 농촌정책으로 다층화함으로써 농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종합대책의 12개 정책군 가운데 여성농민과 관련된 독립된 조항은 복지인프라 확충, 영유아, 여성, 노인복지 항목뿐으로 복지의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농정의 주대상은 '농가'로 표현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경영체 육성, 전문인력 육성과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에 생산자조직 참여도가 낮은 여성농업인은 대상이 되지 못했다. 둘째, 농어촌 복지의 심각한 도-농 격차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자 이와 관련된 복지정책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셋째, 농외소득의 새로운 방안으로 농촌어메니티를 강조하는 농촌공간 및 문화, 경관 등에 대한 총체적인 자원화 정책으로서 2002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시작으로 각종 마을 사업과 농어촌종합개발사업, 신활력사업 등 농촌대상 마을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

한편, 이 시기는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의 제도가 구체화된 시기로서 2000년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이후, 2001년 '여성농업인육성기본법' 제정과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농업인 관련 전문인력화 정책보다 농어촌 복지만 부분적으로 강화되었다. 2000년대 농정의 핵심이 농업클러스터, 정예인력, 소득보조 중심의 경쟁력 강화로 전개되

었기 때문에 농가를 대표하는 위치가 아닌 여성농업인은 주도적인 정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또한 2008년 '농업·농어촌식품기본법'에 농업인에 대한 규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고 농가경영체 등록, 부부공동경영협약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홍보 부족과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참여에 대한 반영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2007년 이후 복지정책 이외에는 여성농업인 관련 인프라는 오히려 축소되었고,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도 대부분 농협이나 광역지자체의 사업으로 후퇴하였다.

2.5.3.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주요 조직

이 시기 여성농업인의 활동 범위는 농업생산의 보조자에서 농업관련 사업의 경영주체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농업의 규모화, 전문화가 농가 소득 향상에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는 농업인의 자각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농산물 소비가 양에서 질로 변함에 따라 농업·농촌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크게 변하였다. 식품안전성이 강조되면서 농가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농촌 어메니티 추구의 농촌관광과 도농교류가 증가하면서 농업의 범위도 2~3차 산업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관광, 도농교류, 농산물 가공,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 CEO가 등장하고, 2002년 이후 실시된 농어촌마을 개발 사업, 농촌마을 관광사업의 정책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이 증가하였다.

농업관련 사업농가수는 2005년 103,981호(전국 농가수의 8.2%)에서 2010년 162,640호(13.8%, 농기계작업대행업 제외하면 11.8%)로 증가하였다. 그중 직판장과 직거래가 80% 이상이며, 농가 식당이 2005년 5.0%에서 2010년 6.5%로 증가하고 있다. 농촌관광, 식당, 직거래 모두가 서비스업 유형이고 친절, 소포장, 장부관리 등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한편, 여성농업인은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사회적 활동의 주역이기도 하다. 마을 내 노인 돌봄도우미, 보육교사, 학교급식 지원 및 조리, 결혼이민

자에 대한 방문교육과 후견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마을 이장이나 농촌 마을개발 사업의 사무장, 추진위원장 등 사회활동 영역이 확대로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의 증가하고 있다.

표 2-15. 농업관련사업별 경영 농가수

단위: 호(%)

2005	계	직판장·직거래	농가식당	농산물가공업	농가민박	관광농원
계	103,981 (100.0)	88,290 (84.9)	5,174 (5.0)	6,503 (6.3)	3,278 (3.2)	736 (0.7)
남자	89,077	74,917	4,721	5,827	2,929	683
여자	14,904	13,373	453	676	349	53

2010	계	직판장	직거래	식당	농축산물가공업	농촌관광	농기계작업
계	162,640 (100.0)	28,127 (17.3)	89,107 (54.8)	9,043 (5.6)	8,564 (5.3)	4,468 (2.7)	23,331 (14.3)
(비교)	(100.0)	(20.2)	(64.0)	(6.5)	(6.1)	(3.2)	-
남자	145,184	24,708	77,845	8,192	7,675	3,932	22,832
여자	17,456	3,419	11,262	851	889	536	499

주: 2010년 계(비교)는 2005년과 비교 위해 농기계작업대행 농가수를 제외한 비율임.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어업총조사(2005, 2010).

3. 여성농업인 정책의 개요

3.1. 농업인력으로서 여성농업인의 환경

그동안 여성농업인은 농업보조자인 노동인력으로 인식되었다. 그 이유는 여성농업인의 일반적인 특성인 고령화, 저학력, 낮은 기술 수준, 노동의 주변화 현상으로 일축되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와 여성농업인 CEO의 등장에 따라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즉, 그동안 노동인력으로 취급하였던 여성농업인을 경영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일조하게 하는 인력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농업인이 농업인력으로서 위치하고 있는 환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이 처한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그 이유는 농업·농촌은 생산과 생활 공간이 거의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일터와 삶터의 분리가 모호하다. 그로 인해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부담과 농업노동이 혼합된 형태로 동시에 수행되며,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구분이 어려워 여성농업인의 생산노동조차 사회적으로 적절히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농업생산 중에서도 수확, 파종, 이식, 건조 등의 농작업은 거의 여성농업인이 담당하지만 기계화율이 매우 낮아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에 과다하게 의존한다. 과다한 농업노동은 여성농업인의 건강 악화,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농가나 마을 외부 활동과 교류의 기회를 축소하므로 생활의 범위가 좁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여성농업인은 영농 및 농기계 기술, 경영능력, 리더십 등 경영인력으로서 전문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이 전문능력을 습득하지 못한 제한요인은 낮은 학력과 고령화이다. 영농기술이나 정보의 습득은 대면적 관계, 전문 영농조직, 전문직업인 훈련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성농업인의 경우 대면적 관계가 제한되어 있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에 대부분 남편이 참여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이 참여할 여지가 적다. 또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기관의 교육도 그 수나 인원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 노동 참여와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전문능력에 대한 습득욕구도 높아지고 있다(표 2-16).

셋째, 여성농업인이 직업인으로서 지위가 불안정(법적 지위 미약)하다는 현실이다. 여성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영농에 참여하고 있으나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약 80%이고,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가 36.5%에 이른다.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는 방법은 연간 투여된 농작업 시간이고 2009년부터 농업종사확인서를 자격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문제이다. 반면, 여성농업인 스스로 영농활동상의 지위를 공동경영주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67%이고, 40~50대의 농가소득 기여율을 높게 평

가하고 농업노동 기여도가 높을수록 공동경영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도 있다. 스스로 경영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들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표 2-16. 농업전문인력화를 위한 본인능력 개발(복수응답)

단위: 명(%)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농산물 재배기술	94(36.3)	11(4.3)	18(7.2)	123(16.1)
농기계 조작능력	14(5.4)	22(8.7)	6(2.4)	42(5.5)
법인,작목반 등 조직운영	20(7.7)	22(8.7)	16(6.4)	58(7.6)
농산물 판매 및 마케팅 능력	80(30.9)	67(26.4)	35(14.0)	182(23.9)
경영장부 기록 및 회계관리 능력	8(3.1)	18(7.1)	16(6.4)	42(5.5)
농산물 가공기술 능력	20(7.7)	72(28.3)	40(16.0)	132(17.3)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능력	10(3.9)	22(8.7)	26(10.4)	58(7.6)
홈페이지, 카페 운영 등 정보화능력	13(5.0)	20(7.9)	92(36.8)	125(16.4)
기타	0(0.0)	0(0.0)	1(0.4)	1(0.1)
합 계	259(100.0)	254(100.0)	250(100.0)	736(100.0)

자료 : 오미란 외(2010).

3.2. 여성농업인 정책 시행의 계기와 의미

여성농업인은 전체 농업인구의 52.5%로서 농업생산의 주체, 농가 경영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국내외 인식 확대에 따라 행정체계를 정비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업인력(노동인력, 경영인력)으로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농가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여성농업인 스스로 자구적인 활동이 전개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 요구 활동이 강화된 결과이기도 하다.

1983년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이후 1995년까지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 개선책이 마련되었고,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에서 성 주류

화 전략 채택 이후, 각국의 여성정책이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에서 성 주류화가 실현된 것은 1995년이다. 성 주류화 정책의 핵심은 제도와 정책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분석 및 예산의 수립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공무원들에 대한 성 인지 교육 강화와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표 2-17.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과제와 세부 내용

구분	핵심과제	세부과제
여성부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998-2002)	여성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권익신장	1. 고정화된 역할분담의식의 개선 2. 농어촌 생활개선 및 여성농업인 건강관리 3.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지원 4. 협동조합에 여성의 정회원 가입촉진 5.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관련 여성농업인 대표 참여 확대 6.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육성 지원 7. 여성농업인 영농 및 농기계교육 훈련 8.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경영교육 프로그램 지원 9. 농촌관련 여성단체 육성 지원
여성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3-2007)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	1.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제고 및 전문인력육성 기반조성 2.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제고 및 지위향상 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촌정주를 위한 지원강화 4. 여성농업인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여성가족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여성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지 강화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추진 2.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확대 3. 출산도우미, 영농도우미 등 지원강화 4.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지원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기본계획(1998, 2003, 2007).

농업정책에서는 농기계 이용, 농업후계인력 육성, 소규모 가공 창업 지원 등 여성농업인과 관련이 높은 영역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주무부처의 약화로 인해 성 주류화 정책 환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여성농업인 정책 형성과정으로 개설되었던 6급 이상 공무원 교육과정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 농어촌지역 여성들의 소규모 창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다.

3.3. 여성농업인 정책의 주요 내용

3.3.1. 여성농업인 정책 인프라 구축

1994년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정책 담당관실을 두어 여성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당시 농림부는 1995년 농촌인력과에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항목을 설정하였다. 그 후 1999년 '여성농업인'이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획득하고, 2001년 '여성농업인육성법'을 제정하였다. 법 제정으로 여성농업인 관련 법적 용어가 공식화되고, 여성농업인을 공식적으로 직업으로 인정하고 정책추진의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3.2. 인력육성과 복지정책의 강화

농업정책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의 핵심은 인력육성과 복지정책 강화이다. 먼저,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 육성 방안은 농업인후계자, 생산자조직의 참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영능력 향상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추진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여성농업인 정책에서 복지정책은 생산적 복지의 강화, 즉 직업적 지위를 인정한 복지정책의 확대 및 강화이다. 여성농업인에게 도시 근로자여성처럼 일-가정 양립이라는 측면의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농가도우미제도, 연금보험 실시, 여성농업인센터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여성농업인센터는 2곳밖에 증가되지 못했고, 농가도우미 제도 역시 도시근로자 여성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며, 연금보험

의 가입실적 역시 미미하여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2006년 이후 여성농업인 정책에서 다문화관련 사업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여성의 전문인력화에 관한 정책은 후퇴하였다.

3.3.3.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과 실시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01～2005) 기간은 여성농업인을 전문직업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공식화한 후, 여성농업인 정책의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였다. 나아가 여성농업인 단체가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농업후계자, 여성농업인센터, 농가도우미제도 등의 제도화에 기여하였다.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06～2010) 기간은 다문화가족지원, 농가도우미 제도 확대, 농촌보육 시설 확충,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 강화 등에서 성과를 이루었다. 농업인 확인서, 농가경영체 등록 시 경영주와 종사자 명기, 농지원부에 가족란 명기, 가족공동경영협약 확대 등이다. 특히 여성농업인육성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여 2007년부터 여성농업인육성조례를 제정할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담당 부서가 과에서 팀으로 축소되었고, 여성농업인 단체가 수행하는 경영전문화 교육지원도 오히려 축소하여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향상과 인력육성 영역에서는 성과는 후퇴하였다는 평가이다.

제3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1～2015)은 경영인력으로 여성농업인 육성과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5가지 전략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1차 여성농업인 기본계획 이후 단기간에 목표 도달이 어려운 장기 과제가 포함되어 구체적인 실효성은 낮은 편이다.

그림 2-6. 여성농업인육성 제3차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비전	▷ 창조성·전문성·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전략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전문 농어업 경영역량 강화	지역개발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중점추진과제	1. 공동경영인으로서 직업적 권익 향상 2. 여성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 추진 3. 정책결정과정 및 생산자조직 참여 확대	1. 여성농어업인 역량 증진 교육 지원 2. 여성농어업인 창업지원 3.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확대	1. 농어촌 지역개발의 리더 육성 2. 농어촌 복지서비스 인력 양성 3. 신규 유입인력 정착지원 멘토 육성 4.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1. 여성농어업인 모성보호 및 건강지원확대 2. 농어촌 보육시설 확대 및 보육여건 개선 3. 농어촌지역 공동취사 활성화 4. 여성농어업인 문화활동 지원	1.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 교육 확대 2. 지자체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 강화 3. 여성농어업인 단체와의 정책 추진 거버넌스 구축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제3차 여성농어인 육성 5개년 계획(2010).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실태

제3장

1.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과 조사 개요

1.1. 통계로 살펴 본 여성농업인의 개요

2010년 통계청의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은 남성 53.9세, 여성 56.3세이며, 60세 이상의 비율은 남성 41.9%, 여성 47.6%로 여성의 고령 비중이 높다. 또한 여성은 사별이나 이혼의 비율은 20%로 남성보다 3.7배 높은 수치이다(표 3-1).

연중 농업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의 비중은 여성 62.8%로 높은 편이지만 농업종사기간이 없는 비중도 21.6%로 높은 편이다. 20세 미만을 제외하더라도 농가이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중이 여성이 17.2%에 이른다. 농가이면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68.2%이고, 직업이 없는 비중도 15.1%로 높은 편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당 근로시간은 여성농업인이 비농가 여성에 비해 평균 6.2시간이 길고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여성농업인은 37.3%, 비농가 여성은 33.8%로 일의 양은 많다. 반면, 농업에 종사하는 시간을 길지만 여성농업인이 경영자인

자영업자의 비중은 22.4%에 불과하고, 무급가족노동자가 46.8%에 이른다. 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 농업보조인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이며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가 아직도 열악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표 3-1. 15세 이상 농가인구의 특성

단위: %

	연령						혼인상태			가구주	경영주
	15~19세	20~49세	50~59세	60~69세	70대 이상	평균(세)	미혼	배우자	사별/이혼		
남	5.20	30.4	20.5	21.9	22.0	53.9	20.4	73.9	5.8	72.1	70.6
여	4.4	26.4	21.5	22.6	25.0	56.3	12.2	67.7	20.0	13.8	15.2

	농업종사기간					주종사분야				
	없음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농림어업	제조/건설업	도소매/숙박	기타 산업	없음
남	16.4	2.4	5.8	9.1	66.3	65.5	4.9	2.4	17.0	10.3
여	21.6	2.6	5.6	7.3	62.8	68.2	1.4	3.6	11.6	15.1

자료: 통계청(2010). 농업총조사.

단위: %

		15세 이상 농가 인구		비농가 여성
		남	여	
1주에 일한 시간	10시간미만	23.9	36.5	54.0
	10~39시간	26.7	26.2	12.2
	40~49시간	23.1	20.1	19.9
	50시간 이상	26.2	17.2	13.9
	평균(시간)	32.9	26.0	19.8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1.4	10.2	32.5
	임시근로자	7.5	10.2	33.3
	일용근로자	5.6	8.9	12.2
	고용주	4.6	1.5	3.1
	자영자	64.7	22.4	11.3
	무급가족노동자	6.1	46.8	7.6

자료: 통계청(2010). 경제활동 인구 조사.

한편, 여성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비농가 여성의 만족도나 불만족도보다 다소 낮다(표 3-2).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간 농산물판매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농가는 전체 농가의 87%에 이른다. 농가는 도시근로자에 비해 현금소득이 절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농촌이 갖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라 하더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텃밭을 가꾸거나 땔감을 마련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가 약화되기는 했지만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농촌문화나 정서가 여전히 남아있다.

여성의 취업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여성농업인이 비농가 여성에 비해 다소 낮지만 남성농업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아 농촌의 가부장적 문화는 남성농업인에게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의 취업에 장애요인은 가사와 육아 외에 '사회적 편견'은 여성농업인이 비농가 여성보다 비중이 높지만 '불평등한 근로여건' 비농가 여성보다 비중이 낮다.

표 3-2. 여성의 취업 관련 의식

구분		15세이상 농가 인구		비농가 여성
		남	여	
직업만족도	만족	23.9	22.4	26.3
	보통	54.7	61.4	52.9
	불만족	21.5	15.8	20.8
(여성의) 취업에 대한 의식	취업이 바람직	80.3	85.5	87.8
	가정이 더 중요	9.6	7.1	6.2
	잘 모름	10.1	7.5	6.0
(여성)취업장애 요인	사회편견	35.1	50.6	47.2
	직업의식 부족	13.8	13.7	16.7
	불평등 근로여건	25.7	18.4	24.1
	능력 부족	7.1	15.3	16.8
	구인 정보 부족	6.0	6.1	6.8
	육아부담	62.3	56.1	57.6
	가사부담	37.2	30.0	31.3
	기타	0.3	30.6	31.3
	잘 모르겠다	11.4	7.7	5.8

자료: 통계청(2011) 사회조사.

1.2. 본 연구 조사 여성농업인의 일반 개요

전국 65세 이하 여성농업인 70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본 조사의 대상자는 연령별로 50대 49.4%, 40대 23.8%, 60대 20.4%, 30대 이하 6.4%의 순이다. 실제 여성농업인 중 60세 이상이 47.6%를 차지하지만 본 조사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 특히 경영인력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65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60대의 비중이 낮은 반면, 50대의 비중이 높다.

거주지역은 일정비율로 안배하여 읍지역 거주는 26.6%, 면지역 거주는 73.4%이다. 영농규모[11]는 품목별로 규모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한 결과 82.9%가 중규모 이하의 중소농가이며, 주력품목은 채소 36.5%, 쌀 31.9%, 과수가 17.5%의 순이다(표 3-3).

표 3-3. 본 조사 여성농업인의 일반 특성

	연령				거주지			
	30대	40대	50대	60대	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빈도	45	167	347	143	176	175	176	175
비율	6.4	23.8	49.4	20.4	25.1	24.9	25.1	24.9

	지역유형			영농규모				
	도시근교	평야지	중산간지	소	중소	중	중대	대
빈도	233	182	287	185	206	191	89	31
비율	33.2	25.9	40.9	26.4	29.3	27.2	12.7	4.4

	학력				주력품목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쌀	특용작물	과수	채소	축산
빈도	163	227	270	42	224	71	123	256	23
비율	23.2	32.3	38.5	6.0	31.9	10.1	17.5	36.5	3.3

주: 지역유형과 영농규모의 구분은 부록 1 참조.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11] 영농규모의 산정 기준은 <부록 1> 참조.

1.2.1. 가구 구성의 형태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가구형태는 부부 2인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 40.7%, 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와 조부모로 구성된 2세대 가구 41.2%,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3세대 가구 12.4%이다(표 3-4).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1세대 구성이 높고, 특히 60대는 8.4%가 독신인 반면, 40대 이하는 자녀와 동거하는 2세대 비중이 높으며, 20~30대는 3세대의 비중도 37.8%로 높다. 거주지역별로는 산업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강원권과 경상권 지역에 비해 충청권과 전라권은 부부 1세대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3세대 가구의 비율은 낮다.

표 3-4. 조사대상자의 가구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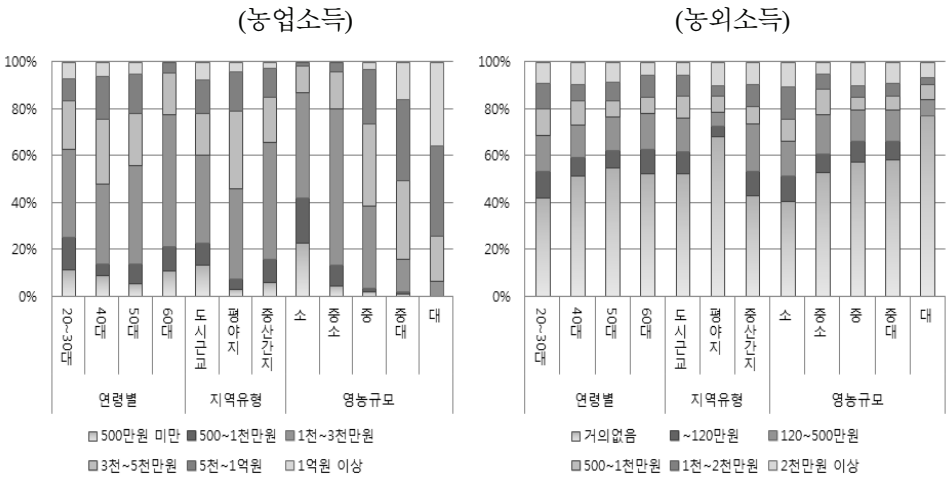
		1세대		2세대			3세대
		독신	부부	부부 +자녀	부부 +조부모	편부모(또는 조부모)+자녀	조부모+ 부부+자녀
연령	20~30대	0.0	2.2	57.8	0.0	0.0	37.8
	40대	0.6	23.4	61.1	1.2	1.2	14.4
	50대	2.0	47.6	35.7	3.5	3.7	11.0
	60대	8.4	67.8	16.8	0.7	2.1	4.9
거주 지역	경기/강원	1.1	30.1	44.9	3.4	1.1	22.7
	충청	2.3	53.7	35.4	1.7	3.4	5.7
	전라	2.8	53.4	34.7	1.7	2.3	6.8
	경상	5.1	34.9	42.3	1.7	3.4	13.7
지역 유형	도시근교	2.6	34.8	44.6	2.1	1.7	16.3
	평야지	3.3	41.8	40.1	1.1	3.3	11.0
	중산간지	2.8	50.5	34.5	2.8	2.8	9.8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1.2.2.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 규모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2011년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은 연령, 지역유형, 영농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림 3-1.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규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농업소득이 3천 만원 이상인 경우, 40대가 52%인데 비해 60대는 21%에 불과하다. 또한 중산간지역의 33%에 비해 평야지역은 54%이며, 소규모 농가 12%에 비해 대규모 농가는 94%로 높다. 농업소득은 40대의 평야지역에서 영농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농외소득은 거의 없는 농가가 53%인데, 특히 평야지역이나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업 생산에 집중하는 전업농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외소득이 있더라도 500만원 미만이 23.1%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40대의 소규모 농가일수록 농외소득 규모가 1천만원 이상인 비중이 높다. 영농규모가 작을수록 농업소득이 적은 대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농외소득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농업소득 규모

		판매 없음	500만원 미만	500~ 1천만원	1~3천 만원	3~5천 만원	5천만~ 1억원	1억원 이상
연령	20~30대	4.4	11.1	13.3	35.6	20.0	8.9	6.7
	40대	0.6	9.0	4.8	34.1	27.5	18.0	6.0
	50대	0.6	5.5	8.4	41.8	21.9	16.7	5.2
	60대	4.9	10.5	9.8	53.8	16.8	4.2	0.0
지역 유형	도시근교	3.0	13.3	9.0	36.1	17.6	13.7	7.3
	평야지	0.5	3.3	4.4	37.9	33.0	17.0	3.8
	중산간지	1.4	5.9	9.8	49.5	18.8	12.2	2.4
영농 규모	소	5.4	21.6	18.4	42.2	10.8	1.6	0.0
	중소	0.0	4.4	9.2	66.5	16.0	3.9	0.0
	중	1.0	2.1	1.6	34.6	34.6	23.0	3.1
	중대	0.0	1.1	1.1	13.5	33.7	34.8	15.7
	대	0.0	0.0	0.0	6.5	19.4	38.7	35.5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표 3-6. 농외소득 규모

		거의 없음	120만원 미만	120~ 500만원	500~ 1천만원	1천~ 2천만원	2천만원 이상
연령	20~30대	42.2	11.1	15.6	11.1	11.1	8.9
	40대	51.5	7.8	13.8	10.8	6.6	9.6
	50대	54.8	7.8	14.4	6.9	7.5	8.6
	60대	52.4	10.5	15.4	7.0	9.1	5.6
지역 유형	도시근교	52.4	9.4	14.6	9.4	8.6	5.6
	평야지	68.1	4.4	6.0	7.1	4.4	9.9
	중산간지	43.2	10.5	19.9	7.7	9.4	9.4
영농 규모	소	40.5	10.8	15.1	9.2	14.1	10.3
	중소	52.9	7.8	17.0	10.7	6.8	4.9
	중	57.6	8.9	13.1	5.8	4.7	9.9
	중대	58.4	7.9	13.5	5.6	5.6	9.0
	대	77.4	0.0	6.5	6.5	3.2	6.5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2.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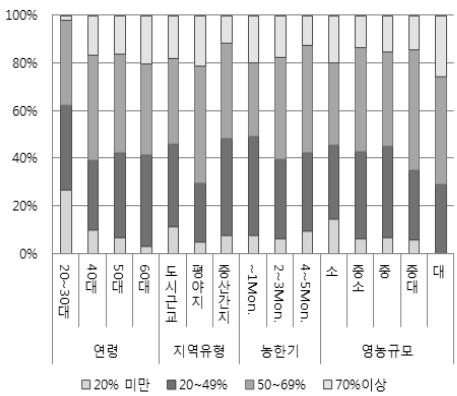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실태를 농업 활동과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농업 활동은 다시 농업경영활동과 농업노동활동으로,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은 농산물 가공·판매·농촌관광 부문과 농외 취업이나 임금노동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1. 여성농업인의 농업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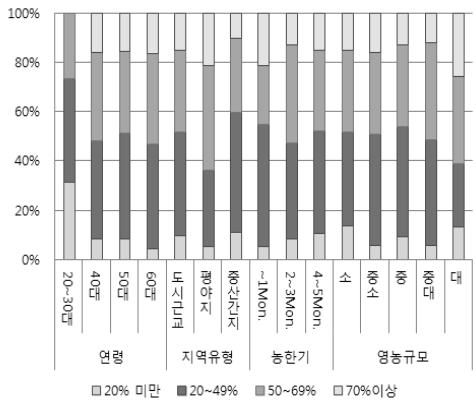
농가에서 농업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사일을 100이라 할 때 여성농업인이 농사일을 담당하는 비중을 질문하였다. 여성농업인은 20～30대를 제외하고 농사일 담당 비중이 50% 이상인 비중이 높다.

그림 3-2.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및 농가소득 기여도

(농사일 담당 비중)



(농가소득에 본인 기여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표 3-7.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및 농가소득 기여도

단위:%

		농사일 담당 비중				농가 소득에 본인 기여도			
		20% 미만	20~49%	50~69%	70% 이상	20% 미만	20~49%	50~69%	70% 이상
연령	20~30대	26.7	35.6	35.6	2.2	31.1	42.2	26.7	0.0
	40대	9.6	29.3	44.3	16.8	8.4	39.5	35.9	16.2
	50대	6.6	35.4	41.5	16.4	8.1	42.9	33.4	15.6
	60대	2.8	38.5	38.5	20.3	4.2	42.7	36.4	16.8
지역 유형	도시근교	11.2	34.8	36.1	18.0	9.4	42.1	33.0	15.5
	평야지	4.4	24.7	49.5	21.4	4.9	31.3	42.3	21.4
	중산간지	7.3	40.8	40.1	11.8	10.8	48.8	30.0	10.5
농한 기간	1개월 미만	7.4	41.3	31.4	19.8	5.0	49.6	24.0	21.5
	2~3개월	6.1	33.1	43.0	17.7	8.1	39.0	39.8	13.1
	4~5개월	9.1	33.2	45.0	12.7	10.5	41.4	32.7	15.5
영농 규모	소	14.1	31.4	34.6	20.0	13.5	37.8	33.5	15.1
	중소	5.8	36.9	43.7	13.6	5.3	45.1	33.5	16.0
	중	6.3	38.7	39.8	15.2	8.9	45.0	33.0	13.1
	중대	5.6	29.2	50.6	14.6	5.6	42.7	39.3	12.4
	대	0.0	29.0	45.2	25.8	12.9	25.8	35.5	25.8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표 3-8.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에 대한 마을 비교

단위: %

	시설재배		농사일 담당 비중			
	없음	있음	20% 미만	20~49%	50~69%	70% 이상
부여	8.7	91.3	0.0	16.7	45.8	37.5
장흥	29.4	70.6	0.0	27.8	50.0	22.2
양구	51.9	48.1	14.3	17.9	39.3	28.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대규모가 71.0%, 시설재배가 많은 평야지가 70.9%, 중대규모 65.2%, 40대 61.1%, 농한기간 2~3개월이 60.7%로 높다(표 3-7). 즉, 영농규모가 크고 평야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참여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재배 비중이 높고 농한기간이 짧을수록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높다(표 3-8). 본 연

구는 농한기간이 다른 3개 마을의 여성농업인을 별도로 조사[12]하였는데, 시설재배가 90%인 부여의 경우 농사일 담당 50% 이상인 비중이 83.3%에 이르는 반면, 농한기간이 5개월 이상으로 긴 양구는 농사일 담당 비중이 20% 미만인 경우도 14.3%에 이른다.

표 3-9. 농업활동 분야별 여성농업인의 관여 정도

단위: %

		전혀 관여하지 않음	거의 관여하지 않음	어느 정도 관여	내가 주로 담당	해당 없음
농업 생산	작물결정	3.7	16.2	69.7	8.8	1.6
	기술정보수집	11.3	42.5	37.0	7.0	2.3
	영농자재구입결정	12.7	36.6	39.7	9.0	2.0
	논/밭갈이	10.3	33.0	46.7	7.5	2.4
	파종/육묘관리/정식	5.1	18.7	62.3	12.4	1.6
	농약살포	15.0	31.9	44.0	8.0	1.1
	비료주기	10.8	28.8	51.0	8.1	1.3
생산 고용	외부인력고용 결정	6.6	20.4	54.8	13.1	5.1
	고용인력관리	5.4	21.7	54.0	13.8	5.1
	품앗이	6.1	18.9	46.0	14.4	14.5
수확 및 판매	수확	2.1	12.0	71.7	13.1	1.1
	수확 후 관리	3.8	12.8	62.1	17.2	4.0
	출하준비	2.4	15.4	64.1	14.4	3.7
	판매처 결정	4.7	29.3	54.1	9.8	2.0
	판매정보 수집	6.7	36.8	45.9	8.5	2.1
회계 및 재무 관리	경영일지기록	14.0	35.6	24.9	8.8	16.7
	회계장부 작성	13.8	29.9	24.5	9.3	22.5
	토지 매매/임대 결정	9.7	30.2	46.2	5.3	8.7
	영농자금 대출 결정	12.8	31.9	44.2	5.7	5.4
	통장관리	6.7	18.8	52.1	21.8	0.6
	농가 소비 지출 결정	4.8	14.1	62.3	18.2	0.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12] 마을 조사의 개요는 제1장 4절에서 상세히 서술하였음.

농가 소득에 대한 본인 기여도는 농사일 참여 비중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표 3-7).[13] 농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농사일이란 여전히 농업 생산이 중심이기 때문에 농업생산에서는 남편인 남성농업인의 전문성이 우월하며 여성농업인은 남편에 비해 전문성이 낮다고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농업인의 농업 활동과 관련하여 농업생산, 생산고용, 수확 및 판매, 회계 및 재무관리 등 21개 세부 분야별 참여실태를 살펴보았다.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분야 중 파종, 육묘, 정식이나 수확 작업과 관리 등 농기계 사용이 비교적 적은 분야, 인력 고용을 결정하거나 인력 관리, 품앗이, 농가 소비 지출에 관여가 많다. 반면, 기술 및 판매정보 수집과 경영일지나 회계장부 작성 등 기록하는 작업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표 3-9).

한편, 표 3-9의 농업활동을 경영활동과 노동활동으로 나누어 활동에 참여 정도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경영활동과 노동활동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며, 영농규모가 대규모이고 농한기간이 4~5개월인 경우가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타났다(표 3-10).[14] 농업활동에서는 특히 연령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 농업경영 활동에서 소극적인 비율이 20~30대 31.8%에서, 40대 13.0%, 50대 9.9%, 60대 8.5%로 크게 낮아지고, 농업노동 활동도 적극적인 경우가 20~30대는 11.6%지만, 40대는 28.8%, 60대는 40.6%에

[13] 마을 조사 결과도 농가소득에 여성농업인이 기여한 비중은 농사일 담당 비중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다. 다음 표는 농가소득 기여분과 적절한 보상에 대한 마을 비교이다.

	농가 소득에 본인 기여도				농가소득 기여만큼 적절한 보상있다			
	20% 미만	20~49%	50~69%	70% 이상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부여	0.0	26.1	47.8	26.1	0.0	17.4	65.2	17.4
장흥	5.6	22.2	50.0	22.2	5.6	5.6	44.4	44.4
양구	11.5	26.9	26.9	34.6	4.5	27.3	59.1	9.1

[14] 작목 결정, 고용 결정, 영농자재 구입 결정, 농사 및 경영일지 기록, 기술정보 수집, 고용인력 관리, 판매처 결정, 판매 정보 수집, 논밭 거래, 영농자금을 빌릴 때, 회계 장부 작성, 통장(금전) 관리, 농가 소비 지출 등의 13개 농업활동을 농업경영부문으로 보고, 그 외 8개 농업활동을 농업 노동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이른다.

농업노동은 숙련노동이고 농업경영도 계절변화에 따른 농가별 맞춤형 경영이므로, 육아와 가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40대 이후 여성농업인이 농업 노동과 농업 경영에서 모두 참여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40대 이후 여성농업인은 숙련 노동을 기반으로 농업경영 활동에서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이 갖고 있는 지역 고유의 맛, 문화를 살려 농촌관광에 새롭게 접목하는 사례가 늘면서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향상하는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3-10.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 참여 정도

단위: %

		농업경영			농업노동		
		소극적	보통	적극적	소극적	보통	적극적
연령	20~30대	31.8	61.4	6.8	30.2	58.1	11.6
	40대	13.0	68.5	18.5	4.4	66.9	28.8
	50대	9.9	76.0	14.1	4.9	70.2	24.8
	60대이상	8.5	75.2	16.3	2.9	56.5	40.6
영농규모	소규모	15.2	70.2	14.6	5.6	71.2	23.2
	중소규모	12.1	72.4	15.6	6.7	61.0	32.3
	중규모	10.7	75.4	13.9	5.5	65.2	29.3
	중대규모	7.0	79.1	14.0	7.0	66.3	26.7
	대규모	10.0	63.3	26.7	3.6	67.9	28.6
주력품목	쌀	9.6	75.3	15.1	5.5	63.5	31.1
	특용작물	23.2	63.8	13.0	9.2	58.5	32.3
	과수	15.1	76.5	8.4	6.0	68.4	25.6
	채소	8.9	71.1	19.9	4.5	67.9	27.6
	축산	9.1	86.4	4.5	21.1	68.4	10.5
농한기간	1개월 미만	7.7	78.6	13.7	6.2	65.5	28.3
	2~3개월	14.7	73.6	11.7	6.0	64.8	29.2
	4~5개월	8.0	70.4	21.6	5.9	66.8	27.3
	6~7개월	29.4	58.8	11.8	5.9	76.5	17.6

주: 13개 농업경영활동과 8개 농업노동활동에 참여 정도(4단계 척도)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33점 미만=소극적, 33~66=보통, 66점 이상=적극적으로 분류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여성농업인이 농업활동에 참여가 낮은 이유는 지식이나 기술 부족이 가장 많았고,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높은 비중이다. 젊은 여성농업인일수록 지식·기술 부족과 가사·육아를, 60대는 신체적 한계를 농업활동 참여가 낮은 이유로 들고 있다(표 3-11).

표 3-11. 농업활동 참여가 낮은 이유(중복응답)

단위:%

	지식/기술 부족	필요성 없음	가사 육아	신체적 한계	정보 부족	농업 이외 활동	남편이 수행함	자신감 부족
20~30대	44.4	33.3	31.1	22.2	24.4	6.7	20.0	8.9
40대	33.5	31.7	26.9	25.1	20.4	19.2	15.0	10.8
50대	38.6	34.3	24.8	22.5	19.3	20.2	20.5	7.5
60대	31.5	37.1	25.2	30.1	24.5	16.8	10.5	8.4
전체	36.3	34.2	25.8	24.6	20.9	18.4	17.1	8.5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2.2. 여성농업인의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2.2.1.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참여도

여성농업인은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소득활동에 참여하더라도 특정 시기에 일부 참여하는 정도이다.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참여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40대는 농산물 가공이나 판매, 비농업 분야 시간제 노동, 취업 등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중이 높고, 60대는 품앗이 노동이 37.8%로 가장 높다. 즉, 60대는 농업노동 활동이 많지만, 20~40대는 가공·판매의 활동이나 농외취업의 비중이 높다. 품앗이 노동은 정식기나 수확기 등 농사일이 바쁜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만, 직거래 판매활동은 모든 연령대에서 참여도가 20% 내외이며, 특히 20~30대의 참여도는 28.9%로 상대적으로 높다(표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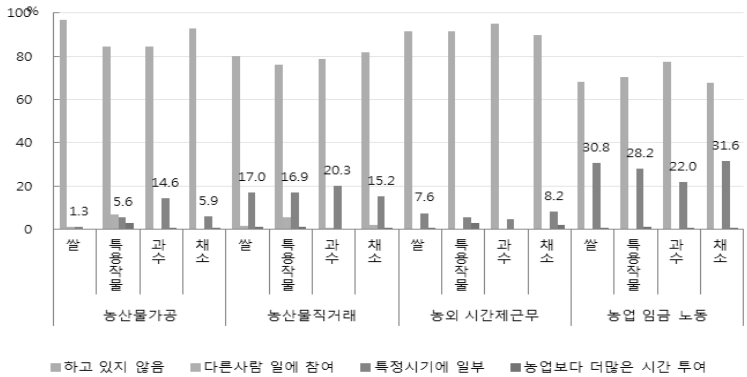
표 3-12. 여성농업인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참여율

단위: %

	가공	직·판매	체험·관광	자영업	취업	시간제 노동	품앗이
20~30대	13.3	28.9	8.9	6.7	11.1	13.3	20.0
40대	15.0	21.6	2.4	4.8	7.2	10.2	28.1
50대	6.1	19.3	0.9	4.0	3.5	8.4	28.2
60대	4.9	18.9	2.1	2.1	2.1	5.6	37.8
전체	8.4	20.4	2.0	4.0	4.6	8.5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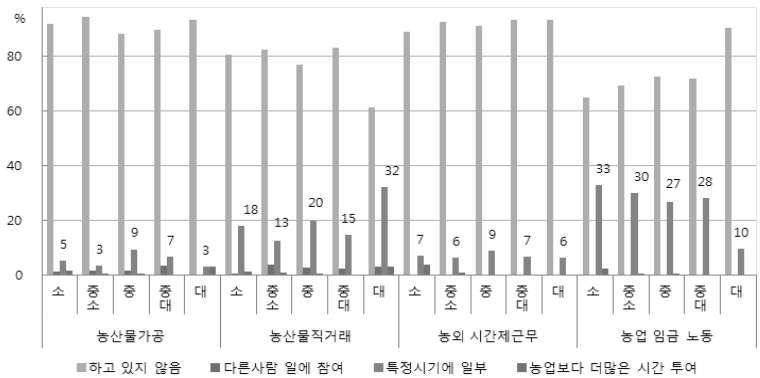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3-3. 품목별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3-4. 농업규모별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주요 재배 품목별로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참여도를 살펴보면, 농업임금노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은데, 채소 31.6%, 쌀 30.8%, 특용작물 28.2%의 순이다. 농산물직거래는 과수 20.3%, 쌀 17%의 순이며 모든 재배품목에서 15～20% 정도 참여하고 있다. 농산물가공은 과수 농가가 14.6%로 가장 높지만, 과수 이외의 품목은 가공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그림 3-3).

영농규모별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참여도를 살펴보면,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업임금노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낮다(그림 3-4). 영농규모가 대규모이더라도 농업임금노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과거 농촌공동체에 존재하던 품앗이의 형태가 일부 잔재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농산물 직거래의 경우는 영농규모가 대규모인 경우가 참여율이 가장 높지만, 중규모 20%, 소규모 18%로 중소규모의 농가도 농산물 직거래 판매에 참여가 높다. 그 이유는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로 인해 유통마진이 높아 생산자수취가격이 낮기 때문에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수취가격을 높이고자 하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농산물 가공은 중규모 9%, 중대규모 7%, 소규모 5%의 순으로 참여도가 낮다.

2.2.2.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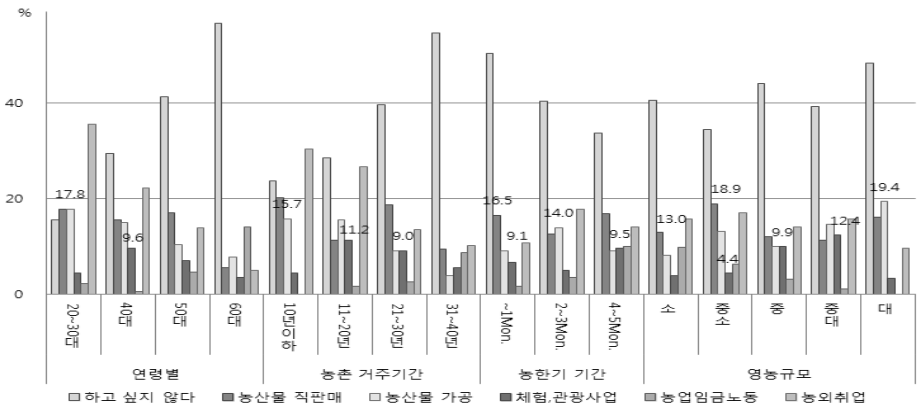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60%가 향후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을 원하지 않는 비중도 40%에 이른다. 고령이고, 농한기 기간이 짧고,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업노동이 과다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여성농업인이 하고 싶은 소득활동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3-5). 연령별로 20～50대는 일반 농외 취업과 농산물 직거래와 농산물 가공, 농촌체험·관광 사업에 관심이 있다. 특히 20～40대는 자녀 양육에 현금수요가 많다보니 농외 취업에 대한 의향이 높고, 농외 취업 외에는 20～30대가 농산물 직거래와 농산물 가공사업에 17%의 의향이 있다면, 40대는 농촌체험·관광사업에 9.6%의 의향이 있다. 농

촌 거주 기간이 10년 이하로 짧은 경우는 농산물 직거래 판매 20%, 농산물 가공에 15.7%의 의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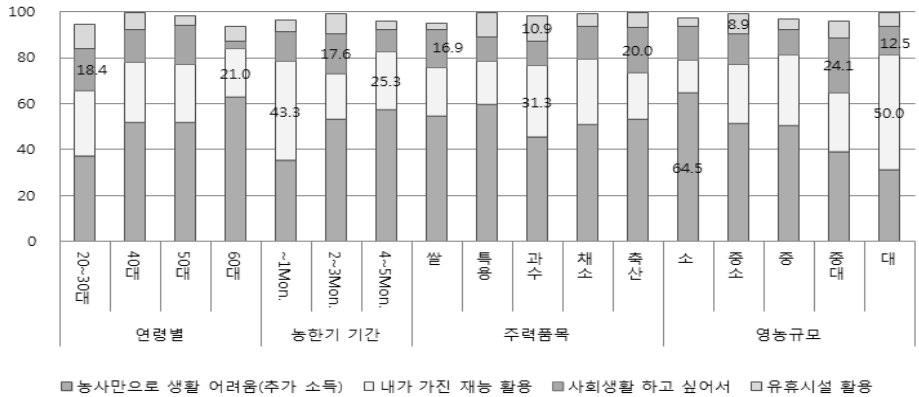
농한기 기간에 따른 차이는, 농산물 직거래 판매는 농한기간과 관계없이 15% 내외의 의향이 있는 반면, 농한기 기간이 2~3개월인 경우는 농산물 가공에 14%의 의향이 있으며, 농한기 기간이 4~5개월로 비교적 긴 경우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에 9.5%의 의향이 있다.

그림 3-5. 향후 하고 싶은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3-6. 향후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영농규모에 따른 차이는, 규모가 클수록 농촌체험·관광 사업이나 농산물 가공 사업에 의향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에 대규모 농가의 의향이 오히려 낮은 반면, 중소규모라도 농산물 가공에 대한 의향은 10% 내외의 의향이 있다. 이 결과로 미루어보아, 사업추진의 의향은 영농규모에 따른 차이보다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여성농업인이 향후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을 원하는 이유는 농사만으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52%로 가장 높다(그림 3-6). 특히 영농규모가 소규모, 60대, 농한기가 4~5개월이며 특용작물과 쌀을 재배하는 순으로 그 비율이 높다. 또한 자신이 가진 재능을 활용하고 싶다는 이유는 25%인데, 대규모이고 농한기가 1개월 미만이거나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의 순이다. 한편,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는 의견도 15%이다. 영농규모가 중대규모이고 축산을 영위하거나 20~30대 젊은 층의 의견이다.

한편, 마을단위 조사 결과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향후 농업생산 외 소득활동을 하고 싶은 분야는 농산물 직거래 판매의 비중이 가장 높다(표 3-13). 농한기가 1개월 미만인 부여는 농산물 가공이나 체험·관광에 대한 의향보다 현금수입이 고정된 농외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며, 농한기가 2~3개월이고 고령화 비율이 높은 장흥은 농산물가공이나 농업임금노동을 선호한다. 반면 농한기가 4개월 이상으로 긴 양구는 농산물 가공이나 체험·관광, 자영업을 선호한다. 농외소득을 하고 싶은 이유는 농사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비중이 높다(3-14).

표 3-13. 향후 하고 싶은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단위: %

	농산물 가공	농산물 판매 (직거래)	체험·관광	자영업	직장취업	농외시간 제근무	농업 임금노동
부여	8.3	50.0	8.3	0.0	8.3	16.7	8.3
장흥	16.7	66.7	0.0	0.0	0.0	0.0	16.7
양구	18.2	36.4	18.2	18.2	0.0	9.1	0.0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표 3-14. 농외 소득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

단위: %

	농사만으로는 생활 어려움	내가 가진 재능 활용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기타(소득향상, 보람 등)
부여	41.7	16.7	16.7	25.0
장흥	50.0	25.0	0.0	25.0
양구	53.8	11.5	11.5	23.1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2.2.3.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의 효과와 장애요인

그러나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 활동으로 인한 수입 규모는 크지 않다.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소득 규모가 연간 500만원 이상인 경우 20~30대는 26.7%, 60대는 10.5%에 불과하다(표 3-15).

표 3-15. 연간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수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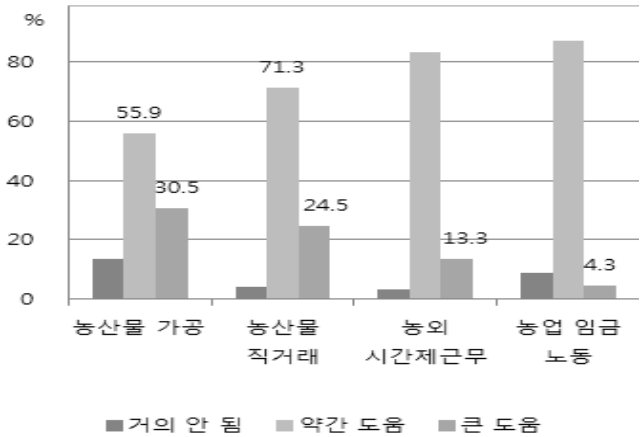
단위: %

	없음	100만원 미만	100~200 만원	200~300 만원	300~500 만원	500만원 이상
20~30대	51.1	2.2	11.1	4.4	4.4	26.7
40대	62.3	3.0	9.0	1.8	4.8	19.2
50대	65.1	2.3	7.5	4.9	4.9	15.3
60대	64.3	6.3	9.1	4.2	5.6	10.5
전체	63.4	3.3	8.4	4.0	5.0	16.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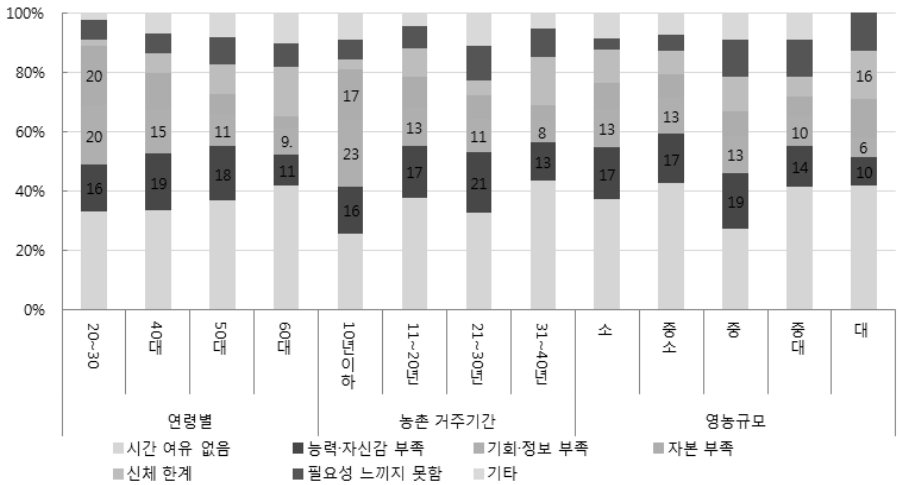
여성농업인의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이 농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모든 분야에서 약간 도움이 된다는 비중이 가장 크다(그림 3-7). 이것은 여성농업인의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이 정식기나 수확기 등 특정시기에 이루어지는 단기 활동이기 때문이다. 한편, 농가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순서는 농산물 가공, 농산물 직거래 판매, 시간제 근무의 순이다. 농산물 가공은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형태로서 농가소득 향상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향후 중소농가의 소득 향상 대책에 농산물 가공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3-7.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의 효과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3-8.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에 장애요인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한편, 여성농업인의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참가에 장애요인은 모든 연령대에서 '바쁜 농사일'이라는 이유가 30~40%로 높다(그림 3-8). 그 외에도 연령별로 20~40대는 '기회·정보·자본 부족'의 비중이 더 높거나 고령일수록

신체적 한계나 기타 이유의 비중이 높아진다. 신체적 한계 때문이라는 응답은 60대에 많은 반면, 20~40대는 가사육아로 시간이 부족하고, 자본금 부족, 관련 기회 부족, 능력 부족, 인맥 부족, 가족의 반대, 이동의 제한의 이유가 나이든 여성들보다 많다. 농업규모별로는, '기회·정보·자본 부족'의 이유가 비슷한 비중을 보이지만 중규모 이상일수록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비중이 높다.

마을단위 조사에서는 농한기가 1개월 미만인 부여는 바쁜 농사일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자본 부족이나 신체적 한계가 같은 비중인데 반해, 농한기가 2~3개월인 장흥은 바쁜 농사일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신체적 한계를 이유로 든 비중도 높다. 반면, 농한기가 4개월 이상인 양구는 농사일보다 신체적 한계나 기타 농외소득원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크다(표 3-16).

표 3-16.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에 장애요인

단위: %

	능력 부족	기회·정보 부족	인맥 부족	자본 부족	자신감 부족	신체적 한계	가족의 반대	시간 부족	농사일 바쁨	기타
부여	0.0	0.0	8.3	16.7	8.3	16.7	0.0	8.3	41.7	0.0
장흥	0.0	0.0	0.0	12.5	0.0	31.3	0.0	12.5	43.8	0.0
양구	3.7	7.4	0.0	14.8	0.0	29.6	3.7	7.4	14.8	18.5

자료: 본 연구의 마을조사 결과임.

3.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여건과 의식

3.1. 활동의 자유도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활동의 자유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동수단과 여성농업인의 활동에 대한 남편의 의견이라는 두 가지 지표를 조사하였다.

첫째, 여성농업인은 자동차, 오토바이 등 동력 이동수단을 소유 또는 운전 가능하여 이용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70%에 이른다. 승용 또는 트럭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여성농업인은 53%,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가진 여성농업인은 17%이다. 고령일수록 이동수단이 없는 비중이 높아 60대 61.5%, 50대 28.2%의 순이고, 시설재배를 하는 경우가 시설재배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여성농업인의 이동수단 이용률이 높다. 또한 영농규모가 클수록 자동차(승용, 트럭) 이용률이 높고, 영농규모가 작을수록 이동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비중이 높다(표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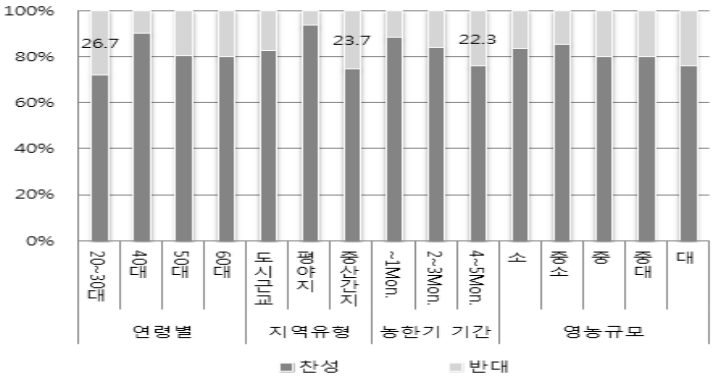
둘째, 남편이 여성농업인의 활동에 찬성 또는 반대 여부이다. 가정에서 남편이 가부장적이라면 여성의 가정 밖 사회활동에 대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에 제약을 주는 요인이다. 본 조사 결과, 남편이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 활동을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만 반대하는 경우는, 20~30대는 가사나 육아의 문제, 영농규모가 큰 농가는 남편 자신이 사회활동이 많아 농가 내 농업생산을 여성농업인에게 전가하거나 도시근교나 평야지보다 중산간지역에서 농한기간이 길수록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있는 경우이다(그림 3-9).

표 3-17. 이동수단 소유 및 운전 여부

		승용자동차	트럭	오토바이	자전거	없음
연령	20~30대	73.3	26.7	17.8	44.4	8.9
	40대	65.3	35.3	20.4	37.7	14.4
	50대	41.2	23.9	18.4	31.1	28.2
	60대	9.1	7.0	10.5	18.9	61.5
시설재배	없음	39.3	19.7	11.8	22.5	38.4
	있음	47.0	28.8	25.3	43.5	18.9
영농규모	소	34.1	12.4	13.5	24.9	40.0
	중소	33.0	21.8	16.5	30.1	36.4
	중	47.1	25.1	16.2	36.1	23.6
	중대	61.8	39.3	23.6	32.6	16.9
	대	71.0	41.9	32.3	38.7	16.1

주: 이동수단을 소유 또는 운전하여 원하는 때 이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중복응답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3-9. 여성농업인 경제·사회 활동에 남편의 찬반 여부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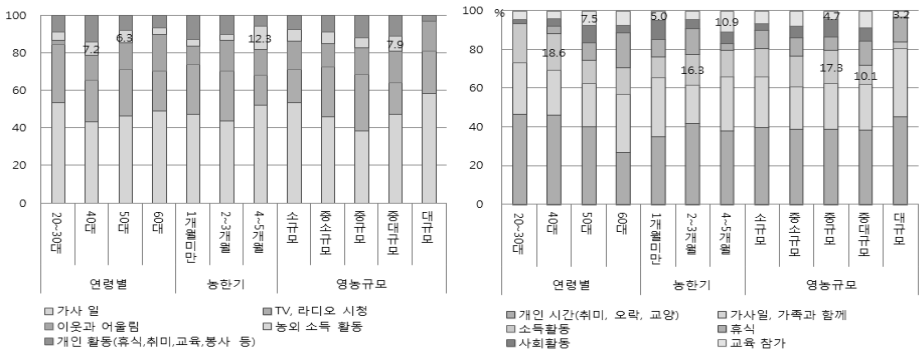
3.2. 여가시간 이용과 활동의 우선 순위

여성농업인이 농한기와 같은 여유시간에 주로 하고 있는 일은 가사노동이 48%, TV 시청 20%, 이웃과 사교 20%이고, 개인 활동을 하는 경우는 10%,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8%에 불과하다(그림 3-10). 나이가 젊은 여성농업인일수록 TV 시청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이웃과 함께 어울린다는 응답이 많다. 부업을 하는 경우는 40대 여성이 다른 연령대보다 활발하다.

그러나 실제 여유시간에 하고 싶은 일은 '개인 취미나 교양 등 개인 시간' 41%이고, '가사일, 가족과 함께' 23%, 무조건 쉬고 싶다 15%이며, 교육받고 싶다는 의견도 10% 미만이 있다. 개인 시간이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외에 소득활동에 대한 수요는 20~40대와 농한기가 길수록, 사회활동에 대한 수요는 농한기가 1개월 미만, 50대, 중규모의 순으로 나타나며, 교육 수요는 50~60대, 농한기가 길고 중대규모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0. 여성농업인의 여가활동

(농한기에 주로 하는 일) (시간 여유가 있다면 하고 싶은 일)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마을단위에서 살펴보면, 농한기가 1개월로 짧은 부여는 개인적인 취미·오락·교양에 대한 수요가 45.8%로 크고 교육 수요가 25%이다. 시설재배로 연중 생산하는 지역이라 성별분업 의식이 낮은 지역적 특성에서 여성농업인의 개인주의 성향도 강하고 농업경영에 참여도가 높기 때문이다. 농한기가 2~3개월인 장흥은 휴식 수요가 27.8%로 가장 크고 소득활동인 농사일과 개인적인 시간이 22.2%로 그 뒤를 따른다. 고령화율이 높은 마을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활동이 터부시되는 경향과 농외소득의 기회가 부족한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반면, 농한기가 긴 양구는 개인적인 시간 30.8%와 휴식 19.2%로 크지만 농외취업이나 가사일도 15.4%의 수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농업소득 활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소득향상을 위해 농외취업을 필요로 한다.

표 3-18. 시간 여유가 있다면 하고 싶은 일

단위: %

	농사일	농외 취업	자녀들과 여가	취미/오락/교양	가사일	사회 활동	교육 참가	쉬고 싶다
부여	4.2	4.2	4.2	45.8	4.2	0.0	25.0	12.5
장흥	22.2	5.6	5.6	22.2	0.0	5.6	11.1	27.8
양구	0.0	15.4	11.5	30.8	15.4	3.8	3.8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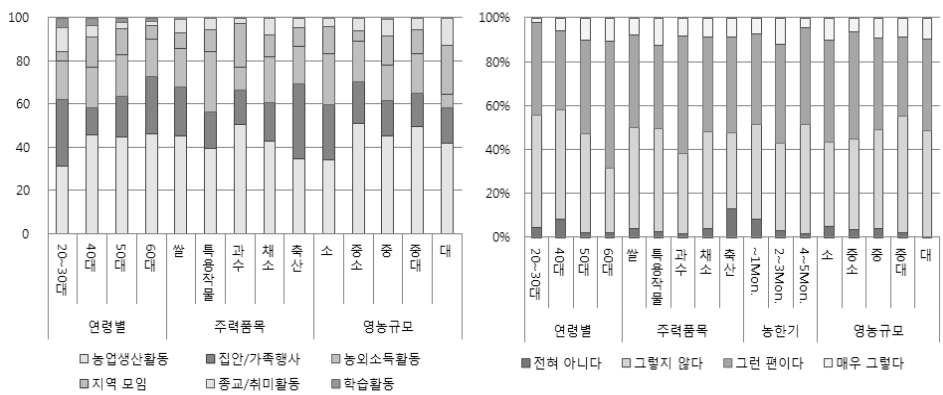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마을조사 결과임.

한편, 여성농업인은 해야 할 일들 중 우선 순위가 높은 일은 경제활동 참가 63%, 가족 및 지역 행사 31%, 개인 용무 9%의 순이다. 평균적으로 농업생산 44%, 집안·가족 행사 20%, 농외소득활동 19%, 지역모임 11%, 개인 일 9%의 순이지만, 20~30대나 축산, 소규모 농가는 집안·가족 행사의 우선 순위가 높고 40대 이후는 농업생산활동의 순위가 높다. 또한 영농규모가 대규모이거나 과수재배 농가는 지역모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20~30대와 대규모 농가는 종교·취미활동의 비중도 크다(그림 3-11). 마을단위 조사결과는 여성농업인의 우선 순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된다. 농한기 기간이 짧은 부여는 농업생산 활동에 우선 순위가 높고, 고령화율이 높은 장흥은 가부장적 문화로 집안 행사에 우선 순위가 높다. 반면, 농한기 기간이 가장 긴 양구는 집안 행사의 우선 순위가 가장 높지만 농외소득 경제활동이나 농업생산활동의 우선 순위의 비중도 높다(표 3-19)

그런데 여성농업인이 해야 할 일의 우선 순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전통적인 성별의식이다. '가사와 양육이 여성의 책임'이라는 질문에 대해 여성농업인의 47%가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20~40대의 연령이 낮은 여성농업인일수록 전통적인 성별의식을 부정하는 자아의식을 보인다.

그림 3-11. 여성농업인 활동의 우선 순위와 성별 분업 의식

(활동의 우선 순위) (가사와 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다)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표 3-19. 여성농업인 활동의 우선 순위(

단위: %

	농업생산 활동	농외소득 경제활동	지역모임 (동창회, 마을행사)	학습활동 (교육 참여)	집안 및 자녀 교육 행사	종교/취미활동(자원봉사)
부여	58.3	4.2	0.0	0.0	37.5	0.0
장흥	16.7	5.6	0.0	0.0	72.2	5.6
양구	28.0	32.0	0.0	0.0	36.0	4.0

자료: 본 연구의 마을조사 결과임.

3.3. 교육 참여도 및 수요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관련 교육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농업관련 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는 20～30대 57.8%, 40～50대 41～44%이며,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관련 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는 각각 73.3%, 77～78%이다(표 3-20). 또한 농외 경제활동 교육은 농산물 유통이나 마케팅 관련 교육, 농산물 가공이나 향토음식의 요리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해당 교육의 인프라가 미비하여 지역마다 교육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영농교육 및 농외 경제활동 교육이란, 전문성을 연마하는 기회이므로 이에 대한 참여가 낮다는 것은 경영인이 되고자 하거나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경험이 적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경영인은 각종 교육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므로, 교육 프로그램이 농산물가공 및 마케팅을 통한 창업으로 응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교육과 창업을 연계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표 3-20. 최근 3년간 경제활동 관련 교육 참여 횟수

단위: %

		없음	1~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농업 교육	20~30대	57.8	31.1	6.7	0.0	4.4
	40대	44.3	28.1	13.2	6.0	8.4
	50대	41.5	25.6	16.4	8.4	8.1
	60대	53.8	16.1	13.3	9.1	7.7
농외 경제 활동 교육	20~30대	73.3	15.6	6.7	0.0	4.4
	40대	77.2	17.4	3.6	1.8	0.0
	50대	78.1	14.4	5.2	0.6	1.7
	60대	85.3	9.1	4.2	0.0	1.4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표 3-21. 마을별 최근 3년간 소득활동 교육 참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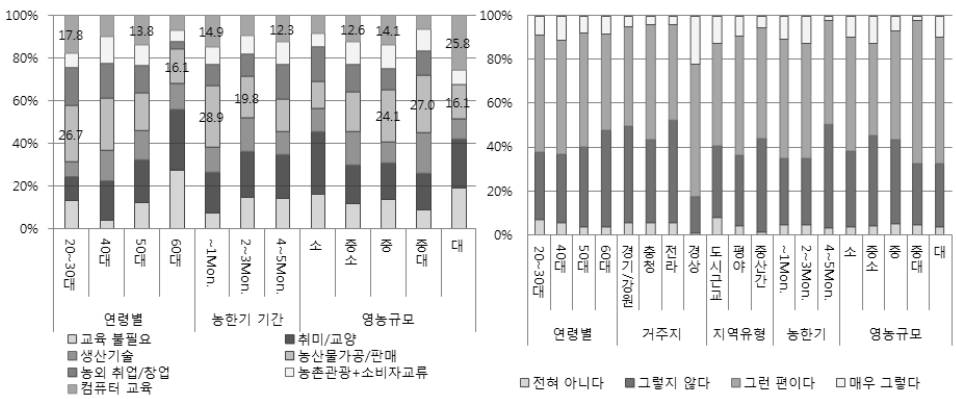
단위: %

		없음	1~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영농관련 교육	부여	43.5	17.4	21.7	4.3	13.0
	장흥	22.2	0.0	22.2	44.4	11.1
	양구	68.0	12.0	12.0	8.0	0.0
농외소득 활동교육	부여	65.2	4.3	13.0	4.3	13.0
	장흥	93.3	0.0	6.7	0.0	0.0
	양구	90.9	4.5	4.5	0.0	0.0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그림 3-12. 여성농업인의 교육 수요 및 관심도

(교육 받고 싶은 내용) (새로운 기술/정보에 관심이 있다)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마을단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영농관련 교육참여가 없는 경우는 양구 68.0%, 부여 43.5%의 순이다(표 3-21). 농한기가 길기 때문에 농업경영에 관심이 낮거나 농한기가 너무 짧아 교육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이다. 반면, 농외소득활동 교육은 농업소득이 높은 부여에서 참여율이 35% 있을 뿐, 장흥이나 양구는 교육에 대한 정보·기회가 적고 참여율도 매우 낮다.

만약, 교육여건이 주어진다면 교육을 받고 싶다는 여성농업인은 87%로 높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정보에 관심이 있는 여성농업인도 60%이다(그림 3-12). 교육받고 싶은 내용은 '취미나 교양' 교육이 21%로 가장 높다. 그 외, '농업 생산기술' 13%, '농산물 가공·판매' 교육 20%, 컴퓨터 교육 12%의 순이다. 취미나 교양 교육 외에, 나이가 젊을수록 농산물 가공교육, 농외 취업·창업, 컴퓨터 교육에 수요가 크지만, 60대도 농산물 가공·판매 교육에 관심이 있는 비중이 16.1%에 이른다.

농업생산기술 교육은 중대규모, 중소규모를 비롯하여 농한기가 2~3개월의 순으로 수요가 크고, 농외 취업·창업 교육은 나이가 젊거나 농한기가 길거나 중소규모 이하의 여성농업인에게 수요가 있다. 농촌체험·관광이나 소비자 교류에 관한 교육은 40~50대, 중소~중대규모의 여성농업인에게 수요가 있다. 마을단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취미·오락 외에 시설재배 전업농이 많은 부여는 컴퓨터나 판매방법에 대한 교육 수요가 크고, 농업지역인 장흥은 생산기술과 컴퓨터 교육 수요가 크다. 양구는 농외취업과 판매교육,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교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표 3-22).

표 3-22. 향후 받고 싶은 교육 내용

단위: %

	생산기술	가공기술	판매교육	농외취업	농촌체험관광	소비자교류	자영업창업	컴퓨터교육	취미·오락·교양	없음
부여	4.2	4.2	16.7	4.2	4.2	4.2	0.0	33.3	16.7	12.5
장흥	29.4	0.0	0.0	0.0	5.9	0.0	0.0	17.6	23.5	23.5
양구	7.7	3.8	15.4	19.2	11.5	0.0	7.7	3.8	15.4	15.4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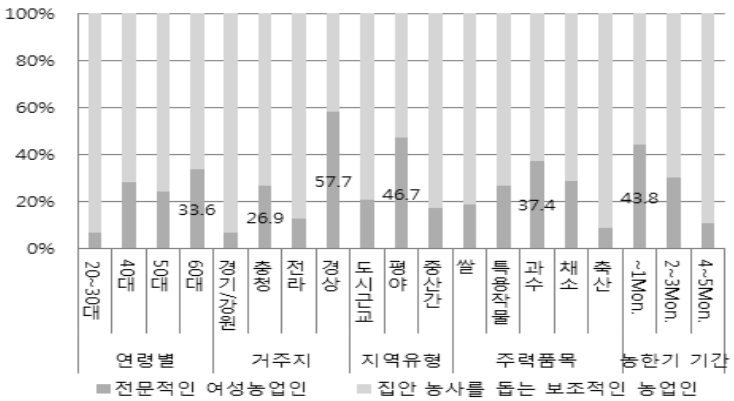
3.4. 직업 의식과 직업 승계

3.4.1. 여성농업인의 지위 인식과 자존감

농가 내에서 여성농업인 자신의 위상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젊은 여성농업인일수록 자신을 보조적인 농업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자신을 보조적인 농업인으로 인식하는 20~30대는 99.3%인 반면, 60대는 자신을 전문인력으로 보는 비율이 33.6%로 20~30대에 비해 5배 정도 많다.

마을단위 조사 결과는, 전문적인 농업인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농한기가 2~3개월인 장흥이 50%인 반면, 농한기가 짧은 부여나 농한기가 긴 양구는 오히려 보조적인 농업인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크다(표 3-23). 장흥은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으로 40~50대 여성농업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자의식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흥은 농가 소득에 대한 본인 기여도가 50% 이상인 경우가 77.2%로 높은 편이고, 농가에서 본인 기여도만큼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비중도 88.8%로 가장 높다(표 3-24).

그림 3-13. 여성농업인 본인이 생각하는 농업인의 지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표 3-23. 여성농업인 자신의 지위 인식

단위: %

	전문적 여성농업인	보조적인 농업인	기타
부여	34.8	60.9	4.3
장흥	50.0	50.0	0.0
양구	33.3	59.3	7.4

자료: 본 연구의 조사결과임.

표 3-24. 농가소득 기여분과 적절한 보상 여부(마을 비교)

	농가 소득에 본인 기여도				농가소득 기여만큼 적절한 보상이 있다			
	20%미만	20~49%	50~69%	70%이상	전혀그렇지 않다	거의그렇지 않다	그런편 이다	매우 그렇다
부여	0.0	26.1	47.8	26.1	0.0	17.4	65.2	17.4
장흥	5.6	22.2	50.0	22.2	5.6	5.6	44.4	44.4
양구	11.5	26.9	26.9	34.6	4.5	27.3	59.1	9.1

자료: 본 연구의 마을조사 결과임.

여성농업인의 자존감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로젠버그(Rosenberg)의 자존감(self-esteem)관련 문항을 참조하여 '나는 나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는 3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자존감 수준은 평균 수준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12점 만점에 40대 9.13, 50대 8.93, 60대 8.88, 20~30대 8.64의 순으로 40대의 자존감이 가장 높고 20~30대는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가장 낮다.

표 3-25. 여성농업인의 자존감 수준

	평균	표준편차
20~30대	8.64	1.47
40대	9.13	1.17
50대	8.93	1.24
60대	8.88	1.25

주: 4점 척도(1: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 3개 문항의 총점: 이론평균 7.5, 6점 이하면 낮은 편, 9점 이상이면 높은 편으로 분류함.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3.4.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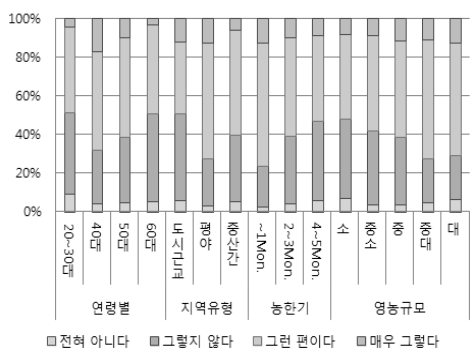
여성농업인이 전문농업인이 되고자 희망하는 비중은 60%이며, 농업인으로서 직업에 자긍심을 느낀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57%로 비교적 건전한 직업의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3-14). 농한기가 1개월 미만, 평야지역, 중대규모 농가, 40대의 순으로 전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비율이 70% 이상이며, 농한기 1개월 미만에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업에 직업적 자긍심을 느끼는 비율은 70~8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비교적 농업생산 기반이 안정적이고 농업소득이 높을수록 전문성 의향과 자긍심이 높다.

그러나 농업이라는 직업에 전문성 의향 및 자긍심이 높다하더라도, '자녀에게 농업을 승계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87%로 높다(그림 3-15). 지역 유형이나 농한기간, 주력품목에 관계없이 자녀에게 농업을 승계할 의지는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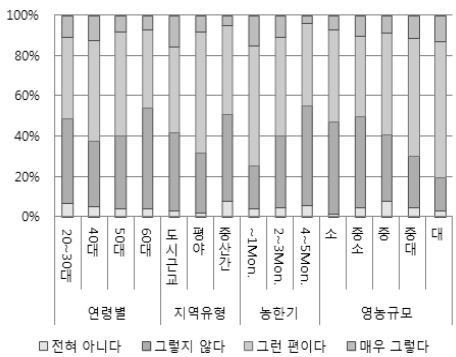
다만, 영농규모별 차이는 있다. 영농규모가 대규모의 40%, 중대규모 20%는 자녀에게 농업을 '승계하겠다'는 의향이 있으며, 품목별로도 축산 농가 20%는 승계 의향이 있다. 이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농업소득원을 유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3-14.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농업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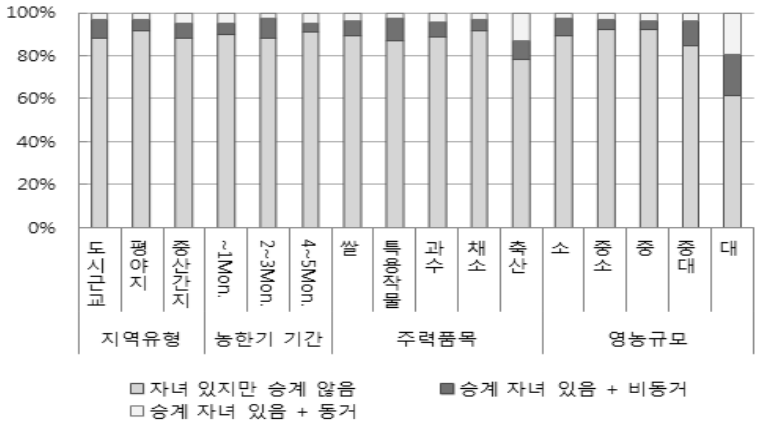


(직업에 자긍심을 느낀다)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3-15. 여성농업인의 직업 승계 의향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4. 여성농업인 경제활동의 관련 요인 분석

4.1. 분석 방법

자료 분석에 사용된 통계기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기법과 변량분석(ANOVA), 피어슨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로짓분석 등의 추리통계기법이었다. 추리통계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은 0.05 수준에서 결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위해 변인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3-26).

표 3-26. 분석에 사용된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변인		조작적 정의
연령		만 연령
학력 (중졸, 고졸, 대졸)		초졸(=0)을 기준으로 가변인(Dummy Variable)화
귀농여부		비귀농=0, 귀농=1
교육참여정도 (농업/농외/지역사회)		지난 3년간 교육참여횟수 1=참여 안 함, 2=1~2회 참여, 3=3~5회 참여, 4=6~9회 참여, 5=10회 이상 참여
주력품목 (특용작물,과수,채소,축산)		쌀(=0)을 기준으로 가변인화
주력품목의 영농규모		1=소규모 2=중소규모 3=중규모 4=중대규모 5=대규모 (조사문항에 제시된 품목별 기준에 따라 응답자가 판단한 값)
농한기간		1=1개월 미만, 2=2~3개월, 3=4~5개월, 4=6~7개월
남편의 여성활동 찬성		1=적극 반대 2=반대하는 편 3=찬성하는 편 4=적극 찬성 (무응답치 중위수로 대체)
지리적 특성(평야지, 중산간)		도시근교(=0)를 기준으로 가변인화
농업 활동	경영활동	13개 농업경영활동에 참여정도(4단계척도응답) 100점 환산점수
	노동활동	8개 농업노동활동에 참여정도의 100점 환산점수
농업 2·3차 경제 활동	농업가공/판매/관광 활동	3개 농산물가공/판매/농촌관광 등 분야 참여여부 불참=0, 참여=1
	취업이나 임노동 활동	4개 취업/임금노동활동에 대한 참여여부 불참=0, 참여=1
사회 활동	농업	4개 농업관련단체 참여정도(4단계척도응답) 총점
	농촌	3개 농촌지역단체 참여정도(4단계척도응답) 총점
전문성 인식		농가 내 자신의 위상에 대한 판단(보조인=0, 전문인=1)
여성 명의 농산물 출하		0=하지 않음 1=하고 있음
기회 비용	농업활동	다른 직업 수행 시 월 보수(자가 평가)액의 자연로그값
	사회활동	지역사회기여활동의 경제적 가치 자가 평가액의 자연로그값
자존감*		3개 자존감관련 문항(4단계척도 응답) 총점 (Crobach′α=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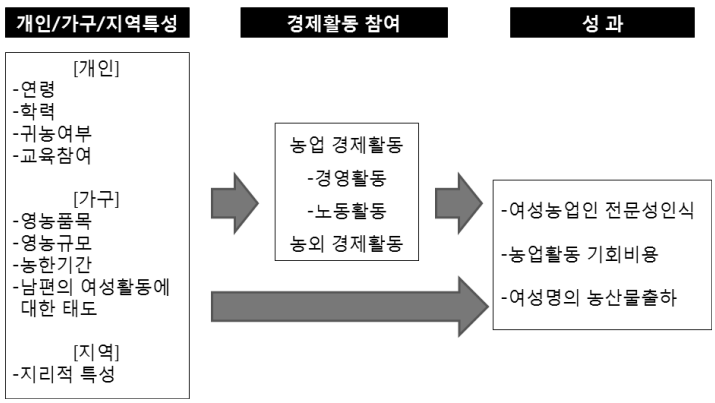
주: 자존감은 Rogenberg의 자존감(self-esteem) 척도의 일부 문항을 가져옴.

4.2.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와 분석모형

이 장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여성농업인이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하는가, 2) 어떤 여성농업인이 전문성 인식 수준이 높은가, 3) 경제활동 참여와 여성농업인으로서 전문성 인식은 관련이 있는가, 4) 어떤 여성농업인이 자신의 농업활동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게 평가하는가, 5) 경제활동 참여와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에 대한 기회비용과 관련이 있는가, 6) 어떤 여성농업인이 자신의 명의로 농산물 출하를 많이 하는가, 7) 경제활동 참여와 여성농업인 명의 농산물 출하는 관련이 있는가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한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된 개인, 가구, 지역 변인 등을 포함하여 그림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연령, 학력, 귀농여부, 교육참여정도 등과 같은 여성농업인 개인 변인, 영농품목, 영농규모, 농한기간, 남편의 여성활동에 대한 태도 등의 여성농업인 가구 변인, 그리고 여성농업인이 사는 지역특성변인이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주고, 이를 매개로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인식, 여성의 농업활동의 기회비용, 여성명의 농산물 출하 등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이다.

그림 3-16.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분석 모형



4.3. 경제활동참여 관련요인

농업활동을 농업경영과 농업노동으로 나누고, 농업 2·3차 경제활동을 농산물 가공, 판매, 농촌관광 부문과 농외 취업, 임금노동 등 4 부문으로 나누고, 여성농업인의 개인, 가구, 지역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농업경영은 연령, 학력(고졸), 교육참여정도, 주력품목의 종류, 지리적 특성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고, 농업노동은 연령, 학력, 교육 참여, 주력품목, 지리적 특성 등과 관련이 있다. 농업 2·3차 경제활동으로 농산물 가공, 판매, 농촌관광 부문의 활동은 연령, 학력, 귀농여부, 교육 참여, 남편의 여성활동 찬성 정도, 지리적 특성과 관련이, 농외 취업과 임금 노동 참여는 교육참여, 품목, 영농규모, 남편의 여성활동 찬성 정도, 지리적 특성 등과 관련이 있다.

표 3-27.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참여 관련변인의 상관분석

변인		농업경영	농업노동	가공/판매/관광	취업/임금노동
연령		.099	.226	-.111	.036
학력	중졸	.053	.054	-.005	-.063
	고졸	-.098	-.110	.029	-.045
	대졸	.007	-.117	.100	.048
귀농여부		.036	-.021	.112	.030
교육참여		.191	.182	.184	.124
주력품목	특용	-.096	-.009	.036	-.021
	과수	-.091	-.039	.035	-.094
	채소	.129	.059	-.025	.054
	축산	-.050	-.129	.067	-.030
영농규모		.055	.007	.022	-.093
농한기간		-.029	-.021	.034	.060
남편의 여성활동 찬성정도		.059	.038	.079	.185
지리특성	평야지농촌	.143	.129	-.146	-.072
	중산간농촌	-.014	.038	.028	.078

* 음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05$) 관계를 나타냄.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농업경영, 농업노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개인, 가구, 지역변인 중에 어떤 요인들이 특히 높은 관계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농업경영활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진 변인은 교육참여정도, 주력품목, 지리특성 등이고(설명력 10.5%), 농업노동활동과는 연령, 교육 참여 정도, 주력품목, 지리특성 등이다(설명력 13.0%). 즉, 농업경영활동은 농업교육활동에 참여가 적극적일수록, 주력품목이 특용/과수보다는 쌀일수록, 도시근교보다는 평야지 농촌일수록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많고, 연령이나 학력은 관련성이 없다. 농업노동활동은 연령이 높을수록, 농업교육참여정도가 높을수록, 과수/축산보다는 쌀 재배농가일수록, 도시근교보다는 평야지역이나 중산간지역의 여성농업인일수록 참여가 많다. 학력은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활동 참여와 관련이 없다. 경영활동이든, 농업노동활동이든 교육참여가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 참여에 중요한 변수이고 품목과 지리적 특성에 따라 또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8.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참여 관련변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변인		농업경영활동		농업노동활동	
		β	p	β	p
연령		.091	.052	.190	.000
학력	중졸	.054	.259	.002	.968
	고졸	-.033	.556	-.047	.388
	대졸	.031	.509	-.054	.249
교육참여 정도		.183	.000	.157	.000
주력품목	특용	-.096	.017	-.003	.935
	과수	-.139	.001	-.092	.026
	채소	.067	.120	.051	.227
	축산	-.044	.248	-.109	.003
지리특성	평야지	.159	.000	.163	.000
	중산간	.073	.096	.127	.003
R2		0.105		0.130	
F		7.311		9.305	
p-value		0.000		0.000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2·3차 경제활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개인, 가구, 지역변인 중에 어떤 요인이 특히 높은 관계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역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농산물 가공, 판매 그리고 농촌관광 등 농업과 관련된 농업의 2·3차 경제활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진 변인은 농외교육 참여 정도, 지리적 특성이고, 농외 취업이나 임금노동활동과는 교육참여정도, 영농규모, 지리적 특성 등이다. 즉,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은 농외 교육활동에 참여가 적극적일수록, 도시근교일수록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많다. 농외 취업이나 임금노동은 농외 교육 참여가 적극적이고, 과수보다는 쌀 재배농가일수록, 영농규모가 작을수록, 남편의 여성활동에 대한 찬성 정도가 높을

표 3-29. 여성농업인의 2·3차 경제활동 참여 변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인		가공/판매/농촌관광 참여			취업/임금노동참여		
		B	Exp (B)	p	B	Exp (B)	p
연령		-.024	.976	.102			
학력	중졸	.088	1.092	.749			
	고졸	-.033	.968	.916			
	대졸	.190	1.209	.701			
귀농여부		.351	1.421	.065			
교육참여정도		.944	2.570	.000	.541	1.718	.013
주력품목	특용				-.313	.731	.286
	과수				-.603	.547	.016
	채소				-.168	.845	.389
	축산				-.646	.524	.189
영농규모					-.195	.823	.008
남편의 여성활동 찬성 정도		.219	1.245	.173	.699	2.012	.000
지리 특성	평야지역	-1.059	.347	.000	-.232	.793	.288
	중산간지역	-.124	.883	.567	.442	1.556	.021
-2LL		714.045			878.80		
Model F		53.90			55.71		
p		0.000			0.000		

수록, 도시근교보다는 중산간지역일수록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많다.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참여는 농업생산관련 활동이냐, 농업생산과 무관한 활동이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농업생산관련 농외활동은 교육 참여와 지리적 특성이, 농외 취업이나 임금노동 활동은 주로 남편의 여성활동에 대한 찬성 정도가 높고, 소규모 농가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다.

4.4. 여성농업인 경제활동참여의 성과관련 요인

여성농업인 경제활동참여의 성과와 관련하여 여성농업인의 위상 인식 여부(이하 전문성 인식), 여성농업인 명의의 농산물 출하여부(이하 농산물출하), 자신의 농업활동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한 가치 평가(이하 농업활동가치) 등의 변인에 어떤 개인, 가구, 지역 특성요인이 관계를 하고, 이들 변인과 여성농업인의 농업 및 농외 활동 참여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3-30.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참여 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상관분석

변인		전문성인식	농산물 출하	농업활동가치
연령		.096	-.005	-.311
학력	중졸	.033	.036	-.139
	고졸	-.083	-.047	.250
	대졸	.014	-.007	.231
귀농여부		.055	.162	.204
농업교육참여정도		.156	.149	.092
농외교육참여정도		.013	.045	.108
주력품목	특용	.005	.012	-.019
	과수	.119	-.078	-.117
	채소	.049	.102	.170
	축산	-.073	.016	-.014
영농규모		.014	-.004	.171
농한기간		-.275	.051	-.026
남편의 여성활동 찬성정도		.085	.056	.135
지리특성	평야지농촌	.285	.024	.060
	중산간농촌	-.170	.051	-.041

* 음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05$) 관계를 나타냄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인식, 농산물출하, 농업활동가치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개인, 가구, 지역 변인은 표 3-30과 같다. 전문성 인식은 연령, 학력, 농업교육 참여 정도, 주력품목, 농한기간, 남편의 여성활동 찬성 정도, 지리적 특성 등과 관계가 있고, 농산물 출하는 귀농여부, 농업교육 참여 정도, 주력품목 등과 관계가 있고, 농업활동가치는 연령, 학력, 귀농여부, 농업교육 또는 농업외 교육, 주력품목, 영농규모, 남편의 여성활동 찬성 정도 등과 관계가 있다.

표 3-31.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참여 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변인		전문성 인식			농산물 출하		
		B	Exp (B)	p	B	Exp (B)	p
연령		.025	1.025	.218			
학력	중졸	.077	1.080	.807			
	고졸	-.158	.854	.659			
	대졸	.414	1.513	.519			
귀농여부		.222	1.248	.380	.734	2.083	.000
농업교육참여정도		.065	1.068	.762	.512	1.668	.005
농외교육참여정도		-.015	.985	.964			
주력품목	특용	.928	2.531	.024	.211	1.234	.571
	과수	1.351	3.862	.000	-.279	.757	.409
	채소	.434	1.544	.146	.290	1.336	.245
	축산	-.809	.445	.424	.619	1.858	.319
영농규모		-.038	.963	.712			
농한기간		-1.056	.348	.000			
남편의 여성활동 찬성정도		.054	1.056	.786			
지리특성	평야지농촌	.964	2.622	.001			
	중산간농촌	-.216	.806	.492			
농업경영 참여 정도		.059	1.061	.000	.031	1.031	.000
농업노동 참여 정도		.035	1.036	.000	.032	1.033	.000
농산물가공/판매/관광 참여		-.316	.729	.273	.756	2.130	.001
취업/임금노동 참여		-.660	.517	.007	.074	1.077	.724
-2LL		527.67			604.02		
Model F		275.47			137.67		
p		0.000			0.000		

상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인/가구/지역변인 중 설명력이 높은 변인의 도출, 그리고 개인/가구/지역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농업 및 농외 경제활동 참여가 경제활동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성 인식, 농산물출하 등의 이분형 종속변인에 대해서는 로지스틱회귀분석을 농업활동가치(연속변인)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을 가진 개인, 가구, 지역변인과 농업활동 참여(농업경영, 농업노동),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참여(농산물가공·판매·농촌관광, 농외 취업·임금노동) 참여 등의 요인이 관련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 개인, 가구, 지역변인은 품목, 농한기간, 지리특성 등이다. 즉 쌀 농가에 비해 과수·특용작물 농가일수록, 농한기간이 짧을수록, 도시근교보다는 평야지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일수록 자신을 전문농업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 개인, 가구, 지역 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경제활동참여 요인들의 설명력을 보면, 농업경영, 농업노동 그리고 취업·임금노동 참여가 전문성 인식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 즉 농업경영과 농업노동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취업·임금 노동에 덜 참여할수록 스스로를 전문농업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명의 농산물 출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을 가진 개인, 가구, 지역 변인과 농업활동 참여(농업경영, 농업노동),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참여(농산물가공/판매/농촌관광, 농외 취업/임금노동 등)의 요인이 관련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 개인, 가구, 지역 변인은 귀농여부, 농업교육 참여 정도이다. 즉, 귀농자일수록, 농업교육에 참여를 많이한 농가일수록 농산물 출하를 자신의 명의로 많이 하고 있다. 이들 개인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경제활동 참여 요인들의 설명력을 보면, 농업경영, 농업노동, 농산물가공/판매/농촌관광 참여 변인이 농산물 출하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즉 농업경영, 농업노동, 농산물가공·판매·농촌관광에 참여가 많을수록 자신 명의의 농산물 출하도 많이 하고 있다.

한편, 농업활동가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을 가진 개인, 가구, 지역변인과 농업활동 참여(농업경영, 농업노동),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참여(농

산물가공·판매·농촌관광, 농외 취업·임금노동) 참여 등의 요인이 관련성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 개인, 가구, 지역 변인은 연령, 학력, 귀농여부, 농업교육 참여 정도, 주력품목, 영농규모, 남편의 여성활동 찬성 정도 등이다. 즉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귀농자일수록, 농업교육 참여가 많을수록, 과수농가보다는 쌀농가에서, 영농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여성활동에 대한 남편의 찬성정도가 높을수록 농업활동에 대한 가치부여를 더 높게 하고 있다. 이들 개인, 가구, 지역 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경제활동참여 요인들의 설명력을 보면, 농업경영참여정도와 농외 취업/임금노동 참여정도가 농업활동가치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즉 농업경영에 많이 참여하고, 농외취업이나 임금노동 참여가 많을수록 농업활동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표 3-32.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참여 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변인		농업활동가치	
		β	p
연령		-.105	.016
학력	중졸	.089	.047
	고졸	.294	.000
	대졸	.231	.000
귀농여부		.073	.044
농업교육참여정도		.095	.015
농외교육참여정도		-.043	.273
주력 품목	특용	-.029	.442
	과수	-.089	.026
	채소	.040	.322
	축산	-.022	.539
영농규모		.137	.000
남편의 여성활동 찬성정도		.081	.022
농업경영참여정도		.103	.018
농업노동참여정도		-.030	.499
농산물가공/판매/관광 참여		-.019	.594
취업/임금노동 참여		.096	.006
R2		0.240	
F		12.236	
p		0.000	

5. 여성농업인 CEO의 경제·사회적 활동

5.1. 여성농업인 CEO 태동의 배경 : 농가 소규모 사업 지원

농촌의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1962년 '농촌진흥법' 제정 이래 현재까지 상당수 관련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 2002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2004년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010년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농업인의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2010년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특히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삶의 질을 제고하고 농어업 발전과 농어촌 사회 발전을 위해 농외소득원 개발과 향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외에도 지자체가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다. '농산물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는 전북 완주·무주, 전남 곡성, 경북 청송 등 전국 4개 군이 제정하였다.

농촌여성 지원 사업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다. 1990년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으로 당시 농촌지도소의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90~2003년 실시한 이 사업은 농촌 여성이 중심이 되는 소규모 사업에 창업과 경영을 지원한 프로그램으로서, 국비 사업장 169개소, 지방비 사업장 418개소가 창업하였다[15].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은 2006~2009년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사업'으로 재추진(국비 지원 100개소)하였고, 2010년 이후도 사업명이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다.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은 농업인의 소규모 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연중 생산에 어려움이 따르며 자체적인 판로개척의 어려움, 고품질의 생산기술 부

[15] 농진청 농촌자원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발전방안 전문가 협의회"(2010. 5.6)

족, 경영능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각종 사업이 추진되었다.[16] 첫째,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과학화와 표준화 지원, 둘째, 농산물 가공 교육장비지원 등 농업인 교육 및 장비지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 교육장 설치, 셋째,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지원, 한국형 전통식문화 교육 등이다.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작업장 확보, 생산설비 및 기자재 설치, 기술습득 및 재료구입,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포장지 제작 등에 사업비를 지원한다. 둘째, 1998년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일감생산정보를 구축하고, 2000년부터 사업장별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생산제품의 관련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를 지원한다. 셋째, 1996년부터 식품가공·저장에 관한 이론과 실습, 유통과 마케팅 전략, 현지 견학을 내용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농산물 가공에 관한 교육과 품목별 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넷째, 품질 향상과 정보교류, 향토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인력 육성을 위해 한과·장류연구회, 향토음식연구회 등을 운영한다. 다섯째, 향토음식을 지역의 문화와 접목한 농촌 문화관광형 농가 레스토랑으로 개발하여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하기 위해 농가맛집을 조성하고 관리한다.

5.2. 여성농업인 CEO의 유형

여성농업인 CEO는 농식품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다.

여성농업인 CEO의 15건의 사례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17]

---

[16] 농촌진흥청(2008). '농가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참조함.

[17] 각 유형의 사례는 부록 2에 자세히 소개함.

표 3-33. 여성농업인 CEO의 유형과 특징

유형	여성농업인 주요 역할				농가 규모	부부의 역할	농가 특징
	생산	가공	판매	체험 교육			
부부분업형	○	○	◎	△	중소~중대	남편: 농업생산 부인: 가공~판매	전업농가의 가공, 판매 특화 (쌀-한과, 축산-치즈)
공동경영형	◎	△	○	×	소 ~ 중소	생산~판매 보완관계	귀농 10년, 중소규모 농가
독립경영형	○	◎	○	△	중	남편: 겸업(농업보조) 부인: 생산,가공 총괄	복합경영, 생산보다 가공 비중 큼 (전통식품 가공)
기업형	×	◎	○	◎	중 ~ 중대	남편: 경영보조자 부인: 경영책임자	귀촌자, 전통식문화를 웰빙 수요로 전환 (가공, 체험)

자료: 필자 작성.

5.2.1. 부부 분업형

부부 분업형은 농업후계자인 남편이 농업생산을 전담하고, 여성농업인은 농산물 가공 및 판매·유통 또는 교육체험농장을 담당하여 서로의 전담 범위에 집중하는 형태이다. 농업생산 품목이 1~2 품목인 중소~중대규모의 전업농가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산물 가공 및 판매(온라인 또는 직거래), 체험농장을 도입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이 경영자로 활동 여지가 생긴 경우이다.

이 유형의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단체의 활동 과정 중 농업기술센터, 행정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이수하며 자가 농산물의 부가가치 활동을 알게 되었고 사업의 기회로 활용한 경우이다. 여성농업인 스스로 교육에 참여도가 높고 정보 수집과 교류 활동에 적극적이며 나아가 직접 교육 강사로 활약하며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한다. 여성농업인 자신이 보유한 자원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한다는 점에서 생산 규모 확대보다 연관사업으로 확장한 경우이다.

5.2.2. 부부 공동경영형

부부 공동경영형은 일정 규모의 토지 구입으로 농업생산을 시작한 10년 이상의 귀농인에게 나타나는 형태이다. 이 유형은 농업생산에서 농산물 가공~판매, 교육까지 농업노동과 경영을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농업규모는 소규모 또는 중소규모이고 생산에서 판매까지 외부인력의 도움은 거의 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 유형의 여성농업인은 친환경농업으로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를 통해 유통하거나 직접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전량 판매하고 있다. 귀농 초기에는 도시의 지인을 통해 판매하였지만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직거래의 지속성은 상품성 있는 농산물과 더불어 올바른 먹을거리를 생산한다는 생산자의 자부심을 전달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기 시작했다.

귀농인으로서 농촌 사회에 정착하고 농업노동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더 어려운 것은 농업 기술을 습득하여 상품성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이다. 귀농인에게 농촌·농업의 다양한 분야에 도전의 기회나 기술이전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 인턴제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5.2.3. 여성 독립경영형

여성농업인이 농업후계자이고 남편은 농업 이외 직업이 있는 겸업으로 농업생산 또는 가공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여성농업인이 각종 여성농업인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교육과 자원봉사에 참여가 높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자원 활용사업을 제안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여성농업인의 노동력이 중심이 되어 다품목의 복합경영을 하는 중규모 농가에서 농산물 가공을 도입하여 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이 유형의 여성농업인은 자가 농산물로 전통식품과 향토요리 등 음식솜씨를 인정받고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의 지원으로 가공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

으며, 주문 생산하는 가공품은 지자체의 협조로 학교급식에도 납품한다.

여성농업인 단독으로 시작된 가공사업은 후계자녀의 등장으로 사업방식의 전환을 맞기도 한다. 여성농업인이 생산과 가공 두 분야 모두 기술을 갖고 노동에 전담하다보니 경영능력이 필요한 판매와 유통은 외부 도움에 의지하기도 하는데, 이 때 장성한 자녀들이 경영에 참가하며 새로운 기술과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가족농기업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5.2.4. 기업형

농업 생산기반이 거의 없거나 미약하지만 농촌에서 농촌인력을 이용하여 농산물 가공이나 교육농장, 농가민박 사업을 하는 형태로 주로 I턴이나 U턴형의 귀촌인이 많다. 귀촌인은 농업 생산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성농업인이 경영을 주도하고 남편은 농업 외 다른 직종에 종사하거나 농업경영을 보조한다.

이 유형의 여성농업인은 도시민의 시각에서 각종 정보농촌의 자원을 발견하거나 각종 정보와 교육을 통해 오랜 꿈을 실현한 경우이다. 도시민의 관점에서 농산물 가공이나 체험교육농장 사업을 추진하므로 상품의 수준이 높고 마케팅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 유형의 여성농업인이 사업을 전개하는 데 경영 개념을 갖춘 질 높은 노동력의 부족과 이용을 한계로 지적한다. 예를 들면, 체험학교 운영에 지역 노인을 활용한 경우, 서비스 질이 낮아 클레임 발생하기도 하며, 경영능력을 갖춘 귀농인을 고용하는 것도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현재 인건비 50% 지자체가 부담하는 귀농인턴제가 운영되고 경영인이나 귀농인은 귀농인턴제에 수요가 많지만 지자체의 지원이 적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표 3-34. 여성농업인 CEO의 유형별 특징

	농가의 특징	주요 활동
부부 공동 경영형	· 소규모 생산기반, 재배품목 단순, 직거래 비율 높음 · 농업관련 교육에 절대적 의지	·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 등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 도입
부부 분업형	· 농업후계자인 남편이 생산 전념, 여성은 생산 이외 가공, 판매, 상품 기획·개발에 참여 · 농업 이외 사회 경험 있음 · 여성농업인단체 임원 역임 → 교육 및 지원 정보 습득	· 자가 농산물의 소규모 가공, 판매 : 장류, 잼, 효소, 유제품 등 · 전자상거래 판매, 농장을 소비자 교류·교육장 활용(체험→교육농장) :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 생산과정 등재로 자율적인 생산이력 관리
여성 독립 경영형	· 여성농업후계자(남편은 겸업) · 여성농업인단체 임원 역임 · 여성이 보유한 재능을 사업화, 사업의 규모화 추구	· 한과 사업의 규모화 쌀 → 한과 제조 → 조청 제조 원재료의 자급률 높이는 규모화
기업형	· 농업생산기반 없이 독자적인 사업 아이템으로 귀촌 · 성실, 근면으로 농촌사회에 정착하고, 농촌인력 활용	· 장류, 두부, 김치, 한과 등 가공업 · 체험 및 교육농장 · 농가민박

자료: 필자 작성.

5.3. 여성농업인 CEO의 공통점

이 4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다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부 또는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족경영이며, 경영의 의사결정은 가족의 동의와 협의로 이루어진다. 모든 유형의 여성농업인은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업에 응용한다. 가족 농업경영은 수평적,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여성 자신의 특기, 장점을 사업화하고 가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주부로서 솜씨에 자신 있는 음식을 사업화하거나 특별한 재능을 살려 농촌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블로그에 성실한 답변으로 소비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소비자의 농장 체험을 계기로 교육농장 사업의

기회를 포착하기도 한다.

셋째, 여성농업인은 창업 전에 체계적인 준비에 오랜 기간을 투자하는 반면 외부 지원은 최소화하는 등 독립성이 강하다. 여성농업인은 창업 전에 생산, 가공, 마케팅, 온라인 교육 등 창업에 필요한 필수 교육과 선배 사업체의 견학에 참가하여 자신의 노하우를 체계화하는 데 오랜 시간을 투자한다. 교육과 견학은 창업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을 평가한다. 또한 창업 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며 자신의 능력에 맞는 사업체를 창업하고 외부의 지원을 최소화한다. 여성농업인의 창업은 외부의 지원이나 영향보다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의지와 필요에 의한 창업이고 그 계기는 교육훈련과 정보 교류이다.

넷째, 여성농업인은 소비자와 지속적인 교류 방법으로 상품을 홍보한다. 여성농업인 CEO의 사업 내용은 농산물 가공과 판매, 체험이 대부분이므로 특화된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사업의 관건이므로 소비자와 만나는 직거래장터나 사이버 블로그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나아가 스토리텔링으로 상품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여성농업인 CEO도 상품 개발·기획, 품질 개선 등을 고민하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여성농업인단체의 활동이나 각종 농업 교육을 통해 사업 아이템을 얻거나 사업 지식을 습득한다.

다섯째, 여성농업인 CEO는 농업분야에 희망을 제시하며 자녀들을 후계경영인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CEO는 자녀들이 후계자로 경영과 기술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영체의 규모는 작지만 자녀들이 온라인 활동, 디자인 개선 등에 참여하거나 경영후계자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등 경영 다각화를 이루고 있다. 여성농업인 CEO의 경영체가 작지만 내실있게 수익성을 얻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6.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기여도

6.1. 여성농업인의 기회비용 평가

6.1.1. 분석 개요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평가하는 본인의 역할에 대한 기회비용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는 역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기회비용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재화나 기회의 가치로서, 여성농업인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의 기회비용은 각 역할 수행을 대체하는 인력 고용에 대한 최대 지불의향 금액 또는 스스로 평가하는 역할 수행에 대한 보수로 해석할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여성농업인이 수행하고 있는 가사노동을 대신 해줄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영농활동 대신 다른 일을 한다면 보수로서 예상하는 금액, 그리고 현재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의 가치를 환산할 때 보수로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조사하였다.

역할 유형별 노동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조사대상 65세 이하 여성농업인은 스스로의 영농활동이 가장 보수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가사노동, 지역사회 기여활동의 순서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65세 이하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회비용은 월평균 60만 9천원, 영농활동에 대한 기회비용은 월평균 122만 6천원, 지역사회 기여활동에 대한 기회비용은 월평균 46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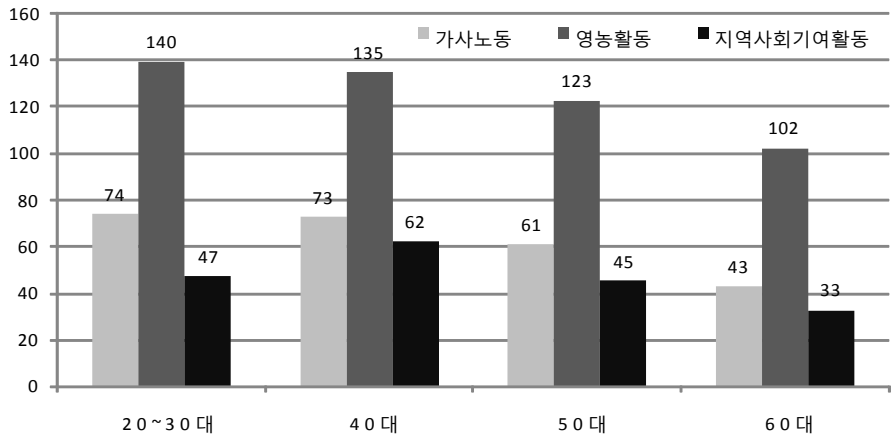
6.1.2. 연령별 기회비용

연령별로 여성농업인의 활동 유형별 가치 평가금액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모든 활용 유형에서 기회비용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사회 기여활동의 경우에는 40대가 가장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지역에서의 지역사회기여활동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주 연령층이 40대라는 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이 자신의 농업활동에 대한 가치에 대하여 월 100～150만원 정도 된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150～200만원(20.9%), 100만원 미만(15.5%) 순이다. 젊은 여성일수록 자신의 농업활동의 기회비용을 높게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은 자신의 사회활동의 기회비용으로 대다수가 50만원 미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20～30대는 5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68.9%, 40대 62.3%, 50대 65.7%, 60대 76.2%이다. 상대적으로 40～50대가 자신의 사회활동의 기회비용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데, 40대는 15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17.4%, 50대는 10.4%이다.

그림 3-17. 연령대별 여성농업인 활동에 대한 기회비용 분포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표 3-35. 여성농업인이 인식하는 농업활동의 월별 기회비용

단위: %

	100만원 미만	100~150 만원	150~200 만원	200만원 이상
20~30대	11.1	35.6	35.6	17.8
40대	9.0	48.5	23.4	19.2
50대	12.1	57.1	20.7	10.1
60대	32.9	51.0	14.0	2.1
전체	15.5	52.4	20.9	11.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표 3-36. 여성농업인이 인식하는 사회활동의 월별 기회비용

단위:%

	50만원 미만	50~100 만원	100~150 만원	150만원 이상
20~30대	68.9	13.3	8.9	8.9
40대	62.3	7.2	13.2	17.4
50대	65.7	15.6	8.4	10.4
60대	76.2	11.2	7.0	5.6
전체	67.2	12.5	9.3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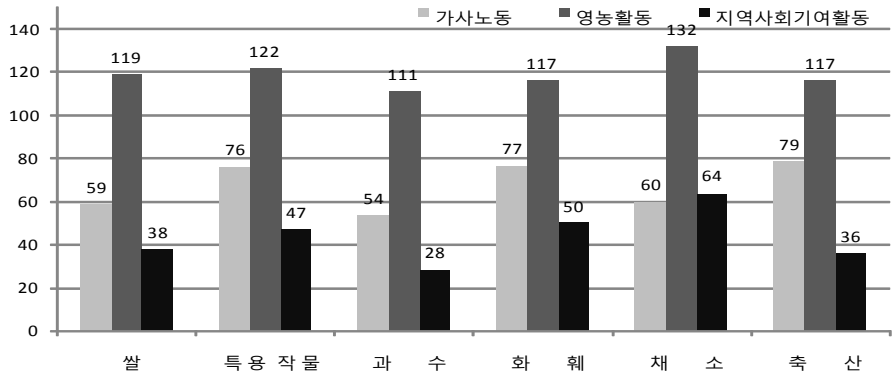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6.1.3. 영농형태별 기회비용

영농형태별로 여성농업인의 활동 유형별 기회비용을 분석한 결과, 영농활동의 기회비용은 채소 농가가 13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특용작물 122만원, 쌀 11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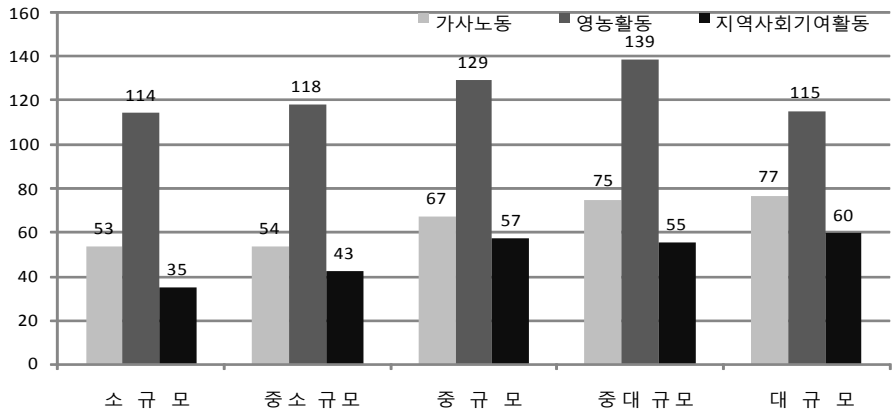
과수 농가는 모든 활동 영역에서 기회비용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가사노동의 기회비용을 가장 높게 평가한 축산 농가의 경우, 매일 농작업이 이어지는 축산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8. 영농형태별 여성농업인 활동에 대한 기회비용 분포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3-19. 영농규모별 여성농업인 활동에 대한 기회비용 분포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6.1.4. 영농규모별[18] 기회비용

영농규모별로 여성농업인의 활동 유형별 기회비용을 비교해보면, 가사노동 및 지역사회 기여활동의 경우 영농규모와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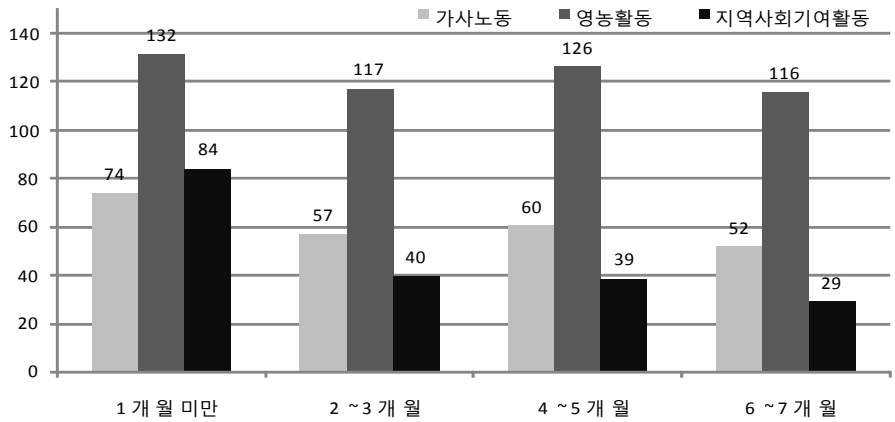
[18] 영농규모 기준은 부록1 참조.

나 영농활동의 경우에는, 중대규모 농가의 여성농업인이 자신의 영농활동 가치를 월평균 139만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규모 농가에서는 오히려 115만원으로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다.

6.1.5. 농한기간별 기회비용

농한기간별로 여성농업인의 활동 유형별 기회비용을 분석한 결과, 활동별 기회비용 평균은 농한기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농가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농한기가 2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농가는 농한기간에 따라 활동별 기회비용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20. 농한기간별 여성농업인 활동에 대한 기회비용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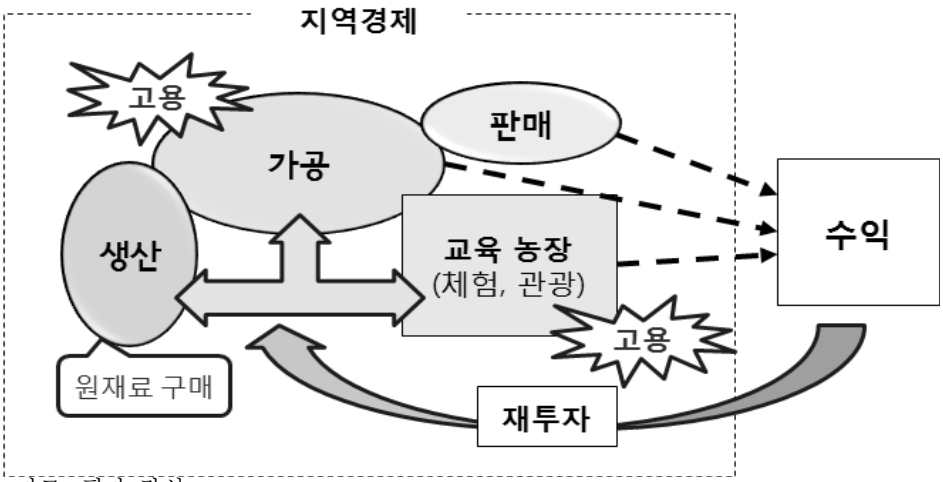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임.

6.2. 여성농업인 CEO의 경제·사회적 활동과 효과

여성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직거래 등 기존의 유통경로와 다른 방식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성과를 단순히

매출액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원료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유통경로 단축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 고품질의 신뢰할 수 있는 농식품 생산을 통한 시장가치 증대,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먹을거리 교육의 실시로 인한 교육 효과, 여성농업인의 자립심과 자존감 고취 등 다양한 정(+)의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림 3-21. 지역경제 파급 효과의 분석 틀



자료: 필자 작성.

본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 CEO기업이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도 창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성과 측정 방법론인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19])을 활용하여 여성농업인 CEO기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여성농업인 CEO기업이 사회적기업[20]의 범주에 포함되는가에 관련하여, 김광선 외(2010)에서는 '농촌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의 핵심 가치에 농

[19] 이승규, 라준영(2010)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20] 여기에서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규정하는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촌의 지역성을 감안하여 농촌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커뮤니티 서비스의 공급, 협력과 제휴에 의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개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농촌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으로 전통적인 사회서비스의 공급과 농업기반의 활동들, 그리고 보다 최근에 주목되는 새로운 분야로서 유기농 생산과 공동체지원농업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로컬푸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1차 농산물을 원료로 직접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직거래 등 새로운 유통경로로 판매하는 경우, 대체로 로컬푸드, 유기농 생산과 깊은 연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 사회적기업의 범주 안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6.2.1. 분석방법

사회적 투자수익률은 미국 민간재단인 REDF와 Jed Emerson이 2000년 개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나 기부가 산출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도록 개발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가치를 경제적 가치, 사회·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유형화하여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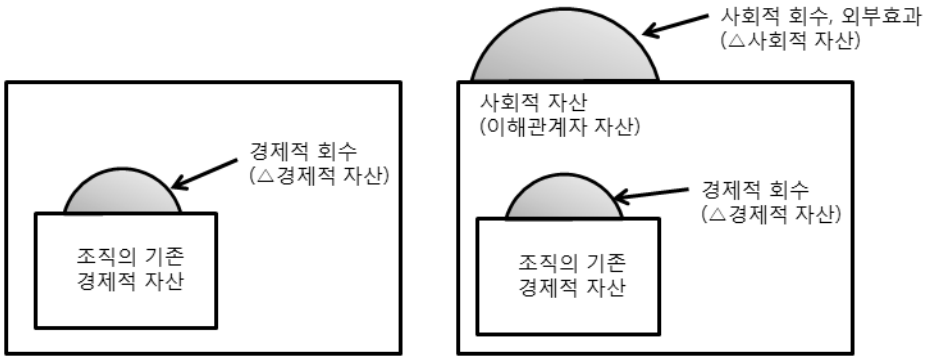
경제적 가치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거래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매출 등 일반적인 회계 지표로 측정 가능하다. 그러나 여성농업인들이 영세한 규모로 운영하는 특성상 재무회계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사회·경제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 이외에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영향 중 화폐가치로 환산이 가능한 가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재활용 환경기업의 경우 환경 문제의 해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여성농업인 기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대다수 비용으로 산정하지 않는 여성농업인 스스로의 노동가치와 직접 생산하는 원료농산물의 가치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가치 중 금전적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모든 비화폐적 가치를 의미한다(Emerson et al., 2000). 예를 들어, 서비스 수혜자의 자존감 향상, 전근대적 유통 시장의 정화 등과 같은 질적 가치와 재범죄율 감소, 학업이탈 청소년의 학습성과 개선 등과 같은 양적 가치 등을 포함하며 설문과 인터뷰 등의 정성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여성농업인 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자존감 고취, 신뢰할 만한 농산물의 생산을 통한 소비자편익 제고를 들 수 있다.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은 기존의 투자대비 회수율(EROI: economic ROI)의 계산방식에서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이는 화폐가치로 환산되어 분모인 '투자'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합산이 가능하다.

- BROI = EROI + SROI = (경제적 회수+사회적 회수)/투자

그림 3-22. 사회적 투자회수의 개념적 원리



SROI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측정법이며, 그 값이 화폐가치로 표현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와 합산하여 측정할 수 있다. 다만 실증적인 SROI 분석을 위해서는 자산과 투자금액의 명확화, 회계장부 작성이 필수적이나, 여성농업인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데이터의 구득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승규 외(2009)에서는 SROI의 보완지표로서 비용편익계수(B/C Ratio), 회전율, 자립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

제활동에 소요된 비용이 편익을 창출해 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비용편익 계수를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6.2.2. 사례 분석

가. A 유가공업체

A업체의 경영자인 여성농업인 B대표는 도시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축산업에 종사하는 남편과의 결혼으로 인해 농촌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A대표는 2003년부터 농진청 축산과학원 내 치즈연구회[21] 등 여러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수료하며 창업을 준비해왔다. 2009년 농진청 창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1억원을 지원받고, 자부담 2천만원 이상을 투자하여 농장 인근에 가공 및 체험장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2009년에는 구제역 파동 등으로 생산이 지연되어 2010년 본격적으로 제품을 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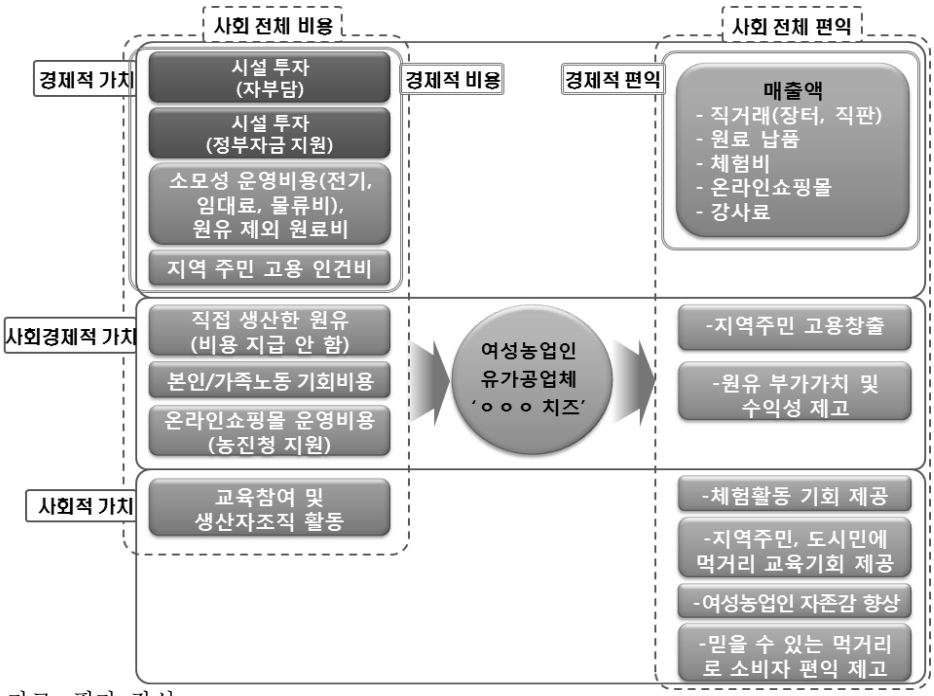
2009년 5월 업체 등록 후 10월 개소식, 시설 설치 후 식품가공시설에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렸으나, 기술센터·시 관계자 등 각계의 도움으로 설비를 갖출 수 있었다.

B대표가 여성농업인으로서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계기로는 남편의 권유와 쿼터 외 원유 처리 문제, 그리고 농촌진흥청의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이 있었던 점을 꼽았다. A대표의 자녀들은 독일 유학 등 가업을 승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확장 없이 소규모 가족경영의 형태를 앞으로도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가족이 먹을 치즈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는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생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21] 한국목장형유가공연구회는 축산과학원에서 월 1회 정기모임, 연 1회 워크샵 실시 등 10년 이상 민간 차원에서 유지되었으며, 지난해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일본 등의 마이스터들을 회원들이 자비로 초빙하여 교육받는 등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림 3-23. A업체의 기업 활동



자료: 필자 작성.

B대표는 직접 생산한 유가공제품들을 온라인 판매, 체험장 운영, 수원 반짝시장·청담역 행복열차 등 소비지 직거래장터 참여, 지역 관광지의 카페에 납품 등 주로 직거래 위주로 유통경로를 개척하고 있다. 또한 생산시설 인근의 체험시설에서 치즈와 유제품을 활용한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개설하는 치즈만들기 강의에 출강하는 등 유가공제품 소비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업체의 기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편익은 매출액이다. 직거래장터, 지역 내 카페에 원료 납품, 온라인 쇼핑몰 등 여러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금액과 유가공제품을 활용한 체험비 수익과 강사료 등 지난 한 해 전체 매출액은 약 1억원 수준이다. 한편, 경제적 비용으로는 농촌진흥청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비 1억원과 자부담을 통한 투자액이다. 그 외 생산 및 체험시설 운영비용과 물류비,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비, 직거래장터와 생산시

설에서 각각 1명씩 고용하고 있는 마을의 여성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이 있다.

표 3-37. A업체의 경제·사회적 비용편익 비교

단위: 만원

	항목	2009	2010	2011	2012
경제적 편익: 매출액, 지원금	농장 직판	-	-	1,000	1,000
	직거래장터	-	-	3,000	3,000
	원료 납품(카페)	-	-	-	3,000
	체험비	-	-	700	900
	온라인쇼핑몰	-	-	2,000	2,000
	강사료	-	-	100	300
	온라인쇼핑몰 운영비 지원	-	-	340	340
	시설투자 정부보조 지원	10,000			
	소계	10,000	-	6,800	10,200
경제적 비용	시설투자(정부보조)	10,000	0	0	0
	시설투자(자부담)	15,000	0	0	3,000
	소모성 운영비(전기 등 경비)	-	-	1,000	1,000
	원료비용(유산균, 첨가제, 부자재 등)	-	-	1,250	1,250
	인건비(3인)	-	-	192	992
	소계	25,000	-	2,442	6,242
사회·경제적 편익	원유 부가가치 제고	-	-	1,800	1,800
	지역주민 고용(3인)	-	-	192	992
	소계	-	-	1,992	2,792
사회·경제적 비용	원료비용(원유쿼터후가격)	-	-	1,200	1,200
	본인/가족노동 가치 (최저임금 적용)	-	-	995	879
	온라인쇼핑몰 운영비(농진청지원사업)	-	-	340	340
	소계	-	-	2,535	2,419
편익 합계		10,000	-	8,792	12,992
비용 합계		25,000	-	4,977	8,661
B/C(투자 제외)		-	-	1.76	1.50

자료: 필자 작성.

대부분의 여성농업인 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B대표의 농가에서 생산된 원유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B대표 자신의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또한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여성농업인 기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제·사회적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생산기술 획득과 정보 습득 등을 위해 B대표가 지속적으로 유가공 관련 교육이나 연구회 등 생산자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것 또한 기업활동을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볼 수 있다.

B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치즈'의 비용편익계수를 분석해본 결과, 자산과 초기투자를 제외하고 2011년과 2012년의 B/C는 1.76, 1.50으로 기업의 자립과 건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 전국여성농민회 제철꾸러미사업 C마을공동체[22]

'C마을공동체'는 전국여성농민회에서 추진하는 언니네텃밭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한 마을공동체이다. 읍단위 공동체에서 출발하여, 5명 이상의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면 마을별로 분리한다는 언니네텃밭의 원칙에 따라, 2011년 4월 C마을공동체로 독립하였다. C마을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D대표는 20여 년 전 결혼과 함께 귀농하여 포도 등 농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으며, C마을공동체의 운영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당시 5명의 여성농업원과 기금 120만원, 그리고 기존 읍공동체에서 분리해온 25명의 소비자회원을 바탕으로 마을 내에서 자체적으로 꾸러미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연령별로는 60대 2명, 50대 2명, 40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8월부터 마을 내 7~80세 여성농업인 2명이 출자금 20만원을 납부하여 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았더

[22] 본 절에서 ○○마을공동체라는 표현은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사용하는 고유명사로서 사용되었다.

라도 수급 상황에 따라 마을 여성농업인 중 부정기적으로 일부 생산물을 출하하는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주 1회씩 월 4회 꾸러미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의 협의로 제철 텃밭 농산물, 채취한 나물, 저장 식품, 일부 반찬류 등의 품목을 선정하고 계획하여 생산을 분담한다. 구성원들은 공동체 꾸러미를 시작하면서 다품목 생산과 무농약재배의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마을 외에서 공급받고 있는 두부와 계란은 관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유기·무항생제 상품을 사용하고 있다.

꾸러미사업 참여를 통한 경제적 편익, 즉 매출액은 소비자회원의 월회비에서 발생한다. 소비자회원 수는 25명에서 출발하여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11월 현재 60명으로 증가했다.

구성원 1인당 소득은 현재 월 30~40만원 수준이다. 앞으로 소비자회원을 추가적으로 유치하여 월 소득이 50~60만원 수준까지 향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는 C마을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D대표가 농장 내 유휴시설인 창고를 공동작업장으로 제공하였고, 초기의 기금 120만 원으로 냉장고, 저울 등 집기류와 고정시설에 투자하였다.

표 3-38. C마을공동체 참여 여성농업인 소득 현황

단위: 명, 원

기간	참여인원		지급액	1인당 월평균 소득	
	정식 참여	부정기 참여 포함		정식 참여	부정기 참여 포함
1월	6	11	3,232,931	538,822	293,903
2월	6	13	3,422,400	570,350	263,238
3월	6	10	3,586,300	597,717	358,630
4월	6	9	3,328,600	554,767	369,844
5월	8	11	3,931,350	491,419	357,395
6월	8	12	4,529,100	566,138	377,425

자료: 2012년 상반기 C마을공동체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꾸러미 상자당 가격은 25,000원으로, 이 중 물류비가 약 30%의 비중을 차지한다. 마을기업 지원비 등을 통해 500원의 상자 비용을 지원받을 때도 있지만, 이러한 지원은 비정기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다. 계절과 가격 변동에 따라 때로는 비용이 꾸러미 가격인 25,000원을 상회하거나 하회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는 공동기금을 마련하여 활용한다. 잉여가 있을 경우 공동기금으로 적립하고 가격 변동으로 비용 발생이 클 경우 이 기금에서 보전하며 가격을 조정·관리하고 있다.

C마을공동체 여성농업인들은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에 적은 금액이더라도 수입이 생긴다는 데에서 활력을 얻고 있다. 이들은 농업 생산 및 2·3차 경제활동 외에도 여가나 문화·교육활동을 공유한다. 연 5~6회 영화관람 등의 문화활동과 친목활동, 그리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서 실시하는 생산자교육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표 3-39. C마을공동체의 꾸러미 개당 비용 소요 현황

단위: 원

항목	세부항목	금액	비고
물류비	택배비	2,600~3,100	무게에 따라 변동,
	아이스팩	500	고정금액
	박스비	700~1200	700~1200
마을 외 납품: 두부	사회적기업	3,000	고정금액
마을 외 납품: 계란	무항생제	3,000	고정금액
꾸러미사업 수수료	생산자, 소비자 관리	2,000	고정금액
기타 소모성 경비	전기료 등	1,000	고정금액
구성원의 농산물 출하에 따른 판매액 합계	품목당 1,000~2,000	7,000	품목에 따라 변동

자료: 면접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필자 작성.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실태

제4장

1. 여성농업인 사회활동의 개요

사람은 사회의 각종 모임이나 사회 및 종교단체에 소속하여 활동하며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사회성이 있다.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은 취미활동, 사회 봉사활동을 비롯하여 지역 역사·문화 활동에 참가 등으로 다양하다. 이 장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나 농업과 관련된 경제·사회단체 및 농업인 단체의 참여 정도를 통해 사회성이 발현되는 범위와 참여 정도, 의향과 만족도 등을 살펴보고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과 노동에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범위와 내용을 전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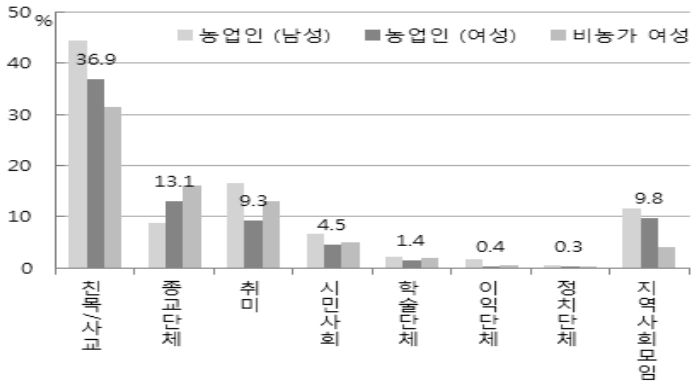
1.1. 사회활동 참여와 만족도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는 종교단체를 제외하면 남성농업인보다 참여율이 낮지만, 비농가 여성과 비교하면 친목·사교나 지역사회모임의 참여율이 높은 데 반해, 취미활동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는 낮다(그림 4-1).

여성농업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회단체는 마을 부녀회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이 밖에 마을발전모임이나 농·축협 조합원, 작목반 활동은 40~50대의 비중이 높고, 품목별 농업인단체나 여성농업인단체는 40대, 50대의

순이며, 종교·시민단체는 20~30대의 비중이 가장 높다(그림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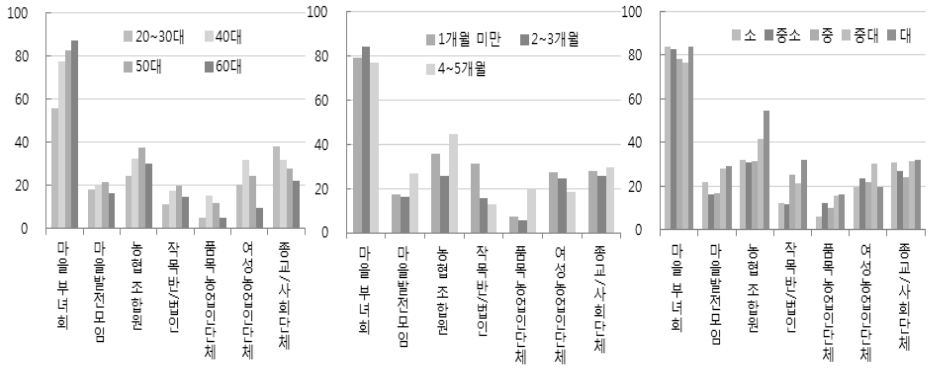
그림 4-1. 각종 사회단체 참여 비교



자료: 사회조사 2011

그림 4-2.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가입률

(연령별) (농한기간별) (영농규모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농한기별로 구분해 보면, 농한기가 짧을수록 작목반·영농법인이나 여성농업인단체의 가입률이 높고 농한기가 가장 긴 경우 품목농업인단체에 가입률이 높게 나타나고 영농규모별로 구분하면, 농업규모가 클수록 마을발전모임이나 농축협 조합원, 작목반·법인 등 경제단체의 가입률이 높다.

여성농업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친목도모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여가활동이나 사회봉사 등이다. 젊은 여성농업인일수록 경제적 도움을 얻으려거나 사회적 인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많은 반면, 나이가 많을수록 친목도모나 여가활동의 목적이 많다(표 4-1).

표 4-1. 여성농업인의 사회단체 참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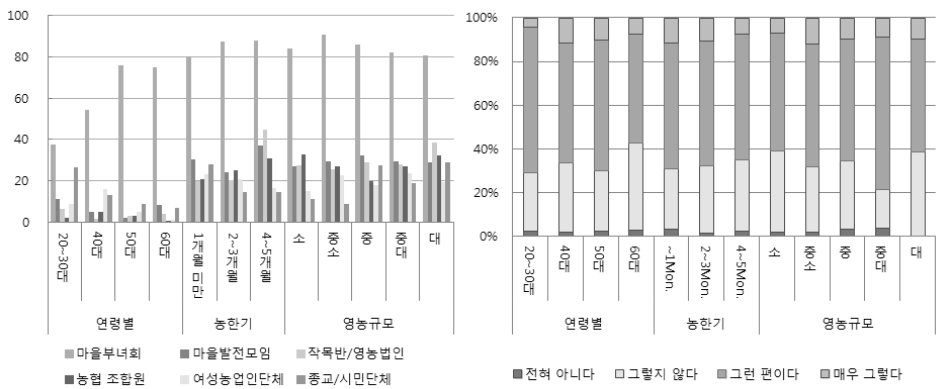
단위:%

	친목 도모	여가 활동	사회 봉사	사회적 인맥확대	자아실현	경제적 도움
20~30대	66.7	31.1	22.2	22.2	15.6	24.4
40대	80.8	27.5	28.1	21.0	19.2	6.0
50대	87.9	32.0	30.3	18.2	11.0	10.4
60대	93.7	36.4	21.0	19.6	4.9	9.8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4-3.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만족도 및 참여 의향

(만족도가 높은 사회활동) (사회활동에 참여 희망)



여성농업인에게 만족도가 높은 사회활동은 마을 부녀회가 68%, 종교나 시민단체 11%, 여성농업인단체 7%의 순이다(그림 4-3). 50대 이후 고령일수록 마을 부녀회의 만족도가 높은데 반해, 40대 이하의 젊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농협, 마을발전모임, 작목반·영농조합법인, 종교단체의 만족도가 높다.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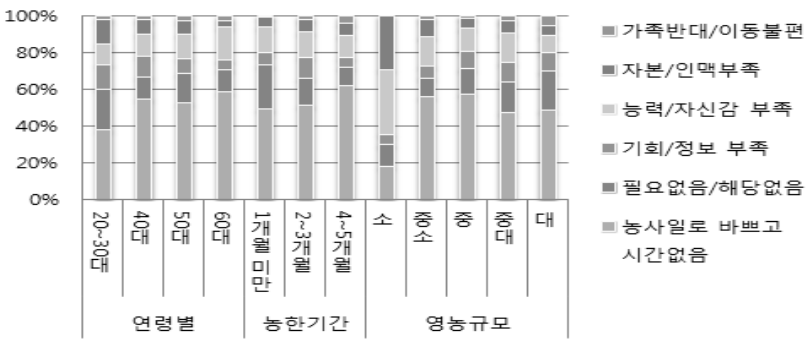
농업인의 사회활동에 참여 의사는 67%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농업인은 사회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유대나 연대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0대나 영농규모가 소규모 또는 대규모인 경우 참여 의향이 없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그림 4-3).

1.2. 사회활동 참여의 애로사항과 교육 의향

여성농업인이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바쁜 농사일과 가사로 인한 시간부족이 주요 요인이다. 그 외에는 연령별로 젊은 여성농업인일수록 기회나 정보 부족, 자본과 인맥 부족,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나이가 들수록 능력이나 자신감 부족의 이유가 크다. 또한 영농규모별로는 소규모 농가의 여성농업인은 능력이나 자신감 부족, 자본이나 인맥 부족의 이유가 절대적으로 큰 반면, 대규모일수록 비율은 적지만 가족의 반대가 이유인 경우도 있다(그림 4-4).

여성농업인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마을별로 살펴보면, 농한기 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농한기가 짧은 부여는 농사일이 바쁘다는 이유가 80%이지만 농한기가 긴 양구는 38.5%에 불과하다(표 4-2).

그림 4-4. 여성농업인의 사회단체 참여의 장애요인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표 4-2.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의 장애요인

단위: %

	내 능력 부족	일할 기회, 정보 부족	인맥 부족	자본금 부족	자신감 부족	신체적 한계	시간 부족	농사일 바빠서	기타
부여	6.7	0.0	0.0	0.0	0.0	6.7	0.0	80.0	6.7
장흥	0.0	0.0	0.0	0.0	0.0	12.5	12.5	68.8	6.3
양구	3.8	3.8	3.8	3.8	3.8	11.5	11.5	38.5	19.2

자료: 본 연구의 마을조사 결과임.

표 4-3.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애로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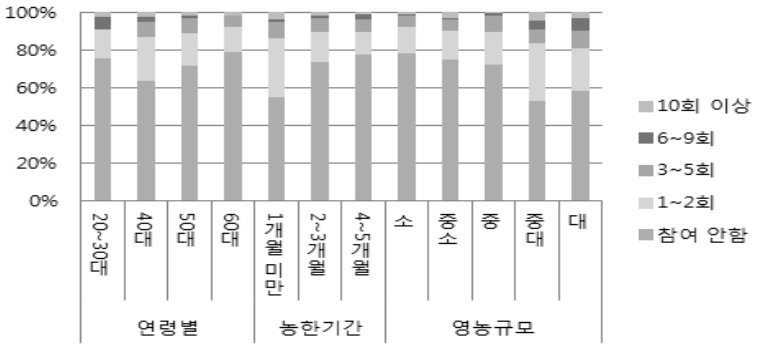
	집안에서 비협조적	시간문제	관련기관 비협조적	모임여건 애로	개인적으로 싫어함	기타
사례수	131	474	42	320	85	36
비율(%)	12.0	43.6	3.9	29.4	7.8	3.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1999)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또한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애로사항에 대해 199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과거에는 농사일로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비율이 43.6%이었지만, 본 조사결과에서는 20～30대를 제외하면 52～58%에 이른다. 또한 과거 집안에서 비협조적이라는 응답이 1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본 조사결과는 2.7%에 불과하다(표 4-3). 여성농업인은 과거에 비해 농업경영과 농업노동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해 농가 내 가부장적 문화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농업인은 경제활동과 다소 관련성이 낮은 사회활동 교육, 예를 들면 취미생활이나 문화활동, 봉사활동 등의 교육에 최근 3년간 참가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1/3～1/4 정도만 참여한 경험이 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6.5%로 참여율이 높고, 농한기가 1개월 미만인 농가와 영농규모가 중대규모 이상의 여성농업인이 참여 경험이 있다(그림 4-5). 마을별로 살펴보면, 참여율은 더욱 낮다. 참가 경험이 있더라도 1～2회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표 4-4). 양구의 경우 마을 내에 주둔한 군부대와 교류에 사회활동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교육 참여율이 높은 경우도 있다.

그림 4-5. 여성농업인의 사회교육 참여 실태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표 4-4. 최근 3년간 사회활동 관련 교육 참여 횟수

단위: %

	없음	1~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부여	78.3	13.0	0.0	0.0	8.7
장흥	86.7	13.3	0.0	0.0	0.0
양구	71.4	9.5	0.0	9.5	9.5

자료: 본 연구의 마을조사 결과임.

2. 사회활동 영역별 여성농업인의 참여 현황

2.1. 마을단위의 사회조직과 여성농업인

농촌지역 행정구역에서 리·동은 1~5개의 마을로 구성되었으며, 마을별로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새마을회, 마을발전모임 등 주민 자치조직이 있다. 마을 자치조직 가입은 의무가 아니지만 마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기본조건이므로 가입률이나 참여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여성농업인이 마을의 여성 모임인 부녀회에 참여하는 비중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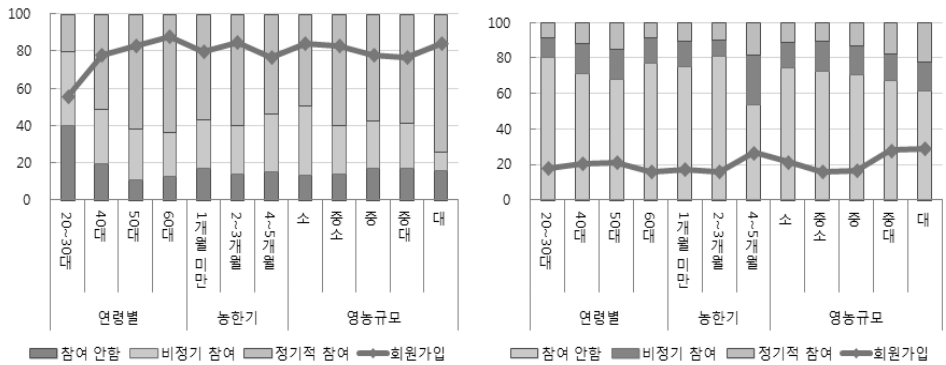
마을 부녀회 모임에 가입률은 80%이고, 20~30대를 제외하면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비중은 80% 이상이다(그림 4-6). 20~40대의 가입률과 참여율이 고령자보다 낮은 이유는 농외소득활동을 하기 위해 마을 밖에서 활동이 많고,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비슷한 연령의 또래가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사회에 가부장적 위계질서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연령 차이에 따라 명분 없이 상하가 분명한 분위기를 회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농촌 사회도 물질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농가 개별단위의 소득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아직까지 여성이 마을의 리더로 나서기 어려운 가부장적 분위기가 여전하며 농촌공동체는 거의 와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의 부녀회 활동에 참여도가 높다는 것은 공동체성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친목 기능을 넘는 협력체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농업인이 마을발전모임에 참여하는 비중은 약 20% 내외이다. 주로 40~50대의 영농규모가 큰 여성농업인일수록 참여 비율이 크다.

그림 4-6. 여성농업인의 마을단위 조직에 참여 정도

(마을 부녀회) (마을 발전모임)



주: 마을 발전모임은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새마을회 등 주민자치조직의 임원으로 구성.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2.1.1. 마을 이장 여성농업인

한편, 2000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지면서 여성이 농촌 마을의 이장으로 활동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 이장은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농촌노인의 건강한 삶과 소득활동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유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장직을 수행함으로써 신뢰를 얻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마을 이장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다음 두 가지 사례로 요약된다.

첫째, 여성농업인이 개인의 경영능력을 살려 마을 지원사업을 지원하여 리더로 활약하게 된 경우이다.

전남 담양의 김모 이장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고향인 이곳으로 시집왔을 때, 도시 사람들보다 정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에 놀 랐어요. 농업이 기계화되면서 예전처럼 두레나 품앗이가 점차 사라지고 이웃간의 교분도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마을을 새롭게 변모시켜 보기 위해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을 신청하게 됐어요."[23]

둘째, 전남의 지자체는 여성이장을 선출한 마을에 인센티브 사업을 책정 지원하고 있다. 여성의 역량 성장에 따라 사회참여가 높아지고 단순한 발언권을 넘어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여론조성 능력의 결정력을 갖게 되었다.

해남군에는 523명의 이장 중 30명이 여성 이장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이장 마을에는 2천만 원의 특별사업비 지원과 여성 이장 고충상담창구 운영, 여성이장간담회 등 여성이장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24]

또한 강진군 여성 이장 회장이며 2년차 이장을 맡고 있는 김모씨가 관내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어려운 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간담회에

---

[23] 농촌여성신문-농촌진흥청 공동기획⑤ 일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 전남 담양군 월산면 신계리 김경숙 이장 사례

[24] 농촌여성신문. "우리농업·농촌 여성이장이 이끈다". 2008. 2. 21.

서 여성 이장 마을 부업장려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2년차 이장을 하고 있는 도암면 박모씨는 "농촌노인인구가 50%를 차지하고 있다"며 "노인복지차원에서 노인요가프로그램을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에서는 총 마을 이장 286명 중 5.3%인 15명이 여성이장으로 활동하고 있다.[25]

2.1.2. 여성농업인의 마을 이장으로서 특징

여성농업인은 마을 이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면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장점을 발휘한다.

첫째, 여성의 섬세함과 배려심으로 마을 살림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고령화된 마을 분위기를 바꾸려는 노력을 한다. 특히 마을 일에 봉사한다는 취지에서 마을 이장의 급여를 '마을 발전기금' 형성에 기부하고 마을 공동자금을 이용하여 마을 노인에게 매일 점심을 제공하며 노인을 위한 한글교실과 뜨개질교실을 운영하기도 한다.

둘째, 공정하게 마을 일을 수행하며 마을 발전기금을 비롯하여 사업 보조금이나 공동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지 않다보니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여성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마을에 관련된 모든 대소사는 마을운영위원회(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의 회의에서 결정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한다.

셋째, 각종 지원사업을 유치하여 마을 발전기금 형성에 기여하는데 마을주민의 수준에 맞는 사업을 구상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독거 노인이 마을에 기부한 토지에 팬션형 '농촌체험 수련시설'을 유치하여 연간 400~500

---

[25] '여성이장 확대와 "마을 별호 짓기" 운동 펼치자' 출처: http://cafe.daum.net/artjinindo

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활용하거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청국장이나 장류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가공 및 판매장을 계획하기도 한다.[26]

면담에 응한 여성농업인 이장들은 농촌사회에서 여성 이장이 소수이므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견지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이 보조자 역할이라는 통념의 한계를 벗어나 농촌사회에서 여성과 농업인의 목소리를 내는 여론 주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의 마을 이장 활동은 농촌사회에서 여성의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2. 지역 사회단체(조직)와 여성농업인

2.2.1. 지역사회 경제단체

지역 내 농업관련 경제조직은 농수축협의 생산자협동조합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 있다.

여성농업인이 생산자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것은 최근 10여년 동안의 변화이다. 1999년 농협협동조합법 개정 이전에는 농가 호당 조합원은 1인으로 규정되어 대부분 남성농업인 1인만 조합원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농업 참여가 증가하면서 농업인 자격 등 법적 지위 향상의 요구가 늘어났고, 1999년 농협에도 복수조합원제가 허용되어 여성농업인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해졌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여성농업인의 조합원 가입률은 약 30~4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더라도 농산물 판매금액 실적은 거의 남편 명의의 통장에 가입하거나 농가의 농업소득 크기가 일정하므로 여성농업인이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해서 얻는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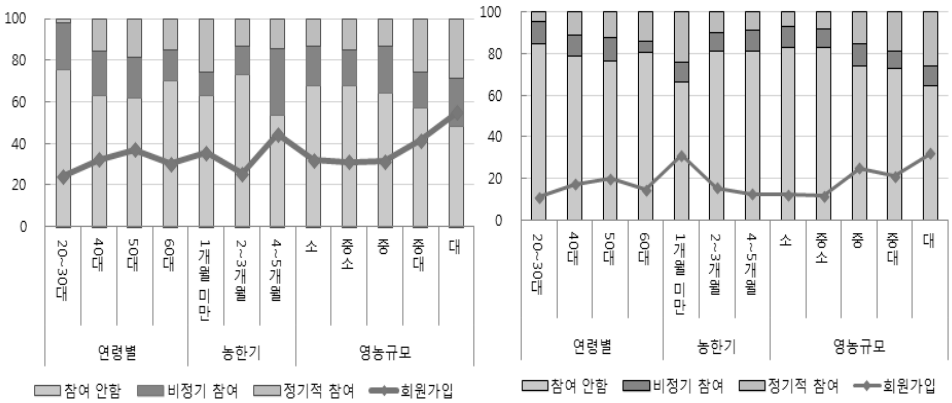
[26] 경북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 사례임.

질적인 효과는 미비하다. 그러므로 농수축협의 여성조합원 가입률은 정체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65세 이하 여성농업인이 농축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률은 평균 36%이다. 그러나 비록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는 했지만 조합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비중은 20% 미만이다(그림 4-7). 조합원 가입률과 농협 활동에 정기적인 참여율은 40～50대의 농업규모가 클수록 크다.

그림 4-7. 여성농업인의 경제조직 참여 정도

(농수축협 조합원) (작목반/영농조합법인)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에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경우는 농산물 판매사업이 왕성한 곳이다. 판매사업이 미비한 작목반·영농조합법인은 주로 남성농업인이 참여하고 친목도모 차원에서 여성농업인이 보조자로 가끔 참여하는데 머물고 있지만, 농산물 유통과 판매가 활발한 경우는 선별 및 포장 등 상품화 작업이나 회계 및 재무 등에 여성농업인이 참여하여 관리한다. 즉,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의 구성원이 농업생산에 중시하는 경우는 여성농업인이 참여하여 활동할 여지가 농가에 국한되지만,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 유통이나 판매 활동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면, 남성농업인은 생산

에 집중하고 여성농업인이 상품화에 참가하는 분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이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비율은 평균 18%이고 작목반·영농조합법인의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비중도 10% 내외로 낮게 나타난다. 작목반·영농조합법인이 여전히 생산자의 친목도모 차원의 조직으로서 생산 협업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며, 농산물 유통과 판매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농한기가 짧거나 영농규모가 클수록 여성농업인이 회원 가입률과 참여율이 일부 나타나는 것은 연중 생산이 있거나 대규모 농가가 가입한 작목반·영농조합법인일수록 농산물 유통에 관여가 있으며 여성농업인이 분업에 참가할 기회가 있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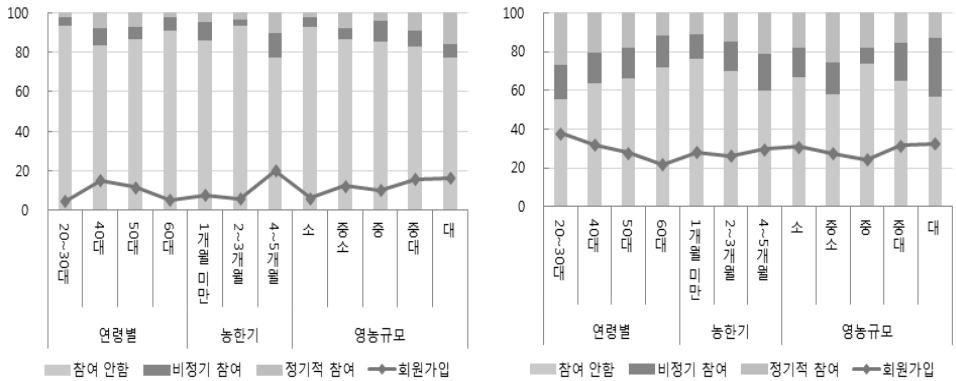
2.2.2. 이익단체와 종교단체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자단체에 가입하는 비율은 평균 10.5%이고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비중도 평균 5.8%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의 가입률보다 낮다(그림 4-8). 일반적으로 품목별 생산자단체는 단일품목 전업농가가 중심인 전국단위 이익단체이고, 이익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규모를 가진 농가에서 주로 참여한다. 따라서 품목별 생산자단체에 여성농업인의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단일품목 전업농의 비율이 낮은 것이 주된 이유이다. 또한 전업농이며 일정 규모 이상이더라도 전국단위 대외활동에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은 지역 단위 활동인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경우는 종교단체에 참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평균 34%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연령이 낮고 농한기가 길수록 종교 및 사회단체의 참여율이 높은 것은 이 계층의 여성농업인일수록 사회활동의 욕구가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림 4-8. 여성농업인의 이익단체 및 종교·사회단체 참여 정도

(품목 생산자단체) (종교단체·시민단체)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2.3. 여성농업인단체와 여성농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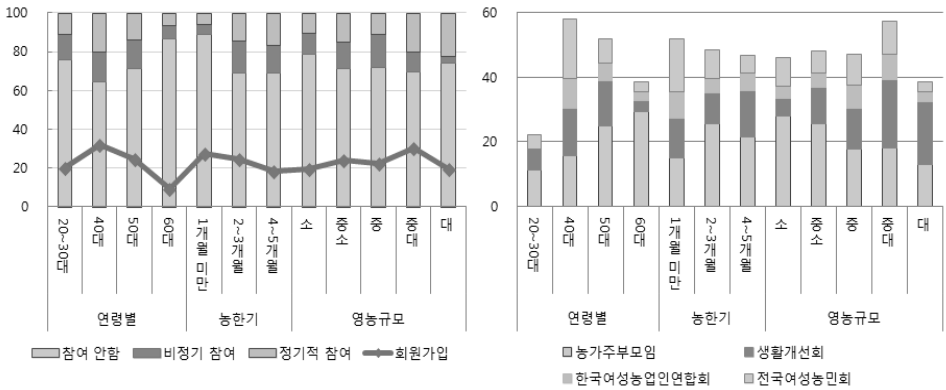
전국 주요 여성농업인단체는 농협이 주관하는 전국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약칭 농가주부모임),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이 주관하는 생활개선중앙연합회(약칭 생활개선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약칭 한여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약칭 전여농)의 4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앞의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농업인단체는 1960년대 근대적 생활양식의 보급으로 시작하여 1990년대 여성농업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며, 각 단체는 여성농업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정치적 이해가 결부된 정치성을 띠기도 한다. 각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2년차 연구의 과제이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여성농업인이 각 단체에 가입한 가입률과 참여율 정도만 살펴본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단체 4단체 중 한 곳이라도 가입한 가입률은 27%이지만,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다(그림 4-9).

그림 4-9. 여성농업인의 여성농업인단체 참여 정도

(여성농업인단체 참여도) (여성농업인단체 가입률)



주: 중복응답의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표 4-5. 마을별 여성농업인의 여성농업인 단체 가입률

단위: %

	농가주 부모임	생활 개선회	한여농	전여농	여성농업인 CEO연합회	기타 여성조직	없음
부여	50.0	19.2	15.4	0.0	3.8	0.0	11.5
장흥	30.0	25.0	5.0	0.0	0.0	0.0	40.0
양구	13.3	20.0	10.0	0.0	0.0	0.0	56.7

주: 중복응답의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마을조사 결과임.

여성농업인단체에는 40대, 농한기가 짧을수록, 영농규모가 클수록 여성농업인의 가입률과 정기적인 참여율이 높다. 여성농업인단체가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에 대한 교육이나 도농교류, 농가단위 식품 가공지원 및 판매, 직거래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40대 여성농업인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각 단체 가입률은 농가주부모임 23%, 생활개선회 12%, 한여농 5%, 전여농 9%로 조사되었다.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단체에 중복 가입이 많은데, 농가주부모임과 생활개선회의 중복가입은

거의 80% 이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지역농협과 농업기술센터와 교류가 빈번하고, 활동력이 있는 여성농업인일수록 지역행사 등에 자원봉사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이 주관하는 여성농업인단체에 가입률이 높다. 반면, 여성농업인단체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가 전반적으로 적다는 의미이고, 이들은 여성농업인단체에 접근성, 즉 가입의 기회도 적고 설령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적다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도가 낮다. 여성농업인단체가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농과 고령농가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가의 여부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성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2차년도의 과제로 수행할 것이다.

한편, 마을 조사에 따르면 농한기가 짧을수록 여성농업인단체 가입률이 높다. 농한기가 가장 짧고 농업소득이 비교적 높은 부여는 여성농업인단체 미가입률이 11.5%인데 비해 농한기가 가장 긴 양구는 미가입률이 56.7%에 이르며, 가입률이 높은 여성농업인단체는 농가주부모임과 생활개선회가 절대 우위를 차지한다. 한여농과 여성농업인CEO연합회의 회원은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활동하는 여성농업인이 대상이므로, 부여의 19.2%, 장흥의 5%, 양구의 10%는 이미 전문여성농업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관련 요인 분석

3.1.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와 분석모형[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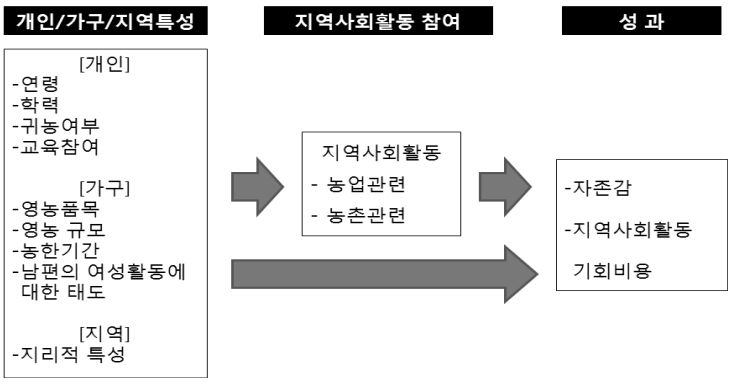
본 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여성농

[27] 분석에 사용된 변인의 조작적 정의는 경제활동 관련 요인분석과 같음(표 3-26 참조).

업인이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하는가, 둘째, 어떤 여성농업인이 자신의 사회활동에 많은 기회비용을 부여하는가, 셋째, 사회활동 참여와 여성농업인 사회활동의 기회비용과는 관련이 있는가, 넷째, 어떤 여성농업인이 자존감이 높은가, 다섯째, 사회활동 참여와 여성농업인의 자존감은 관련이 있는가이다.

관련 선행연구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연구문제와 관련된 개인, 가구, 지역변인 등을 도출하여 그림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연령, 학력, 귀농여부, 교육 참여 정도 등과 같은 여성농업인 개인 변인, 영농품목, 영농규모, 농한기간, 남편의 여성활동에 대한 태도 등의 여성농업인 가구 변인, 그리고 여성농업인이 사는 지역특성변인이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고, 이를 매개로 하여 여성농업인의 자존감, 사회활동의 기회비용 등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이다.

그림 4-10.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실태 분석 모형



3.2.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관련요인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과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보기 이전에 농업관련 활동과 농촌지역관련활동으로 나누었다. 농업관련 사회활동에는 작목반, 농협(축협) 조합원 활동, 여성농업인단체, 품목별 농민단체 활동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농촌지역관련 활동에는 마을부녀회와 노인화, 마을발전모임 그리고 종교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포함하였다.

농업관련 사회활동과 관련 있는 개인, 가구, 지역변인으로는 농업교육, 농외교육, 사회활동 관련 교육, 영농규모, 농한기간, 남편의 여성활동 찬성 정도, 지리특성 등이었고, 농촌관련 사회활동은 귀농여부, 세 가지 유형의 교육(농업, 농외, 지역사회), 영농규모, 지리적 특성 등이다.

표 4-6. 사회활동 참여 관련 변인에 대한 상관분석

변인		농업 관련 사회활동	농촌 관련 사회활동
연령		.055	-.015
학력	중졸	.043	.035
	고졸	-.015	.021
	대졸	-.029	-.003
귀농여부		-.002	.092
농업교육		.280	.381
농외교육		.197	.290
사회활동 관련 교육		.211	.248
주력 품목	특용	.007	.047
	과수	-.028	-.082
	채소	-.012	.068
	축산	-.012	-.031
영농규모		.090	.153
농한기간		.131	-.020
남편의 여성활동 찬성정도		.084	.056
지리적 특성	평야지	.107	.092
	중산간	.049	-.001

* 음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05$) 관계를 나타냄.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농업, 농촌)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개인, 가구, 지역변인 중에 어떤 요인들이 특히 높은 관계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농업관련 사회활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진 변인은 농업교육, 사회활동 관련 교육, 농한기간, 남편의 여성활동 찬성 정도, 지리적 특성 등이다(설명력 14.5%). 농촌관련 사회활동과는 귀농여부, 농업교육, 농외교육, 영농규모, 지리특성 등

이다(설명력 20.9%). 즉, 농업관련 사회활동은 농업교육활동과 사회교육활동에 참여가 적극적일수록, 농한기간이 길수록, 도시근교보다는 평야지나 중산간농촌에 거주할수록 많고, 농촌관련 사회활동은 귀농자일수록, 농업 및 농외 교육이 활발할수록, 영농규모가 클수록, 도시근교보다는 중산간 농촌에 살수록 많다. 농업관련이든, 농촌관련이든 교육참여와 거주지의 지리적 특성이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중요한 변수이다.

표 4-7. 사회활동 참여 관련 변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변인		농업관련 사회활동		농촌관련 사회활동	
		β	p	β	p
귀농여부				.109	.001
농업교육		.208	.000	.289	.000
농외교육		.044	.324	.161	.000
사회활동 관련 교육		.124	.005	.055	.198
영농규모		.039	.291	.096	.006
농한기간		.175	.000		
남편의 여성활동 찬성정도		.083	.023		
지리 특성	평야지농촌	.138	.001	.069	.083
	중산간농촌	.101	.018	.097	.015
R2		0.145		0.209	
F		14.735		26.198	
p		0.000		0.000	

3.3. 여성농업인 사회활동 참여의 성과 관련요인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의 성과와 관련하여 사회활동의 기회비용에 대한 가치 평가(이하 사회활동가치)와 여성농업인의 자존감 등의 변인에 어떤 개인, 가구, 지역 특성요인이 관계를 하고, 이들 변인과 여성농업인의 농업 및 농촌 관련 사회활동 참여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가치 그리고 자존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개인, 가구, 지역 변인은 표와 같았다. 사회활동가치는 연령, 학력, 3유

형의 농업교육, 품목, 영농규모, 농한기간, 남편의 여성활동 찬성 정도, 지리적 특성이 관계가 있고, 자존감은 학력, 3유형의 농업교육, 농한기간, 남편의 여성활동 찬성 정도, 지리적 특성 등과 관계가 있다.

표 4-8. 사회활동 참여 성과 관련 변인에 대한 상관분석

변인		사회활동가치	자존감
연령		-.104	-.020
학력	중졸	-.026	-.095
	고졸	.064	.047
	대졸	.115	.072
귀농여부		.036	.030
농업교육		.119	.265
농외교육		.265	.154
사회활동 관련 교육		.303	.136
주력품목	특용	.039	.017
	과수	-.047	-.024
	채소	.147	.055
	축산	-.039	-.044
영농규모		.080	.031
농한기간		-.288	-.156
남편의 여성활동 찬성정도		.169	.103
지리특성	평야지역	.200	-.073
	중산간지역	-.290	-.074

* 음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05$) 관계를 나타냄

상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인/가구/지역변인 중에 좀 더 설명력이 높은 변인의 도출, 그리고 개인/가구/지역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사회활동참여가 사회활동의 성과(자존감, 사회활동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가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을 가진 개인/가구/지역변인은 농업교육, 사회활동 관련 교육, 품목, 농한기간, 남편의 여성활동 찬성, 지역특성 등이었다. 교육은 농업교육은 적지만 사회활동 관련 교육은 많을수록, 주력품목이 쌀보다는 특용작물이나 채소일수록, 농한기간이 짧을수록, 중산간농촌보다는 도시근교에 살수록 자신의 사회활동가치를 높

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들 개인/가구/지역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사회활동 참여 요인들의 설명력을 보면, 농촌관련 모임이 사회활동가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

여성농업인의 자존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을 가진 개인/가구/지역변인은 학력, 농업교육, 농한기간, 지리특성 등이다. 학력이 낮을지라도, 농업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농한기간이 짧을수록, 도시근교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자존감이 높다. 이들 개인/가구/지역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사회활동참여 요인들의 설명력을 보면, 농업관련 또는 농촌관련 사회모임 참여가 자존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은 없다.

표 4-9. 사회활동 참여 성과 관련 변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변인		사회활동 기회비용		자존감	
		β	p	β	p
연령		-.031	.548		
학력	중졸	-.019	.720	-.111	.017
	고졸	-.038	.536	-.036	.447
	대졸	.005	.930	.035	.390
농업교육		-.108	.035	.263	.000
농외교육		.072	.162	.016	.725
사회활동 관련 교육		.213	.000	-.024	.594
주력 품목	특용	.096	.034	-.009	.821
	과수	.024	.619	-.046	.285
	채소	.126	.009	-.015	.736
	축산	-.026	.533	-.046	.220
영농규모		.021	.624		
농한기간		-.179	.000	-.124	.002
남편의 여성활동 찬성정도		.086	.044	.073	.052
지리 특성	평야지역	.052	.285	-.228	.000
	중산간지역	-.163	.002	-.116	.009
농업관련 사회 참여		-.002	.960	.051	.207
농촌관련 사회 참여		.137	.003	.015	.731
R2		0.246		0.141	
F		8.759		7.020	
p		0.000		0.000	

해외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활동

제5장

1.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실태

1.1. 프랑스 농업과 여성농업인

프랑스는 영토의 54%를 농업에 이용하는 유럽 제1의 농업국이다. 총인구의 1.5%인 102만명(2007년)의 농업인 중 75.4%가 전업농이며 그 중 82%가 가족의 일원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농 구조이다.

프랑스 농업도 지난 20여년간 농가 수가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경지면적 50ha 이하의 농가는 2/3가 감소한 반면, 100ha 이상의 농가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후계자가 없는 은퇴 농업인의 토지가 매매를 통해 농지의 규모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현재 50세 이상의 농업인 중 후계자가 있는 경우가 25%에 불과하므로 이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경제적 규모가 중대규모[28]인 농가는 전체 농가의 2/3 가량이다. 이용 중인 경지 면적의 93%가 중대규모 농가에 집중되어 있다. 중대규모 농가의 40%가 50ha 미만을 경작하며, 30%는 100ha 이상을 경작한다.

---

[28] EU는 고유 계산법인 '표준총생산액(PBS: Production Brute Standard)'을 계산하여 농가를 대, 중, 소로 구분하고 있는데, PBS가 2만 5천유로(약 3,750만원) 미만이면 소규모 농가, 2만 5천유로 이상 10만유로(15억원) 미만은 중규모 농가, 그 이상을 대규모 농가로 분류한다.

중·대규모 농가 중 개인 농가는 전체의 55%이지만 평균 규모는 58ha로 작은 반면, 회사나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농가의 평균 규모는 108ha이며 현재 활용 중인 농지면적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회사나 조합 형태의 농가가 증가하게 된 주요한 요인은 1985년 유한책임영농회사(EARL)[29]가 도입되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중대규모 농가 중 25%가 EARL이며, 회사나 조합 형태 농가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EARL 정관은 회사 자산으로부터 개인 자산을 분리함으로써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점에서 매력적이며, EARL의 절반 이상이 공동경영자가 없는 농가경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공동영농조합(GAEC)의 수는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중대규모 농가 중 50.6%는 본인 소유의 토지와 함께 임대 토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임대 토지만을 활용하는 농가는 36.5%인 반면, 본인 소유의 토지만을 활용하는 농가는 11.2%에 불과하다.

표 5-1. 프랑스의 경작지 면적별·경제적 규모별 농가수

단위: 천 가구, %

		1988		2000		2010	
경작지 면적에 따른 분류	50ha 미만	845	83.1	463	69.7	299	61.1
	50~100ha	128	12.6	122	18.4	97	19.8
	100ha 이상	44	4.3	79	11.9	93	19.0
경제적 규모에 따른 분류	소규모	n.a.	-	278	41.9	178	36.3
	중·대규모	n.a.	-	386	58.1	312	63.7

자료: 프랑스 농수산식품부「GrapAgri France 2011」.

최근 농가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경영주 및 공동경영인 중에서 60세 이상 전업농은 2000년 7.5%에서 2007년 8.3%로 증가한 반면, 40세 미만 청년층은

[29] EARL은 10인 이하(1인 회사도 가능)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은 유한책임만을 갖는 영농회사이다. 영농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도 자본만 투자하는 방식으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배우자와 둘이서도 EARL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배우자가 공동경영인으로서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하였다.

32.9%에서 24.6%로 감소하였다.

한편 여성 경영주 및 공동경영인은 전체의 23.9%인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비중이 증가한다. 전업농가의 경영주가 여성인 경우는 2007년 17.1%이며, 전업농가 경영주의 배우자이면서 공동경영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여성의 수는 1988년 4천명에서 2007년 2만 8천명으로 7배 증가하였다. 이는 조합형태의 농가가 확대됨에 따라 공동경영인의 지위를 갖게 된 여성농업인이 늘어난 것이며, 배우자-동업자[30]라는 법적 지위를 통해서도 농촌 여성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 단순 배우자보다 배우자-동업자는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2007년 3만 2천명의 여성이 이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동업자 지위는 2000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2005년 농업계획법(Loi d'orientation de 2005)에 따라 경영주의 동의 없이도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다.

1.2.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특징

프랑스에서 여성의 권리는 1960년대 사회운동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즉 사회운동의 결과로 모든 부문에서 여성의 권리도 향상되었다.

프랑스 농업정책은 개인에 대한 지원보다 스스로 자립할 요구가 있는 사람이나 조직에 지원하고, 따라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별한 정책은 없다. 다만, 유럽연합과 프랑스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청년농업 정착보조금(DJA) 수혜자의 20%는 여성이며, 30대 후반의 비중이 높다.

농업 경영주(또는 공동경영인)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에

---

[30] 2005년부터는 사회연대협약(PACS: Pacte civil de solidarité)에 따라 인정된 커플의 경우에도 이 법률이 적용되었다. PACS는 일종의 시민계약으로서 1999년에 통과된 법률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성이건 동성이건 관계없이 성년이 된 두 사람이 공동의 삶을 꾸리기 위해 맺은 협약이다.

는 8%에서 2010년 27%로 증가하였고 60%가 50세 이상인 반면, 경영주나 공동경영인을 제외한 농업종사 가구원 중에서 여성의 비중은 51%로 줄어들었다. 한편, 농업 부문의 임금노동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이른다. EARL(유한책임영농회사)를 설립할 때, 배우자가 유일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경영주의 수가 증가한 것은 새로운 여성 고용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이 통계적으로 '인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0세 이상 여성경영주는 주로 남성에 의해 운영되던 영농활동을 넘겨받는 형태로 경영주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법률상의 지위와 관련해서 여성경영주는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립경영인의 지위를 선호한다. 여성이 공동경영인이 아닌 경영주인 경우만을 보면, 독립경영인의 지위를 갖는 비율은 78%로 증가한다. 반면, 40세 미만의 여성경영주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비중이 43%이며, 대규모로 영농활동을 하는 경우는 20%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여성경영주의 영농 면적은 36ha로 남성들의 62ha보다 더 작다. 양이나 염소 같은 작은 초식동물을 기르는 분야에서는 30%가 여성이며, 채소작물 및 원예작물재배업 분야는 24%, 포도재배업 분야는 23%가 여성이다.

MSA(농업사회보장공제)의 통계에 의하면 여성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합원의 40%를 차지하며, 이들 중 61%가 영농에 종사한다. 여성임금노동자의 70%가 기간제 계약으로 고용되고, 임금조건은 남성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맡은 책임의 질과 수준은 차이가 있다. 무기계약직 여성임금노동자의 29%가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지만 남성은 10%에 불과하다.

1.3.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전망

프랑스에서 농업인이자 경영주인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논하는 것은 어렵다. 상황은 복잡하고 모순적이기도 하며, 이 세계에 개입되는

변수들은 다양하고, 그중 일부는 외생적일 뿐 아니라 국경을 넘는 것이기도 하다. 프랑스에만 한정하자면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미래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농가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대규모 농업으로의 집중화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경영주가 은퇴한 농가에서 그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집중화는 대규모 영농활동에 반감을 갖고 있는 여성농업들에게 유리한 경향은 아니다. 집중화는 사료잡곡과 채유식물재배 분야에서 일어나는데, 이 분야는 여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공동경영인 또는 경영주로서 여성농업인이 농업분야에 쏟는 열정은 괄목할 만하다. 법률적 차원에서 중간 연령대에 속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공적인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지만, 공동경영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사회보장의 혜택과 퇴직연금 수령 가능성을 보장한다. 마찬가지로 법적 지위의 유연화와 다양화는 촉진제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시작 단계와 위기 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이 뒤따를 때에 그러하다. 새로운 영농정착인들을 돕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AMAP[31]과 같은 단체들이 증가하고, 노동조합 조직에 이 단체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특히 청년 부부들에게 고무적인 징후이다. 한편 양이나 염소 사육, 치즈 생산, 원예와 같은 분야의 존재와 유기농의 발달은 경제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측면에서는 '여성화'에 유리하다. 모든 것은 여성농업인의 의지와 끈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특히 사회적인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거리, 활동의 다양화, 기능의 다양화에 근거를 둔 새로운 전략을 고안해야만 자리를 잡을 수 있다.

---

[31] Associations pour le maintien d'une agriculture paysanne 가족농업의 유지 보수 협회(www.reseau-amap.org)

2. 이탈리아 여성농업인의 실태

2.1. 이탈리아 농업과 여성농업인

2.1.1. 1980년대 이후 농업 변천

이탈리아에서 1950~1960년대의 산업 성장과 함께 발생한 급격한 이농률은 197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완만해졌다. 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수는 산업 발전이 늦은 남부와 산지 지역에서 증가하였다.

1980년대 이탈리아는 산업 국가의 모습을 보인다. 특히 중부와 북동부 지역에서 중소기업의 활발한 활약에 기반을 둔 산업 모델로 변모한다. 중소기업의 전국적 확산은 인구 정착에 있어서 또 다른 모델을 실현시키며 농촌 환경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에서 비상근직 일의 확산은 기타 산업이나 서비스업과 지리적인 인접성에 의해 용이해졌고 비상근직 일이 특히 중소 규모 농기업에서 농경 소득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농기업 내부의 경제와 가족의 비상근직 일을 통해 실현된 외부의 경제가 총체적으로 교차하며, 소규모 농기업도 시장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1980년대부터 농촌과 농업에 대한 문화적 태도도 변하였다. 전국적으로 깨끗한 공기, 농촌의 사회적 차원, 육체적 활동과 수작업이 주는 기쁨과 관련된 가치가 재발견된다. 도시로 향한 경주는 감소하고, 특히 산업 활동이 확산되어 있는 지역에서 농촌인구가 증가하였다. 도시에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옮겨와 농기업을 인수하여 파트타임으로 운영하면서 새로운 농촌 계층을 이루었다. 또한 농기업에 영향을 주는 식료품 지출과 농촌 지원 정책이 변화하였다. 농산물의 품질 및 건강한 식품과 관련된 가치가 중요한 위치를 얻게 되었고 EU가 주도하는 농업정책도 생산 지원에서 점차 경제와 생산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품질을 중시하면서 이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했다.

2.1.2. 이탈리아 농업 현황

이탈리아는 전 국토의 46.2%가 경지로 이용하는 유럽 제2의 농업국이다. 경제활동인구의 약 4.8%인 282만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2007년). 농업노동의 약 83%를 가족노동이 담당하고, 임노동은 약 17%를 담당한다. 농가 호당 경영면적은 평균 6.1ha(2010년 7.9ha)로, EU 평균 26.6ha보다 작아 EU가맹국 중에서는 소규모 경영이다. 주요 생산물은 듀럼밀, 올리브, 토마토, 포도, 오렌지 등이며 가공품은 생산량이 세계 1위인 와인과 치즈, 올리브 오일 등이다.

농업규모에 따른 노동력 이용을 살펴보면, 가족노동의 90%가 규모 20ha 미만에 종사하고, 정규직 임금노동자는 46%가 규모 20ha 미만에 종사하며 25%가 100ha 이상에 종사하고 있다. 가족노동이 농업노동의 83%를 담당하며 그 중 여성이 40%를 담당한다. 농업노동은 농장주가 50%, 단독소유자의 배우자가 17%, 다른 가족 구성원이 16%를 담당하고 있다. 농업에 전업인 경우는 농업임금 노동이 37%로 높은 편이며, 가족 노동은 농장주가 21%로 높고 다른 가족 구성원이 13%, 배우자 9%로 낮은 편이다. 이탈리아 농업은 가족농 중심의 소규모임을 알 수 있다.

농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소유자의 92%가 20ha 미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성의 소유 비율은 31%이다.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의 소유 비율은 작아진다. 농지의 단독 소유주의 나이는 65세 이상이 42.7%로 고령화 비율이 높다. 특히 규모가 20ha 이하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44.3%이다.

단독 소유자의 배우자는 92%가 20ha 미만에 종사하고 여성의 비율은 68.4%이다. 규모가 클수록 배우자인 여성의 수는 적지만 참가 비율은 높다. 단독 소유자의 배우자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경우, 농업 생산 이외에 다른 이익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단독 소유자의 배우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약 28%가 다른 이익 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가족 구성원인 경우 20ha 미만의 규모에서 50% 정도가 다른 이익 활동에 참가한다. 다른 이익활동이란 최근 10년 동안 활발히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농촌관광이나 슬로푸드(Slow Food)와 같은 농산물 직거래 활동 등이다.

2.2. 이탈리아 여성농업인의 특징

1970년대부터 농업 부문에서 여성의 농업경영 참여가 증가하면서,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모습은 농기업을 경영하는 여성농업인의 존재이다. 여성농업인이 더 이상 보조자가 아닌 기업가가 되고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경영 방식과 생산 방향에 변화가 도입되었다. 1980년대 이후, 여성농업인이 농기업 경영에 기여하는 바는 점차 커졌다.

1960년 농기업의 수는 429만개에서 2010년 현재 160만개가 조금 넘는 정도로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농기업에서 여성 경영주의 비율은 2010년 전체 농기업의 약 31%에 이른다. 이농과 탈농이 심한 남부지역에서 여성경영주의 비율이 35%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여성이 경영주인 농기업은 남성이 주도하는 농기업과 구성 면에서 덜 전문화되어 있고 차별화된 생산 방침을 보이고, 단위당 생산량과 소득이 전반적으로 더 낮으며 보다 노동집약적이다.

여성 경영주가 축산 활동을 하는 예는 거의 없으나, 옛날부터 집안 뜰에서 동물들을 기르던 전통을 잇는 양계업은 예외다. 농촌관광업과 기업의 다원적 활동을 더 지향한다. 그리고 자급에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시장과 관계를 맺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업 경영에 혁신을 가져오는 더 다양하고 복잡한 판매 채널을 발전시키는데, 이는 전문화된 소규모 유통망 또는 소비자그룹과의 관계이다. 즉 시장에 다르게 접근함으로써 경영주의 관계 형성 능력에 새로운 가치를 제고한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에 비판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첫째, 여성 경영주의 노령화이다. 노령화 현상이 이탈리아 농업의 전반적인 특징이지만, 여성농업인은 남성농업인에 비해서 세대교체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40세 이하 여성 농기업인의 수가 2007년 27%에서 조금씩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여성 경영주의 연령은 업계 평균보다 더 높고 65세 이상이 여성 노동의 19%를 차지한다.

둘째, 여성이 경영주가 되는 것이 항상 여성의 자주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

니며 사업자등록 시의 편의를 위해서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 내 더 전문화된 일, 즉 활동계획과 기업 전략 선택에서 여성의 존재감이 낮으며 여전히 남성적 특징이 더 강하다는 현실과 일치한다. 반면, 기업의 회계는 전형적인 여성의 일이며, 또한 혁신적인 선택, 특히 농촌관광과 같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연관된 선택에는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탈리아 여성 농기업에 나타나는 특징은 유럽의 여성 농기업과 그리 큰 차이가 없다.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도 여성이 이끄는 기업은 소규모, 낮은 수익 구조 등이 문제지만 한편, 기업 전략에서 농기업의 다원적 활동으로 가치를 제고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특징과 함께 공존한다.

2.3. 이탈리아 여성농업인의 전망

이탈리아 농업부문이 힘을 쏟고 있는 최근 경향에서 여성농업인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여성농업인은 농촌관광과 농촌체험교육농장 활동, 직거래 유통, 양질의 지역특산품, 사회농업 등 전반적으로 농기업의 다원적 면모에 가치를 부여해주는 새로운 활동을 지향한다. 최근 10여 년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농기업이 할 수 있는 다원적 활동과 생산활동 다양화에 보다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기업의 숫자는 이탈리아 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영농활동을 다양화하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공동노동정책의 목표에 대한 대응하고 있다. 농촌관광업의 긍정적 요소 중에는 그들이 주로 산지와 구릉지역에 위치하면서 이 지역을 보호하는데 일조한다. 농촌관광 활동은 매우 다양화되어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숙박, 요식,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 지역 특산물 시식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농기업의 다양화는 이탈리아 각주의 관광 잠재성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탈리아 중부(토스카나주)와 북부 알프스의 관광에 적합한 주에서 더욱 많이 나타난다. 농촌관광업체는 2000년 7천개소

에서 2010년 1.9만개소 이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이러한 활동에서 여성 경영주의 비율은 35.3%이고 토스카나처럼 더 높은 주도 있다. 2006년 국가 법령은 농업의 다원적 활동과 농촌발전 측면에서 농기업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면서 숙박과 요식 활동을 넘어 문화, 레크레이션, 교육으로 그 활동의 영역을 확장했고, 많은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생산물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농촌관광 실행 규정을 보완했다.

한편, 농촌관광과 교육농장이 교차되기도 하는 유기농업 생산에 대해 농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유기농업 생산은 최근 10여 년간 확장 추세에 있는 농기업 활동으로 2010년 유기농업 생산 경지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8.6%에 이르고, 유기농업 생산으로 전환한 농기업의 수는 2.6%이다.

특히, 유기농업 생산 활동에서 대형유통조직 이외의 특화되지 않은 유통채널에서 팔리는 농산물은 여성농업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 직거래 유통, 회사 내 매장, 가두 매장을 통해 판매하거나 농촌관광업소, 식당, 학교 구내식당 등과 협력해서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생산·판매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은 여성농업인이다. 직거래 유통과 생산자-소비자 간 직판과 관련된 중요한 판매 채널은 소비자 그룹 G.A.S.(합동소비그룹)와 G.A.C.(공동구매그룹)이다. 이 소비자 그룹의 성장에는 이를 지지하는 정책 캠페인을 전개한 농민단체의 활동적인 역할이 중요했다. 농민단체인 COLDIRETTI의 Campagna Amica(시골친구) 직거래 사업은 소비자에게 지역 산품들을 직접 유통하는 상점을 장려하며, 판매 제품은 유기농산물이거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산지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유기농업 생산과 함께 이탈리아는 EU가 인정하는 지역의 품질인증마크에 의해 보호되는 양질의 지역 특산품 생산에 경험이 많다. 이탈리아 식문화의 풍부함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DOP(원산지명칭보호)와 IGP(특산지표시) 제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1년 EU 27개국 중 전체의 23%에 달하는 232개를 기록했다. DOP와 IGP 제품 생산을 하는 기업의 수는 2010년 전체의 5%에 이르고, ISMEA(농식품시장연구원)의 추정치에 따르면 생산 매출액은 거의 6조유로로 국내 소비 수준은 7조유로 이상으로 평가된다.

3. 일본 여성농업인의 실태

3.1. 일본 농업과 여성농업인

일본 농업은 1960년 이후 줄곧 축소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생산량 감소,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농업총산출액도 1984년 이후 25년 간 농업 30%가 감소하였고, 농가 호수는 1990년 이후 20년간 47.5%나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준주업농가가 59.2%, 주업농가가 56.1%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부업적 농가는 26.2%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판매농가가 장기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자급적 농가와 농지소유 비농가는 계속 늘어나 2010년에는 자급적 농가와 농지소유 비농가가 227만 1천호로 판매농가보다 64만호가 더 많았다. 특히 비농가의 토지소유는 지난 20년간 38.6%나 늘어났다. 판매농가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후계자 부족에 의한 이농, 소규모 농가의 집락영농 참가, 대규모 경영체로의 농지 권리이전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편, 집락영농과 법인농업경영체는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집락영농은 고령화 등으로 핵심 영농인이 부족한 지역에서 지역농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법인농업경영체 가운데 농업생산법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집락영농이 법인화하거나 가공·판매 등 경영 다각화, 고용 노동력 확보 등을 위해 법인화를 추진한 것이 법인농업경영체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농업취업인구도 2000년 389만명에서 2011년 260만명으로 11년 만에 33.2%가 줄었다. 농업취업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원인은 고령화에 의한 이농 외도 소규모 농가의 농업자가 집락영농조직에 참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농업취업인구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00년 52.9%에서 2011년 60.7%로 증가하였고, 평균 연령도 2000년 61.1세에서 2011년 65.9세로 늘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선진국에도 일반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일본은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의 여성농업인 정책은 1948년부터 생활개선보급사업이 시작되어 이후 40년간 농촌 여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생활개선과'에서 1990년 '부인・생활과'로, 2000년에는 '여성・취농과', '보급과'로 변경되었고 결국 사업이 종료되었다. 1990년대 이후, 농가 내 여성농업인의 지위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경영협정의 보급추진이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94년부터 농촌 여성그룹 창업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 여성농업인의 창업은 당시 50~60대 전반인 세대가 중심이 되어 그룹경영의 형태로 창업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그룹경영은 '60년대 며느리 세대'의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강한 그룹정신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세대, 특히 젊은 세대와의 협동에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이는 회원의 고령화로 활동중단이나 해산이라는 그룹창업의 계승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2007년부터 그룹창업이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개인경영은 증가하고 특히 40대 이하는 개인경영 창업의 비율이 더 높다.

3.2. 일본 여성농업인의 특징

오늘날 여성농업인은 과중한 노동 상황은 개선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창업이라는 형태로 집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여성이 스스로의 의사로 활동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일자리'를 얻거나,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의 의의는 크다. 그러나 집안과 사회의 남성중심 젠더구조는 크게 변화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의 경영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영참여나 지역사회에서 의사결정 참여는 현재에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는 농가 수는 증가하고 협정 체결 농가 중 여성농업인이 경영에 참여하는 비율도 높지만 2011년 협정

을 체결한 농가는 약 3%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일부 여성농업인이 행정의 지원을 받아 경영참여를 하고 리더로서 활약하는 반면, 경영참여를 하지 않으며 원하지 않는 비율이 70%를 차지하는 사실이다. 물론 경영참여와 사회참여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남성중심의 젠더구조를 내면화한 결과 '여성다운' 사고에 의한 것인지, 또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에 따른 장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 자신이 경영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나 직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농업인과 비슷한 현상이다. 일본도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농업노동 활동만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3.3. 일본 여성농업인의 전망

일본 여성농업인도 농업노동과 경영의 양 측면에서 주요한 인적자원이므로 '남녀공동참여사회'의 구호 속에 남녀가 동등한 경영책임을 지고, 동등하게 정치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창업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성농업인이 법인화하지 않고, 가업에서 남성 경영주의 자금도 사용하는 창업은 외부에서 보면 여성의 '자립'으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原(2009)가 지적한 대로, 대등한 부부관계에 기초하여 가족 전체가 협력하는 가운데에서의 창업이라는 형태도 충분히 평가할 가치가 있다. 그와 같은 형태라도 여성이 독자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민법 등의 법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제도나 외면적인 '평등'보다도 실질적인 '대등' 관계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그룹으로 창업한 경우, 후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의 지속성과 이념 실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확실하게 기술을 계승하는 것이 관건이다.

신규참여자인 여성농업인은 남성의 경우보다 창업에 더 어려움이 있는 반면, 그 차이를 역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젊은 여성이나 비농가 출신은 지금까지 가장 농업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사람인데, 이들이 기존 농업과는 다른 시각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활동력 등을 통해 농업의 담당자가 될 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젊은 신규참여 농업인은 향후 새로운 농업・농촌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직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여성의 직책 취임에 남성의 이해와 추진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남성의 선도 없이 여성이 직책에 취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진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시각을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녀에 관계없이 필요한 일을 우선 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또 당연한 일이지만 남성이나 여성이나 각각 적합한 것과 부적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남성·여성이라는 특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성이나 여성이 그 속성 안에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와 직접 여성의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이나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남성이 그 자리를 쉽게 물러나도록 제도나 지역의 관습, 젠더 규범에 작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해외 여성농업인 실태의 시사점

유럽에서 농산물 생산 1·2위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의 공통점은 가족 노동력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농이 존재하지만, 세계화의 여파로 농업의 비율, 지역에서 농가의 비율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 농업도 경제장벽이 없는 세계화로 농산물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의 수익성이 낮고 소규모 농업경영일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에 따라, 농업경영의 타개책으로 새로운 상품, 예를 들면 와인, 올리브 가공, 말린 고기, 치즈, 장류, 절임류 등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가공을 도입하거나 농가민박, 체험 및 교육농장 운영 등 새로운 농업경영을 시도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 농업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농업경영은 집안일과 연계된 일, 어머니의 역할에서 접목된 것이 많다. 즉, 육아를 비롯한 가족 돌봄, 요리, 집안 인테리어 등 농가에서 여성의 역할이 가족에서 고객으로 확대되어 사업화된 것이다. 이것은 농업의 개념이 농촌 공간과 생산물 중시에서 농촌 공간과 생산자·생산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면서 가능해진 사업이다. 그 가치란, 지역의 역사를 포괄하는 생활 문화(삶 그 자체)와 생명(유기농업)이 중심이고, 여성농업인이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수록 농업 관련 분야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미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특히, 농업·농촌 분야의 새로운 사업 발굴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므로 청년 세대에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EU 공동농업정책 중 구조정책의 추진이 여성농업인의 사업화를 돕고 있다. EU 공동농업정책은 농가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정책은 농업에서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환경개선, 지역진흥과 연관된 정책으로 중심을 이동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업에 투자조성, 농산물 품질향상, 청년농업인 지원, 친환경농업 촉진, 삼림 관리와 식재, 조건불리지역 대책 등의 분야이며, 주로 농업과 환경의 조화, 농촌진흥을 위한 정책이 구조정책에 포함된다.

EU의 구조정책은 소규모 가족농과 가족농을 지지하는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소규모이지만 영농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지역 사회를 유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논리이다. 이러한 소규모 가족농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여성농업인이 농업 노동과 농업 경영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선진국의 여성농업인 사례가 시사하는 바이다.

표 5-2. EU 공통농업정책 중 구조정책의 내용

주요 정책	지원 내용
○ 농림업부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 직업훈련, 청년농업인 지원 · 고령농업인 조기 이농 장려 · 농장근대화를 위한 지원 · 부가가치 높은 농산물이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 토지 관리에 관한 정책	· 조건불리지역에 지불 · 농업환경지불 · 동물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지불 · 지속적인 임업 지원
○ 농촌 지역경제의 다양화와 농촌지역 생활의 질에 관한 정책	· 농업활동 이외의 경영다각화 · 소규모 기업 설립 지원 · 농촌관광 진흥 · 농촌 전통적 자원의 유지
○ 기타	· 위 3가지 정책의 모델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과제

제6장

1.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여성농업인의 역할

1.1.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여성농업인

1.1.1. 경제저성장기의 가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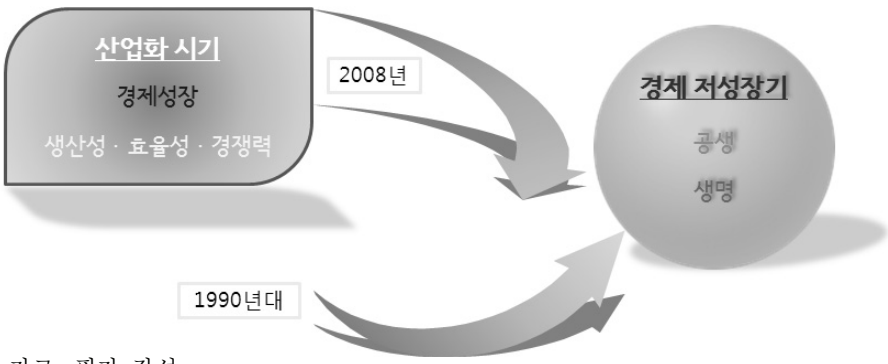
향후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전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최근 경제 상황은 경제성장이 최우선이었던 산업화 시기가 한계에 봉착하여 우리나라는 경제 저성장기로 돌입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산업화 시기는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을 가치 기준으로 삼으며 정치, 사회, 문화와 심지어 생명의 가치까지 경제 논리로 포섭하였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가운데 환경과 생명의 지속성이 저해받는 현상이 나타났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사회문제화되자 시민의 의식이 바뀌고 생활양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경제저성장기는 고도성장을 통해 쌓았던 경제적 기반이나 생활수준이 악화되는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이다. 전반적으로 소득은 낮아지고 갈등과 불안이 높아지며 생활의 질도 저하한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수록 복지와 안정성이 강조되며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는 공생의 가치는 더 커진다.

산업화 시기에 초래된 환경과 생명의 위협에 대해 UNDP는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리우 선언’과 ‘의제 21’을 채택하여 지구 환경보호의 기본 원칙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실천계획을 논의하였다.[32] 특히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적인 경제 저성장기가 본격화되며 공생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림 6-1.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자료: 필자 작성.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세계 각 지역은 환경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업분야는 EU의 환경보전형 직불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직불제와 유기농산물 인증제도가 대표적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1970년대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정부의 강압적인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의 다투입농법에 반대하는 생산자가 시작한 유기농업운동은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 생협운동으로 발전하며 1998년 친환경농업육성법, 1999년 생협법을 제정하였다. 2000년 이후 친환경농업의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고 그 생산량은 2011년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약 10%까지 성장하였다.[33]

---

[32] 유엔개발회의(UNDP)의 리우선언(1992년)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탄생시켰고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립됨.

1.1.2. 경제저성장기 여성농업인의 과제

경제 저성장기에 중시되는 공생과 생명의 가치는 농업 분야, 나아가 여성농업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은 농업이 갖는 본연의 역할이 생명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 농업의 역할

한 국가에서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 외에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 안전한 농산물이란,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이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농산물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농업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산물은 상품이다. 우리 사회에 농산물이 상품화되면서 나타난 악영향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익을 내는 수단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서 농업은 생산력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생산자는 시장대응의 방법으로 생산성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화학비료, 농약 등 화학약품을 이용한 노동절약적 농업 기술이나 품종 개량, 유기적인 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인공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자연에 순응하는 농업 방식이 아닌 공업기술에 의한 농업, 즉 공업이 농업을 지배하는 현상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 FTA 체결을 통해 농산물 시장은 거의 개방화 되었다. 그로 인해 1980년대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과 식생활 변화에 따라 농업의 근간이 되는 쌀, 보리, 콩 등 주요

---

[33] 2011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저농약인증 농산물의 감소로 전년보다 3.8% 감소한 3조 2,602천억 원으로 전망되며, 전체 농산물시장의 약 10% 정도를 차지함. 김창길 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 KREI 농정포커스 제14호(2012.4.5)

곡물의 자급률이 급감하여 한 국가의 농업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붕괴되는 ‘농업 생산과 소비의 괴리’ 현상이 심각히 나타나고, 국내 농업은 농가경영 간 또는 지역 간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농업은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농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 생산자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하고 소비자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한다는 한 국가의 공동체 원리가 사라지고, 가격으로 표현되는 경제효율 기준의 시장원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농업 생산과 소비의 관계는 생활과 생명을 유지시키는 상호의존적인 생존 기능이 위협받고 역사 이래 지속되어온 농업생산과 소비의 관계가 지속성을 잃게 된 것이다.

농업이 농업 본연의 역할을 찾으려면 농업의 지속성을 고민해야 한다. 농업의 지속성은 생산의 지속성을 위한 경제성, 식품 안전성, 자연생태계의 유지라는 환경성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실현 가능하다. 생산자는 친환경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에 대해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소비자가 있을 때 농업의 지속성이 담보된다.

나. 농업의 역할에서 본 여성농업인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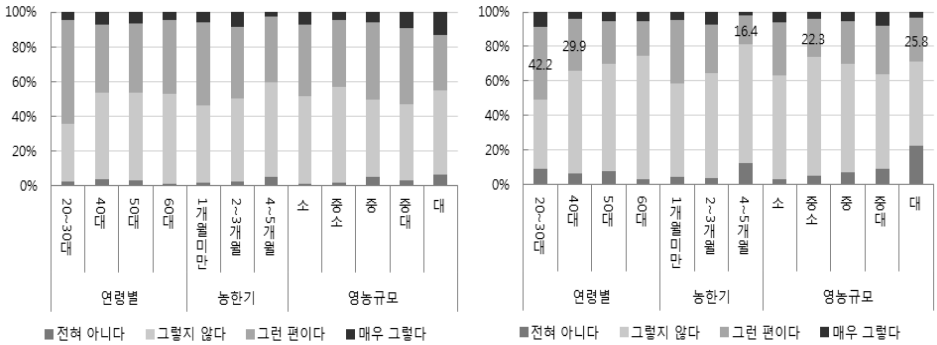
여성과 농업의 공통점은 생명을 낳아 기른다는 점이다. 경제저성장기에 공생과 생명의 가치가 빛을 발하면서 여성농업인의 활동을 기대하게 되는 이유는, 여성이 갖는 ‘생명 보살핌’의 속성을 발휘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여성농업인이 올바른 여성성과 농업관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이다.

올바른 여성성과 농업관에 관해서는 이 보고서의 핵심과제가 아니므로 간략히 여성농업인의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의식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은 ‘가족이 먹는 농산물을 무농약 이상’으로 재배하고 있는 비중이 평균 48%이다. 특히 젊은 20~30대에서 비중이 높다. 반면, ‘판매할 농산물을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비중은 평균 32%이다.

그림 6-2. 여성농업인의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의식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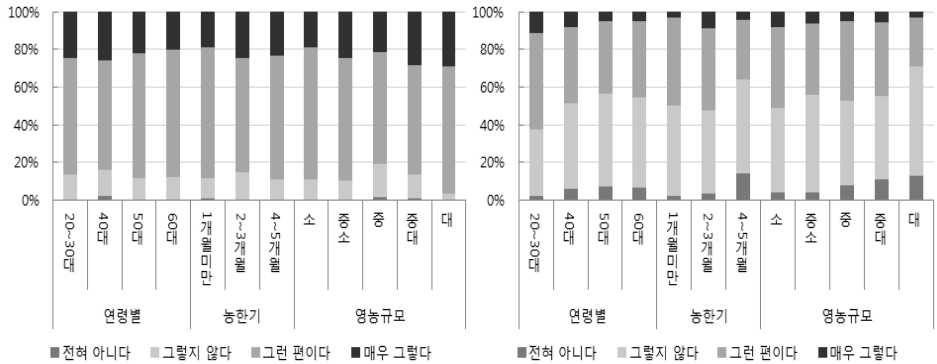
(가족이 먹는 농산물 무농약 재배) (판매할 농산물 무농약 재배)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6-3. 여성농업인의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의식 ②

(내 농산물은 소비자가 안심해도 된다) (농산물은 친환경으로 재배해야 한다)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판매하는 농산물은 가족이 먹는 농산물과 달리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평균 16% 높다는 의미이다. 이 결과는 여성농업인도 생명을 중시하는 여성성이 있지만 경제성, 즉 농업소득을 중시하는 경향을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성농업인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87%로 높지만, 농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응답도 13%이다. 그 중 ‘소비자가 전혀 안심

할 수 없다'는 응답은 40대의 2.4%, 중규모 농가의 1.6%, 중대규모 농가의 1%에 이르는데, 이들은 농약이 농산물 안전성에 큰 위협임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은 '농산물은 모두 친환경 재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54%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 의견에 긍정적인 응답은 20~30대 62%, 소규모 농가 51%의 순이고, 부정적인 응답은 대규모 농가 71%, 50대 57%의 순이다. 친환경농업이 농약 사용을 하지 않는 대신 추가 노동력 소요가 크고 생산성을 추구하는 대량생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한다. 가족이 먹는 농산물을 무농약 재배한다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48%는 생명의 가치를 인지하고 있지만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판매 농산물까지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데는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결국 경제성 때문에 무농약재배를 하지 못하는 비율이 68%에 이른다. 모든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재배해야 한다는 의견에 부정적인 응답이 높은 것도 결국 경제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여성농업인은 농약을 사용하더라도 소비자가 안심해도 된다는 비중이 높은 것은 경제성과 안전성 중 경제성을 택하는 데서 오는 자기 모순이 표출된 것이거나 혹은 농약 사용이 일반화된 오늘날 농약사용이 환경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성농업인이 생명을 기른다는 여성의 입장과 생활을 위해 소득이 필요한 농업인의 입장에서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비중이 아직은 높은 편이므로 여성농업인의 여성성을 제대로 실현하도록 하는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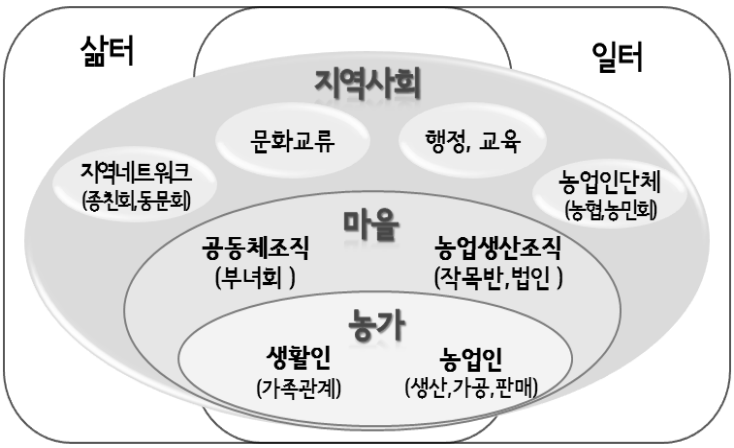
1.2. 경제구조와 여성의 역할 변화

1.2.1. 여성농업인의 역할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논할 때, 역할이라 함은 ①성별노동 분업에 대한 고정적, 이분법적 느낌, ②평등한 이미지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하고 있는) 일의 범위를 논한다.

여성농업인이 활동하고 있는 농촌사회의 특징은 생활과 일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그에 따라 삶터와 일터의 구분도 분명하지 않으며 때로는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그림 6-4). 삶터인 집안에서 수확 후 선별이나 포장 등 상품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일터인 작업장에서 식사와 휴식과 같은 일상 생활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은 가사와 직업인으로서 노동이 상황에 따라 동시에 중첩되어 요구된다.

그림 6-4. 농촌 사회에서 경제·사회활동의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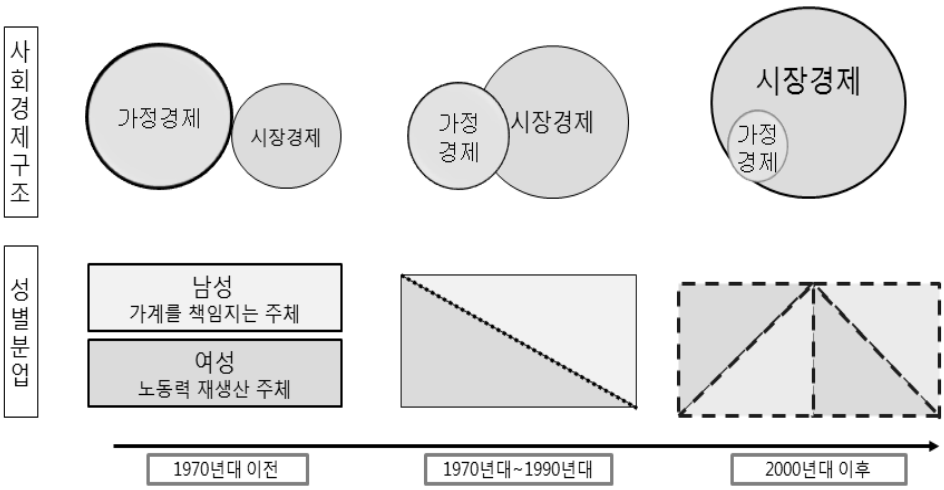


자료: 필자 작성.

1.2.2. 경제구조와 여성농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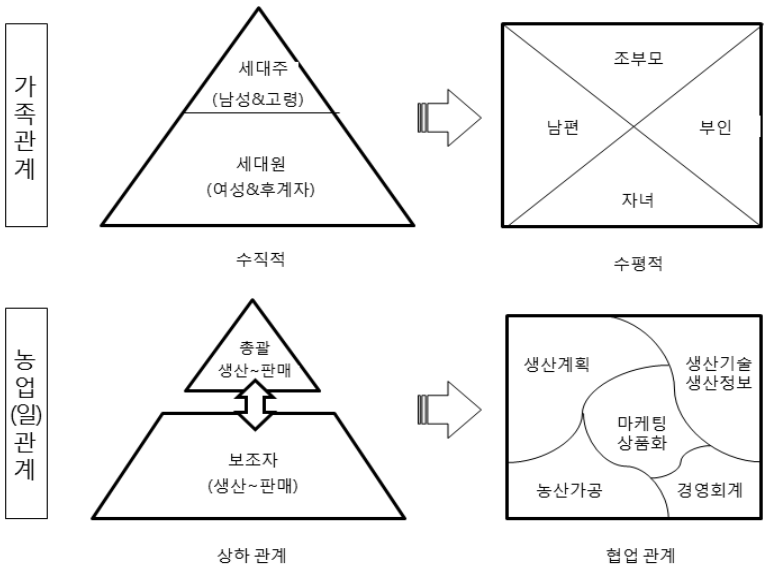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는 사회경제구조와 관련이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가정경제가 시장경제에 포섭되는 과정에서 성별 분업의 개념이 변해왔기 때문이다. 남녀의 역할을 상호원조의 개념과 타자에 대한 서비스에 기초하는 가정경제와 개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경쟁적인 시장경제의 상호 역학관계에서 형성되는 개념으로 파악해보면, 1970년대 산업화 이전의 사회경제구조에서 가정경제와 시장경제가 접점이 적었을 때 남성은 가계를 책임지는 주체이며 여성은 노동력 재생산의 주체로서 성별 분업이 분명했다. 그러나 산업화를 거치며 가정경제가 시장경제에 포섭된 2000년 이후 성별 역할의 차이는 작아지고 있고, 성별 분업도 최소 범위만 남고 성별보다 능력에 따라 역할이 주어진다.

그림 6-5. 경제구조와 여성의 역할 변화



자료: 필자 작성.

그림 6-6. 농가의 가족 및 일 관계의 변화



자료: 필자 작성.

앞의 조사결과에서 보았듯이, 여성농업인도 가사와 양육이 여성 책임이라는 전통적인 성별 의식에 대해 이제는 부정적인 견해가 높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남녀평등 사회를 지향하며 농업 분야에서는 단순 보조자로 인식되던 여성농업인이 경영자로 활동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는 생활(가족)/일(농업)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전 가족의 소비활동에 비해 가사활동의 가치가 쇠퇴하였고 그에 따라 여성이 유급노동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노동(수입)에 의존이 높아지고, 가족과 개인은 더욱 시장에 의존하게 되었다.

산업화 과정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경향은 개인주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는데 이는 가족이나 농촌사회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성별 분업 의식이 점차 옅어지면서, 가족관계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나누어진 수직적인 관계에서 가족 개인의 존재유형을 인정하며 각자 맡은 바 역할

을 수행하는 수평적인 관계로 변하고 있다. 농업에서도 과거 남성은 총괄, 여성이나 후계자는 보조자적 역할을 하는 상하관계였다면, 이제는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농업 분야별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협업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농업에서 여성의 노동이 증가하고 여성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노동의 증가가 여성의 경제·사회적 독립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실제 여성농업인의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이 갖는 특수성이다. 앞의 조사결과에서 보았듯이, 여성농업인의 농업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낮으며, 농외소득이라 하더라도 수확기 등 특정시기에 일시적이고 낮은 임금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으로서 경제적 독립을 이룬 경영인의 수는 적다.

1.3. 농업경영인으로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

여성농업인 역할 변화는 농업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변화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1차산업인 농산물 생산에서 2·3차 산업인 농산물 가공과 농업·농촌의 체험·문화 관광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2·3차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농산물 가공의 주체,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제공자로서 여성농업인의 활동력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2·3차 산업의 사업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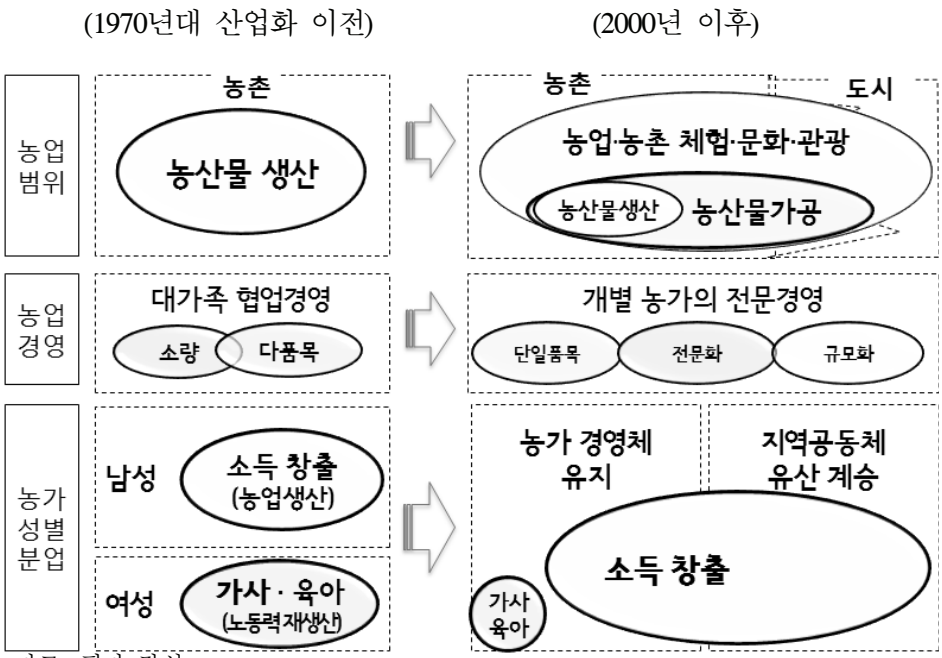
둘째, 농업경영의 변화이다. 1970년대 산업화 이전의 농가는 대가족 협업경영이 주류였다면, 1980년대 이후 노동생산성·토지생산성 효율화를 위해 단일품목의 규모화·시설화·기계화 등 개별농가는 전문 경영체제로 변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가사노동의 기계화로 크게 줄어든 대신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은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이 생산 외에 판매, 유통에서도 고도화를 요구하게 되자 전문적인 협력자가 되고 있다. 과거 여성농업인

이 노동력의 재생산과 유지, 농업생산의 보조자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농가경영체를 유지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변모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농촌지역은 지역사회 유지·존속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구 과소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 지역 고유의 무형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다. 지역 문화는 지역공동체의 유산이고 이를 후대에 물려주면서 지역의 정체성이 계승되는 것이다. 인구 감소로 지역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각 지자체는 지역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의 각종 자원을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데 지원하고 있다. 그 지역 전통의 향토요리나 지역산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의 상품화는 여성농업인이 주체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에서 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그림 6-7).

그림 6-7. 농업 변화와 여성농업인 역할의 확대



자료: 필자 작성.

농업이 1차산업에서 2·3차 산업까지 점차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여성농업인은 1차 산업의 보조자에서 2·3차산업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여성의 속성인 보살핌과 상호배려의 능력은 2·3차의 가공·서비스 산업에서 경쟁력의 기본 요소이다. 따라서 2·3차 산업에 여성농업인이 진출한다는 것은 경영인으로서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향후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의 초점이다.

2.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확대에 따른 과제

2.1. 조사 결과와 여성농업인의 과제

제3장과 제4장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와 지위 인식에 관한 조사결과 중 경영인력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관련된 과제를 살펴본다.

첫째, 여성농업인은 경제활동을 활동의 우선 순위로 하는 비율이 63%이고,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을 원하는 비율이 60%에 이르며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을 원하는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 52%이다. 이 결과는 여성농업인이 경제·사회활동에서 경제적인 요인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의향은 높지만 기회·정보·자본이 부족하거나 능력·자신감 부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비중이 경제활동 의향이 있는 여성농업인 중 37%에 이른다.

한편 여성농업인의 의식은 새로운 기술·정보에 관심이 있으며, 전통적인 성별분업 의식이 낮고 사회활동에 참여 의향이 높다.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확대하는데 비례하여 여성농업인의 개인주의 성향도 강화되고 있는데 소득활동에 대한 의향이 큰 것도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심과 독립성이 강화된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소득활동 의향이 높은

여성농업인에게 실제 소득활동으로 연계되도록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조직하고, 그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잠재능력을 찾아내어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여성농업인의 농업소득은 영농규모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러나, 소규모 농가의 88%, 중소규모 농가 80%가 농업소득 3천만원 미만이고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은 농산물직거래 21%와 농업임금노동 30%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중소규모 농가의 여성농업인은 농업임금노동 참가는 30~33%이지만 소득은 연간 500만원 미만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참여율은 높지만 본인이 소득에 기여한 정도는 다소 낮게 평가하고 농가 내에서 전문농업인이라기보다 보조적인 농업인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중소규모 이하의 여성농업인일수록 자신의 소득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농업소득의 크기가 여성농업인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자존감이 낮은 중소규모 이하의 여성농업인을 과연 농업의 경영인력으로 육성이 필요한 것인가, 이들의 육성이 필요하다면 그 지원의 형태는 무엇인가 하는 과제이다.

셋째, 여성농업인은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사일 담당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 영농규모가 클수록 남편의 사회활동이 많고 그 때문에 농업생산 부문조차 여성농업인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영농규모가 소규모라 하더라도 외부인력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일은 여성농업인이 관여하는 비중이 68%에 이르고 판매처를 결정하거나 통장을 관리하는 비중도 각각 64%, 74%로 높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은 영농규모의 크기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또한 농업에서 경영인력뿐만 아니라 노동인력으로서도 질 높은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여성농업인 CEO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농산물 가공이나 교육체험 농장 등에 참여하는 노동인력도 위생 및 서비스에 대한 기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에 일자리를 만든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여성을 농업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농업에서 경영인력과 노동인력으로 획일적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여성농업인 CEO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농업인이 보유한 잠재능력이 오랜 기간 교육과 정보교류를 통해 숙성된 상태에서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발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경영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는 정해진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농업인 각자의 잠재능력을 추동하기 위해 각종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과제이다.

2.2. 농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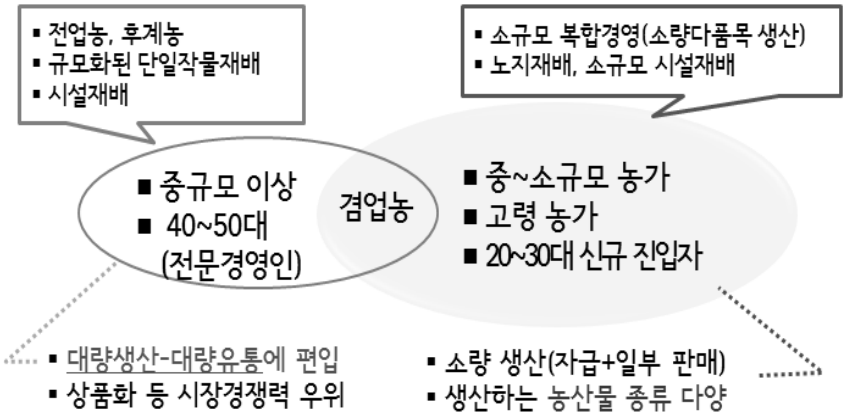
여성농업인은 연령, 영농규모, 경영조건에 따라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경영인력으로 여성농업인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특수성보다는 한국 농업의 일반성에서 출발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농업 경쟁력 있는 농가를 연간 농산물판매 금액 3천만원 이상이라고 할 때 총 농가 중 13%만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쟁력 없는 농가는 87%로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조사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업 경쟁력이 있는 농가는 연령별로 40~50대 여성농업인과 영농규모가 중대규모 이상인 농가이며, 축산 또는 시설채소, 과수 농가이다. 한편, 영농규모가 중소규모이거나 고령농업인, 20~30대 신규 진입자의 경우는 농업소득이 적은 반면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에 대한 의향이 높은 경쟁력이 없는 농가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농업경쟁력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농업경쟁력을 갖지 못한 중소규모, 고령농가나 신규 진입자는 농정의 대상에서 거의 배제되어 왔다. 이들은 규모화 농정에 대응하기 못하기 때문에 농업임금노동이나 농업 이외 취업 등에서 소득을 구하지만 수확기와 같은 특정시기 이외에 기대만큼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낮은 임금 수준에 수입도 높지 않다. 그러므로 농정 차원에서 경쟁력 없는 농가의 여성농업인일지라도 경제활동을 돕는 여성농업인의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림 6-8. 농업정책의 대상



자료: 필자 작성.

여성농업인이 그동안 농업정책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경쟁력 있는 농가, 주로 영농규모 중규모 이상, 40～50대 전문 경영인은 농업정책의 주요 수혜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장 조사결과와 같이 중규모 이상, 40～50대 여성농업인도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을 원하는 비중 50% 이상으로 높다. 이것은 농업경쟁력이 있는 농가의 여성농업인도 정책의 수혜가 극히 적었음을 방증한다.

2.3. 여성농업인 정책 지원의 실효성

농정에서 여성농업인 지원은 2001년 '여성농업인육성법'을 제정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3차 5개년 기본계획까지 추진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2007년부터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여성농업인 정책으로서 여성농업인단체 등 조직활동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30～50대, 경쟁력 있는 농가의 여성농업인이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농림수산식품부), 생활개선회(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농

가주부모임(농협)이 일반적이다. 이들 여성농업인단체는 농산물 가공·판매·교육농장 등의 전문교육과 도농직거래, 향토음식 개발 등 나름대로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여성농업인 정책은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의 80% 이상이 다문화가족 지원, 농가도우미, 취약노인, 영·유아 지원, 고교생학비 지원 등 복지정책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단체의 교육 지원도 대폭 축소되어 전문 경영인 육성의 기능마저 미약해지고 있다.

한편,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은 이미 모두 정리되었고 실천만 남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그간 여성농업인 정책의 대부분은 인력육성 지원, 창업지원, 교육 지원, 복지 증진활동 지원 등 사업비가 필요한 지원 사업이었다. 최근 경기불황의 먹구름이 짙어지는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 적극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 정책은 당장 사업비가 필요한 하드웨어 사업보다 여성농업인 스스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 전환과 사업의 계기를 마련하는 소프트웨어 지원부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향유하기 위해 경제적 자립은 그 기반이므로 여성농업인에게 당면한 현실 과제는 소득향상이고 농정은 여성농업인을 지역의 다양한 경제활동에 대응이 가능한 인력으로 육성이 과제이다. 따라서 연령, 영농규모, 경영체조건 등 여성농업인이 처한 상황별 경제적 자립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안을 찾는 과정과 실천할 주체는 여성농업인이므로 여성농업인 스스로 그것을 과제로 인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의 기본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요구와 참여의 의향은 크다. 기존 여성농업인 정책이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법·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면, 이제부터 가족, 마을단위, 지역단위에서 여성농업인의 전문적인 경영인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 지자체 지원사업보다 마을이나 지역단위의 사업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연구하는

지역협력 문화가 우선 형성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특히,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은 여성농업인이 연대의 힘을 발휘할 기회이고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경영인력으로서 여성농업인 육성의 과제

여성의 속성인 보살핌과 상호배려의 능력은 농업의 2·3차 산업인 농산물 가공이나 교육·체험·관광과 같은 농업 서비스 산업에서 경쟁력의 기본 요소이다. 농업의 2·3차 산업에 여성농업인이 진출한다는 것은 경영인으로서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향후 여성농업인의 경영인력 육성의 초점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여성농업인의 경영인력 육성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성농업인을 경영인력과 노동인력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영농규모가 클수록 여성농업인은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비중이 더 크므로 오히려 경영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적은 경우도 있고, 영농규모는 소규모이지만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살려 내실 있게 경영체를 운영하는 여성농업인 CEO도 있다. 결국 경영인력이란 영농규모보다 자신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경영의지를 갖고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은 경영의 기반이 되는 자산이므로 자산의 유무를 기준으로 여성농업인의 경영인력 육성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3.1. 40～50대 경쟁력 있는 농가의 여성농업인

경쟁력 있는 농가의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에서 이미 노동인력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 지역자원의 이용 측면에서 경영능력을 발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창업을 통해 경영인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경쟁력 있는 농가로서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가가 전체 농가의 6.7%[34]이므로 불과 10% 미만의 농가이다. 이들은 40～50대, 중규모 이상의 영농규모에 축산이나 시설채소 등의 단일품목 전업농가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같이, 축산이나 시설채소재배를 하는 중규모 이상의 전업농가는 농업소득이 비교적 높다. 이 농가의 여성농업인은 농업노동량도 많지만 사회활동이나 여성농업인단체의 활동도 활발하다.

3.1.2. 지원 근거

현 농업구조에서 규모화된 단일작물, 시설재배 등 농업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이 탁월한 경쟁력 있는 농업인은 농협 계통출하나 도매시장 출하를 통해 대량생산-대량유통에 편입되어 있고 시장에서 치열히 경쟁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농가의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에서 이미 노동인력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 지역자원의 이용 측면에서 경영능력을 발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영인력으로 육성이 필요하다.

경쟁력 있는 농가의 여성농업인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할 노하우와 경제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경영인으로 새로운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

[34] 통계청.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심층분석 연구

둘째, 여성농업인이 경영자로 활약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원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자녀가 후계 인력으로 농업경영에 참여할 기회가 많으므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준다.

3.1.2. 지원 방법

농업의 2·3차 산업인 농산물 가공이나 체험교육농장에 관심이 있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의 여성농업인일감갖기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창업보육 지원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향토산업육성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육성사업 등 사업에 비해 지원 규모가 작지만 지역사회에서 내실있는 여성농업인의 경영체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여성농업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경북 문경시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좋은 사례이다. 문경시는 농가가 직접 생산하는 장류, 과일즙 등에 소비자 수요가 가시화 되는 것을 계기로 지역자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었다.

지원체계의 핵심은 자가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3년간 농식품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창업자 발굴, 창업에 필요한 기초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제품개발 지원, 기술지도, 인허가 지원,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동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프로그램[35]으로 운영하며, 이 과정을 통해 농가 스스로 제품 개발, 제품 생산, 상품화, 유통 판매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가공 전담 부서에서 창업보

[35] 예비과정으로 친환경사과대학 및 오미자아카데미 각 18회, 농산물 가공교육 4회, 친환경농산물 인증반 1회 교육 등을 마치면 본격적인 창업보육(3년)이 실시됨. 주요내용은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경영 실습이다. ①농식품 창업 CEO 양성과정으로 인성개발 프로그램 및 마케팅 심화프로그램(각 8회), ②농식품가공 적성교육 및 가공장비 운용교육, 시제품 제조생산 교육(각 4회), ③브랜드 관리교육 및 세무, 회계, 법규, 위생교육(각 2회), ④가공상품 제조, 판매 및 경영 실습(3년) 등이다.

육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실용적인 창업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보육 과정을 마친 농가는 제조 및 판매, 경영에 자신감을 얻고 가공소득이 3천 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 수요조사 및 판매처 연계, 수요에 맞는 기술의 개발과 기술이전(활용) 등 창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지자체가 농업인의 가공생산 이외에도 창업 농업인이 가공한 상품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도록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창업 후에도 지자체는 지속적인 품질개선이 되도록 모니터링하고 식품 박람회 참가나 홈페이지 구축 등 상품 마케팅을 지원한다.

3.2. 중소농가의 여성농업인

농업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지역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민, 주로 중소농가, 고령농업인, 귀농인과 같은 농업에 신규진입자는 소규모이지만 농업생산에 참여하고 근거리 소규모 농산물 유통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자급자족하거나 근거리 또는 친지에게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는 차원에서 로컬푸드를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이들에게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이지만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지원은 새로운 경영주체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다.

중소규모의 농가는 농촌지역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농업노동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중소규모이지만 그 자체로 농업경영은 유지하고 있다.

농정은 지금까지 이들을 경영인력으로 육성하는데 관심이 없었다. 단지 이들은 농촌사회에 잔존하는 인력이고 이들의 빈곤을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할 뿐이다. 그러나 중소농가는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먹을거리 문화나 지역 고유의 맛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인적자원이다.

3.2.1. 지원의 근거

FTA를 비롯하여 농업의 대내외적 개방화 환경과 농업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쟁력 없는 농업인을 예산지원이 필요한 보편적 복지보다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농업정책의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이고 그에 합당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광역지자체의 의무이기도 하다.

중소농업인, 고령농업인, 신규진입자를 지원해야 하는 경제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농업인, 고령농업인, 신규진입자는 지역사회를 유지·보호하는 주요 인적 자원이다. 둘째, 이들의 소득은 도시근로자보다 낮고 농촌의 빈곤을 유발하여 복지정책의 대상자로 전락할 경우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이들이 농업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농민장터 등을 개설하여 로컬푸드를 농업소득 향상의 기회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농업인, 고령농업인, 신규진입자를 지원해야 문화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지역 고유의 맛을 상품화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36]. 지역특산 먹을거리는 향토산업으로서 지역특유의 맛을 제공하며 '한국적인' 전통식품 및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아이템으로 정착하여 새로운 형태의 관광과 웰빙을 요구하는 도시민, 세계인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둘째, 중소농업인, 고령농업인, 신규진입자가 경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스스로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원임을 인지하여 지역민으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에 도움이 된다.

---

[36] 상품화를 위해 농가 소규모 가공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조례가 필요하다(각주 38 참조).

3.2.2. 지원 방법

중소규모 농가의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2·3차산업에 참여하기까지는 여성농업인의 내적 동기 외에도 조직적·사업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들은 지금까지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 경험이 거의 없고 조직화하더라도 리더 역할의 주체를 찾기가 어려우며 중소규모 여성농업인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조직적·사업적으로 정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들을 조직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추진주체로 육성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며, 그들 스스로 조직화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 등을 통해 조직과 사업에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소규모 농가의 여성농업인이 경제사업 추진에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교육과 병행하며 조직화와 사업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요즘 많은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로컬푸드는 중소농업인, 고령농업인이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이다. 로컬푸드(Local Food) 운동[37]은 1990년대 이후 유럽을 필두로 광우병, 구제역 등 농산물 대량생산의 폐해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가 지역농업과 제휴를 요구하며 발생하였다.

로컬푸드 사업은 중소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농민장터나 꾸러미사업과 같은 로컬푸드 사업도 넓은 범위의 농산물 유통이므로 상품의 구색이 다양해야 한다. 소비자는 상품 다양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는 농

---

[37]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이탈리아의 슬로푸드(Slow Food), 유럽이나 미국의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는 모두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로컬푸드 운동이다.

가 소규모 가공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규모 농가의 식품가공은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을 통해 농업소득을 향상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록 소규모라도 식품가공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농가나 생산자단체가 소규모 식품가공을 영위하려고 할 때 그 시설기준은 지자체의 조례로 해당 시설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식품위생법의 특례조항이 있다.[38] 즉 지자체의 조례로 해당 시설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중소규모 농가, 고령자, 신규진입자의 여성농업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직화와 사업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이들 스스로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하고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여성농업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

[3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의 별표 14,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의하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지자체 조례가 제정된 사례는 2012년 12월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1곳 뿐이다.

요약 및 결론

제7장

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활동에 대한 다면적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비롯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사회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차년도에 걸쳐 진행될 이 연구에서 1차년도에는 여성농업인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사회 활동의 실태를 규명하여 여성농업인의 현재 위치를 검토하고, 농업의 2·3차 산업과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차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조직(행정, 농업인단체 등)의 사업과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조직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포함하여 여성농업인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시대별 여성농업인의 변화와 정책 개요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은 2011년 농가인구 296만명(총 인구의 6.6%)의 50.8%이며, 20～49세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22.4%에 비해 60대 이상 여성농업인은 45.4%로 고령화율이 매우 높다. 또한 농업에서 여성의 노동비중은 1970년 31.6%에서 2010년 60.5%로 증가하였다. 특히 고용노동과 품앗이 노동은 과거에는 남성농업인의 일이었지만, 최근에는 여성농업인의 주된 노동형태이다. 이는 여성노동의 단순노동화, 주변화 현상이며 농업이 여성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정부의 여성농업인 정책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1998년이지만, 실제로

여성농업인 정책을 별도로 실행하지 않을 때조차도 여성농업인이 갖는 성별 특성을 활용한 농촌정책, 농업정책을 전개했다. 1960년대는 근대화 생활개선 활동과 국가 인구정책의 참여자로서, 1970년대 이후 여성농업인이 더 이상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주된 노동으로 전환되며 1980년대는 여성농업인도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하고 농업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활동을 시작하였다. 1990년대 농업 구조개선 정책이 전개되면서 농지 소유나 자기자본력이 미약한 여성은 정책 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는 제한적이었다. 2000년대는 농업정책이 농업에서 농업·농촌·식품의 영역으로 확대·전환되면서 농촌관광, 도농교류, 농산물 가공,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이 증가하고 여성농업인 CEO가 등장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도 여성농업인육성법을 제정하여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 육성과 복지정책의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의 근거를 만들고, 2001년부터 3차에 걸친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여성농업인의 경제 활동 실태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구체적인 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65세 이하 여성농업인 70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연령별로 50대 49.4%, 40대 23.8%, 60대 20.4%, 30대 이하 6.4%의 순이다.

농업소득의 규모는 3천만원 이상인 경우, 60대는 21%에 비해 50대 43%, 40대 52%로 젊을수록 소득이 높으며, 소규모 농가 12%에 비해 대규모 농가 93.5%로 비율이 높다. 반면, 농외소득은 거의 없는 농가가 53%이고, 농외소득이 있더라도 500만원 미만이 23.1%이며, 20~40대 소규모 농가일수록 농외소득 규모가 1천만원 이상인 비중이 높다. 영농규모가 작을수록 농업소득이 적은 대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농외소득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

농가에서 농업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사일을 100이라 할 때

여성농업인이 농사일을 담당하는 비중은 20~30대를 제외하고 50% 이상인 비중이 높다. 영농규모가 크고 시설재배 비중이 높을수록 여성농업인의 생산 노동에 참여 비중이 높다.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 분야 중 파종, 육묘, 정식이나 수확 작업과 관리 등 농기계 사용이 비교적 적은 분야나 인력 고용을 결정하거나 인력 관리, 품앗이, 농가 소비 지출에 관여하는 비중이 높지만, 기술 및 판매정보 수집과 경영일지나 회계장부 작성 등 기록하는 작업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농업경영과 농업노동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성향이 나타나는데, 60대는 농업노동에 적극성이 40.6%로 높으며 농업경영에 적극성은 40대 이후 비슷한 모습이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소극적인 비율도 높다.

여성농업인이 농업활동에 참여가 낮은 이유는 지식이나 기술 부족이 가장 많았고,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높은 비중이다. 젊은 여성농업인일수록 지식·기술 부족과 가사 육아를, 60대는 신체적 한계를 농업활동 참여가 낮은 이유로 들고 있다.

- 여성농업인의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여성농업인은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2·3차 경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특정 시기에 일부 참여하는 정도이다. 20~40대는 농산물 가공이나 판매, 비농업분야 시간제 노동, 취업 등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중이 높고, 60대는 품앗이 노동이 가장 높다. 품앗이 노동은 정식기나 수확기 등 농사일이 바쁜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데 반해, 직거래 판매 활동은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농업인이 참여도가 20% 내외이며, 특히 20~30대의 참여도는 28.9%로 상대적으로 높다.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업임노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낮은 반면, 농산물 직거래는 영농규모가 대규모인 경우가 참여율이 가장 높지만, 중규모 20%, 소규모 18%로 중소규모의 농가도 농산물 직거래 판매에 참여가 높다.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60%는 향후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향

이 있다. 20~40대는 자녀 양육에 현금수요가 많다보니 농외 취업에 대한 의향이 높고, 농외취업 외에는 20~30대가 농산물 직거래와 농산물 가공사업에 17%의 의향이 있다면, 40대는 농촌체험·관광사업에 9.6%의 의향이 있다. 농촌 거주 기간이 10년 이하로 짧은 경우는 농산물 직거래 판매 20%, 농산물 가공에 15.7%의 의향이 있다.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촌체험·교육 사업이나 농산물 가공 사업에 의향이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체험·교육 사업에는 대규모 농가의 의향이 오히려 낮은 반면, 중소규모라도 농산물 가공에 대한 의향은 10% 내외의 의향이 있다. 이 결과로 미루어보아, 사업추진의 의향은 영농규모에 따른 차이보다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여성농업인이 향후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을 원하는 이유는 '농사만으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52%로 가장 높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활용하고 싶다'는 이유는 대규모이고 농한기가 1개월 미만이거나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의 순으로 높으며,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는 의견은 영농규모가 중대규모이거나 20~30대 젊은 층의 의견이다. 여성농업인의 농업의 2·3차 경제활동이 농가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순서는 농산물 가공, 농산물 직거래 판매, 시간제 근무의 순이다. 농산물 가공은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형태로서 농가소득 향상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향후 중소농가의 소득 향상 대책에 농산물 가공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가에 장애요인은 모든 연령대에서 '바쁜 농사일'이라는 이유가 30~40%로 높다. 그 외에도 연령별로 20~40대는 '기회·정보·자본 부족'의 비중이 더 높거나 고령일수록 신체적 한계나 기타 이유의 비중이 높아진다.

-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여건과 의식

여성농업인은 자동차, 오토바이 등 동력 이동수단을 소유 또는 운전하여

이용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70%에 이르지만, 고령일수록 이동수단이 없는 비중이 높다. 또한 남편이 여성농업인의 활동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농가의 가부장적 분위기는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농업인이 농한기와 같은 여유시간에 주로 하고 있는 일은 가사노동, TV시청, 이웃과 사교이지만, 실제 여유시간에 하고 싶은 일은 '개인 취미나 교양 등 개인 시간' 41%이고, '가사일, 가족과 함께' 23%, 무조건 쉬고 싶다 15%이다. '개인 시간이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수요가 큰 것으로 보아 여성농업인의 개인주의 성향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농업인 나이가 젊을수록 자신을 보조적인 농업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60대는 자신을 전문인력으로 보는 비율이 높다. 농가소득에 대한 본인 기여도가 높고, 본인 기여도만큼 농가 내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비중이 높은 여성농업인일수록 자신을 전문 농업인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다.

여성농업인이 전문농업인이 되고자 희망하는 비중은 60%이며, 농업인으로서 직업에 자긍심을 느낀다는 긍정 응답이 57%로 높은 편이지만, '자녀에게 농업을 승계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87%로 높다. 비교적 농업생산 기반이 안정적이고 농업소득이 높을수록 전문성 의향과 자긍심이 높으며, 대규모의 40%, 중대규모 20%는 자녀에게 농업을 승계할 의향이 있다.

▪ 여성농업인 CEO의 경제·사회적 활동

여성농업인 CEO는 농식품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다. 농식품 여성 CEO의 조사 결과, 다음 4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째, 부부 분업형은 농업후계자인 남편이 농업생산을 전담하고, 여성농업인은 농산물 가공 및 판매·유통 또는 교육체험농장을 담당하여 서로의 전담 범위에 집중하는 형태이다. 둘째, 부부 공동경영형은 일정 규모의 토지 구입으로 농업생산을 시작한 10년 이상의 귀농인에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농업생

산에서 농산물 가공~판매, 교육까지 농업노동과 경영을 부부가 보완·협력한다. 셋째, 여성 독립경영형은 여성농업인이 농업후계자이고 남편은 농업 이외에 직업이 있는 겸업으로 농업생산 또는 가공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넷째, 기업형은 농업 생산기반이 거의 없거나 미약하지만 농촌에서 농촌인력을 이용하여 농산물 가공이나 교육농장, 농가민박 사업을 하는 형태로 주로 귀촌인이 많다.

여성농업인 CEO의 경영은 대부분 가족경영이며 여성농업인이 자신의 특기, 장점을 사업화하고 가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형태이다. 주부로서 자신 있는 음식의 사업화, 특별한 재능을 살려 농촌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거나 블로그에 성실한 답변으로 소비자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농장 체험 후 교육농장 사업의 기회를 포착한 경우이다.

여성농업인 CEO의 공통적인 특징은 창업 이전에 필수 교육에 적극 참가하고 외부 지원을 최소화한다는 점이다. 내실 있는 가정경제의 경험을 농업경영에 적용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비용 최소화에 노력하고, 여성농업인단체의 활동이나 각종 교육을 통해 사업 아이템을 얻거나 사업 지식을 습득하며, 창업 전 오랜 기간에 걸쳐 기술과 노하우 등 체계적인 준비가 있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 CEO는 자녀들이 온라인 활동, 디자인 개선 등에 참여하거나 경영후계자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등 농업경영에 참여율이 높다.

■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실태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은 취미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비롯하여 지역역사·문화활동에 참가 등 다양하다.

본 연구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회단체는 마을 부녀회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부녀회 활동에 참여도가 높다는 것은 공동체성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친목 기능을 넘는 협력체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농업인이 농축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률은 평균 36%이지만,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비중은 20% 미만이다. 조합원 가입률과 농협에 정기적

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40~50대의 농업규모가 클수록 크다. 여성농업인이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에 회원으로 가입률은 평균 18%이고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비중도 10% 내외로 낮게 나타난다. 작목반·영농조합법인이 여전히 생산자의 친목도모 차원의 조직으로서 생산 협업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며, 농산물 유통과 판매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단체 4단체 중 한 곳이라도 가입한 가입률은 27%이지만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40대, 농한기가 짧을수록, 영농규모가 클수록 가입률과 정기적인 참여율이 높다.

조사 결과, 여성농업인은 삶터와 일터로서 마을 단위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하며 경제조직이나 여성농업인단체 등 경제·사회적 성격의 활동에는 가입률이나 참여율이 낮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에게 경제적 이해관계는 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 해외 여성농업인 사례의 시사점

유럽에서 농산물 생산 1, 2위의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공통점은 가족 노동력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농이지만 세계화의 여파로 산업 중 농업의 비율과 지역에서 농가의 비율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유럽도 경제장벽이 없는 세계화로 농산물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의 수익성이 낮고 소규모 농업경영일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에 따라, 농업경영의 타개책으로 새로운 상품인 와인, 올리브 가공, 말린 고기, 치즈 등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으로 눈을 돌리거나 농가민박, 체험 및 교육농장 운영 등 새로운 농업경영을 시도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농업경영은 집안일과 연계된 일, 어머니의 역할에서 접목된 것이 많다. 즉, 육아를 비롯한 가족 돌봄, 요리, 집안 인테리어 등 농가에서 여성의 역할이 가족에서 고객으로 확대되어 사업화된 것이다.

이것은 농업의 개념이 농촌 공간과 생산물 중시에서 농촌 공간과 생산자·

생산물에 가치(의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면서 가능해진 사업이다. 그 가치란, 지역의 역사를 포괄하는 생활 문화(삶 그 자체)와 생명(유기농업)이 중심이고, 여성농업인이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수록 농업 분야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미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특히, 농업·농촌 분야의 새로운 사업 발굴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므로 청년 세대에게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농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전망

산업화 과정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경향은 개인주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는데 이는 가족이나 농촌사회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성별 분업 의식이 점차 옅어지면서, 농업에서도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농업에 세부 분야별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협업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농업이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까지 점차 영역을 확대해가며 여성농업인은 1차 산업의 보조자에서 농업의 2·3차 산업에 주체로 나서고 있다. 농업의 2·3차 가공·서비스 산업에서 여성의 속성인 보살핌과 상호배려의 능력은 경쟁력을 갖고 여성이 경영인으로서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향후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 육성에 초점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자면, 농업에서 경영인력과 노동인력으로 획일적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여성농업인 CEO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농업인이 보유한 잠재능력이 오랜 기간 교육과 정보교류를 통해 숙성된 상태에서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발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경영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는 정해진 대상이 아니라 여성농업인 각자의 잠재능력을 추동하기 위해 각종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과제이다.

여성농업인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은 경영의 기반이 되는 자산이므로 자산의 유무를 기준으로 여성농업인의 경영인력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과제

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의 2·3차 산업인 농산물 가공이나 체험교육농장에 관심이 있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의 여성농업인 일감갖기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창업보육 지원이 필요하다. 40~50대 경쟁력 있는 농가의 여성농업인은 중규모 이상의 전업농가로서 농업소득이 비교적 높고 사회활동이나 여성농업인단체의 활동도 활발하다.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할 노하우와 경제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경영인으로 새로운 사업을 도입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둘째, 중소규모 농가의 여성농업인은 농촌지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농업소득이 낮지만, 이들이 모두 농업노동 활동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자체로 농업경영은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먹을거리 문화나 지역 고유의 맛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인적자원이다. 이들에게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이지만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지원은 새로운 경영주체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다.

중소규모 농가의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2·3차산업에 참여하기까지는 여성농업인의 내적 동기 외에도 조직적·사업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들을 조직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추진주체로 육성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며, 그들 스스로 조직화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 등을 통해 조직과 사업에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소규모 농가의 여성농업인이 경제사업 추진에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교육과 병행하며 조직화와 사업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요즘 많은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로컬푸드는 중소농업인, 고령농업인이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이다. 로컬푸드 사업은 중소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는 농가 소규모 가공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규모 농가의 식품가공은 농업

의 2·3차 경제활동을 통해 농업소득을 향상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장려되어야 한다.

부록 1

여성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1. 농가의 영농규모 산정 기준

품목		영농규모				
		소규모	중소규모	중규모	중대규모	대규모
쌀		3,000평 미만	3천~9,000평	9천~1만5천평	1만5천~3만평	3만평 초과
과수	사과, 배, 포도	600평 미만	600~2100평	2100~4500평	4500~7500평	7500평 초과
	복숭아, 단감, 귤	900평 미만	900~3천평	3천~6천 평	6천~9천평	9천 평 초과
화훼	절화류	300평 미만	300~900평	900~1800평	1800~3천 평	3천 평 초과
	분화류	300평 미만	300~600평	600~900평	900~1500 평	1500평 초과
채소특작	시설	600평 미만	600~1500평	1500~3천 평	3천~6천 평	6천 평 초과
	노지	900평 미만	900~1500평	1500~4500평	4500~6천평	6천 평 초과
	인삼	1500평 미만	1500~4500평	4500~1만평	1만~2만 평	2만 평 초과
축산	한우	15두 미만	15~50두	50~100두	100~170두	170두 이상
	젖소	10두 미만	10~30두	30~50두	50~90두	90두 이상
	양돈	160두 미만	160~500두	500~1,500두	1,500~2,500두	2,500두 이상
	닭	8천수 미만	8천~2만5천수	2만5천~5만수	5만~9만수	9만수 이상

2. 조사대상 표본추출 및 실제조사 결과

○ 각 권역별로 175명씩 조사하였으며, 농촌 구분을 대도시 인근, 평야, 산간으로 균등하게 구분함. 어촌 지역의 시·군은 제외함.

권역	구분	시·군	실제조사	권역	구분	시·군	실제조사
경기/강원	도시 근교	이천시	20	전라	도시 근교	완주군	20
		여주군	19			화순군	19
		오산시	20			나주시	19
	평야 및 산간	양구군	24		평야 및 산간	무주군	24
		정선군	24			진안군	23
		포천시	20			고창군	23
		횡성군	25			구례군	24
		철원군	24			강진군	24
	합계		176		합계		176
충청	도시 근교	청원군	20	경상	도시 근교	청도군	20
		계룡시	19			함안군	19
		금산군	19			진주시	19
	평야 및 산간	진천군	23		평야 및 산간	고성군	23
		옥천군	23			창녕군	24
		제천시	23			영양군	23
		청양군	24			성주군	23
		부여군	24			예천군	24
	합계		175		합계		175

3. 응답자 특성

3.1. 기본특성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연령	30대 이하	45	6.4	학력	초졸 이하	163	23.2
	40대	167	23.8		중졸	227	32.3
	50대	347	49.4		고졸	270	38.5
	60대	143	20.4		대졸이상	42	6.0
주력품목	쌀	224	31.9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66	9.4
	특용작물	71	10.1		500~1천만	57	8.1
	과수	123	17.5		1~2천만	130	18.5
	채소	256	36.5		2~3천만	165	23.5
	축산	23	3.3		3~5천만	155	22.1
	기타	5	0.7		5천만~1억	98	14.0
전체		702	100.0		1억 이상	31	4.4

3.2. 기타특성

		사례수	비중
가구형태	독신	20	2.8
	부부	286	40.7
	부부+자녀	276	39.3
	편부모+ 자녀	13	1.9
	조부모+부부+자녀	84	12.0
	조부모+자녀	5	0.7
	기타	18	2.6
출신지	대도시	38	5.4
	중소도시	85	12.1
	도시인근농촌	124	17.7
	농어촌	455	64.8
농촌거주기간	10년 이하	89	12.7
	11~20년	116	16.5
	21~30년	199	28.3
	31~40년	128	18.2
	41~50년	51	7.3
	50년 이상	119	17.0
보유이동수단	트럭	164	23.4
	승용차	298	42.5
	오토바이	121	17.2
	자전거	218	31.1
	없음	214	30.5
남편직업	농업	594	84.6
	농업 외	71	10.1
	무직/해당없음	37	5.3
남편사회활동정도	적음	141	20.1
	많음	527	75.1
	해당 없음	34	4.8
사회활동에 남편의견	반대	115	16.4
	찬성	528	75.2
	해당 없음	59	8.4
농한기간	1개월 미만	121	17.2
	2~3개월	344	49.0
	4~5개월	220	31.3
	6~7개월	17	2.4

		사례수	비중
도시직업경험	없음	358	51.0
	자영업	29	4.1
	판매/서비스직	69	9.8
	기능/숙련공	141	20.1
	일반작업직	8	1.1
	사무/기술직	90	12.8
	전문직	7	1.0
농업인이 된 이유	남편과 결혼	534	76.1
	남편과 귀농	119	17.0
	부모농사승계	30	4.3
	본인 선택	19	2.7
주력작물영농규모	소규모	185	26.4
	중소규모	206	29.3
	중규모	191	27.2
	중대규모	89	12.7
	대규모	31	4.4
주요판매처	도매시장	110	15.7
	산지공판장	58	8.3
	농협/농업법인	324	46.2
	정부기관	32	4.6
	수집상	73	10.4
	전문유통업체	13	1.9
	소비자직거래	52	7.4
	농축산물소매상	22	3.1
	가공업체/기타	18	2.6
농외소득규모	없음	370	52.7
	500만원 이하	162	23.1
	500~1천만	57	8.1
	1~2천만	55	7.8
	2~3천만	30	4.3
	3~5천만	24	3.4
	5천만원 이상	4	0.6
농업승계	의향 없음	628	89.5
	의향 있음	74	10.5
전체		702	100.0

4. 실태 조사 결과

4.1 농업생산 관련 경제활동 참여 실태

부표 1.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 담당 비중(Q01)

단위: %

		사례수	20% 미만	20~49%	50~69%	70%이상
연령	30대 이하	45	26.7	35.6	35.6	2.2
	40대	167	9.6	29.3	44.3	16.8
	50대	347	6.6	35.4	41.5	16.4
	60대	143	2.8	38.5	38.5	20.3
주력품목	쌀	224	6.3	41.1	37.9	14.7
	특용작물	71	8.5	33.8	32.4	25.4
	과수	123	4.9	30.1	54.5	10.6
	채소	256	9.8	30.5	41.4	18.4
	축산	23	13.0	43.5	30.4	13.0
	기타	5	20.0	40.0	20.0	20.0
농업소득	5백만원 이하	66	13.6	31.8	30.3	24.2
	5백만~1천만원	57	15.8	40.4	35.1	8.8
	1~2천만원	130	9.2	43.1	32.3	15.4
	2~3천만원	165	6.1	34.5	46.7	12.7
	3~5천만원	155	6.5	34.2	46.5	12.9
	5천만~1억원	98	5.1	28.6	45.9	20.4
	1억원 이상	31	0.0	16.1	41.9	41.9

부표 2. 농업분야(농업생산)별 담당 비중(Q02)

단위: %

		작물 결정	외부 인력 고용	영농 자재 구입	경영 일지 기록	기술 정보 수집	논/밭 갈이	파종 육묘 관리	농약 살포	비료 주기	수확	고용인 력관리	품앗이
연령	30대 이하	45.0	40.7	34.9	32.4	35.0	38.3	42.3	33.3	38.9	54.8	43.6	47.2
	40대	65.3	62.1	52.9	51.6	51.5	49.3	64.9	49.9	51.6	65.7	60.6	57.1
	50대	61.3	59.7	46.9	43.6	45.5	50.5	60.3	48.1	51.9	66.3	60.6	60.9
	60대	63.4	61.8	52.2	43.2	48.5	57.5	63.9	52.5	58.5	67.2	63.0	65.6
주력품목	쌀	61.0	60.0	47.7	45.5	46.7	53.4	61.9	51.5	54.1	63.1	59.5	61.6
	특용작물	62.4	55.6	46.9	40.2	45.4	50.0	60.6	45.1	45.1	64.8	57.4	64.1
	과수	61.8	57.4	45.5	34.9	43.0	50.4	60.6	40.2	47.6	67.2	56.5	55.5
	채소	62.7	61.7	51.5	49.6	49.7	50.3	61.4	51.0	55.8	67.7	63.5	61.0
	축산	51.9	54.0	47.6	42.1	45.4	39.2	54.9	45.1	43.1	60.8	55.6	54.2
	기타	60.0	60.0	53.3	40.0	40.0	40.0	46.7	53.3	53.3	60.0	58.4	41.7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62.6	58.0	44.6	54.0	53.9	55.7	61.6	47.7	54.2	64.6	61.1	68.5
	5백만~1천만원	55.8	52.8	49.1	44.7	46.4	47.5	58.5	47.5	50.6	65.5	57.1	60.3
	1~2천만원	60.8	58.3	52.3	40.4	42.6	54.0	57.9	53.5	56.7	63.5	59.9	58.2
	2~3천만원	62.0	56.6	44.2	38.1	45.1	50.1	58.3	45.5	51.6	65.7	57.7	62.2
	3~5천만원	63.2	62.0	50.3	44.4	48.5	52.7	64.3	47.7	51.4	65.6	59.5	59.7
	5천만~1억원	62.6	64.9	51.4	51.9	46.7	47.4	65.3	49.7	51.0	67.7	64.9	56.1
	1억원 이상	61.3	64.5	47.3	59.8	53.8	41.1	62.2	47.3	47.3	69.9	65.6	50.9

부표 3. 농업분야(출하/판매/재무관리)별 담당비중(Q02)

단위: %

		수확후 관리	출하 준비	판매처 결정	판매정 보수집	농지 매매/임대	자금 대출	회계 장부작성	통장 관리	농가 소비지출
전체		65.5	64.7	56.8	52.5	50.5	48.4	45.9	63.2	64.8
연령	30대 이하	50.8	55.6	41.9	40.3	39.2	39.8	47.0	50.4	54.3
	40대	65.0	64.4	56.7	51.8	48.4	47.3	49.3	66.3	66.5
	50대	65.5	64.3	56.6	52.6	52.8	49.7	45.7	64.0	64.4
	60대	70.5	68.6	62.0	56.9	51.0	49.1	41.5	61.5	67.1
주력품목	쌀	64.5	63.6	56.9	52.4	54.6	50.6	47.7	65.0	66.4
	특용작물	67.2	62.8	45.5	43.8	41.1	38.5	40.5	54.3	59.5
	과수	61.2	64.2	56.0	47.9	45.2	43.5	34.1	63.1	65.6
	채소	68.1	66.5	60.9	58.3	52.7	52.0	51.0	64.2	64.3
	축산	66.7	61.7	55.1	46.4	41.2	46.0	46.0	63.8	65.2
	기타	66.7	66.7	40.0	26.7	60.0	46.7	33.3	53.3	73.4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64.6	63.9	63.0	59.7	54.3	48.4	57.4	71.7	69.7
	500만~1천만원	64.8	61.0	58.8	53.0	50.0	46.0	51.1	59.5	61.9
	1~2천만원	66.1	65.6	55.9	51.2	49.7	50.7	41.7	59.6	64.1
	2~3천만원	63.4	64.4	56.9	52.8	47.2	44.6	36.2	59.2	61.2
	3~5천만원	64.9	65.1	55.5	50.9	48.8	47.6	47.2	63.0	64.7
	5천만~1억원	70.2	66.0	55.3	51.7	56.8	53.1	52.9	70.1	69.1
	1억원 이상	66.7	63.5	55.9	51.6	54.0	52.7	57.2	66.7	68.8

부표 4. 농업활동 참여가 낮은 이유(Q02_1)

단위: %

		지식/기술 부족	필요성 못 느낌	신체 한계	가사/시간 부족	정보 부족	농외 활동	남편 반대	자신감 부족	인맥 부족	해당 사항 없음
연령	30대 이하	33.3	13.3	8.9	15.6	8.9	4.4	11.1	0.0	2.2	2.2
	40대	21.0	16.8	18.0	13.2	10.2	9.0	5.4	2.4	1.2	3.0
	50대	20.5	20.5	15.9	8.4	8.4	10.1	10.4	3.7	0.6	1.7
	60대	14.7	22.4	21.7	13.3	11.9	6.3	3.5	2.1	0.0	4.2
주력품목	쌀	21.9	17.4	17.0	8.9	8.0	9.4	8.0	4.5	0.9	4.0
	특용작물	19.7	11.3	19.7	12.7	9.9	5.6	11.3	1.4	2.8	5.6
	과수	22.8	27.6	21.1	4.9	10.6	4.9	8.1	0.0	0.0	0.0
	채소	17.6	17.2	16.0	15.6	10.9	10.5	6.6	3.1	0.4	2.0
	축산	21.7	39.1	0.0	8.7	4.3	13.0	8.7	4.3	0.0	0.0
	기타	20.0	60.0	20.0	0.0	0.0	0.0	0.0	0.0	0.0	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27.3	16.7	10.6	10.6	4.5	12.1	7.6	1.5	3.0	6.1
	500만~1천만원	14.0	29.8	19.3	10.5	5.3	3.5	8.8	7.0	0.0	1.8
	1~2천만원	17.7	20.0	13.8	10.8	10.0	12.3	8.5	2.3	0.0	4.6
	2~3천만원	20.6	18.8	18.8	15.8	10.9	5.5	4.2	4.2	0.0	1.2
	3~5천만원	12.3	23.2	18.7	7.1	14.2	9.0	10.3	1.3	1.9	1.9
	5천만~1억원	27.6	13.3	17.3	11.2	7.1	11.2	8.2	2.0	0.0	2.0
	1억원 이상	41.9	9.7	22.6	6.5	3.2	3.2	9.7	3.2	0.0	0.0

부표 5. 농한기에 주로 하는 일(중복응답)(Q02_2)

단위: %

		가사일을 한다	TV 시청, 라디오	이웃과 함께 논다	농외 소득 활동	잠을 잔다	신문, 잡지, 책	여행	하는 일이 없다	기타
연령	30대 이하	53.3	31.1	2.2	4.4	0.0	4.4	4.4	0.0	0.0
	40대	43.1	22.2	13.2	7.2	6.0	3.6	1.2	1.8	1.8
	50대	46.1	24.8	14.4	6.3	4.3	1.4	0.9	0.0	1.7
	60대	49.0	21.0	19.6	3.5	2.1	0.7	0.7	0.0	3.5
주력품목	쌀	46.0	15.6	18.3	8.9	0.9	3.1	2.2	0.4	4.5
	특용작물	59.2	23.9	8.5	2.8	4.2	0.0	0.0	0.0	1.4
	과수	29.3	43.1	17.1	1.6	7.3	0.8	0.0	0.0	0.8
	채소	52.7	19.9	11.3	6.3	5.1	2.0	1.2	0.8	0.8
	축산	34.8	43.5	13.0	4.3	0.0	4.3	0.0	0.0	0.0
	기타	40.0	20.0	20.0	0.0	20.0	0.0	0.0	0.0	0.0
농업소득	5백만원 이하	50.0	19.7	15.2	9.1	1.5	3.0	0.0	0.0	1.5
	500만~1천만원	56.1	21.1	8.8	7.0	1.8	0.0	1.8	0.0	3.5
	1~2천만원	48.5	21.5	12.3	6.2	3.1	2.3	1.5	1.5	3.1
	2~3천만원	40.0	32.1	17.6	4.8	3.6	0.6	1.2	0.0	0.0
	3~5천만원	38.7	25.8	17.4	5.8	6.5	1.9	1.3	0.6	1.9
	5천만~1억원	55.1	19.4	9.2	4.1	6.1	3.1	0.0	0.0	3.1
	1억원 이상	58.1	6.5	16.1	6.5	0.0	6.5	3.2	0.0	3.2

부표 6. 시간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일(중복응답)(Q02_3)

단위: %

		취미,오락,교양	집안일	자녀와 함께	농외 취업	쉬고 싶다	교육 참가	부녀회/사회활동	농사일
연령	30대 이하	46.7	4.4	22.2	17.8	0.0	4.4	2.2	2.2
	40대	46.1	5.4	18.0	14.4	4.2	4.2	3.6	4.2
	50대	40.1	13.0	9.2	10.4	8.9	7.5	8.9	2.0
	60대	26.6	21.0	9.1	7.7	18.2	7.7	3.5	6.3
주력품목	쌀	41.1	17.0	7.6	8.9	9.8	8.9	4.5	2.2
	특용작물	38.0	9.9	14.1	14.1	1.4	12.7	8.5	1.4
	과수	40.7	6.5	8.9	9.8	15.4	1.6	8.9	8.1
	채소	35.9	11.7	17.2	13.7	7.4	5.5	5.9	2.7
	축산	47.8	8.7	13.0	4.3	13.0	4.3	4.3	4.3
	기타	60.0	20.0	0.0	20.0	0.0	0.0	0.0	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19.7	16.7	18.2	13.6	6.1	10.6	13.6	1.5
	500만~1천만원	47.4	14.0	10.5	10.5	10.5	5.3	1.8	0.0
	1~2천만원	36.9	14.6	8.5	11.5	11.5	10.0	4.6	2.3
	2~3천만원	38.8	10.3	12.1	9.1	11.5	5.5	5.5	7.3
	3~5천만원	36.8	11.6	12.3	12.9	9.0	5.8	7.1	4.5
	5천만~1억원	42.9	12.2	13.3	14.3	5.1	4.1	7.1	1.0
	1억원 이상	77.4	3.2	12.9	0.0	3.2	3.2	0.0	0.0

4.2. 농업의 2·3차 경제활동 참여 실태

부표 7-1. 농업생산외 경제활동(농산물 가공) 참여정도 / 도움정도(Q03)

단위: %

		참여정도				도움정도(참여자한정)		
		하지 않음	다른사람 일에 참여	특정시기 일부	농업보다 많은 시간	거의 도움안됨	약간 도움됨	큰 도움됨
연령	30대 이하	86.7	4.4	8.9	0.0	16.7	83.3	0.0
	40대	85.0	1.8	11.4	1.8	20.0	52.0	28.0
	50대	93.9	0.9	4.6	0.6	4.8	61.9	33.3
	60대	95.1	2.1	2.1	0.7	14.3	28.6	57.1
주력품목	쌀	96.9	1.3	1.3	0.4	42.9	14.3	42.9
	특용작물	84.5	7.0	5.6	2.8	9.1	63.6	27.3
	과수	84.6	0.0	14.6	0.8	0.0	68.4	31.6
	채소	93.0	0.4	5.9	0.8	16.7	61.1	22.2
	축산	82.6	8.7	8.7	0.0	25.0	25.0	50.0
	기타	100.0	0.0	0.0	0.0	0.0	0.0	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89.4	3.0	6.1	1.5	28.6	42.9	28.6
	500만~1천만원	87.7	0.0	7.0	5.3	0.0	71.4	28.6
	1~2천만원	93.1	1.5	5.4	0.0	22.2	44.4	33.3
	2~3천만원	95.2	1.8	3.0	0.0	0.0	62.5	37.5
	3~5천만	91.6	2.6	5.8	0.0	23.1	69.2	7.7
	5천만~1억원	88.8	0.0	10.2	1.0	9.1	45.5	45.5
	1억원 이상	87.1	0.0	9.7	3.2	0.0	50.0	50.0

부표 7-2. 농업생산외 경제활동(농산물 판매) 참여정도 / 도움정도(Q03)

단위: %

		참여정도				도움정도(참여자한정)		
		하지 않음	다른사람 일에 참여	특정시기 일부	농업보다 많은시간	거의 도움안됨	약간 도움됨	큰 도움됨
연령	30대 이하	91.1	6.7	2.2	0.0	50.0	50.0	0.0
	40대	97.6	0.6	1.2	0.6	0.0	75.0	25.0
	50대	99.1	0.0	0.9	0.0	0.0	66.7	33.3
	60대	97.9	2.1	0.0	0.0	33.3	0.0	66.7
주력품목	쌀	99.1	0.0	0.4	0.4	0.0	0.0	100.0
	특용작물	94.4	4.2	1.4	0.0	25.0	50.0	25.0
	과수	98.4	0.8	0.8	0.0	0.0	100.0	0.0
	채소	98.4	0.4	1.2	0.0	25.0	75.0	0.0
	축산	91.3	8.7	0.0	0.0	50.0	0.0	50.0
	기타	100.0	0.0	0.0	0.0	0.0	0.0	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95.5	3.0	0.0	1.5	33.3	33.3	33.3
	500만~1천만원	98.2	0.0	1.8	0.0	0.0	100.0	0.0
	1~2천만원	98.5	1.5	0.0	0.0	50.0	0.0	50.0
	2~3천만원	96.4	1.2	2.4	0.0	0.0	66.7	33.3
	3~5천만원	99.4	0.6	0.0	0.0	100.0	0.0	0.0
	5천만~1억원	100.0	0.0	0.0	0.0	0.0	0.0	0.0
	1억원 이상	96.8	0.0	3.2	0.0	0.0	100.0	0.0

부표 7-3. 농업생산외 경제활동(농촌관광) 참여/도움정도(Q03)

단위: %

전체		참여정도				도움정도(참여자한정)		
		하지 않음	다른사람 일에 참여	특정시기 일부	농업보다 많은시간	거의 도움안됨	약간 도움됨	큰 도움됨
연령	30대 이하	91.1	6.7	2.2	0.0	50.0	50.0	0.0
	40대	97.6	0.6	1.2	0.6	0.0	75.0	25.0
	50대	99.1	0.0	0.9	0.0	0.0	66.7	33.3
	60대	97.9	2.1	0.0	0.0	33.3	0.0	66.7
주력품목	쌀	99.1	0.0	0.4	0.4	0.0	0.0	100.0
	특용작물	94.4	4.2	1.4	0.0	25.0	50.0	25.0
	과수	98.4	0.8	0.8	0.0	0.0	100.0	0.0
	채소	98.4	0.4	1.2	0.0	25.0	75.0	0.0
	축산	91.3	8.7	0.0	0.0	50.0	0.0	50.0
	기타	100.0	0.0	0.0	0.0	0.0	0.0	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95.5	3.0	0.0	1.5	33.3	33.3	33.3
	500만~1천만원	98.2	0.0	1.8	0.0	0.0	100.0	0.0
	1~2천만원	98.5	1.5	0.0	0.0	50.0	0.0	50.0
	2~3천만원	96.4	1.2	2.4	0.0	0.0	66.7	33.3
	3~5천만원	99.4	0.6	0.0	0.0	100.0	0.0	0.0
	5천만~1억원	100.0	0.0	0.0	0.0	0.0	0.0	0.0
	1억원 이상	96.8	0.0	3.2	0.0	0.0	100.0	0.0

부표 7-4. 농업생산외 경제활동(자영업) 참여정도 / 도움정도(Q03)

단위: %

전체		참여정도				도움정도(참여자한정)		
		하지 않음	다른사람 일에 참여	특정시기 일부	농업보다 많은시간	거의 도움안됨	약간 도움됨	큰 도움됨
연령	30대 이하	93.3	6.7	0.0	100.0	0.0	23.1	0.0
	40대	95.2	3.0	1.8	50.0	50.0	13.9	28.0
	50대	96.0	0.9	3.2	50.0	50.0	31.3	33.3
	60대	97.9	1.4	0.7	66.7	33.3	22.2	57.1
주력품목	쌀	94.2	1.3	4.5	53.8	46.2	37.8	42.9
	특용작물	100.0	0.0	0.0	0.0	0.0	17.6	27.3
	과수	99.2	0.8	0.0	100.0	0.0	15.4	31.6
	채소	95.7	3.1	1.2	63.6	36.4	19.6	22.2
	축산	91.3	4.3	4.3	50.0	50.0	22.2	50.0
	기타	80.0	0.0	20.0	0.0	100.0	0.0	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89.4	4.5	6.1	85.7	14.3	33.3	28.6
	500만~1천만원	94.7	3.5	1.8	100.0	0.0	31.3	28.6
	1~2천만원	96.9	1.5	1.5	25.0	75.0	30.4	33.3
	2~3천만원	96.4	1.8	1.8	33.3	66.7	20.0	37.5
	3~5천만원	98.1	0.6	1.3	66.7	33.3	18.2	7.7
	5천만~1억원	96.9	0.0	3.1	0.0	100.0	22.7	45.5
	1억원 이상	93.5	6.5	0.0	100.0	0.0	11.1	50.0

부표 7-5. 농업생산외 경제활동(일반직장취업) 참여정도 / 도움정도(Q03)

단위: %

전체		참여정도				도움정도(참여자한정)		
		하지 않음	다른사람 일에 참여	특정시기 일부	농업보다 많은시간	거의 도움안됨	약간 도움됨	큰 도움됨
연령	30대 이하	88.9	8.9	2.2	0.0	60.0	40.0	0.0
	40대	92.8	4.2	3.0	8.3	50.0	41.7	28.0
	50대	96.5	2.0	1.4	0.0	66.7	33.3	33.3
	60대	97.9	0.0	2.1	0.0	33.3	66.7	57.1
주력품목	쌀	95.1	2.7	2.2	0.0	36.4	63.6	42.9
	특용작물	97.2	2.8	0.0	0.0	100.0	0.0	27.3
	과수	98.4	0.8	0.8	0.0	100.0	0.0	31.6
	채소	94.1	3.1	2.7	6.7	53.3	40.0	22.2
	축산	91.3	4.3	4.3	0.0	100.0	0.0	50.0
	기타	100.0	0.0	0.0	0.0	0.0	0.0	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89.4	6.1	4.5	0.0	71.4	28.6	28.6
	500만~1천만원	87.7	5.3	7.0	0.0	57.1	42.9	28.6
	1~2천만원	93.1	2.3	4.6	11.1	44.4	44.4	33.3
	2~3천만원	98.2	1.8	0.0	0.0	66.7	33.3	37.5
	3~5천만원	97.4	2.6	0.0	0.0	50.0	50.0	7.7
	5천만~1억원	98.0	1.0	1.0	0.0	50.0	50.0	45.5
	1억원 이상	100.0	0.0	0.0	0.0	0.0	0.0	50.0

부표 7-6. 농업의 2·3차 경제활동(농외분야 시간제 근무) 참여 및 도움정도(Q03)

단위: %

전체		참여정도				도움정도(참여자한정)		
		하지 않음	다른사람 일에 참여	특정시기 일부	농업보다 많은시간	거의 도움안됨	약간 도움됨	큰 도움됨
연령	30대 이하	86.7	13.3	0.0	0.0	100.0	0.0	0.0
	40대	89.8	7.8	2.4	5.9	70.6	23.5	28.0
	50대	91.6	7.5	0.9	3.4	86.2	10.3	33.3
	60대	94.4	4.2	1.4	0.0	87.5	12.5	57.1
주력품목	쌀	91.5	7.6	0.9	0.0	89.5	10.5	42.9
	특용작물	91.5	5.6	2.8	0.0	83.3	16.7	27.3
	과수	95.1	4.9	0.0	0.0	83.3	16.7	31.6
	채소	89.8	8.2	2.0	7.7	80.8	11.5	22.2
	축산	87.0	13.0	0.0	0.0	66.7	33.3	50.0
	기타	100.0	0.0	0.0	0.0	0.0	0.0	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83.3	15.2	1.5	0.0	90.9	9.1	28.6
	500만~1천만원	82.5	12.3	5.3	0.0	80.0	20.0	28.6
	1~2천만원	91.5	6.2	2.3	9.1	63.6	27.3	33.3
	2~3천만원	92.1	7.3	0.6	0.0	100.0	0.0	37.5
	3~5천만원	93.5	6.5	0.0	0.0	80.0	20.0	7.7
	5천만~1억원	94.9	4.1	1.0	20.0	80.0	0.0	45.5
	1억원 이상	100.0	0.0	0.0	0.0	0.0	0.0	50.0

부표 7-7. 농업생산외 경제활동(농업 임금 노동) 참여정도 / 도움정도(Q03)

단위: %

전체		참여정도				도움정도(참여자한정)		
		하지 않음	다른사람 일에 참여	특정시기 일부	농업보다 많은시간	거의 도움안됨	약간 도움됨	큰 도움됨
연령	30대 이하	80.0	20.0	0.0	0.0	100.0	0.0	0.0
	40대	71.9	25.1	3.0	6.4	85.1	8.5	28.0
	50대	71.8	28.0	0.3	5.1	90.8	4.1	33.3
	60대	62.2	37.8	0.0	18.5	79.6	1.9	57.1
주력품목	쌀	68.3	30.8	0.9	11.3	78.9	9.9	42.9
	특용작물	70.4	28.2	1.4	0.0	100.0	0.0	27.3
	과수	77.2	22.0	0.8	10.7	89.3	0.0	31.6
	채소	67.6	31.6	0.8	8.4	89.2	2.4	22.2
	축산	82.6	17.4	0.0	0.0	100.0	0.0	50.0
	기타	80.0	20.0	0.0	0.0	100.0	0.0	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68.2	28.8	3.0	14.3	76.2	9.5	28.6
	500만~1천만원	68.4	29.8	1.8	11.1	88.9	0.0	28.6
	1~2천만원	64.6	34.6	0.8	10.9	84.8	4.3	33.3
	2~3천만원	66.1	33.3	0.6	7.1	85.7	7.1	37.5
	3~5천만원	72.9	26.5	0.6	4.8	92.9	2.4	7.7
	5천만~1억원	76.5	23.5	0.0	8.7	91.3	0.0	45.5
	1억 이상	93.5	6.5	0.0	0.0	100.0	0.0	50.0

부표 8. 향후 희망하는 농업생산외 경제활동 분야(중복응답)(Q03_1)

단위: %

		농산물 판매	농산물 가공	자영업	일반 취업	농외시간제 근무	농촌관광사업	농업임금노동	하고 싶지 않다
연령	30대 이하	17.8	17.8	17.8	17.8	6.7	4.4	2.2	15.6
	40대	15.6	15.0	8.4	13.8	7.8	9.6	0.6	29.3
	50대	17.0	10.4	7.8	6.1	6.1	6.9	4.6	41.2
	60대	5.6	7.7	3.5	1.4	7.7	3.5	14.0	56.6
주력품목	쌀	15.2	8.0	8.0	7.6	8.5	7.6	11.2	33.9
	특용작물	21.1	19.7	8.5	4.2	8.5	2.8	1.4	33.8
	과수	8.9	14.6	10.6	4.9	6.5	5.7	0.8	48.0
	채소	14.5	9.4	5.1	10.2	5.5	8.2	4.3	43.0
	축산	17.4	17.4	17.4	8.7	4.3	0.0	0.0	34.8
	기타	0.0	40.0	0.0	0.0	0.0	0.0	0.0	6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13.6	7.6	6.1	6.1	6.1	4.5	15.2	40.9
	500만~1천만원	26.3	7.0	8.8	8.8	5.3	3.5	5.3	35.1
	1~2천만원	17.7	7.7	6.9	9.2	6.2	8.5	6.9	36.9
	2~3천만원	12.1	15.2	8.5	6.1	10.9	3.0	6.1	38.2
	3~5천만원	12.3	9.7	9.0	10.3	5.8	8.4	3.2	41.3
	5천만~1억원	11.2	11.2	7.1	4.1	5.1	11.2	1.0	49.0
	1억원 이상	12.9	32.3	3.2	9.7	3.2	6.5	0.0	32.3

부표 9. 농업생산외 경제활동 희망 이유(중복응답)(Q03_2)

단위: %

		농사만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재능을 활용하고 싶어서	사회생활 하고 싶어서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싶어서	타인의 권유
연령	30대 이하	36.8	28.9	18.4	10.5	5.3
	40대	51.7	26.3	14.4	7.6	0.0
	50대	52.0	25.0	17.2	4.4	1.5
	60대	62.9	21.0	3.2	6.5	6.5
주력품목	쌀	54.7	20.9	16.9	2.7	4.7
	특용작물	59.6	19.1	10.6	10.6	0.0
	과수	45.3	31.3	10.9	10.9	1.6
	채소	50.7	28.8	14.4	5.5	0.7
	축산	53.3	20.0	20.0	6.7	0.0
	기타	0.0	50.0	0.0	50.0	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71.8	10.3	10.3	2.6	5.1
	500만~1천만원	54.1	21.6	21.6	0.0	2.7
	1~2천만원	58.5	18.3	17.1	4.9	1.2
	2~3천만원	53.9	26.5	7.8	10.8	1.0
	3~5천만원	52.7	25.3	11.0	7.7	3.3
	5천만~1억원	34.0	40.0	20.0	4.0	2.0
	1억원 이상	19.0	42.9	33.3	4.8	0.0

부표 10. 농업생산외 경제활동 장애 요인(중복응답)(Q03_3)

단위: %

		농사일 바빠	능력 부족	신체 한계	기회 정보 부족	시간 부족	자본부족	불필요	자신감 부족	가족 반대	인맥 부족	이동 제한	해당 사항 없음
연령	30대 이하	11.1	13.3	2.2	15.6	22.2	20.0	6.7	2.2	2.2	4.4	0.0	0.0
	40대	23.4	16.2	6.6	11.4	10.2	12.0	6.6	3.0	4.2	3.6	0.6	2.4
	50대	28.5	13.5	10.1	9.2	8.4	6.6	9.2	4.6	2.3	1.7	1.2	4.6
	60대	39.2	8.4	16.8	7.7	2.8	3.5	7.7	2.1	2.1	1.4	2.1	6.3
주력품목	쌀	26.3	14.3	9.8	8.5	10.7	8.5	4.0	4.5	4.0	1.8	0.9	6.7
	특용작물	28.2	14.1	4.2	11.3	9.9	12.7	1.4	5.6	2.8	5.6	0.0	4.2
	과수	35.0	14.6	17.9	10.6	2.4	4.1	6.5	1.6	2.4	3.3	0.0	1.6
	채소	28.5	11.3	9.0	9.8	10.2	8.2	11.7	3.5	1.6	1.2	1.6	3.5
	축산	13.0	8.7	4.3	17.4	0.0	13.0	30.4	0.0	4.3	4.3	4.3	0.0
	기타	20.0	20.0	0.0	0.0	0.0	0.0	40.0	0.0	0.0	0.0	20.0	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7.6	24.2	12.1	9.1	4.5	18.2	4.5	1.5	4.5	3.0	4.5	6.1
	500만~1천만원	7.0	10.5	15.8	8.8	15.8	12.3	8.8	7.0	5.3	1.8	0.0	7.0
	1~2천만원	26.2	12.3	10.8	8.5	11.5	5.4	11.5	3.8	2.3	1.5	2.3	3.8
	2~3천만원	33.9	10.9	7.9	15.8	5.5	6.7	4.2	4.8	1.2	3.0	0.0	6.1
	3~5천만원	38.1	12.9	9.0	8.4	7.1	7.1	8.4	1.3	1.3	3.2	0.0	3.2
	5천만~1억원	29.6	13.3	12.2	5.1	9.2	5.1	12.2	5.1	5.1	1.0	1.0	1.0
	1억원 이상	38.7	9.7	3.2	9.7	12.9	12.9	6.5	0.0	3.2	0.0	3.2	0.0

4.3.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실태

부표 11. 여성농업인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단체(중복응답)(Q4)

단위: %

		부녀회/노인회	작목반	농축협 조합원	여성 농민단체	품목별 농민단체	마을발전 모임	종교/시민 사회 단체
연령	30대 이하	55.6	11.1	24.4	20.0	4.4	17.8	37.8
	40대	77.8	17.4	32.3	31.7	15.0	20.4	31.7
	50대	83.0	19.9	37.2	24.5	11.5	21.3	27.7
	60대	87.4	14.7	30.1	9.1	4.9	16.1	21.7
주력품목	쌀	88.4	14.3	38.4	21.4	9.4	18.8	25.4
	특용작물	67.6	16.9	25.4	32.4	8.5	18.3	39.4
	과수	90.2	16.3	27.6	23.6	4.9	9.8	22.8
	채소	75.8	21.5	35.9	21.5	14.8	23.8	28.1
	축산	60.9	17.4	26.1	13.0	8.7	39.1	43.5
	기타	60.0	20.0	20.0	40.0	20.0	40.0	4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71.2	7.6	31.8	21.2	4.5	22.7	33.3
	500만~1천만원	77.2	8.8	31.6	19.3	5.3	21.1	40.4
	1~2천만원	80.8	13.8	37.7	12.3	4.6	20.8	23.1
	2~3천만원	88.5	15.2	26.1	22.4	10.9	12.7	24.2
	3~5천만원	83.2	24.5	29.0	20.6	11.6	18.1	27.1
	5천만~1억원	76.5	25.5	46.9	37.8	20.4	28.6	28.6
	1억원 이상	71.0	25.8	48.4	41.9	19.4	25.8	38.7

부표 12. 만족도가 높은 지역 사회 활동(중복응답)(Q04_1)

단위: %

		마을 부녀회	종교/ 시민 사회 단체	여성농업인 단체	마을 발전모임	작목반	농축협 조합원	품목별 농민단체	없음
연령	30대 이하	37.8	26.7	8.9	11.1	6.7	2.2	0.0	6.7
	40대	54.5	13.2	16.2	4.8	1.8	4.8	1.2	3.6
	50대	75.8	8.6	4.9	2.3	3.2	2.9	1.2	1.2
	60대	74.8	7.0	1.4	8.4	4.2	0.7	1.4	2.1
주력품목	쌀	70.5	8.0	7.6	5.8	3.1	2.2	0.9	1.8
	특용작물	49.3	18.3	12.7	4.2	8.5	5.6	1.4	0.0
	과수	83.7	4.9	0.0	1.6	1.6	6.5	0.0	1.6
	채소	65.2	12.5	8.2	4.7	2.7	1.2	2.0	3.5
	축산	52.2	17.4	8.7	13.0	4.3	0.0	0.0	4.3
	기타	60.0	20.0	20.0	0.0	0.0	0.0	0.0	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54.5	12.1	7.6	15.2	1.5	4.5	1.5	3.0
	500만~1천만원	66.7	14.0	7.0	12.3	0.0	0.0	0.0	0.0
	1~2천만원	76.2	11.5	1.5	4.6	3.1	1.5	0.0	1.5
	2~3천만원	75.8	7.9	6.1	1.8	3.0	1.2	2.4	1.8
	3~5천만원	72.3	9.7	5.8	0.6	4.5	3.2	0.6	3.2
	5천만~1억원	59.2	9.2	14.3	4.1	4.1	7.1	1.0	1.0
	1억원 이상	32.3	19.4	19.4	6.5	6.5	3.2	3.2	9.7

부표13. 자신이 회원인 여성농업인 단체(중복응답)(Q04_2)

단위: %

		없음	농가주부 모임	생활 개선회	전국여성 농민회	한국여성 농업인연합회	기타 여성 조직	여성농업인 CEO 연합회
연령	30대 이하	71.1	11.1	6.7	4.4	0.0	6.7	0.0
	40대	53.9	15.6	15.0	18.6	9.0	12.0	0.6
	50대	57.9	24.8	14.1	7.5	5.5	7.8	0.3
	60대	61.5	29.4	3.5	2.8	2.8	5.6	0.0
주력품목	쌀	57.1	28.6	12.9	10.3	4.5	8.0	0.4
	특용작물	52.1	29.6	15.5	11.3	1.4	8.5	0.0
	과수	51.2	30.9	4.1	4.9	7.3	12.2	0.8
	채소	64.1	13.3	14.1	8.2	5.9	6.6	0.0
	축산	78.3	0.0	0.0	17.4	13.0	4.3	0.0
	기타	20.0	40.0	20.0	20.0	0.0	20.0	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62.1	19.7	4.5	4.5	7.6	9.1	0.0
	500만~1천만원	73.7	12.3	3.5	10.5	1.8	10.5	0.0
	1~2천만원	69.2	20.0	9.2	3.1	3.8	4.6	0.0
	2~3천만원	53.9	31.5	10.9	6.1	3.6	7.9	0.0
	3~5천만원	58.1	24.5	11.6	9.7	3.9	9.7	0.0
	5천만~1억원	48.0	15.3	22.4	20.4	12.2	8.2	1.0
	1억원 이상	38.7	25.8	22.6	16.1	9.7	12.9	3.2

부표 14. 직책을 맡은 지역사회 조직(중복응답)(Q04_3)

단위: %

		부녀회	여성 농민 단체	종교/ 시민 단체	품목 단체	농협/ 축협	작목반	이장	없음
연령	30대 이하	4.4	4.4	0.0	0.0	0.0	0.0	0.0	91.1
	40대	11.4	9.6	4.2	0.6	0.0	0.0	0.0	77.8
	50대	14.1	4.6	3.7	0.6	0.6	0.0	0.0	78.7
	60대	12.6	0.0	0.7	0.7	0.7	1.4	0.7	83.9
주력품목	쌀	13.8	4.5	2.2	0.0	0.0	0.0	0.0	80.4
	특용작물	9.9	9.9	4.2	0.0	1.4	0.0	0.0	78.9
	과수	14.6	3.3	2.4	0.8	0.8	0.0	0.0	79.7
	채소	11.3	4.3	3.5	1.2	0.0	0.8	0.4	81.3
	축산	13.0	8.7	4.3	0.0	4.3	0.0	0.0	73.9
	기타	0.0	0.0	0.0	0.0	0.0	0.0	0.0	10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15.2	9.1	4.5	0.0	0.0	0.0	0.0	75.8
	500만~1천만원	8.8	3.5	1.8	1.8	0.0	0.0	0.0	84.2
	1~2천만원	7.7	1.5	4.6	0.0	0.0	0.0	0.8	86.9
	2~3천만원	7.9	2.4	1.2	0.0	0.0	0.0	0.0	89.1
	3~5천만원	18.1	5.2	2.6	0.6	0.0	0.6	0.0	74.2
	5천만~1억원	18.4	9.2	4.1	1.0	2.0	1.0	0.0	70.4
	1억원 이상	12.9	9.7	3.2	3.2	3.2	0.0	0.0	71.0

부표 15. 지역사회 활동 참여 이유(중복응답)(Q04_4)

단위: %

		친목 도모	사회 봉사	여가 활동	사회적 인맥 확대	자아 실현	경제적 도움 위해	참여 안함
연령	30대 이하	53.3	4.4	8.9	8.9	8.9	8.9	6.7
	40대	65.9	9.6	6.6	5.4	6.6	2.4	3.6
	50대	67.4	10.1	7.5	4.0	4.9	4.3	1.7
	60대	78.3	5.6	5.6	4.9	0.7	2.8	2.1
주력품목	쌀	67.4	10.7	4.9	4.0	6.7	4.0	2.2
	특용작물	56.3	15.5	12.7	5.6	2.8	5.6	1.4
	과수	79.7	3.3	5.7	5.7	1.6	1.6	2.4
	채소	68.0	7.0	7.8	5.1	4.7	4.3	3.1
	축산	56.5	13.0	8.7	4.3	8.7	4.3	4.3
	기타	80.0	20.0	0.0	0.0	0.0	0.0	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71.2	1.5	4.5	3.0	10.6	6.1	3.0
	500만~1천만원	68.4	14.0	3.5	1.8	8.8	3.5	0.0
	1~2천만원	63.8	13.1	6.9	5.4	1.5	7.7	1.5
	2~3천만원	73.9	6.1	6.7	3.6	3.0	3.0	3.6
	3~5천만원	71.6	6.5	6.5	7.1	3.2	2.6	2.6
	5천만~1억원	64.3	10.2	10.2	6.1	6.1	2.0	1.0
	1억원 이상	48.4	16.1	12.9	3.2	9.7	0.0	9.7

부표 16. 지역사회 활동 장애 요인(중복응답)(Q04_5)

단위: %

		바쁜 농사	시간 부족	기회 정보 부족	필요 못 느낌	능력 부족	신체 한계	자본 부족	인맥 부족	자신감 부족	가족 반대	아동 제한	가부장 적문화	해당 사항 없음
연령	30대 이하	17.8	20.0	13.3	11.1	8.9	0.0	6.7	6.7	2.2	0.0	2.2	0.0	11.1
	40대	36.5	18.0	11.4	7.8	6.6	1.8	3.6	4.2	3.6	1.8	0.0	0.6	4.2
	50대	42.4	9.8	8.4	9.2	5.2	4.9	5.2	2.3	2.9	1.2	1.4	0.3	6.9
	60대	49.0	9.1	4.9	4.9	4.9	11.2	2.1	1.4	2.1	1.4	1.4	0.0	7.7
학력	초졸 이하	52.8	13.5	1.8	5.5	3.1	8.6	3.1	0.6	3.1	1.8	1.2	0.0	4.9
	중졸	41.4	7.9	9.3	11.0	6.2	6.2	4.0	3.5	2.6	0.4	1.3	0.4	5.7
	고졸	36.7	13.0	11.5	6.7	7.0	3.0	5.9	3.7	2.2	1.5	1.1	0.4	7.4
	대졸 이상	16.7	26.2	14.3	11.9	4.8	0.0	0.0	2.4	7.1	2.4	0.0	0.0	14.3
주력품목	쌀	44.6	14.3	4.9	6.7	7.6	4.0	2.7	1.3	4.9	1.8	0.9	0.4	5.8
	특용작물	33.8	11.3	15.5	2.8	8.5	2.8	4.2	1.4	2.8	1.4	4.2	1.4	9.9
	과수	38.2	4.9	11.4	8.1	4.9	9.8	4.1	5.7	1.6	0.0	0.0	0.0	11.4
	채소	41.8	14.5	8.2	9.4	3.9	5.1	5.9	3.1	2.0	1.2	0.8	0.0	4.3
	축산	26.1	8.7	13.0	21.7	4.3	0.0	4.3	4.3	0.0	4.3	4.3	0.0	8.7
	기타	40.0	20.0	20.0	2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18.2	19.7	6.1	13.6	9.1	10.6	9.1	3.0	3.0	3.0	1.5	0.0	3.0
	500만~1천만원	33.3	15.8	7.0	7.0	3.5	7.0	12.3	0.0	3.5	3.5	1.8	0.0	5.3
	1~2천만원	43.1	12.3	5.4	7.7	7.7	6.2	5.4	1.5	1.5	0.8	0.8	0.8	6.9
	2~3천만원	40.6	11.5	11.5	5.5	6.7	4.8	1.2	4.8	2.4	1.2	1.2	0.0	8.5
	3~5천만원	46.5	7.1	9.7	7.1	5.2	3.2	3.2	4.5	3.9	0.6	0.6	0.6	7.7
	5천만~1억원	41.8	15.3	12.2	12.2	1.0	4.1	2.0	1.0	4.1	0.0	2.0	0.0	4.1
	1억원 이상	61.3	9.7	0.0	6.5	6.5	0.0	3.2	0.0	0.0	3.2	0.0	0.0	9.7

4.4.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 실태

부표 17-1. 여성농업인의 교육(영농분야) 참여정도(Q05)

단위: %

		참여 안함	1~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연령	30대 이하	57.8	31.1	6.7	0.0	4.4
	40대	44.3	28.1	13.2	6.0	8.4
	50대	41.5	25.6	16.4	8.4	8.1
	60대	53.8	16.1	13.3	9.1	7.7
주력품목	쌀	54.0	21.4	15.6	4.9	4.0
	특용작물	35.2	39.4	15.5	4.2	5.6
	과수	35.8	22.8	11.4	12.2	17.9
	채소	44.1	25.8	14.5	9.0	6.6
	축산	65.2	8.7	17.4	0.0	8.7
	기타	60.0	20.0	0.0	0.0	2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65.2	22.7	7.6	1.5	3.0
	500만~1천만원	47.4	24.6	21.1	0.0	7.0
	1~2천만원	60.8	10.0	18.5	7.7	3.1
	2~3천만원	50.9	24.2	11.5	7.9	5.5
	3~5천만원	34.2	27.1	14.2	11.6	12.9
	5천만~1억원	22.4	40.8	16.3	9.2	11.2
	1억원 이상	41.9	29.0	9.7	3.2	16.1

부표 17-2. 여성농업인의 교육(농외소득/지역사회분야) 참여정도(Q05)

단위: %

		농외소득					지역사회				
		참여 안함	1~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참여 안함	1~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연령	30대 이하	73.3	15.6	6.7	0.0	4.4	75.6	15.6	0.0	6.7	2.2
	40대	77.2	17.4	3.6	1.8	0.0	63.5	23.4	7.8	3.0	2.4
	50대	78.1	14.4	5.2	0.6	1.7	71.5	17.0	8.4	1.4	1.7
	60대	85.3	9.1	4.2	0.0	1.4	79.0	13.3	5.6	0.0	2.1
주력품목	쌀	75.0	15.6	6.7	0.9	1.8	69.6	16.5	9.4	1.3	3.1
	특용작물	83.1	12.7	4.2	0.0	0.0	78.9	15.5	4.2	1.4	0.0
	과수	90.2	7.3	1.6	0.8	0.0	74.0	17.1	8.1	0.0	0.8
	채소	76.2	16.4	5.1	0.8	1.6	70.3	19.1	5.9	2.3	2.3
	축산	78.3	17.4	0.0	0.0	4.3	65.2	26.1	0.0	8.7	0.0
	기타	80.0	0.0	0.0	0.0	20.0	60.0	0.0	20.0	20.0	0.0
농업소득	500만원이하	84.8	7.6	4.5	1.5	1.5	72.7	16.7	3.0	1.5	6.1
	500만~1천만원	64.9	26.3	5.3	0.0	3.5	64.9	17.5	10.5	3.5	3.5
	1~2천만원	80.0	14.6	5.4	0.0	0.0	78.5	16.2	4.6	0.8	0.0
	2~3천만원	84.8	10.3	4.2	0.6	0.0	76.4	15.8	6.1	1.2	0.6
	3~5천만원	75.5	16.1	5.8	1.3	1.3	67.7	18.1	11.0	1.9	1.3
	5천만~1억원	77.6	15.3	4.1	0.0	3.1	65.3	20.4	8.2	2.0	4.1
	1억원 이상	80.6	9.7	0.0	3.2	6.5	61.3	25.8	3.2	6.5	3.2

4.5. 여성농업인의 인식과 생활 실태

부표 18 . 향후 희망하는 교육 내용(중복응답)(Q05_1)

단위: %

		취미, 오락, 교양	농업 생산 기술	판매	컴퓨터 교육	농산물 가공 기술	알바 및 취업 교육	자영업 창업	농촌 관광	소비자 교류 방법	교육 원하지 않음
연령	30대 이하	11.1	6.7	17.8	17.8	8.9	11.1	6.7	4.4	2.2	13.3
	40대	18.6	13.8	15.0	10.2	9.6	8.4	7.8	7.8	4.8	4.2
	50대	20.2	13.8	11.2	13.8	6.3	6.6	6.1	5.2	4.6	12.1
	60대	28.7	11.9	8.4	7.0	7.7	2.1	1.4	1.4	4.2	27.3
주력품목	쌀	27.2	13.8	8.9	8.9	7.1	8.9	6.7	7.6	1.3	9.4
	특용작물	12.7	18.3	18.3	12.7	12.7	5.6	2.8	1.4	5.6	9.9
	과수	24.4	12.2	13.0	14.6	5.7	2.4	4.9	1.6	4.9	16.3
	채소	16.0	12.1	12.1	10.5	7.4	6.6	5.5	5.9	6.3	17.6
	축산	21.7	4.3	13.0	26.1	8.7	4.3	8.7	0.0	8.7	4.3
	기타	20.0	0.0	20.0	60.0	0.0	0.0	0.0	0.0	0.0	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37.9	9.1	7.6	9.1	3.0	3.0	7.6	7.6	0.0	15.2
	500만~1천만원	12.3	14.0	8.8	12.3	10.5	12.3	7.0	3.5	5.3	14.0
	1~2천만원	19.2	13.1	11.5	13.8	3.1	8.5	4.6	3.1	3.8	19.2
	2~3천만원	17.6	11.5	8.5	11.5	10.9	6.1	6.7	5.5	4.8	17.0
	3~5천만원	20.6	14.8	14.2	12.9	9.0	5.8	5.2	5.2	3.2	9.0
	5천만~1억원	21.4	14.3	16.3	9.2	5.1	6.1	4.1	7.1	10.2	6.1
	1억원 이상	25.8	12.9	22.6	12.9	12.9	0.0	3.2	0.0	0.0	9.7

부표 19. 여성농업인의 활동 우선순위(중복응답)(Q06)

단위: %

		농업 생산 활동	집안 행사	농외 경제 활동	지역 공동체 모임	종교 및 취미 활동	학습 활동	없음
연령	30대 이하	31.1	31.1	17.8	4.4	11.1	4.4	0.0
	40대	45.5	12.6	19.2	13.8	5.4	3.6	0.0
	50대	44.7	18.7	19.3	12.1	3.2	1.7	0.3
	60대	46.2	26.6	17.5	6.3	2.1	1.4	0.0
주력품목	쌀	45.1	22.8	17.9	7.1	2.7	4.0	0.4
	특용작물	39.4	16.9	28.2	9.9	4.2	1.4	0.0
	과수	50.4	16.3	10.6	20.3	2.4	0.0	0.0
	채소	42.6	18.0	21.5	9.8	5.9	2.3	0.0
	축산	34.8	34.8	17.4	8.7	4.3	0.0	0.0
	기타	60.0	20.0	0.0	20.0	0.0	0.0	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10.6	47.0	21.2	15.2	1.5	4.5	0.0
	500만~1천만원	33.3	28.1	24.6	12.3	1.8	0.0	0.0
	1~2천만원	41.5	23.8	24.6	6.2	3.1	0.8	0.0
	2~3천만원	49.7	14.5	18.2	10.9	3.6	2.4	0.6
	3~5천만원	51.0	14.2	15.5	10.3	6.5	2.6	0.0
	5천만~1억원	46.9	12.2	15.3	16.3	5.1	4.1	0.0
	1억원 이상	77.4	6.5	9.7	3.2	3.2	0.0	0.0

부표 20. 여성농업인의 가정에서 지위(Q07)

단위: %

		전문적인 여성농업인	집안 농사를 돕는 보조적인 농업인	비전문적이지만 보조보다 많은 역할
연령	30대 이하	6.7	93.3	0.0
	40대	28.1	71.3	0.6
	50대	24.2	75.8	0.0
	60대	33.6	66.4	0.0
주력품목	쌀	18.8	81.3	0.0
	특용작물	26.8	73.2	0.0
	과수	37.4	62.6	0.0
	채소	28.5	71.1	0.4
	축산	8.7	91.3	0.0
	기타	0.0	100.0	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12.1	87.9	0.0
	500만~1천만원	15.8	84.2	0.0
	1~2천만원	21.5	78.5	0.0
	2~3천만원	23.6	76.4	0.0
	3~5천만원	34.8	65.2	0.0
	5천만~1억원	29.6	69.4	1.0
	1억원 이상	48.4	51.6	0.0

부표 21.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Q07_1)

단위: %

		농사일 전문가 희망	여성농업인 일하는 여성	생산자조직 활동은 남성 적합	새로운 기술/정보 관심	직업적 자긍심 느낌	가사와 양육은 여성의 책임	지역사회 활동 참여 희망	농외 경제활동 참여 희망
연령	30대 이하	48.1	65.9	53.3	54.8	51.9	47.4	57.8	57.1
	40대	60.5	73.1	52.7	56.5	56.5	46.5	58.7	61.5
	50대	56.0	73.5	57.8	54.9	54.7	53.7	59.4	57.4
	60대	49.4	71.3	59.7	52.4	49.6	59.0	54.1	51.7
주력품목	쌀	52.2	71.3	56.1	50.4	50.3	51.2	58.2	56.4
	특용작물	57.7	75.6	61.0	60.1	58.7	53.5	59.6	57.8
	과수	56.4	75.1	58.0	59.4	56.9	56.1	55.0	50.9
	채소	56.4	71.8	56.6	54.8	54.8	52.3	59.5	61.7
	축산	56.5	71.0	43.5	56.5	50.7	49.3	52.2	49.3
	기타	60.0	60.0	53.3	46.7	40.0	53.3	53.3	4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46.5	69.7	54.0	49.0	52.0	57.6	54.6	52.5
	500만~1천만원	52.6	73.7	55.6	52.6	47.9	48.5	55.0	57.9
	1~2천만원	49.7	70.8	58.0	48.7	44.1	55.6	55.9	55.4
	2~3천만원	52.3	70.9	58.6	56.2	53.9	54.8	57.0	55.6
	3~5천만원	60.0	73.6	59.1	58.5	57.4	52.9	59.6	58.1
	5천만~1억원	65.7	75.5	53.1	58.2	63.3	48.6	62.9	64.0
	1억원 이상	60.2	76.4	48.4	59.1	62.4	37.6	62.4	55.9

* 4점 척도를 100점 점수화(1→0, 2→33.3, 3→66.7, 4→100)함.

부표 22. 여성농업인 보유 자격증과 역량(중복응답)(Q07_2)

단위: %

		운전 면허	인터넷 사용 능력	중대형 농기계 운전 능력	회계 장부 작성 능력	소형 농기계 운전 능력	요리 자격증	기타 국가 자격증	없음
연령	30대 이하	80.0	48.9	8.9	24.4	11.1	13.3	11.1	8.9
	40대	74.9	31.7	18.0	12.6	9.0	6.0	9.0	16.8
	50대	53.9	13.8	11.8	4.3	6.1	2.0	4.0	35.7
	60대	17.5	2.1	6.3	4.2	7.0	0.0	0.0	74.1
주력품목	쌀	47.8	16.1	11.2	5.4	7.1	3.1	2.2	44.6
	특용작물	63.4	19.7	9.9	9.9	9.9	4.2	11.3	28.2
	과수	49.6	9.8	11.4	5.7	4.9	0.8	2.4	45.5
	채소	55.9	22.3	12.5	9.0	7.4	4.3	6.6	31.3
	축산	60.9	26.1	17.4	17.4	13.0	4.3	4.3	21.7
	기타	60.0	20.0	40.0	0.0	0.0	0.0	0.0	2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42.4	19.7	4.5	18.2	9.1	7.6	7.6	45.5
	500만~1천만원	42.1	24.6	3.5	14.0	1.8	3.5	5.3	47.4
	1~2천만원	40.0	12.3	16.2	4.6	8.5	2.3	1.5	44.6
	2~3천만원	46.1	12.1	6.1	4.2	5.5	2.4	4.2	46.7
	3~5천만원	60.6	18.1	14.8	6.5	9.0	4.5	5.8	32.3
	5천만~1억원	75.5	26.5	17.3	6.1	7.1	0.0	5.1	16.3
	1억원 이상	80.6	29.0	25.8	12.9	9.7	6.5	9.7	12.9

부표 23. 여성농업인의 자의식과 통제감(Q07_3)

단위: %

		나에게 좋은점이 많음	나는 좋은 성격 보유	나는 가치있는 삶을살아옴	농사가 잘 되는 건 하늘 소관	세상은 착실한 사람 손해	잘살고 못사는건 내가 좌우
연령	30대 이하	63.7	65.2	59.3	46.7	48.9	63.0
	40대	68.3	69.3	66.9	49.7	54.7	66.5
	50대	64.7	68.6	64.5	50.1	56.1	67.4
	60대	64.6	66.2	65.5	56.2	58.3	69.3
주력품목	쌀	63.3	67.6	66.1	51.9	56.1	66.8
	특용작물	63.4	69.0	68.1	50.7	57.3	67.6
	과수	65.6	67.0	63.7	46.9	52.6	70.7
	채소	67.9	69.0	64.6	53.0	58.2	66.8
	축산	65.2	66.7	56.5	46.4	39.1	59.4
	기타	66.7	60.0	53.3	40.0	46.7	53.3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62.1	65.2	62.6	53.0	57.6	67.7
	500만~1천만원	65.5	67.3	66.1	42.1	46.8	64.9
	1~2천만원	62.6	68.0	63.1	50.5	51.0	66.2
	2~3천만원	63.5	66.9	66.1	57.2	57.2	67.1
	3~5천만원	67.8	67.3	66.2	52.7	58.9	67.3
	5천만~1억원	71.8	73.8	64.3	43.2	59.2	70.4
	1억원 이상	63.5	67.8	64.5	49.5	53.8	65.6

* 긍정응답자(3, 4) 비중임.

부표 24.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Q08)

단위: %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중요할 것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
연령	30대 이하	51.1	35.6	4.4	8.9
	40대	71.3	20.4	4.2	4.2
	50대	65.1	22.5	7.2	5.2
	60대	61.5	28.7	2.1	7.7
주력품목	쌀	69.6	22.8	2.7	4.9
	특용작물	69.0	14.1	8.5	8.5
	과수	72.4	20.3	1.6	5.7
	채소	58.6	28.5	7.8	5.1
	축산	43.5	30.4	13.0	13.0
	기타	40.0	60.0	0.0	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74.2	18.2	3.0	4.5
	500만~1천만원	61.4	21.1	7.0	10.5
	1~2천만원	53.8	29.2	12.3	4.6
	2~3천만원	69.1	21.8	4.2	4.8
	3~5천만원	61.9	29.0	3.2	5.8
	5천만~1억원	71.4	21.4	3.1	4.1
	1억원 이상	71.0	16.1	0.0	12.9

부표 25.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Q08_1)

단위: %

		가족이 먹는 농산물은 무농약재배	판매 농산물은 무농약재배	자신이 판매한 농산물은소비자가 안심해도 됨	농산물은 모두 친환경 재배가 필요함
연령	30대 이하	55.6	50.4	70.4	57.0
	40대	49.9	43.9	69.1	50.3
	50대	50.0	42.6	70.1	47.0
	60대	50.1	42.6	69.2	48.0
주력품목	쌀	48.8	42.2	69.7	47.2
	특용작물	54.0	47.9	78.0	54.5
	과수	50.9	39.8	67.2	47.7
	채소	49.7	44.1	69.3	47.9
	축산	56.5	55.1	65.2	58.0
	기타	60.0	33.3	60.0	46.7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57.1	50.0	65.2	57.6
	500~1천만원	54.4	45.0	69.6	53.2
	1~2천만원	49.7	43.1	69.0	51.5
	2~3천만원	49.7	43.0	68.5	48.5
	3~5천만원	47.9	41.9	72.5	43.9
	5천만~1억원	50.0	41.8	70.4	45.6
	1억원 이상	48.4	43.0	73.1	43.0

부표 26. 여성농업인 명의 보유 재산(중복응답)(Q09)

단위: %

		예금통장	보험	집	농지	자동차	농산물 출하자 명의	기타 금융자산	건물	본인 명의 없음
연령	30대 이하	77.8	60.0	15.6	6.7	8.9	6.7	4.4	6.7	11.1
	40대	89.2	69.5	17.4	13.2	16.8	6.6	5.4	3.6	6.6
	50대	86.5	64.6	15.0	19.6	11.2	8.6	8.4	1.4	5.2
	60대	86.0	58.7	25.2	19.6	4.2	7.7	4.2	3.5	4.9
주력품목	쌀	90.6	67.9	19.2	16.5	11.6	8.9	2.2	2.2	3.6
	특용작물	80.3	54.9	12.7	8.5	16.9	5.6	5.6	5.6	12.7
	과수	85.4	68.3	14.6	22.0	4.1	2.4	10.6	0.8	4.9
	채소	85.9	62.9	20.3	18.0	11.7	10.5	9.4	3.5	5.5
	축산	78.3	52.2	8.7	17.4	17.4	4.3	0.0	0.0	17.4
	기타	80.0	60.0	0.0	20.0	0.0	0.0	0.0	0.0	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87.9	77.3	18.2	15.2	12.1	6.1	4.5	4.5	4.5
	500만~1천만원	89.5	73.7	21.1	10.5	15.8	7.0	5.3	5.3	3.5
	1~2천만원	86.9	60.0	18.5	13.8	8.5	10.8	2.3	0.0	4.6
	2~3천만원	84.8	50.9	19.4	17.0	7.9	4.2	4.2	4.2	9.1
	3~5천만원	88.4	72.3	14.2	13.5	12.3	6.5	9.7	2.6	4.5
	5천만~1억원	87.8	67.3	18.4	28.6	11.2	13.3	13.3	1.0	5.1
	1억원 이상	71.0	58.1	12.9	32.3	19.4	9.7	6.5	3.2	9.7

부표 27. 여성농업인 명의의 농산물 출하 여부 및 이유(Q09_1~Q09_2)

단위: %

		출하명의			출하이유				
		남편 명의	본인 명의	남편 명의 및 본인 명의	소량인 품목의 판매를 위해	내 명의 판매 증거 필요	상품성 낮은 생산물 판매	생활비 필요	해당 사항 없음
연령	30대 이하	77.8	4.4	17.8	20.0	20.0	30.0	0.0	30.0
	40대	77.2	9.0	13.8	31.6	34.2	13.2	7.9	13.2
	50대	77.5	9.2	13.3	24.4	19.2	19.2	15.4	21.8
	60대	77.6	13.3	9.1	25.0	18.8	12.5	28.1	15.6
주력품목	쌀	80.8	9.4	9.8	20.9	18.6	23.3	20.9	16.3
	특용작물	76.1	8.5	15.5	52.9	17.6	0.0	11.8	17.6
	과수	84.6	7.3	8.1	26.3	36.8	0.0	5.3	31.6
	채소	71.9	11.3	16.8	22.2	25.0	20.8	15.3	16.7
	축산	73.9	13.0	13.0	33.3	0.0	16.7	16.7	33.3
	기타	80.0	0.0	20.0	0.0	0.0	100.0	0.0	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63.6	22.7	13.6	37.5	12.5	4.2	33.3	12.5
	500만~1천만원	75.4	7.0	17.5	42.9	0.0	21.4	7.1	28.6
	1~2천만원	79.2	12.3	8.5	14.8	22.2	11.1	25.9	25.9
	2~3천만원	86.1	6.7	7.3	21.7	30.4	26.1	8.7	13.0
	3~5천만원	81.9	6.5	11.6	32.1	32.1	10.7	3.6	21.4
	5천만~1억원	66.3	9.2	24.5	21.2	33.3	18.2	12.1	15.2
	1억원 이상	71.0	9.7	19.4	11.1	0.0	55.6	11.1	22.2

부표 28. 가구 소득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기여율(Q10)

단위: %

		20% 미만	20~49%	50~69%	70%이상
연령	30대 이하	31.1	42.2	26.7	0.0
	40대	8.4	39.5	35.9	16.2
	50대	8.1	42.9	33.4	15.6
	60대	4.2	42.7	36.4	16.8
주력품목	쌀	8.9	44.2	33.5	13.4
	특용작물	7.0	43.7	39.4	9.9
	과수	5.7	41.5	39.8	13.0
	채소	10.2	39.1	32.0	18.8
	축산	17.4	47.8	21.7	13.0
	기타	0.0	60.0	20.0	2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10.6	48.5	24.2	16.7
	500만~1천만원	19.3	43.9	26.3	10.5
	1~2천만원	8.5	53.8	23.8	13.8
	2~3천만원	7.9	38.2	39.4	14.5
	3~5천만원	8.4	40.6	36.8	14.2
	5천만~1억원	4.1	39.8	44.9	11.2
	1억원 이상	9.7	9.7	38.7	41.9

부표 29. 여성농업인 활동 기여 만큼의 보상 충분성에 대한 인식(Q11)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100점 평균*
연령	30대 이하	0.0	44.4	53.3	2.2	44.4	55.6	52.60
	40대	4.2	51.5	41.3	3.0	55.7	44.3	47.70
	50대	2.6	47.8	48.4	1.2	50.4	49.6	49.38
	60대	2.8	58.7	38.5	0.0	61.5	38.5	45.21
주력품목	쌀	1.8	59.4	37.9	0.9	61.2	38.8	45.98
	특용작물	5.6	43.7	49.3	1.4	49.3	50.7	48.83
	과수	6.5	46.3	47.2	0.0	52.8	47.2	46.88
	채소	1.6	50.0	45.7	2.7	51.6	48.4	49.87
	축산	0.0	30.4	69.6	0.0	30.4	69.6	56.53
	기타	0.0	0.0	100.0	0.0	0.0	100.0	66.7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4.5	39.4	51.5	4.5	43.9	56.1	52.02
	500～1천만원	0.0	66.7	33.3	0.0	66.7	33.3	44.43
	1～2천만원	3.1	53.8	42.3	0.8	56.9	43.1	46.92
	2～3천만원	3.0	52.7	43.6	0.6	55.8	44.2	47.27
	3～5천만원	2.6	49.0	47.7	0.6	51.6	48.4	48.82
	5천만～1억원	3.1	43.9	50.0	3.1	46.9	53.1	51.02
	1억원 이상	3.2	51.6	41.9	3.2	54.8	45.2	48.38

부표 30. 여성농업인 활동의 월평균 기회비용(Q12～15)

단위: 만원

		집안일 도우미 고용시 지불 예상 비용	농외 일을 할 경우 예상보수	지역사회 기여활동 가치환산시 보수수준	본인의 연간농업 이외 경제 활동수입
연령	30대 이하	73.8	139.6	47.4	227.8
	40대	73.0	134.9	62.1	225.2
	50대	60.8	122.9	45.2	176.1
	60대	43.1	102.2	32.6	162.1
주력품목	쌀	58.9	118.7	37.9	200.8
	특용작물	76.1	121.7	47.2	258.6
	과수	53.7	111.2	28.3	121.5
	채소	59.8	132.3	63.9	179.6
	축산	78.7	116.5	36.3	293.5
	기타	86.0	124.0	70.0	220.0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61.1	113.4	47.4	180.6
	500만~1천만원	59.1	118.3	38.9	376.5
	1～2천만원	46.5	117.8	28.6	228.8
	2～3천만원	52.6	114.3	38.9	142.0
	3～5천만원	67.6	125.6	53.1	169.1
	5천만~1억원	74.6	140.7	71.8	147.4
	1억원 이상	91.6	141.9	67.7	158.1

부록 2

여성농업인 CEO 사례

1. 부부 공동경영형 사례

가. 충북 괴산 사과재배 여성농업인

○ 농업 종사 계기

- 1997년 15년 전 부군을 따라 무연고지인 괴산에 과수원을 구입하여 귀농함. 농업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준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과수원 관리를 약속한 전 지주의 약속 파기로 농업에 종사하게 됨.
- 마을에서 가장 젊은 편에 속하며 부군은 현재 마을 이장을 맡고 있음.

○ 농업 규모

- 약 5천평 가량 사과와 복숭아를 재배하며, 생산량이 약 70톤 수준임.
- 사과는 4.5kg 기준 1,000박스 생산됨. 인근 지역에 1,700평 정도 신규 조성 중임. 상시고용 노동 없이 부부의 노동력으로 충당하고 있음.
- 생산량의 60~70%는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개인 직거래로 판매되며, 나머지 30~40%는 가톨릭농민회(우리농살리기 운동본부)를 통해 판매함. 직거래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종종 방문함. 향후 음식을 주제로 체험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체험을 위한 시설을 신축할 예정임. 수익에 관계없이,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농촌성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 농업인단체 활동

- 한사농 충북지회 전 부회장, 가톨릭 농민회 활동, KREI 리포터, 기술센터

생활개선회(향토음식연구회), 여성 CEO연합회, 괴산군 홍보기자(예정), 청천면 과수작목반

○ 교육 수강 내역

- 1999~2000년 농식품부 사업에 109농가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교육을 받고 운영비용을 지원받음. 그 외 여러 교육에 참여하면서 전국 농가와의 교류에서 많은 것을 배움.

○ 인터넷 활동 내역 : 다음블로그 운영, 1999~2000년부터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지속해옴. 그러나 생산에 직접 참여하므로 시간 여유가 없어 블로그 활동은 거의 못하고 있음.

○ 이동 수단 : 화물차를 활용함.

○ 정부 지원 - 저장고 시설비 중 3천만원 지원(자부담 6천만원), 강소농사업에서 고소작업차 2천만원 지원(자부담 4백만원)

○ 부군의 역할 : 생산관리는 부군이 주로 하고, 바쁠 때는 공동작업, 홈페이지 관리는 박 대표가 주로 전담함. 사업자등록과 홈페이지는 모두 여성농업인 대표 명의이며, 통장이나 농지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함.

○ 후계인력 유무: 아들이 후계를 이을 의사가 있음.

○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 : 경지정리, 평탄화작업 등 기반 조성 사업을 밭에도 지원되었으면 함. 현재 논에만 지원되고 있음. 홈페이지 웹호스팅 비용이 기존에는 아피스를 통해 무료 지원되었는데 지금은 중단된 상태임.

○ 어려운 점 : 귀농 초기에는 육아와 자녀교육이 가장 어려웠고, 현재는 노동력 부족이 가장 어려움. 농업인 대상 교육이나 회의가 겨울에 너무 몰려있어 모두 참석하기 어려울 때가 있음.

나. 충북 진천 식용장미 가공·판매 여성농업인

○ 농업 종사 계기 : 결혼을 계기로 부군(화훼 관련 업무 10년 후 귀농)을 따라 농촌에 오게 됨. 결혼 초부터 10년차까지는 농사일을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각종 교육을 받으면서 준비 기간을 가짐.

○ 농업 규모 : 하우스 3동과 노지를 포함하여 13,000평 규모로 장미(식용)를 생산하며 하우스 1,000평을 확장할 계획임. 초기 관상용 장미를 생산했으나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농약 피해로 생산자 건강이 악화되면서 식용으로 품목을 전환함. 향후 장미를 활용한 장미원과 교육·체험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시고용 노동 없이 부부의 노동력으로 충당하고 있음.

○ 식용 장미의 가공·유통을 통해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함.

- 직접 생산한 식용장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하여 가공품 별로 개별 유통하고 있음. 10월 말까지 총 5회 수확하고, 겨울에는 건조해두었다가 원료로 납품하고 있음. 또한 직접 추출한 장미수로 비누, 와인 등 가공품 생산 중임. 특히 비누는 연간 약 2천만원의 고정 수익이 되고 있음.
- 그 외 케이크의 장식용으로 제과업체에 납품, 1월 눈꽃축제 등 전국 행사 출품, 자원봉사센터나 어린이집 체험행사 등에도 참여하고 있음.
- 과립차와 액상차도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기술이전이 남아있음. 아직 와인에 대한 농민주 허가는 나지 않았지만 체험은 가능한 상태임.

○ 농업인단체 활동 : 한국사이버농업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부군은 8년간 한여농 군지부 회장직을 맡고 있음.

○ 교육 수강 내역 : 농촌진흥청 체험농장양성과정, 주류심화과정, e비지니스과정 등 지금까지 받아온 수료증이 총 26개에 달함.

○ 인터넷 활동 : 로즈랑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임.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 관리는 주로 부군이 담당함.

○ 주로 이용하는 이동 수단 : 자가용

○ 정부 지원 : 현 부지로 이전하기 전에 정부지원 시설자금을 일부 받은 것을 제외하면 사업비로 지원받은 바는 없음. 2010년 실용화재단에서 창업지원업체로 선정되어, 컨설팅과 교육 등의 지원을 받고 있음.

○ 부군의 역할 : 부군은 주로 원료인 식용장미의 생산관리와 온라인 관리를 담당하고, 가공제품 등 부가가치 창출 사업 분야는 여성 대표가 담당함.

○ 후계인력 유무 : 체험농장은 대표의 동생이 담당할 예정이며, 자녀 1남1녀 중 장녀가 원예학과에 진학하여 가업을 이을 예정임.

2. 부부 분업형 사례

가. 충남 천안 오이 농가 여성농업인

○ 농업 규모 : 1989년 결혼과 함께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왔고, 결혼 3년차에 본격적으로 농업에 종사함. 현재 하우스 1,800평에서 오이 재배 중이며, 후계자인 아들이 한우 60두 사육, 시부모님이 수도작 5,000평 경작함. 여성 외국인 노동자 1명을 상시 고용하고 직거래 소비자 중 희망자에 한해 일부 체험프로그램 운영 중임.

○ 여성 CEO의 역할 : 인터넷 블로그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 개인과 직거래 판매함. 2010년 농어업인블로거 대상 장관상 수상함.

- 오이 생산량의 30%만 온라인/통신판매를 통해 출하하고, 나머지 70%는 농협을 통해 공동 출하함. 이유는 농협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 명의 통장에 일정 수준 이상 판매금액 필요하기 때문.

○ 농업인단체 활동 : 농식품부 블로거 기자단 활동, 한사농 등에서 활동하고 있음. 과거 한여농, 생활개선회 간부직도 담당했었으나, 2-3년 전 모두 정리하고 블로그에 몰두하고 있음. 지역 활동은 거의 없음. 여성 CEO연합회에 가입해 있으나 조직이 없다보니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음.

○ 교육과 아이디어의 접목 : 결혼으로 농촌 이주 직후인 1990년대부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컴퓨터 교육을 받기 시작함. 농업기술센터와 교류를 통해 농진청 등 외부 교육 정보를 얻고 외부로 교육 수강하러 다님. 이 과정에서 시부모와 부군의 반대가 있었으나, 집 안팎에서의 균형을 잃지 않는 태도로 차츰 인식을 개선해 나감.

- 농업벤처대 8기 졸업, 단국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현재 농업기술센터 e-비지니스 과정에 출강하여 블로그 성공사례를 전파하고 있음.

○ 정부 지원 : 오이 포장 지원 4,500만원, CCTV 설치 지원 사업으로 홈페이지에 생산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음.

○ 주로 이용하는 이동 수단 : 버스 → 오토바이 → 트럭 → 자가용

○ 부군의 역할 : 농업후계자인 부군은 오이와 한우 생산 관련 대외활동과 농협 활동이 있음. 부군이 사교적이지 못한 성격이므로 판매 관련 대외활동은 여성농업인 대표가 전담함.

- 부군의 농협 공동출하 실적을 배려(농협 실적 = 농촌사회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여성농업인 대표가 온라인 판매를 더 확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규모인 30%를 유지하고 있음.

○ 후계인력 유무: 자녀 중 장남이 가업 승계를 위해 대학 졸업 후 한우 사육 중임.

나. 경북 영주시 와인 가공 여성농업인

○ 농업 규모 : 1988년 농협에 근무 중 사과농장주인 부군(농업후계자)과 결혼, 일찍부터 생활개선회 등 대외활동 시작함. 1999년부터 사과에서 포도로 작목전환하여 현재 포도 6,600평 재배, 저농약 인증 획득함.

- 포도는 수확 후 1개월 내에 판매해야 함으로 일찍부터 포도즙 가공을 시도함. 포도즙으로 충성고객 확보 후 포도 와인어리를 계획함.
- 포도 판매는 신선 60%(농장 앞 직거래 50%, 농협 계통 50%), 가공 40%(포도즙 50포-1천 박스, 포도주 3~10톤 2년 숙성 후 판매)

○ 여성 CEO의 역할 : 1999년 농진청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으로 포도즙 가공 지원 받음(2,400만원). 이웃에서도 모두 포도즙 가공에 참여하여 포도즙 판매의 차별성이 없으므로 한계에 부딪히며 와인 가공을 모색하게 됨.

- 기술센터 생활개선 팀장의 도움으로 교육에 참가하게 됨. 주류 관련은 국순당 2박3일 교육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각종 교육에 참가함. 2006년 진흥청 4박5일 교육 후 20명이 1백만원 모금하여 심화과정 개설을 요구함. 현재 농수산대학에서 농민주 1년 심화과정이 개설됨.
- 경북 농민사관학교 수료, 여성농민 창업과정 수료 등 교육 참여도 높음.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곧 경영 개선이라고 생각함.

- 2007년 주료 사업 면허, 2008년 제품 출시, 주류 인증, 2009년 경북 CEO 구축자금으로 공장 60평, 체험장 20평 신축, 2억지원(자부담 30% 6천만원), 자부담 포함 약 3억원 투자함.
- 개인적인 인터넷 블로그나 온라인 판매 활동은 없음. 다만 지자체(영주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관광공사의 지도에 게재되어 소비자의 방문은 자주 있음.

○ 와인 판매 3유형 : ①농장 현장 판매, ②영주시 파머스마켓, ③영주 시내 레스토랑 2곳(한식당 1곳, 한우전문점 1곳)

○ 애로사항 : 현재 와인어리 공장은 시음과 공장 내 체험이 중요하지만 와인어리와 체험장은 농산물 가공으로 허가되어 있음. 판매장 허가가 없으므로 시음 판매가 불가능함.

- 여성농업인의 창업은 손 맛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이므로 음식을 제공하는 판매장이 반드시 필요함. 음식과 술을 동시에 판매하며 홍보해야 효과적임.
- 현재 농민주(농가에서 직접 가공한 주류)에도 세금이 필수임. 판매금액에서 주세 15%+부가세10%, 교육세 10% 등 약 28%의 세금이 부가됨.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농민주를 활성화 하려면 2~5톤 이하의 소량 생산 농민주는 세금 감면이 요구됨. 현재 농민주는 면허의 간소화로 대량 발급되어 저품질의 농민주만 양산한 상황임. 농민주의 면허 양산은 화공약품 취급으로 잘못 취급할 경우 사회문제 될 소지가 있고 또한 유통은 대기업에 일임한 상황이므로 농민주 대량생산을 강조할 경우 유통체계 미비로 도산의 위험이 있음.
- 농민주의 소량, 고급화 정책이 필요한 시기임. 농민주의 유통 면허를 별도로 취급하는 것도 방법임. 농민주의 관리가 농식품부에서 국세청, 식약청, 위생계 등 식품위생 필수 교육이 너무 많은 상태임. 이에 대해 체계적인 단기 일괄 교육이 필요함.
- 생산+가공+체험(시음)+시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농가 가공 주류는 새로운 시장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음. 여성농업인의 농가 가공은

규모보다 내실을 중요시 하므로 지원할 경우 실패의 경우가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음.

다. 충북 음성 장류 가공 여성농업인

○ 농업 종사 계기 : 출생지와 성장지는 서울이나 결혼으로 종가의 맏며느리가 됨. 농업 규모가 큰 편이며 생산한 콩만으로는 수익이 낮아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종부로서 집안에 이어져오는 비법과 전통음식 명인 윤숙자 교수로부터 전수받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가공을 시작하게 됨.

○ 농업 규모 : 노지 1만 평과 하우스 2천평에 콩, 채소류 등 다양한 소득작목(10여 품목 이상)을 재배함. 상시고용 노동 없이 부부의 노동력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바쁠 때는 자녀(1남2녀)들이 일부 도움을 주는 정도임.

- 체험장 운영 : 직접 담근 장을 보관할 수 있는 장독 분양, 도시민 대상 우리밀·보리로 막장 만들기 체험,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대상 전통요리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음.

○ 장류의 유통 : 기존 고객 대상 전화 판매와 체험을 통한 판매, 농민장터(바로마켓/청담역)의 직거래 판매가 50% 이상임. 청국장환 생산업체에 청국장분말원료 납품 연 1억 매출을 올림.

○ 농업인단체 활동 : 한국사이버농업인 활동, 벤처대학 동문간 교류 활발하지만 지역농업인과 교류는 거의 없음.

○ 교육 수강 내역 : 벤처대학 7기(장녀는 8기) 수료하며 마케팅을 배웠고, e비지니스과정을 3년간 수강함.

○ 인터넷 활동 : 홈페이지는 운영 중이나, 블로그 등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음. 출가한 장녀가 장류 및 체험 사업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일부 판매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

○ 정부 지원 : 현재 체험시설에 시설자금을 지원받았음. 그러나 인허가나 환경부담금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자부담이 많아 어려움을 겪음.

○ 부군의 역할 : 부군은 생산을 전담하고, 가공과 체험 운영, 홈페이지 운영 등은 여성농업인 대표가 주로 담당함. 결혼 초 부군의 적극적인 지지로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었음.

○ 후계인력 유무 : 현재 결정된 바는 없으나, 장녀가 승계할 만함. 아직까지 사업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계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사업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

라. 경북 영천 시설 채소재배 농가 여성농업인

○ 농업 종사 계기 :- 만 54세, 1992년 연고지도 없는 영천에 귀농하여 2001년 무농약재배 인증, 2005년에 유기인증을 받는 등 친환경농업에 주력함. 부군이 친환경농업 강사임.

○ 농업 경영 현황 : 시설 재배(하우스) 3천평에 오이, 풋고추, 방울토마토 등 과채류 재배, 노지 2천평에 마늘, 양파 등을 재배함. 부부 노동력으로 모든 생산 활동이 이루어짐. 정식기나 수확기는 농업임금노동을 이용함. 부군은 판매를 위해 업체와 협상, 강의와 교육의 대외 활동이 많은 편이라 부인이 생산 관련 인력 관리나 경영장부를 기재함. 특히 경영장부는 2001년부터 상세히 엑셀파일로기재하여 농산물 원가 계산의 근거로 활용하거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기 인증에 제시함.

- 유기재배 농산물은 거의 농심 메가마트(영남지역 중소형 소매체인점)에 납품하며, 부산의 학교급식(업체명 : 부산 안전급식)에 일부 납품함.
- 쌀겨농법과 미생물을 이용한 유기재배임. 영천시에서 유기재배 농가는 극소수이므로 지자체는 친환경농업 각종 관련 지원(시설, 체험장 등)의 제공하려 하지만, 생산만으로 벅찬 노동이므로 여타 사업 여력이 없어 지원을 마다하고 있는 실정임. 정부 지원은 저온창고 30평이 전부임.

○ 여성농업인의 역할 : 대외활동이 많은 부군을 대신하여 생산 인력 관리와 경영 일지를 작성함. 과채류의 비상품과는 약 30% 정도임. 현재는 비상품과는 이웃과 나누고 있으나 가공하여 상품화할 계획은 있음.

- 도 기술원 가공 교육이나 농업마이스터 대학의 가공 교육을 수료할 의사가 있음. 현재 부군이 농업마이스터 대학 4년이므로 부군의 졸업 후 입학할 계획임.

○ 농업인단체 활동 : 영천 여성경영인 회장, 농가주부모임 감사 등 지역 내 여성농업인 단체에 가입해 있으나 수동적으로 참가하고 있음. 그 이유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과채류 생산이고 부군 또한 대외활동이 많기 때문에 부인이 대외활동을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부군의 대외활동이 줄이는 2013년 이후, 부인도 본격적으로 가공 교육이나 체험 교육에 참가하며 사업능력을 개발할 계획임.

○ 교육 내역 : 농가 경영일지 작성을 위한 교육 정도가 전부이고 인터넷 교육도 받았지만 실제 활용할 정도는 아님. 그러나 농민신문을 구독하고 부군을 통해 각종 정보를 입수하므로 농가 경영에 적극성과 자기개발을 위한 적극성은 보임.

○ 이동 수단 : 승용 화물차를 활용함.

○ 부군의 역할 : 부군이 생산 기술을 개발, 관리하며 각종 대외활동을 하고, 생산관리를 비롯한 경영 관리는 부인의 몫임. 농업 생산 관련 일은 부부 협의로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음.

○ 후계인력 유무: 타지에 있는 아들이 후계를 이을 의사가 약간 있음.

3. 여성 독립경영형 사례

가. 경북 구미 한과 가공 여성농업인

○ 농업 종사 계기 및 농업 규모 : 6남매 장남인 부군과 결혼(현재 결혼 34년차, 56세) 후, 부군은 시내의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본인은 대농인 시댁에서 자연스럽게 시부모와 농업에 종사하며 여성농업인 후계자로 활동함.

- 본인이 경운기 운전을 비롯하여 트랙터 등 각종 농기계를 직접 다루고

부군(8년 전 퇴직하여 현재 공동경영)은 보조자 역할임. 현재 논 13,000평, 밭 2,400평, 축산 10여두.

○ 한과 사업의 계기와 현재 상황 : 음식솜씨가 좋은 시어머니에게 배우고, 개인적으로 '한복려 전통음식연구회'의 과정을 수료하여 떡, 병과, 이바지 음식의 명인임. 쌀 생산이 많고 값싸게 수매하기보다 가공을 고려하던 중 농촌지도소 생활개선회에서 기금조성을 위해 한과를 제조·판매한 것이 호평을 받음.

- 2001년 농진청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의 지원(5천만원)을 받아 한과 사업을 시작함.
- 자녀 2남(장남 기혼, 차남 미혼)이 모두 한과 사업에 동참하고 있음.
- 차남은 5년 전부터 이바지 음식의 보조자로 참여하기 시작하여 현재 떡, 한과, 이바지 음식 등 모든 기술을 전수 받아 주도함. 공학박사 출신인 장남은 농업과 한과 사업을 위해 1년 전부터 경영에 참여함. 현재 경북농민사관학과 CEO 과정을 이수 중임.

○ 한과 판매 : 구미시에 농업인이 직접 제조하는 한과는 1곳 뿐이므로 구미시가 판매와 홍보에 적극적임. 시의 각종 행사에 출품하거나 고정 판매처를 알선함. 구미시내 파머스마켓과 삼성전자에 7년째 납품하며 구미시 학교급식(32,000명 43개교)에 후식으로 납품함.

○ 농업인단체 활동 : 결혼 직후 20대부터 지도소 활동,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대학 등 여성농업인으로 주요 활동을 수행함. 지도소의 지원은 전국 최초의 부엌개량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싱크대 지원(당시 38가구 42만원 지원)을 받은 후 2001년 일감갖기 사업을 받음. 인터넷 등 온라인 교육은 받았지만 활동은 전무함. 지도소의 각종 농업 교육,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은 거의 수료함.

○ 후계인력 유무 : 자녀 2남 모두 농업후계자임.

○ 향후 계획과 요구사항

- 현재 엿은 구입(24kg, 32,000원)하고 있는데, 단가가 계속 오르면서 원가 압력이 심하고 또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직접 조청을 제조

할 계획임. 또한 한과를 주제로 하는 체험시설과 연구소를 갖출 계획임.
- 현재도 농업기술센터의 주선으로 1회에 약 70명씩 한과 체험을 하고 있음. 그러나 장소가 협소하여 체험하기 불편함. 향후 2년 후 장남에게 경영을 이양하면 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함.

4. 기업형 사례

가. 충남 부여 장류 가공 및 교육 농장운영 여성농업인

○ 장류 사업의 개요 : 전직 주부였던 여성농업인은 2002년, 충남 부여에 단독 귀농하여 장독대 15개로 전통 장류 사업을 시작함. 현재 온 가족(부군과 2남, 큰 며느리(한국농수산대학 졸업))이 장류와 체험사업에 종사함.

○ 교육 참여 : 귀농한 이래 마케팅 관련 교육만 36차례 수료함.
- 2009년 3월, 부부가 함께 1년 과정의 한국벤처농업대학을 졸업
- 2009년 11월, 한국농업대학 전업농 경영교육
- 한국벤처농업대학 7기 입학생 165명 중 부부 참여

○ 성공의 비결은 이미지 차별화 마케팅
- 햇볕으로만 장이 익는다는 고정관념을 깨고는 '보름달에 외갓집 장이 맛있게 익어가는 로고'를 떠올림. 이미지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문제는 판로였음. "손맛만 좋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는데, 마케팅이 가장 힘들었다"고 함. 가장 어려웠던 것은 상표등록 건이었음. 처음 상표출원을 신청한 뒤포장재를 인쇄해놓고 기다렸으나, 특허청에서 7개월 후 이미 등록한 식품업체와 혼동할 염려가 있어 거절한다는 통지를 보내옴.
- 이번에는 마을 이름을 따 '서답골농원'을 출원하고 4년간 홍보를 했으나 한결같이 브랜드가 머릿속에 잘 기억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음. 그 뒤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박씨는 외갓집을 떠올렸고, 마침내 '외할머니 장맛 외가집(www.jangjoa. net)' 브랜드를 사용하게 됨.

- 마케팅에 관한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후, 배움을 통한 업그레이드밖에 없다고 판단해 마케팅 교육은 물론 농산물 가공과 관련한 교육이란 교육은 하나도 빠짐없이 받음. 마케팅 교육을 통해 홍보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임. 방송에 소개되면서 된장과 고추장은 판매가 크게 증가함.

○ 체험농장의 계기 “농산물과 가공업이 만나면 농업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 옛날 초가에서 숙박을 하며 전통 장 담그기, 손두부 만들기 등을 체험하는 농장이 컨셉임. “농산물과 가공업이 만나면 농업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말에서 가족농업 가족농기업의 꿈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음.

○ 판매 상품

- 각종 장류(된장, 고추장, 쌈장, 간장, 청국장, 청국장 분말 등), 장아찌류, 지역특산물, 두류 등을 생산함. 콩은 인근 농가 또는 농협을 통해 구매.
- 충남 발효고등학교(전 부여 홍송고)에 장류 강사, 농수산대학의 실습교수로 강의하며 학교 장독대 만들기 캠페인을 주장함.
- 장류는 열정과 손맛이 필요한데 아이들에게 체험+급식+전통의 맛을 동시에 경험하게 하는 프로젝트로 학교 장독대를 만들면, 여성농업인의 소득창출 기회로 활용 가능함.
- 2011년 교육농장으로 지정되어 2,500만원 지원받음(정부 지원금은 더 이상 필요없음). 두부, 장류 체험 학교를 운영함. 교육농장은 신청은 개인 강의를 통해 청소년이 꿈을 갖게 되는 경험을 하며,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추억을 동시에 제공하는 교육 방법을 농장 경영의 이상으로 삼게 됨. 교육농장 참여자는 초중고생, 일반인 등 다양하며 100명 이상의 참가도 많음. 두부만들기 체험에 참여하더라도 100명 이상 참가라면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놀이문화, 체험을 경험하게 함.
- 두부를 가공하는 [두부 틀]을 제작하여 특허를 얻음. 농업이 돈이 되고 재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에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함. 이러한 아이디어는 농촌생활과 농업 현장에서 여유가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농업노동량을 줄이고 여가를 갖게 하는 일이 중요함.

○ 판매 방식 : ①바로마켓(과천 경마공원)에 매주 수, 목요일 두부를 가공·

판매함(콩 5kg(25,000원 상당)을 두부로 가공하면 10만원의 소득). 매출액 약 150만원/일(도우미 2명 활용), ②온라인 판매가 90% 이상임. ③기타 체험교육 참가자나 부여군 특산물 판매장에서 판매함.

○ 여성 CEO 입장에서 본 농업·농촌의 문제점

- 첫째, 질 높은 노동력 부족...체험학교 운영에 지역 노인을 활용한 경우, 서비스 질이 낮아 클레임 발생함. 현재 부여문화원 수강생(읍지역 40대 이상 전업주부로 구성)의 도움으로 질높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됨.
- 둘째, 질높은 귀농인 이용의 한계임. 현재 귀농인턴제(인건비 50% 지자체 부담)가 운영되고 있으나 읍면에 1명만 배정됨. 귀농인은 귀농인턴제에 수요가 많지만 지원이 적다는 것이 문제임.
- 셋째, 귀농인에게 도전의 기회, 기술이전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함. 부여군 인구는 10년 전 75,000명에서 65,000명으로 줄고 있으나 귀농인은 연간 500명 정도로 늘고 있음. 부여군에 공식적인 농업인단체가 50개에 이르고 이들이 각각에 지자체 지원금이 분배되고 있으나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은 전무한 실정임.
- 넷째, 정부 창업 지원 정책은 찬성하지만 관리 소홀로 부실화가 만연...소액으로 가능한 지원이 되어야 함. 또 판매도 중요하지만 자원활용에 중점을 두고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해야 함.
- 다섯째, 농촌지역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을 돕는 제도가 필요함. 여성농업인의 노동량을 줄이는 방안인 기존 농가도우미 제도 확대가 절실함. 다만, 도우미란 용어를 인턴제로 바꾸고 도시 인적자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숙식이 가능한 인프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함.- 여섯째, 선도농업인에게 교육 기회를 늘려야 함.

나. 경북 청송 한과 제조 및 체험장 운영 여성농업인

○ 농업 종사 계기 : 서울 출신인 김 대표는 사업을 하던 중 친정 부모님 소개로 쌀 농업에 비해 과수(사과) 소득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997년

IMF 시기 값싸게 나온 과수원을 구입해 둠. 과수원 구입 후에도 도시에서 사업을 계속하였고 2007년에 홀로 귀농하여 과수원을 관리를 함.

○ 농업 규모 : 사과 3,500평 재배, 2008년 청송의 우박피해로 비상품과의 상품화를 고려하던 중 한과 제조 기술을 배우게 됨. 농진청 일감갖기사업으로 견학처인 비약산 한과, 덕재 한과에서 약 1개월 간 기술을 익힘.

○ 농업인단체 활동 :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 회원이지만 경제사업 이외에 활동은 거의 없음.

- 사업장이 있는 마을 내에 거주하지 않고, 농업인과 어울리는 단체나 조직이 없음. 또한 농업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마을의 도움을 얻거나 줄 생각이 없으므로 마을과의 관계가 비협조적임.

○ 정부 지원 : 2009년 한과 제조 시설비 보조(5천만원)과 2011년 체험학습장 CEO지원 1억 1,200만원을 받음.

- 지역농업인과 교류는 거의 없음. 김 대표는 전형적인 사업가임.

○ 한과 판매 : 단체(선물용) 80%, 개인 전화주문 20%임.

- 대형유통업체 납품 제의도 받지만 수수료가 30%로 높기 때문에 거절함.

○ 교육 수강 내역 : 농업기술센터, 농진청의 각종 교육에 참가함.

○ 인터넷 활동 : 홈페이지는 운영 중이며, 인터넷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음. 블로그에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음

○ 부군의 역할 : 부군은 생산을 전담하고, 가공과 체험 운영, 홈페이지 운영 등은 김 대표가 주로 담당함.

○ 후계인력 유무

- 현재 외아들이 승계할 계획 없음.
- 사업체 규모를 키워 매각을 고려함.

○ 사업 애로

- 규제, 특히 식품위생법의 위생점검이 번거롭고 복잡함.
- 영양성분 검사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데 비용이 큼.

○ 소규모 가내수공업의 장점

- 대기업은 원가 절감을 위해 밀가루와 멥쌀을 원료로 사용하고, 기계화로

포장 규격화하고 있으나 재고가 발생할 경우 기름에 튀기는 음식이라 품질이 저하될 소지가 많음.

- 수공업은 찹쌀로 만들 때 맛을 유지하며 포장도 수작업으로 하여 품격이 있어 보임.
- 상시 재고를 두지 않고 재고를 소량 유지하며 주문시에만 제조함.

부록 3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활동 참여실태 조사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D

www.krei.re.kr 우)130-710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119-1 (☎02-3299-4000)

여성농업인 경제·사회적 활동 참여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농업·농촌 정책을 개발하는 국책연구소로서, 이번에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정책수립 자료 활용,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 조사에서 어르신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수치화되어 통계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7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 정은미 연구위원 02) 3299-4311

[문 의 사 항]

리서치앤리서치 실사 담당자 조선미 과장 02) 3484-3053

SQ1	귀댁에서는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면접중단
S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 면접중단
SQ3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 ) 세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64세 ☞ 만 20세 미만, 65세 이상 면접중단
SQ4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경기 ② 강원 ③ 충북 ④ 충남 ⑤ 전북 ⑥ 전남 ⑦ 경북 ⑧ 경남
SQ5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도시 근교(큰 도시와 접경) ② 평야지역 농촌 ③ 중·산간 지역 농촌
SQ6	거주지 규모는 어떠합니까?	① 읍 지역 ② 면 지역

응답자 성명		면접 일시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경
응답자 주소			
연락처(유선)	☎ ( ) -	핸드폰(무선)	H.P ( ) -
면접원 성명		검증원 확인	
코딩원 확인		S/V 확인	

※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응답해주십시오.

경제·사회 활동 참여실태

Q01. 귀댁의 농사일 전체(생산, 출하·판매, 재무관리)를 100%로 볼 때, 귀하는 어느 정도 담당하십니까?
① 20% 미만 ② 20~49% ③ 50~69% ④ 70%이상

Q02. 다음의 농업 분야별 활동에 귀하께서는 어느 정도 담당합니까?

분야별 활동		전혀 관여하지 않음	거의 관여하지 않음	어느 정도 관여	내가 주로 담당	우리집엔 해당 없음
농업 생산	(1) 어떤 작물을 지을지 결정	①	②	③	④	⑤
	(2) 외부 인력 고용 결정	①	②	③	④	⑤
	(3) 영농자재 구입 결정	①	②	③	④	⑤
	(4) 농사 및 경영일지 기록	①	②	③	④	⑤
	(5) 농업기술 정보 수집	①	②	③	④	⑤
	(6) 논/밭갈이	①	②	③	④	⑤
	(7) 파종, 육묘 관리, 정식	①	②	③	④	⑤
	(8) 농약살포	①	②	③	④	⑤
	(9) 비료주기	①	②	③	④	⑤
	(10) 수확 작업	①	②	③	④	⑤
	(11) 고용 인력 관리	①	②	③	④	⑤
	(12) 품앗이	①	②	③	④	⑤
출하 판매	(13) 수확 후 관리(건조, 세척 등)	①	②	③	④	⑤
	(14) 출하준비(선별, 포장)	①	②	③	④	⑤
	(15) 판매처 결정(어디로 판매할 것인가)	①	②	③	④	⑤
	(16) 판매에 관한 정보 수집	①	②	③	④	⑤
재무 관리	(17) 논밭을 사고 팔거나, 빌리고 빌려줄 때	①	②	③	④	⑤
	(18) 영농자금을 빌릴 때 (액수나 시기 등)	①	②	③	④	⑤
	(19) 회계 장부 작성	①	②	③	④	⑤
	(20) 통장(금전) 관리	①	②	③	④	⑤
	(21) 농가 소비 지출	①	②	③	④	⑤

Q02_1. 상기의 농업 분야별로 귀하가 담당하지 않거나 관여하는 정도가 낮은 분야가 있는데, 대체로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지식/기술 부족 ② 정보 부족 ③ 인맥(네트워크) 부족
④ 자신감 부족 ⑤ 신체적 한계(병 또는 여자의 육체적 한계 포함)
⑥ 남편이 기회를 주지 않음 ⑦ 내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⑧ 시간 부족(가사, 육아) ⑨ 농업이외 활동으로 시간이 없음
⑩ 해당사항 없음 / 기타(_____)

Q02_2. 귀하께서는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때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② 신문, 잡지, 책 등을 읽는다 ③ TV 시청, 라디오를 듣는다
④ 이웃과 함께 논다 ⑤ 여행을 한다 ⑥ 잠을 잔다 ⑦ 가사 일을 한다
⑧ 농외 소득을 올리는 부업을 한다 ⑨ 기타(_____)

Q02_3. 귀하께서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제일 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① 농사일을 더 하고 싶다　② 농외 취업을 하여 소득을 더 올리고 싶다
③ 자녀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④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 취미, 오락, 교양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⑤ 집안일(가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⑥ 부녀회 등 사회활동을 하고 싶다
⑦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하는 교육에 참가하고 싶다　⑧그냥 쉬고 싶다

Q03. 귀하는 농업이외에 경제활동(수입이나 판매가 있는 활동)으로 다음의 활동을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그 경제활동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농외 소득 활동	하는 정도				경제적 도움 (해당하는 것만 표기)
	하고 있지 않음	다른사람 일에 참여	특정시기에 일부	농업보다 더많은 시간 투여	거의 도움이 안됨 — 약간 도움됨 — 큰 도움됨
(1) 농산물 가공 (장류, 액즙 등)	①	②	③	④	① —— ② —— ③
(2) 농산물(가공식품) 직접 판매활동 (직거래, 온라인 판매 등)	①	②	③	④	① —— ② —— ③
(3) 농촌관광사업(주말농장, 민박 등)	①	②	③	④	① —— ② —— ③
(4) 자영업(장사, 가게 운영 등)	①		③	④	① —— ② —— ③
(5) 일반 직장 취업	①		③	④	① —— ② —— ③
(6) 농외 분야 시간제 근무(또는 아르바이트)	①		③	④	① —— ② —— ③
(7) 농업 임금노동 (품삯 노동 포함)	①		③	④	① —— ② —— ③

Q03_1. 귀하께서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농업 외 경제활동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① 농산물 가공(예: 장류, 액즙 등)　② 농산물(가공식품) 직접 판매 활동(직거래, 온라인 판매 등)
③ 농촌관광사업(주말농장, 민박 등)④ 자영업(장사, 가게 운영 등)
⑤ 일반 직장 취업　⑥ 농외 분야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⑦ 타농가 일(품삯 노동)　⑧ 하고 싶지 않다 ☞ Q03_3번으로

Q03_2. 귀하께서가 농업 외 소득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① 농사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② 유휴시설(장비)를 잘 활용하고 싶어서
③ 내가 가진 재능(장점)을 활용하고 싶어서④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⑤ 타인의 권유 (정책적 지원이 있어서)

Q03_3. 귀하께서가 농업 외 소득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내 능력(지식/기술) 부족　② 일을 해볼 기회나 관련 정보 부족
③ 인맥(네트워크) 부족　④ 자본금 부족
⑤ 자신감 부족　⑥ 신체적 한계(병 또는 여자의 육체적 한계 포함)
⑦ 가족(남편, 시부모)이 기회를 주지 않음　⑧ 내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⑨ 시간 부족(가사, 육아)　⑩ 농사일이 바빠 시간이 없음
⑪ 이동의 제한(교통 불편, 이동수단이 없음)　⑫ 해당사항 없음 / 기타(_____)

Q04. 귀하는 남편이 아닌 본인 명의로 다음의 지역사회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참여 단체 / 활동	회원 여부 (○, ×)	참여정도			
		참여 안함	비정기 참여	정기적 참여	적극적 참여
(1) 마을 부녀회 또는 노인회		①	②	③	④
(2) 작목반		①	②	③	④
(3) 농협 또는 축협의 조합원 활동		①	②	③	④
(4) (여성) 농민단체		①	②	③	④
(5) 품목별 농민단체 (예: 양돈협회, 파프리카, 단미사료협회 등)		①	②	③	④
(6) 마을발전 모임 (예: 이장, 지도자회, 청년회 등)		①	②	③	④
(7) 종교・시민사회 단체 (문화 활동, 교육 활동, 자원 봉사 활동)		①	②	③	④

Q04_1. 다음 지역사회 활동 중에 만족도가 높은 활동을 세 가지만 차례대로 적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마을 부녀회 또는 노인회　② 작목반　③ 농협 또는 축협의 조합원 활동　④ (여성) 농민단체
⑤ 품목별 농민단체　⑥ 마을발전 모임　⑦ 종교・시민사회 단체

Q04_2. 귀하께서 회원으로 있는 여성농업인 단체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② 전국여성농민회　③ 농가주부모임
④ 생활개선회　⑤ 여성농업CEO연합회　⑥ 기타 여성조직　⑦ 없음

Q04_3. 귀하께서 현재 직책(회장, 총무, 지회장)을 맡고 있는 조직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부녀회/노인회　② 작목반　③ 농협/축협　④ (여성) 농민단체　⑤ 품목단체
⑥ 이장　⑦ 지도자회/청년회　⑧ 지역 종교·시민단체　⑨ 없음

Q04_4. 귀하께서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친목 도모　② 자아실현(재능개발)　③ 여가 활동
④ 사회 봉사　⑤ 사회적 인맥 확대　⑥ 경제적 도움을 얻으려고

Q04_5. 귀하께서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① 내 능력(지식/기술) 부족　② 일을 해볼 기회나 관련 정보 부족　③ 인맥(네트워크)
④ 자본금 부족　⑤ 자신감 부족　⑥ 신체적 한계(병 또는 여자의 육체적 한계 포함)
⑦ 가족(남편, 시부모)의 반대　⑧ 내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⑨ 시간 부족(가사, 육아)　⑩ 농사일이 바빠 시간이 없음
⑪ 이동의 제한(교통 불편, 이동수단 없음)　⑫ 주변(마을사람)의 가부장적 문화
⑬ 해당사항 없음 / 기타(_____)

Q05. 귀하께서는 농업, 농외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관련하여 지난 3년간 얼마나 교육에 참여하셨습니까?

분 야	지난 3년간(2009~2011년)				
	참여 안함	1~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1) 영농관련 교육	①	②	③	④	⑤
(2) 농업이외 소득활동 관련 교육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사회활동 관련 교육	①	②	③	④	⑤

Q05_1. 귀하께서 가장 받고 싶은 교육내용은 다음 중 어느 분야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농축산업 생산기술	② 농산물 가공기술(예: 장류, 와인, 한과 등)
③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의 판매 방법(마케팅 기법 등)	④ 농업이외 일자리 취업 관련 교육
⑤ 농촌 관광사업(주말농장, 팬션, 민박 등) 창업 기술	⑥ 도시 소비자와 교류 방법
⑦ 농업이외 자영업(장사, 가게 운영 등) 창업기술	⑧ 컴퓨터 교육
⑨ 취미, 오락, 교양 교육	⑩ 교육 받고 싶지 않다

Q06. 다음 활동 중 귀하에게 우선순위가 높은 두 가지 활동을 적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농업 생산 활동	② 농업 이외 소득을 올리는 경제 활동
③ 지역공동체 모임(동창회, 작목반, 농협 회의 등)	④ 학습활동(교육·훈련 참여)
⑤ 집안행사(가족모임, 제사 등), 자녀 교육 행사	⑥ 종교 및 취미활동(자원봉사 등)

Q07. 귀 댁에서 귀하의 지위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문적인 여성농업인 ② 집안 농사를 돕는 보조적인 농업인

③ 기타(적을 것:)

Q07_1. 여성 농업인으로서의 전문성과 관련된 다음 사항들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전문성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짓는 농사와 하고 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2) 여성농업인도 일하는 여성이다	①	②	③	④
(3) 농협이나 생산자 조직 활동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4)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에 대해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5) 농업인으로서 직업적 자긍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6) 여성이 일을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7)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8) 농업이외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Q07_2. 귀하께서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역량을 <u>모두</u>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운전면허	② 소형 농기계(파종기, 피복기 등) 운전 능력
③ 중대형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 운전 능력	④ 인터넷 사용 능력
⑤ 요리 자격증	⑥ 회계장부 작성 능력

⑦ 기타 국가자격증 (_____)

Q07_3.아래의 문항들은 '내가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가 느끼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자아/세상에 대한 의식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농사가 잘 되는 것은 하늘의 소관이다	①	②	③	④
(5) 세상은 착실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①	②	③	④
(6) 잘살고 못사는 것은 내 하기에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Q08. 귀하께서는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 ②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
③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치 않을 것
④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

Q08_1.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이 먹을 농산물은 무농약으로 재배한다	①	②	③	④
(2) 내가 판매하는 농산물은 무농약(또는 유기)으로 재배한다	①	②	③	④
(3) 내가 판매하는 농산물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①	②	③	④
(4) 농산물은 모두 친환경으로 재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Q09. 다음 중 귀하가 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집(가옥) ② 건물 ③ 농지 ④ 자동차(시설)
⑤ 예금통장 ⑥ 보험 ⑦ 기타 금융자산(계, 주식, 펀드, 채권)
⑧ 농산물 출하(대표자) 명의 ⑨ 본인 명의로 된 자산이나 예금이 없음

Q09_1. 귀댁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때 명의는 누구로 하고 있습니까?
① 남편 명의 ② 본인 명의 ☞Q09_2번 ③ 남편 명의로도 하지만, 본인 명의로도 함 ☞Q09_2번

Q09-2. 내 명의로 출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상품성 낮은 생산물 판매를 위해서 ② 생산량이 소량인 품목의 판매를 위해서
③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④ 내 명의의 농산물 판매 증거가 필요해서 ⑤ 해당사항 없음

Q10. 귀댁의 지난 1년간 전체 소득(농업소득, 농외소득)에 대한 본인의 기여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20% 미만 ② 20~49% ③ 50~69% ④ 70%이상

Q11. 귀댁의 각종 경제활동 성과(예: 농산물판매, 농외소득)에 귀하가 기여한 만큼 귀하 본인에게 적절히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Q12. 귀하 대신에 집안 일만을 해주는 사람을 고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월 평균 [ ][ ][ ][ ][ ] 만원

Q13. 귀하께서 현재 하시는 농사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면 어느 정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월 평균 [ ][ ][ ][ ][ ] 만원

Q14. 귀하께서 현재 하시는 각종 지역사회 기여활동의 가치를 환산하면, 어느 정도의 보수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활동하지 않시면 0을 적어 주십시오.
월 평균 [ ][ ][ ][ ][ ] 만원

Q15. 귀하 본인의 농업 이외 경제활동에 의한 수입은, 년간 어느 정도 됩니까?

년간 [ ][ ][ ][ ][ ] 만원

조사 통계를 위한 문항

DQ1. 귀댁의 가구형태는 어떠합니까?
① 독신가구 ② 부부가구 ③ 부부+자녀 ④ 편부모+자녀
⑤ 조부모+부부+자녀 ⑥ 조부모+자녀 ⑦ 기타

DQ2. 귀하는 출신지역(고향)이 어디입니까?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도시인근농어촌 ④ 전형적 농어촌지역

DQ3. 귀하는 도시에서 직업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표시해주십시오.
① 없음 ② 자영업(상업, 소규모 자영업, 개인택시 등)
③ 판매/서비스직(상점점원, 영업직, 운전기사, 서비스업소 종업원, 보험 등)
④ 기능/숙련공(생산직, 숙련공, 기능직, 목공 등) ⑤ 일반 작업직(청소원, 경비, 배달원, 일용직 등)
⑥ 사무/기술직(사무직, 일반 공무원 등) ⑦ 전문직(의사, 변호사, 약사, 교사 등)

DQ4.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① 무학 ② 초졸(국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졸

DQ5. 귀하께서는 어떻게 여성농업인이 되셨습니까?
① 농업인 남편과 결혼하여 ② 결혼한 후 남편과 귀농
③ 본인이 부모님 농사를 물려받아서 ④ 본인 스스로 직업으로 선택

DQ6. 귀하가 농촌에서 사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 ] 년

DQ7. 귀하는 본인이 원할 때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두 체크)
① 자동차(트럭) ② 자동차(승용차) ③ 오토바이(스쿠터) ④ 자전거 ⑤ 없음

DQ8. 귀하의 남편의 주 종사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농업 ② 자영업 ③ 판매/서비스업 ④ 기능/숙련공 ⑤ 일반 작업직
⑥ 사무/기술직 ⑦ 전문직 ⑧ 해당사항 없음

DQ8-1. 귀하의 남편의 각종 사회활동 정도를 어느 정도 됩니까?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거의 하지 않음 ③ 조금 하는 편 ④ 매우 많은 편 ⑤ 해당사항 없음

DQ8-2. 귀하의 남편께서는 귀하께서 경제·사회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① 적극 반대 ② 반대하는 편 ③ 찬성하는 편 ④ 적극 찬성 ⑤ 해당사항 없음

DQ9. 귀댁의 주력 사육/재배 품목은 무엇입니까?
① 쌀 ② 특용작물 ③ 과수 ④ 화훼 ⑤ 채소 ⑥ 축산 ⑦ 기타( )

DQ9_1. 1년 중 귀댁이 농한기(일거리가 없는 시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① 1개월 미만 ② 2~3개월 ③ 4~5개월 ④ 6~7개월

DQ9-2. 귀댁은 시설 재배를 하십니까?( ) ① 하지 않음 ② 하고 있음

DQ10. 귀댁이 주력 작물의 영농규모를 판단한다면 어떠합니까?(아래 품목별 규모 판단기준 참조)
① 소규모 ② 중소규모 ③ 중규모 ④ 중대규모 ⑤ 대규모

※ 영농규모 판단기준(면접원 참조: 3,025평=1ha)

품목		영농규모				
		소규모	중소규모	중규모	중대규모	대규모
쌀		3,000평미만	3천~9,000평	9천~1만5천평	1만5천~3만평	3만평 초과
과수	사과, 배, 포도	600평미만	600~2100평	2100~4500평	4500~7500평	7500평 초과
	복숭아, 단감, 귤	900평미만	900~3천평	3천~6천 평	6천~9천평	9천 평 초과
화훼	절화류	300평미만	300~900평	900~1800평	1800~3천 평	3천 평 초과
	분화류	300평미만	300~600평	600~900평	900~1500 평	1500평 초과
채소 특작	시설	600평미만	600~1500평	1500~3천 평	3천~6천 평	6천 평 초과
	노지	900평미만	900~1500평	1500~4500평	4500~6천평	6천 평 초과
	인삼	1500평미만	1500~4500평	4500~1만평	1만~2만 평	2만 평 초과
축산	한우	15두미만	15~50두	50~100두	100~170두	170두이상
	젖소	10두미만	10~30두	30~50두	50~90두	90두이상
	양돈	160두미만	160~500두	500~1,500두	1,500~2,500두	2,500두이상
	닭	8천수미만	8천~2만5천수	2만5천~5만수	5만~9만수	9만수 이상

DQ11. 귀댁의 작년 한해(2011년) 대략적인 농업소득(농축산물 판매) 규모는 어떠합니까?
① 판매없음 ② 120만원 미만 ③ 120~300만원 ④ 300~500만원 ⑤ 500~1천만원
⑥ 1~2천만원 ⑦ 2~3천만원 ⑧ 3~5천만원 ⑨ 5천~1억원 ⑩ 1~2억원 ⑪ 2억원 초과

DQ12_1. 귀댁 농축산물의 주 판매처는 어디입니까?
① 도매시장 ② 산지공판장 ③ 농협, 농업법인 ④ 정부기관(공공비축 등)
⑤ 수집상(중간상인, 밭테기 등) ⑥ 친환경 농산물 전문 유통업체(생협포함)
⑦ 소비자 직접 판매(직거래) ⑧ 농축산물 가공업체 ⑨ 농축산물 소매상 ⑩ 기타(판매없음 포함)

DQ12_2. 귀댁은 농축산물 판매를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조금 있다 ④ 매우 많다

DQ12_3. 귀하는 귀댁의 농산물이 판매를 하는데, 제값을 다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DQ13. 귀댁의 작년 한해(2011년) <u>농업 이외 소득의 규모</u>는 어떠합니까?
① 거의없음 ② 120만원 미만 ③ 120~300만원 ④ 300~500만원 ⑤ 500~1천만원
⑥ 1~2천만원 ⑦ 2~3천만원 ⑧ 3~5천만원 ⑨ 5천~1억원 ⑩ 1~2억원 ⑪ 2억원 초과

DQ14. 귀댁은 향후 자녀에게 농업경영을 승계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자녀가 없음 ② 자녀가 있지만 승계하지 않겠음
③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임, 같이 살지는 않음 ④ 승계할(승계 의사가 있는) 자녀와 같이 살고 있음

DQ15.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부족하면 뒷장 이용).

♬ 이상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강혜정·마상진. 2007.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혜정. 2008.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수산식품부.

김경미. 2005.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의 문제와 대안에 관한 고찰”. 농민과 사회 통권 39호.

김경미 외. 2007.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방안 연구. 농촌진흥청.

. 2006. 여성의 농업참여 역할 확대에 따른 지원대책 연구. 농촌진흥청.

김경미·최윤지·이진영·고운미. 2004.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정책적 지원 방안”.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2): 359-369.

_____ . 2005.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평가와 제언을 중심으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2(1): 29-44.

김경미·고운미. 2005.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영농의사결정 참여 실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3): 47-64.

김복규 외. 2005. “농촌여성 소규모 사업 창업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지역사회연구」제13권 제3호. 한국지역사회학회.

김복규 외. 2006. 농촌여성중심의 소규모사업 지원체계와 활성화 전략 연구. 농촌진흥청 연구사업 제3차년도 완결보고서.

김수욱, 박은희. 2003.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현황과 육성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5권 제3호 pp. 67-85. 한국농산업교육학회.

김영옥. 2001. “여성농업인의 생산적 복지 대책”. 농촌사회 제11집 제1호. pp.175～204. 농촌사회학회.

김영옥·김이선. 2003.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수산식품부.

김영옥·이병기. 2000. “농업인구 구조변화와 여성경영주의 영농특성”. 농촌사회 제10집: 7-35.

김영옥 외. 2005.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중간평가. 농림부.

김이선. 1997. “농촌여성의 당면과제와 전망”. 농정연구포럼.

김정호. 2004. “지역농업클러스터 추진방향”, 한국농업정책학회심포지엄 주제발표.

김주숙. 1994. 한국농촌의 여성과 가족. 한울아카데미.

. 1998. “한국농촌사회의 구조변화와 여성의 역할:제3차 후속조사연구”. 대산

논총 제6집.
김진화·김원석. 2008.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지원방안 연구. 농촌진흥청.
김창길 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 KREI 농정포커스 제14호(2012.4.5)
농림수산식품부. 각연도. 농림어업 주요 통계.
농림수산식품부. 2010. 농림어업총조사.
농림부, 1999. 한국농정 50년사.
_____, 1999.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_____. 2001.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_____, 200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_____, 2005.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농림수산식품부. 200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_____. 2010. 제3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_____. 2011. 2011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농촌진흥청. 2006. 농촌여성중심의 소규모사업 지원체계와 활성화 전략연구. 제3차년도 완결보고서.
농촌진흥청. 2008. 농촌여성 소규모 가공사업 현장기술지원사업 최종결과보고서.
_____ . 2008. 농가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
_____ . 2009. 농촌여성 소규모 가공사업장 현장기술지원사업 최종결과보고서.
_____ . 2010.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발전방안 전문가 협의회 자료(2010.5.6)
농협중앙회. 1984. 농촌부녀자의 의식과 역할.
박대식·최경은. 2008. 해외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과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민선. 2000. “EC회원국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 농협조사월보. 농협중앙회.
_____. 2003. “여성농업인 경영참여 측정을 위한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농협경제연구 제30호 pp.25-44 농협대학 농협경제연구소.
_____ 외. 2006.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안). 농림부.
박상표. 2007. “‘로컬푸드 운동’에 대한 의문”. 녹색평론 통권 제92호 (2007년 1-2월호). 녹색평론사.
박석두. 2012. “농업인력과 경영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신규·정은정. 2010. “여성농민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 여성농민운동의 발전”. 농

촌사회 제20집: 89-129.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1990. 업무자료.
엄영애. 2007. 한국여성농민운동사. 나무와숲.
오미란 외. 1992. 여성농민이 조직화 방안연구, 농민문제연구소.
_____. 1993. 여성농민 조직화 방안에 관한 연구. 농민문제연구소·전남여성농민회
_____. 2009. "여성농업인 지위평등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 개선방안", 젠더법학 1호.
_____. 2010. 농어촌 취창업 여성인력 육성방안. 전남여성플라자.
_____ 외. 2010. 제3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수립연구. 농림수산식품부.
우영균·윤병선·김용우. 2009. 원주 로컬푸드 발전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우장명·윤병선. 2009.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 충북개발연구원.
윤병선. 2008. "로컬푸드 관점에서 본 농산가공산업의 활성화 방안."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2호 통권 76호. 한국산업경제학회.
임경희. 2006. 농촌지역 개발과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방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이승규·라준영. 2009. 사회적기업 가치 측정 및 평가. 함께일하는재단.
이영세·공선영·김영주·임덕규. 2004.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2003,「여성농민 정책 평가와 발전방안」,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_____. 2004,「여성농업인 정책향상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정기환. 1997. 농가 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20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_____. 2010.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에 관한 지자체 조례(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_____. 2008. "아이쿱생협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성과와 과제",「협동, 생활의 윤리: iCOOP 생협 10년사」. 푸른나무.
조관일. 2000. 우리나라 농촌여성의 역할변화에 관한 사회경제적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세훈. 2009. "로컬푸드 운동의 목표와 실천방안". 지역재단 제8차 지역리더 포럼 발표문.

최윤지·김경미·강경하·이진영. 2004.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의 사회적 편익 추정”. 농촌생활과학15(3): 29-43.

푸트남. 안청시 옮김. 2006.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통계청·서울대 산학협력단(2012). 2010 농림어업총조사 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심층분석 연구.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농업기본통계조사.

통계청. 각년도. 농가경제통계연보.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2004. 여성농업인 정책토론회 자료집(2004.11).

Emerson, J., J. Wachowicz, and S. Chun(2000),. ″Social Return on Investment: Exploring Aspects of value Creation In the Nonprofit Sector″ in REDF(2000). *Social Purpose Enterprise and Venture Philanthropy in the New Millennium: Investor Perspectives*, 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 San Francisco. Vol.2, pp.132-173.

天野寛子. 2001. 戰後日本の女性農業者の地位：男女平等の生活文化の創造へ. ドメス出版.

天野寛子. 2008. 男女共同參畵時代の女性農業者と家族. ドメス出版.

秋津元輝. 2007. “農村ジェンダー研究の動向と課題”. 農村ジェンダー――女性と地域への新しいまなざし. 昭和堂.

五條滿義. 2003. 家族経營協定の展開. 筑波書房.

川手督也. 2006. 現代の家族経營協定. 筑波書房.

原珠里. 2009. “農村女性起業の歩みと轉換　グループから個人ビジネスへ”. 農業と経濟 75(3).

연구보고서 R682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1/2차연도)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12.
발 행 2012. 12.
발행인 이 동 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크리커뮤니케이션
전화 02-2273-1775 cree1775@hanmail.net

ISBN 978-89-6013-408-9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